

연구보고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책임연구원 황여정

RESEARCH REPORT 2017

NYPI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 책임연구원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전현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문제를 비롯해,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과거 성인들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되었던 청소년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새롭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참여의 의미도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참여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전에 참여를 '체험'해보는 예비적(豫備的) 단계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 시민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의 권리이자 의무로 재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참여의 의미를 확장시켜 이해하면, 참여의 기회는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고루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청소년참여 정책인 참여기구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60~70%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 38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ICCS 2009 조사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가 광범하게 제공되지 못했고, 청소년참여 정책이 다수의 청소년들과는 유리되어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 저변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청소년참여 정책은 제한된 소수가 아니라 일반적 다수를 정책대상으로 삼고, 체험이나 이벤트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참여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데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 활성화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등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진을 비롯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는 각 단계에서 소중한 도움을 주신 현장, 학계, 정책담당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 병 국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참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여기에서 개발된 모형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영역과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 법령 및 정책 분석, 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참여의 이론적 모형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와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법령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검토하고, 그간 추진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추진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들이었고, 청소년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 활동을 이끌고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참여 활동의 종류와 형태, 참여 경로, 참여 동기 등 기본 정보, 참여 활동의 운영 방식 및 의사결정 공유 수준,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참여 관련 욕구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상술한 선행연구 검토, 법령 및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실태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개발을 위해, 일반적·다수 참여, 실질적 참여, 일상적 참여를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모형 개발의 원칙으로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참여 활동, 범용 모형의 개발, 포괄적 의미의 사회참여,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형 도출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방향과 원칙에 의거하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도출한 모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며,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청소년 주도성, 의사결정 공유, 다수의 참여, 일상적 참여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참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도 연구의 목적을 두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 내용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과 의미를 검토하고,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와 유형을 확인함. 또한 청소년참여 관련 이론적 모형을 검토하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음.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검토하고, 그간 추진된 지역사회 참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분석(case analysis)을 실시하였음. 구체적으로, 해외 사례 2개(핀란드, 미국)와 국내 사례 6개를 분석하였음.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실태 조사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해당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교사, 청소년지도자 등)를 대상으로, 경험했던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운영 방식,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 및 애로 사항, 지원 방안에 대한 수요 등을 조사하였음.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 및 정책과제 도출

- 선행연구 검토, 법령 및 정책 분석, 사례 연구, 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도출하고, 이러한 방향과 원칙을 적용해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였음.
- 개발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3. 주요결과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 시 고려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도출되었음.

- 내용 측면의 고려사항으로는 청소년 주도성, 권한의 부여(영향력의 행사 및 의사결정의 공유)가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도출되었음.
- 운영 방법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사전 교육, 적절한 관리와 지원, 인정과 보상의 제공,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도출되었음.
- 환경 측면에서는 참여 기회의 확대, 지역사회 기관 간 유기적 연계,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도출되었음.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

- 법령 분석 결과, 현행 법령에는 청소년참여의 당위성, 정부가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청소년참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음.
- 「2016년도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청소년정책사업 가운데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그 내용도 대부분 참여기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교육부에서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군산시가 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는 조례의 제정 과정에 청소년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조례의 내용도 지역 청소년들의 상시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참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등 참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결과

- 해외 사례의 경우 핀란드 헬싱키시의 「루미」 시스템과 미국의 「프로젝트 시티즌」 사업을 검토하였음.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공통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시작된 변화」,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추진되는 「몽실학교」,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 유쓰망고의 「유스벤처」, 그리고 그 밖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 장면에서 적용된 지역사회 참여 사례를 검토하였음.
- 사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도출하였음.
 -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들이었고, 개인보다 팀별 활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대부분 문제해결을 전제하는 4단계 혹은 5단계의 참여 방법을 강조하고 있었음. 사례별로 구체적인 명칭은 다르지만, 대체로 지역사회 문제 발견→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조사→대안 제시→실천하기→공유하기 등의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청소년의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었음.
 -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 활동을 이끌고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자치조직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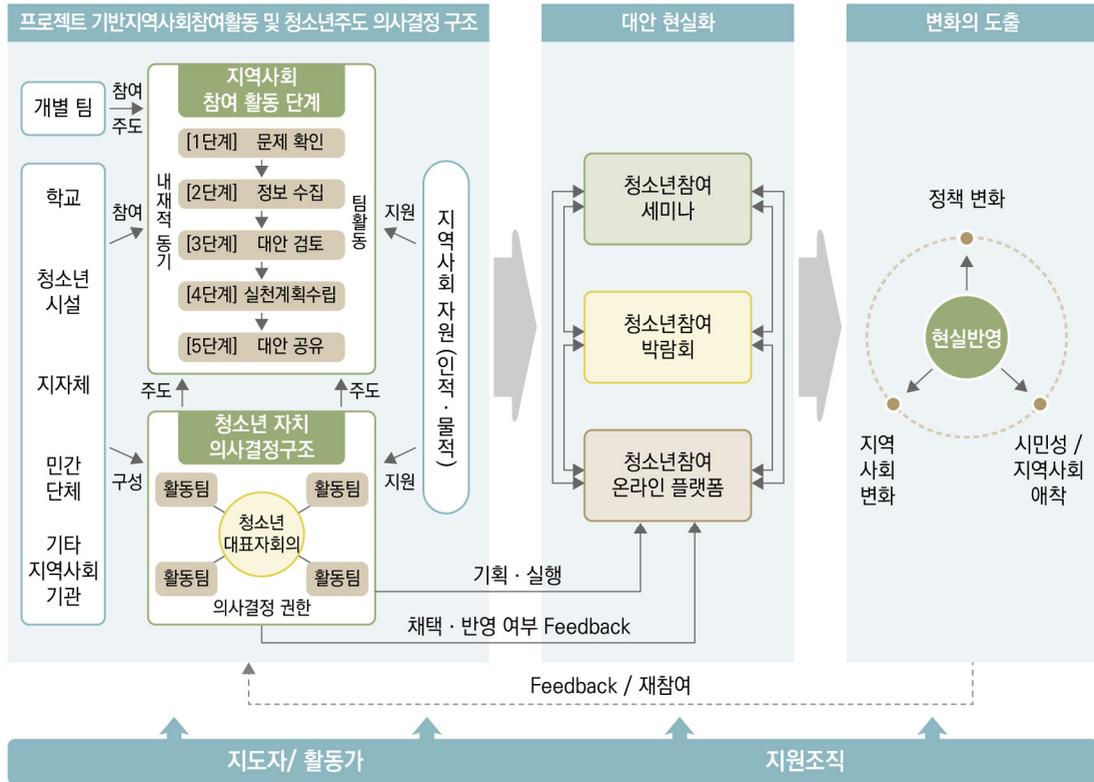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실태조사 결과

-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관련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청소년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시민성, 지역사회 애착,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 등을 함양하고,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갖는 데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내재적 동기를 갖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여기에서 확인된 결과는 기본실태분석과 심층분석에서 모두 일관되게 청소년들이 내재적 동기가 아닌 외재적 동기, 특히 타인의 권유로 참여 활동에 참가한 경우, 그 효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은 참여할 시간의 확보 문제였음. 이러한 어려움은 현장 전문가들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실제로 심층분석에서도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향후 개발될 지역사회 참여 모형에서는 청소년들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전 교육, 체계적인 활동 내용, 그리고 청소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필수적 요소로 도출되었음. 특히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성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청소년은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로 머무르는 활동에서는 일관되게 그 성과가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활동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운영을 비롯해 주요 의사결정이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함.

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

- 선행연구 검토, 법령 및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실태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①일반적·다수 참여, ②실질적 참여, ③일상적 참여를 도출하였음.

- 그리고 모형 개발의 원칙으로는 ①청소년 주도 의사결정, ②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참여 활동, ③범용 모형의 개발, ④포괄적 의미의 사회참여, ⑤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형을 도출하였음.
- 이러한 개발 방향과 원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였음.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4. 정책제언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강화

-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사회참여활동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을 개정하며,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확산되어야 함을 제언하였음.
- 법정 계획에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 정책이 확산되도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및 인성교육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2)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을 통한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 전환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인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운영 개선을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음.
- 기존에 참여기구에 편중되어 있던 참여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 정책사업 평가에서 참여기구 이외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변화 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청소년활동 및 참여'부문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촉진하는 정책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으로, 교육과정(curriculum)을 근거로 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또한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정 및 보상 등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영역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실질적 영향력 강화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형식적 참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청소년참여세미나(가칭)와 청소년참여박람회(가칭) 도입·운영 방안을 제안하였음.

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지도자 및 교원 등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음.
- 또한, 청소년참여-청년참여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이끌 청년활동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개방성을 극대화 하면서 보편적·상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기제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p style="text-align: center;">1</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강화</p>	<p>1-1.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p> <p>1-1-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사회참여 활동 관련 내용 반영 1-1-2.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1-1-3. 청소년 참여정책의 법적 근거 정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 1-1-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개정 1-1-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확산</p> <p>1-2. 법정 정책계획 반영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 확산</p> <p>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반영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1-2-2. 인성교육기본계획에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내용 반영</p>
<p style="text-align: center;">2</p> <p style="text-align: center;">기존 정책의 수정·보완을 통한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 전환</p>	<p>2-1.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 참여분야」 운영 개선</p> <p>2-1-1.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 참여분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2-1-2.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 참여분야」 확대 운영 방안</p> <p>2-2. 정책사업 평가를 통한 현장의 변화 견인</p> <p>2-2-1.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변화 사업 내용 반영 2-2-2.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청소년활동 및 참여' 부문 산정 기준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3</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p>	<p>3-1. 교육과정(curriculum)을 근거로 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p> <p>3-1-1. 학교 수업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활성화 3-1-2. 학교 수업 외 교육과정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p> <p>3-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부문 제도적 지원</p> <p>3-2-1.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3-2-2.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정 및 보상</p>
<p style="text-align: center;">4</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실질적 영향력 강화</p>	<p>4-1. 청소년이 제안한 대안의 현실 반영 기제 강화</p> <p>4-1-1. 지자체별 청소년참여세미나 제도 운영 4-1-2. 지자체별 청소년참여박람회 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5</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p>	<p>5-1. 현장 전문가 대상 전문성 강화 지원</p> <p>5-1-1. 청소년지도자 대상 연수 실시 5-1-2. 교원 대상 연수 실시</p> <p>5-2. 청소년참여-청년참여 간 선순환 구조의 확립</p> <p>5-2-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가 양성</p> <p>5-3. 청소년지역사회 참여의 보편화 일상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이용</p> <p>5-3-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보편화·일상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이용</p>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제]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용어의 정의	5
3. 연구내용	6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선행연구 고찰	6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7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7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실태 조사	8
5)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	8
6)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9
4. 연구방법	10
1) 문헌연구	10
2) 전문가 자문	10
3) 사례 분석	11
4) 설문 조사 자료 분석	11
5) 질적 조사 : 면담조사 및 FGI	11
6) 관계부처와의 협의	12
5. 연구추진체계	12
II. 이론적 배경	15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개념적 이해	17
1)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본질	17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과 의의	19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와 유형	21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범위에 관한 주요 논의들	21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유형	24

3. 청소년참여에 관한 이론적 모형들	26
1) 단계적 계층화 모형	27
2) 비계층적 연속형 모형	29
3) 절충형 모형	32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를 위한 고려 사항	33
1) 내용 측면의 고려 사항	33
2) 운영 측면의 고려 사항	35
3) 환경 측면의 고려 사항	37
5. 청소년 사회참여의 현 주소	40
1) 청소년 사회참여 수준	40
2) 청소년 사회참여의 장애 요인	44
6. 요약 및 시사점	47

Ⅲ.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 환경 분석 49

1. 분석의 개요	51
1) 법령 분석의 개요	51
2) 정책 분석의 개요	53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분석	54
1)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54
2)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56
3)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58
4) 법령 위임 조례	59
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특화 조례	61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 분석	66
1) 지역사회 참여 관점에서 본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66
2)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79

3)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80
4)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82
5) 교육정책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 경기도교육청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87
4. 요약 및 시사점	94

IV.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 분석 97

1. 사례 분석의 개요	99
1) 사례 분석의 목적	99
2) 사례 선정의 기준	100
3) 사례 조사를 위한 전문가 면담	103
2. 청소년시설 중심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작된 변화」	104
1) 개요 및 배경	104
2) 주요 내용	105
3) 성과 및 시사점	111
3.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112
1) 개요 및 배경	112
2) 주요 내용	113
3) 성과 및 시사점	121
4. 핀란드 청소년 사회참여 시스템 「루띠(Ruuti)」	122
1) 개요 및 배경	122
2) 주요 내용	124
3) 성과 및 시사점	130
5. 교과 내용에 반영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 사례	132
1) 개요 및 배경	132

2) 주요 내용	133
3) 성과 및 시사점	138
6.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모형	
「Project Citizen」	140
1) 개요 및 배경	140
2) 주요 내용	141
3) 국내 적용 사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추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147
4) 성과 및 시사점	150
7.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몽실학교」	152
1) 개요 및 배경	152
2) 주요 내용	154
3) 성과 및 시사점	160
8.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플랫폼,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162
1) 개요 및 배경	162
2) 주요 내용	163
3) 성과 및 시사점	172
9.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유스벤처(Youth Venture)」	175
1) 개요 및 배경	175
2) 주요 내용	176
3) 주요 사례	179
4) 성과 및 시사점	180
10. 요약 및 시사점	182

V.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 분석	189
1. 조사 개요	191
1) 조사 대상	191
2)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 개발	191
3) 표본의 구성	199
4) 분석 결과의 구성	201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
1) 지역사회 참여 경험	202
2)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운영 방식	206
3)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애로사항	212
4)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성과	221
5)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 의사	231
6)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236
3.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237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경험	237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실태	238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239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241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탐색을 위한 심층 분석	242
1) 심층 분석 개요	242
2) 분석 결과	249
5. 요약 및 시사점	259
VI.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개발	265
1.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과 원칙	267
1)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	267

2) 모형 개발의 원칙	268
2. 모형 도출의 구체적 근거	272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도출	275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상세화 및 운영 방안	278
1) 프로젝트 기반 지역사회 참여 활동 및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 구조 운영 방안	278
2) 대안 현실화 장치의 운영 방안	282
3) 변화의 도출	284
4) 성인 지도자의 역할	284
5) 참여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 방안	285
Ⅶ.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287
1. 정책제언의 개요	289
2. 정책과제	291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강화	291
2)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을 통한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 전환	300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307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실질적 영향력 강화	314
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318
참고문헌	329
부 록	341
1. 청소년용 설문지	343
2. 현장 전문가용 설문지	354

표 목차

〈표 I-1〉 전문가 자문 내용	10
〈표 I-2〉 면담조사 및 FGI의 실시 개요	11
〈표 II-1〉 청소년참여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핵심 요소	18
〈표 II-2〉 Checkoway의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유형 분류	25
〈표 II-3〉 청소년참여로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온 마을만들기 사업의 다양한 유형들	26
〈표 II-4〉 입문형·실전형 사회참여 프로그램 구성 안	38
〈표 III-1〉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 현황(2016년)	69
〈표 III-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 현황(2016년)	72
〈표 III-3〉 청소년참여기구의 주요 기능 및 지역사회 참여 관련성	79
〈표 III-4〉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 부문 세부 분야별 주요 활동 내용	82
〈표 III-5〉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심사기준	84
〈표 III-6〉 2017년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참여분야’ 선정 사업	84
〈표 III-7〉 경기꿈의학교 정의 및 추진 개요	90
〈표 III-8〉 2015-2016년도 경기꿈의학교 유형별 현황	90
〈표 III-9〉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 오리엔테이션 ‘쇼미더스쿨’ 주요 프로그램	91
〈표 IV-1〉 전문가 면담조사 주요 내용	104
〈표 IV-2〉 2016년 ‘시작된 변화’를 통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프로젝트 내용	107
〈표 IV-3〉 2016년 ‘시작된 변화’ SEED동아리의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주요 내용	110
〈표 IV-4〉 제1대 금천구 청소년마을정부 구성	116
〈표 IV-5〉 꿈지락네트워크 운영 자치구별 청소년의회 비교	120

〈표 IV-6〉 ‘지역 이해’ 과목을 활용한 안산 W고등학교 지역사회 참여 사례 주요 내용	137
〈표 IV-7〉 프로젝트 시티즌 참여 주체별 역할	143
〈표 IV-8〉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주요 사례	150
〈표 IV-9〉 꿈이룸학교 2015년 마을 프로젝트 내용	156
〈표 IV-10〉 꿈이룸학교 2016년 상반기 마을 프로젝트 내용	157
〈표 IV-11〉 2017 몽실(夢寔) 정책 마켓 프로그램 개요(안)	159
〈표 IV-12〉 2017년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회 조직	164
〈표 IV-13〉 2016년 청소년 참여포럼을 통해 군산시에 제안된 정책대안 내용	167
〈표 IV-14〉 이천 Y여고 ‘행복한 동물원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 사례 주요 내용	179
〈표 IV-1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84
〈표 V-1〉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193
〈표 V-2〉 설문 문항 개발의 근거	196
〈표 V-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0
〈표 V-4〉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형태	204
〈표 V-5〉 어른들이 정해 놓은 대로 해야 해서 청소년 의견반영이 어렵다	209
〈표 V-6〉 의사결정 방식	211
〈표 V-7〉 참여 활동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어려움	213
〈표 V-8〉 활동 내용이 엉성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음	214
〈표 V-9〉 참여 청소년 사이의 의견 조정의 어려움	215
〈표 V-10〉 성인들과 청소년 간 의견 조정의 어려움	216
〈표 V-11〉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217
〈표 V-12〉 공부 때문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218

〈표 VI-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도출의 구체적 근거	272
〈표 VI-2〉 프로젝트 기반 지역사회 참여활동 단계별 운영 방안	280
〈표 VII-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	293
〈표 VII-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294
〈표 VII-3〉 청소년 참여정책 법적근거 정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295
〈표 VII-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개정안	296
〈표 VII-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기본계획 (2016~2020) 개정안	300
〈표 VII-6〉 2017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일정	302
〈표 VII-7〉 학교 수업에 적용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10주차 수업(안)	309
〈표 VII-8〉 학교 자율동아리를 활용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안)	310
〈표 VII-9〉 2017년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연간일정	320
〈표 VII-10〉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327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추진 체계	13
【그림 II-1】 청소년참여의 본질적 요소	19
【그림 II-2】 지역사회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간 상호작용 및 선순환 관계	21
【그림 II-3】 체코웨이의 청소년참여의 8단계	28
【그림 II-4】 하트의 참여의 사다리	29
【그림 II-5】 청소년참여의 연속체	30
【그림 II-6】 Fletcher와 Vavrus의 청소년참여 5단계 순환모형	31
【그림 II-7】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스펙트럼	31
【그림 II-8】 청소년참여 유형화의 대안 모델: 참여수준-형태별 연속체	32
【그림 II-9】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 보장 수준 (연도별 추이)	41
【그림 II-10】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학교급별 비교)	42
【그림 II-11】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연도별 추이)	43
【그림 II-1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연도별 추이)	44
【그림 II-13】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참여가 어려운 이유(연도별 추이)	45
【그림 II-14】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참여가 어려운 이유(학교급별 비교)	46
【그림 II-1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를 위한 고려 사항	48
【그림 III-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분석 대상	52
【그림 III-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청소년정책시행계획 분석 틀	67
【그림 III-4】 경기꿈의학교 가치 체계	89
【그림 III-5】 「경기꿈의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체계 및 기능	92
【그림 IV-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선정 기준	101
【그림 IV-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대상	103
【그림 IV-3】 노원구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시작된 변화’ 활동의 4단계	106

【그림 IV-4】 제2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정당	115
【그림 IV-5】 금천구 청소년의회 의사결정 구조	117
【그림 IV-6】 청소년의회의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 심의·의결권한 보장을 위한 협약서	118
【그림 IV-7】 핀란드 루띠 시스템의 목표	123
【그림 IV-8】 루띠 엑스포 개최 사례	127
【그림 IV-9】 빠따야미띠 개최 사례	127
【그림 IV-10】 루띠넷 홈페이지 운영 화면	129
【그림 IV-11】 루띠 시스템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130
【그림 IV-12】 현행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 중 지역사회 참여 관련 단원	133
【그림 IV-13】 학교안전지도 운영 모형 및 결과물	134
【그림 IV-14】 버지니아주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 담당 코디네이터 분포 및 명단	142
【그림 IV-15】 프로젝트 시티즌 5단계 진행 절차	144
【그림 IV-16】 프로젝트 시티즌 포트폴리오 발표를 위한 역할 구분	146
【그림 IV-17】 청소년 사회참여 4단계 방법	148
【그림 IV-18】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참여 방법	149
【그림 IV-19】 꿈이룸학교 마을 프로젝트 진행 절차	155
【그림 IV-20】 청소년참여포럼 워크북	170
【그림 IV-21】 군산시 청소년참여포럼 정책제안 반영사항 알림 공문	170
【그림 IV-22】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사회참여 과정	172
【그림 IV-23】 달그락달그락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의 구성	174
【그림 IV-24】 유스벤처 프로그램 운영 절차	178
【그림 V-1】 설문 개발 절차	192
【그림 V-2】 설문지 초안의 내용 구성(청소년용 기준)	193

【그림 V-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할당 틀	199
【그림 V-4】 실태조사 결과 분석의 구성과 흐름	201
【그림 V-5】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생애경험 및 최근 경험)	203
【그림 V-6】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형태	203
【그림 V-7】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된 경로(중복응답)	205
【그림 V-8】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된 이유(중복응답)	206
【그림 V-9】 사전교육 경험률	207
【그림 V-10】 사전교육 도움 정도 평균 비교	207
【그림 V-11】 청소년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조직이나 기구 존재 유무	208
【그림 V-12】 의사결정 방식	210
【그림 V-13】 청소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	212
【그림 V-14】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애로사항	220
【그림 V-15】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통한 변화 긍정	229
【그림 V-16】 지역사회 참여 내용에 대한 수요(1순위 및 중복응답)	234
【그림 V-17】 지역사회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235
【그림 V-18】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1순위 및 중복응답)	236
【그림 V-19】 사업내용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경험	237
【그림 V-20】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실태	239
【그림 V-2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240
【그림 V-2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중복응답)	241
【그림 V-23】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성과 및 지속적인 참여 의사 영향요인 탐색을 위한 분석모형의 단계별 구성	249

【그림 V-24】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단계별 구성 요소	263
【그림 VI-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과 원칙	271
【그림 VI-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277
【그림 VI-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모형의 상세화: (1) 프로젝트 기반 참여활동 모형	279
【그림 VI-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모형의 상세화: (2) 청소년 자치 의사결정 구조	281
【그림 VI-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모형의 상세화: (3) 대안 현실화 장치	282
【그림 VI-6】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단계별 운영 방안	286
【그림 VII-1】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구조도	290
【그림 VII-2】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과정	298
【그림 VII-3】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사업확대 전략 및 기대효과	304
【그림 VII-4】 학교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의 다양한 경로	311
【그림 VII-5】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와 연계한 청소년참여박람회(특별세션) 개최(안)	317
【그림 VII-6】 청소년참여박람회(가칭) 도입 계획(안)	318
【그림 VII-7】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한 청소년참여-청년참여 간 순순환 구조	323
【그림 VII-8】 청소년참여포탈 정책제안 게시판 운영 화면	324
【그림 VII-9】 청소년참여포탈 내 청소년정책제안 게시판 운영 절차	325

제 I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추진체계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과거 성인들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되었던 청소년은 이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직접 제안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간주된다(윤민중·정은진·정건희, 2016). UN,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청소년이 우수한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사회발전에 책임을 지는 사회구성원이자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최창욱·전명기, 2013: 3).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청소년의 기본 권리로 보장할 것을 국제적 규범으로 제정하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윤민중·정은진·정건희, 2016: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서 ‘참여’를 규정하고, 이를 생존, 보호, 발달과 함께 마땅히 누려야 할 4대 권리(김영지 외, 2016: 3)로 천명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최창욱 외, 2016: 29). 본격적으로 청소년참여가 정책화되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시행된 1998년 이후로 볼 수 있다(최창욱·전명기, 2013: 3). 이후 2003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참여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정립하고, 청소년참여를 청소년 육성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천명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조혜영·최창욱, 2008; 윤민중·정은진·정건희, 2016: 3에서 재인용),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예산제 등 청소년참여 정책을 속속 도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정책, 사업에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였다.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38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ICCS 2009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조사 결과는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ICCS 2009에 포함된 사회적 참여 범주 중 ‘지역사회 시민참여’에 관한 7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비교 결과, 전세계 평균을 50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 청소년의 평균 점수는 42.48점에 그쳐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태준·오민아·이은경, 2015: 324). 또한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8,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대표적인 청소년참여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60~70%로 다수를 차지해(최창욱·문호영·김정주, 2016: 100-102), 청소년참여 정책이 다수의 청소년들과 유리되어 있음을 방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청소년참여는 ‘제한된 소수’가 아닌 ‘일반적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벤트’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참여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가치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는 일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일컫는 개념이지만, 물리적 공간이 지역사회를 규정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는 공간적 개념 외에,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상호작용을 구성요소로 갖는(홍정희, 2016: 8)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 즉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청소년참여의 주된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면, 참여는 특정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 삶으로 환원될 수 있다. 또한 참여 공간이 청소년 주변의 생활공간으로 대폭 확대되는 만큼, 특별히 선정된 소수에게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지역사회는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매개체이자 참여의 장(場)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청소년의 성장·발달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상보적(相補的) 관계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데(홍정희, 2016: 50), 그로 인해 지역 내 사회자본이 강화되는

이차적 효과가 파생된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천정웅, 2014: 202). 나아가 어린 시절의 참여 경험은 성인이 되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지역사회 참여 경험은 그 사회의 시민성 함양과 시민참여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김태준·오민아·이은경, 2015: 326).

국내에서도 현재 제한적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청소년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변화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2016년 50개 팀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성가족부, 2016c). 지자체 차원에서도 ‘참여’를 강조하는 흐름과, 마을만들기 등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흐름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도처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산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확산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참여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장을 지원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참여¹⁾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선행연구의 개념정의와 핵심 요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청소년참여란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도출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 청소년 사회참여

청소년참여가 이론적·현실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면, 청소년 사회참여는 현실적 의미가 보다 강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사회참여란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을 추구해가는 사회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상술한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정의를 준용하여, 본 연구에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해가는 사회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면, 지역사회 안에 위치한 학교 자치 문제도 지역사회 참여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자치는 그 자체로 이미 확립된 별도의 전달체계와 운영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특성과 내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학생회 등 '학교자치'의 영역은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서 제외하였다.

1) 청소년참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는 본 연구보고서 제III장 1절에 제시하였다.

3. 연구내용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①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과 의미를 검토하여, 모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본질적 요소를 추출하였다. 또한 ②지역사회 참여의 범위와 유형을 확인하고, ③그간 논의된 청소년참여 관련 이론적 모형들을 정리한 후, ④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요소들은 추후 모형 설계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1) 법령 분석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환경을 진단하기 위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이 포함되었다.

(2) 정책 분석

정책 분석은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하여, 청소년참여기구 정책, 여성가족부 추진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이 만드는 경기꿈의학교」 등을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은 사업내용, 사업유형, 권한의 부여, 전달체계 등 4가지 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 추진 과정에서 사례 분석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모형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과 더불어 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실무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에는 해외 사례의 경우, 핀란드 헬싱키시의 「루띠」 시스템과 미국의 「프로젝트 시티즌」 사업을 검토하였다.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공통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시작된 변화」,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추진되는 「몽실학교」,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 민간단체인 유쓰망고가 운영하는 「유스벤처」, 그리고 그 밖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 장면에서 적용된 지역사회 참여 사례를 검토하였다.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실태 조사

(1)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현장에서 적용할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참여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확인하는 ‘진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경험해 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경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 경험했던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 및 애로 사항, 지원 방안에 대한 수요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산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작동하는 조건에 대한 심층분석(OLS 분석, Logit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사업)의 운영 방식 및 운영 환경,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애로 사항,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육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해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5)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

선행연구 검토, 법령 및 정책 분석, 사례 연구, 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도출하고, 이러한 방향과 원칙을 적용해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6)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관련 이론적 배경 검토, 청소년 참여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점검,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의 구성 요소 도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및 정책 환경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수집,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설문도구 개발 등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 참여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견지해야 할 기본 방향과 관점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기본 방향과 관점을 근거로 국내외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유사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의 조사 도구 수집 및 검토를 통해 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대상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의 방향 및 구성요소 설정, 설문도구 개발, 유형별 맞춤형 모형 개발 및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학계 전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경험을 보유한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 내용은 연구 진행 방향 설정 관련, 정책 동향, 국내외 사례 및 운영 실태 파악,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내용 선정, 모형 개발의 방향 및 구성요소 설정, 모형 개발 및 지원방안 도출 등에 활용되었다. 전문가 자문회의의 활용성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전문가 자문 내용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연구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경기도교육연구원 등)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한 현장 실무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여성가족부, 경기도교육청 등)
국내외 정책동향 및 우수 사례 파악	
설문조사 문항 검토	
모형 개발의 방향 및 구성요소 설정	
모형 개발(안) 및 정책제안의 타당성 검토	

3) 사례 분석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사례 분석(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성과, 한계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설문 조사 자료 분석

양적 연구는 청소년 대상 조사와 전문가 대상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는 2017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경험, 참여 동기, 경험했던 참여 활동의 운영 방식, 참여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애로 사항, 지원 방안에 대한 수요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는 사업의 운영 방식 및 운영 환경,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애로 사항,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육구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은 χ^2 검증, t-test, F-test 등 기본적인 실태분석 외에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운영 조건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구명하기 위한 OLS 회귀분석과 Logit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5) 질적 조사 : 면담조사 및 FGI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자, 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FGI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와 FGI 내용은 사례 분석 결과에 적절히 반영되었으며, 모형 도출 및 정책과제 도출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면담조사 및 FGI의 실시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1-2 면담조사 및 FGI의 실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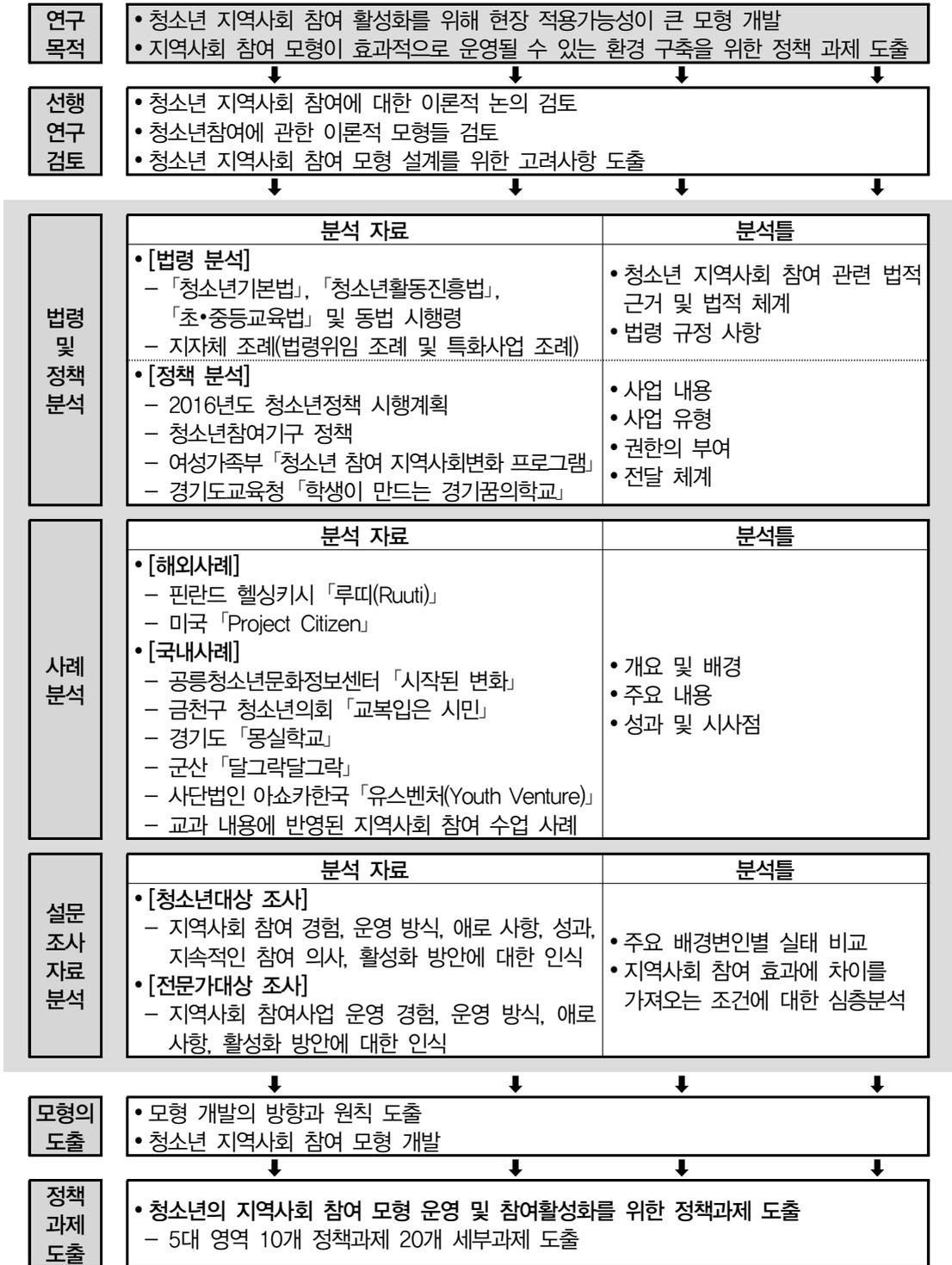
주요 요소	내 용
참여자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례조사 수집 과정에서 파악된 사례 관련, 현장 실무자 접촉 및 섭외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접촉 및 섭외
연구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0명
연구참여자 특성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 공무원 4인 • 학교에 적용된 지역사회 참여활동 사례 관련, 교원 4인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 운영 유경험 실무자(청소년시설, 민간단체 등) 5인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7인
면담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구조화된 집단 면담 • FGI 형식으로 소집단 면담 진행
면담 시간 및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당 1~2시간 내외 • 각 집단별 1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취 후 전사

6) 관계부처와의 협의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협의를 실시하였다. 협의의 목적은 연구 초·중반에는 연구 방향 수립, 정책 추진의 성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파악에 중점을 두었고, 연구의 후반부에는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과제(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연구추진체계

상술한 연구내용 및 방법, 체계를 반영한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개념적 이해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와
유형
3. 청소년참여에 관한 이론적 모형들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를 위한 고려 사항
5. 청소년 사회참여의 현 주소
6. 요약 및 시사점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본질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청소년참여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방향과 가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참여(participation)는 활동에의 개입, 즉 어떤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하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과정을 지칭한다(천정웅, 2011: 29). 이러한 참여의 개념은 학문 분야별로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윤민중·정은진·정건희, 2016: 18). 예컨대 정치학에서는 유권자의 참여활동을, 경제학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결과적 이익을, 행정학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입을 강조한다(천정웅, 1998; 윤민중·정은진·정건희, 2016: 18에서 재인용).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참여는 UN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한 4가지 인권 중 하나에 속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 더불어 참여권을 필수적인 인권의 하나로 간주했는데, 이때 참여권은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최창욱·김승경, 2010: 11).

한편, Hart(1997)는 '참여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천정웅, 2014: 75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하였고, Winter(1997)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Checkoway(1998)는 '참여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하였고, 천정웅(2011: 30)은 청소년참여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학자들이 제시한 청소년참여의 개념을 개괄하고, 그로부터 공통된 요소를 도출한 내용이 <표 II-1>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1 청소년참여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핵심 요소

구분	청소년참여 개념 정의	핵심 요소(키워드)
Hart(1997)	•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	• 영향력의 발휘 • 의사결정의 공유
Winter(1997)	•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	• 능동성 • 참여의 영역으로 생활 환경 강조
Checkoway(1998)	•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	• 영향력의 발휘 • 의사결정에의 개입
천정웅(2011)	• 자신들의 삶과 지역공동체, 넓게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 영향력의 행사 • 의사결정과정에 관여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청소년참여를 정의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영향력의 발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단순히 일반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참여로 보기 어렵다(천정웅, 2011: 30). 이와 관련하여 최창욱·전명기(2013) 역시 청소년참여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은 능동성, 변화의 도출, 의사결정과정의 공유의 3가지라고 정리한 바 있다(최창욱·전명기, 2013: 9). 여기에서 능동성은 참여가 타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보다는 청소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영향력의 행사를 통한 변화의 도출은 참여를 통해 실제로 자기 자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 시설에 실제적인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참여는 주로 의사결정의 공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최창욱·전명기, 2013: 9).

상술한 개념적 인식은 지금까지 청소년의 삶과 연계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청소년과 유리되어 이루어 졌다는 데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천정웅, 2014: 75). 청소년정책과 같이 청소년들의 삶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이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권한을 청소년이 갖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참여의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김정주, 1999; 천정웅, 2014: 75에서 재인용). 바로 이러한 연유로 정진희(2013)는 청소년참여는 의사결정에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청소년의 견해를 구하는 ‘자문’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림 II-1]에는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참여의 본질적 요소를 압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도출해가는 것을 청소년참여의 본질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림 II-1】 청소년참여의 본질적 요소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과 의의

지역사회는 자신이 거주하는 일정 지역의 공간으로, 시설이나 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 애착심 같은 심리적 유대감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일컫는다(천정웅, 2011).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적 공간(area), 공통된 유대감(common tie),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과 같은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홍정희, 2016: 8).

이 같은 개념정의를 적용해 보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의 본질이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최창욱·김승경, 2013: 13),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청소년참여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지역사회야말로 청소년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장(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김정주·길은배·정화수(1999:

28)는 지역중심의 참여는 청소년들이 생활거점이며 관습과 태도, 가치관을 길러주는 실천적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참여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경준·박정배, 2004; 강현아 외, 2006; 이채식·박은식, 2007: 399에서 재인용). 청소년들은 지역사회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태도를 함양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게 된다(이장현, 2002: 32; 홍정희, 2016: 9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유로 홍정희(2016: 51)는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삶의 터전이므로, 청소년 참여를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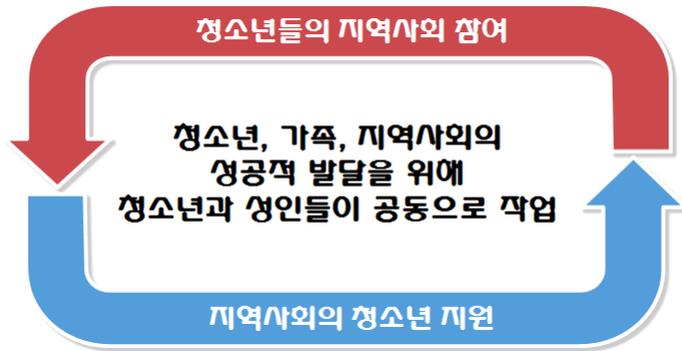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참여가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애착을 갖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홍정희(2016)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참여활동의 토대로 인식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청소년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심리적 유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홍정희, 2016: 50).

아울러, 청소년기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은 사회구성원들의 시민성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전반적인 시민참여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소년의 시민·사회적 참여는 이후의 생애 기간에도 시민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e.g. Fredricks & Eccles, 2006; Galston, 2001; 김태준·오민아·이은경, 2015: 326에서 재인용).

유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비참여(disengagement)가 상당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효용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주장도 눈여겨 볼 직하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고,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큰 반면,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노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고 강조한다(천정웅, 2014: 203).

상술한 결과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간에 ‘참여’를 매개로 상보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즉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청소년도 성장하지만, 청소년들을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기보다는 성인들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반자적 존재로 인정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도 구성원들 간 유대가 강화되고 시민적 관여가 제고됨으로써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ittman(2000)은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원 간에 [그림 II-2]와 같은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출처: Pittman(2000), 김현철 외(2012: 26), [그림 II-9]에서 재인용.

【그림 II-2】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간 상호작용 및 선순환 관계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와 유형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범위에 관한 주요 논의들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포괄하는 범위를 가늠하기 위해,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범위와 유형을 개괄해보도록 하겠다.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논의는 무척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먼저, 가장 협의로는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을 참여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선거권 혹은 투표권의 행사를 참여로 간주한다. 이 보다는 좀 더 확장된 시각에서 청소년참여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주·길은배·정화수(1999)는 천정웅(1998)이 제시한 청소년참여의 5가지 범위(또래중심 참여, 지역중심 참여, 정책과정 참여, 단체자율 참여, 사이버 참여)를 소개하면서, 이 중에서 정책과정 참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의 청소년정책이나 행정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천적인 청소년참여 활동의 영역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영인(2007)은 청소년참여는 일반 청소년들이 공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고 보고,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공적영역에 집중하였다(홍정희, 2016: 14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공적 영역은 국가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적 영역의 참여는 정책참여, 선거참여, 정책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집회와 시위 등과 같은 정치참여를 의미하며, 사회적 영역의 참여는 봉사활동,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참여, 수련시설 운영참여 등과 같은 사회참여를 의미한다(김영인, 2007; 홍정희, 2016: 14에서 재인용).

상술한 입장들은 그 수준과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참여의 핵심이 공적 영역, 정책적 영역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주지하는 것처럼 청소년이 공적 영역, 정책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무척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협의의 관점은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홍정희, 2016: 14).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천정웅(1998)은 청소년참여 영역을 또래중심 참여, 지역중심 참여, 정책과정 참여, 단체자율 참여, 사이버 참여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에서 재인용). 또래중심 참여는 또래중심의 자생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또래상담, 또래중심의 자율법정활동과 같은 또래 간 상호작용 중심의 활동을 일컫는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28). 지역중심 참여는 청소년들의 생활거점이며 관습과 태도, 가치관을 길러주는 실천적 현장인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데 여기에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활동이 포함된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29).

정책과정 참여는 각종 위원회 참여, 정책모니터단 등의 형태로 발현되는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권한을 어느 정도 갖는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29). 그런데 정책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을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곧 청소년참여라고 오인하는 것은 대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O'Donoghue et al, 2003; 천정웅, 2011: 44). 이러한 방식의 정책참여도 청소년참여의 주요 유형에 해당하지만, 자칫할 경우 청소년은 표면적인 장식물에 지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천정웅, 2011: 44). 한편, 단체자율참여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 조직적·집단지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이버 참여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29).

또한 이채식·박은식(2007: 397)은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일상적 문제에 대한 참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여기에서 일상적 문제에 대한 참여는 이웃과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일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참여는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방식을 뜻하며, 정치참여는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방식을 지칭한다(이채식·박은식, 2007: 397).

그런데 보다 최근에는 청소년참여의 영역을 좀 더 광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e.g. 홍정희, 2016; 우성희·허보나, 2016). 이와 관련하여 홍정희(2016: 14)는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것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 안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자발적으로 이에 동참하는 것까지도 청소년 참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우성희·허보나(2016)가 정리한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운영 결과에서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일련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 참여로 간주함으로써,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무척 넓게 해석하였다.

한편,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은 ‘학교’이다. 거시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안에는 가족, 또래, 학교 등 다양한 미시적 공간들이 공존하고 있다(홍정희, 2016: 4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소년참여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공적 영역, 정책 영역에 대한 참여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로 인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참여기구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전달체계나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기존의 청소년시설 중심의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다수 청소년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이며,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학교’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잠재력을 지닌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청소년기 교육은 학교가 전담하고 교육을 제외한 여타 활동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점차 이러한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학교도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도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백병부 외, 2016: 3). 지역사회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하고 학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분담할 때, 청소년들의 인지적·정의적 성취도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Gittell and Vidal, 1998; Shirley, 1997; 백병부 외, 2016: 4에서 재인용).

또한 청소년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확산되지 못한 것도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못했던 소이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병부 외(2016: 5)는 학교는 지역사회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섬처럼 분리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가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왔던 것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밀착하기 어렵고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 및 그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중요한 전달체계의 하나로 인식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참여의 바람직한 사례를 발굴하고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청소년참여의 외연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유형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참여 활동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분류하고 유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참여를 주도하는 주체가 정부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정부 주도’와 ‘비정부기관 주도’로 구분하기도 하고, 참여활동과 조직 구성, 운영 측면에서 ‘제도화 된 참여’와 ‘비제도화 된 참여’로 구분할 수도 있다(김형주 외, 2003; 조혜영·최창욱, 2008; 정건희, 2013: 13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Checkoway(1998)는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유형을 청소년운동집단, 청소년개발 기관, 근린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사업, 근린지역사회 개발조직, 시민운동집단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31에서 재인용). <표 II-2>에는 그 내용이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II-2 Checkoway의 지역사회 청소년참여 유형 분류

유형 구분	내용
① 자생적 청소년조직 (youth action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자신들을 조직화하는 과정 • 이 같은 자생적 청소년조직을 통해 청소년은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서비스를 제공 • 예시: 자생적인 동아리 활동
② 청소년 개발 조직 (youth development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긍정적 발달을 경험하도록 돕는 조직체(예: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 등)를 통한 참여 • 청소년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원으로 인식하는 관점→프로그램의 '수혜자'로서의 청소년이 아니라 나름 대로의 역할을 지닌 주체로 인식 • 예시: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청소년 대표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③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사업 (neighborhood-based youth initia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프로그램 • 교육, 고용, 서비스를 조합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청소년자신도 변화하는 데 목적을 둠 • 예시: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청소년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
④ 지역사회 개발 조직 (neighborhood development 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수준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적용 해가는 과정 • 주로 주택재개발, 경제개발, 물리적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에 적용되는데, 대체로 청소년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는 소홀(청소년들은 단지 거주자로 인식되는 경향)
⑤ 시민 운동 (citizen a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수준에서 보다 강력한 시민 조직을 형성하여 변화를 도모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주로 성인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됨

출처: 김정주·길은배·정화수(1999), pp.31-36내용을 표로 요약하였음.

한편 우성희·허보나(2016)는 지역사회에 변화를 야기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다양한 형태들을 주체별로 나누어, 마을의 노력, 대안교육의 흐름, 교사의 노력, 청소년기관의 변화, 민간의 노력, 새로운 섹터의 등장,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등 7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온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선별하여 유형별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3 청소년참여로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온 마을만들기 사업의 다양한 유형들

주체	내용
① 교사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들의 노력으로 공교육 안에서 수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시도하거나, 방과 후 또는 토요일 수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사례 개별 교사의 노력이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다른 교사나 학교의 변화로 확산되기도 함
② 청소년기관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참여하여 인근 주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 예시: 서울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 '시작된 변화', 은평구 '신나는애프터센터',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사회참여활동 사례 등
③ 민간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민간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 예시: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 달그락'
④ 새로운 섹터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진로탐색,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함양, 농업교육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활동하는 소셜벤처 등 예시: 체인지 메이커 양성을 위한 '어썬스쿨'
⑤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입시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탈피하여 지역 및 사회와 청소년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청·학교 주도의 노력 경기도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추진하는 '꿈의학교'

출처: 우성화·허보나(2016), pp.132-134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압축하여 표로 재구성하였으며, 일부 내용 및 사례는 연구자가 추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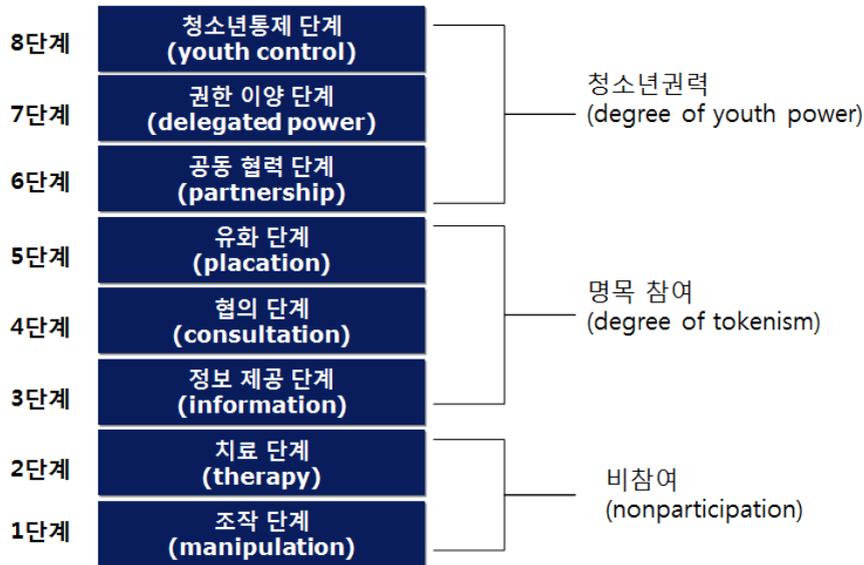
3. 청소년참여에 관한 이론적 모형들

청소년참여와 관련하여 그간 제시된 다양한 이론적 모형들을 살펴보는 것은 기존 모형의 구성 요소, 강조점 등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모형 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참여에 관한 기존의 제 이론 모형들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청소년참여에 관한 기존의 모형들은 크게 단계적 계층화 모형과 비계층적 연속형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천정웅, 2011: 31). 그리고 이를 절충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었다. 여기에서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형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단계적 계층화 모형

청소년참여가 단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단계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모형으로는 Hart(1997), Checkoway(1998)가 제시한 모형이 대표적이다. 단계적 계층화 모형은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천정웅, 2011: 31). Arnstein(1969)은 주민들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참여의 단계를 비참여와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로 분류하고, 이를 세분하여 ‘주민참여 사다리’ 모형을 제시했다(임은영, 2016: 2). Arnstein의 모형은 단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권한의 위임과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와 같은 질적 측면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실제로 행정의 권한이 주민에게 위임되어, 주민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임은영, 201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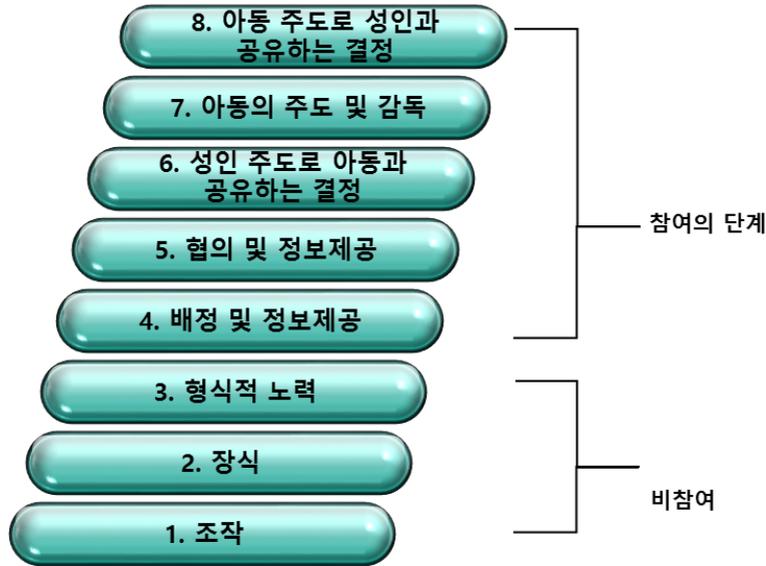
Arnstein의 모형이 주민참여의 일반적 단계를 설명한 모형이라면, Checkoway(1998)는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단계를 청소년에게 적용시켜 청소년참여 8단계 모형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형태는 [그림 II-3]과 같다. 여기에서 조작 단계와 치료(교정) 단계는 그 본래 목적이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를 교육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비참여(non-participation)에 해당한다(천정웅, 2014: 101-102). 정보 제공과 자문 단계는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명목적인 참여 단계로 볼 수 있다(천정웅, 2014: 102). 유화 단계는 명목적인 참여보다는 높은 단계로 참여자들이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은 여전히 권력소유자가 보유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공동협력 단계는 청소년과 권력소유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권력이 재분배되고 청소년과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단계이다(천정웅, 2014: 102). 그리고 권한 이양과 청소년 통제 단계는 청소년 참여자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맡게 되거나 전체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천정웅, 2014: 102). 이 세 단계는 청소년들이 주도권을 갖고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권한이 부여된 상태이다(천정웅, 2014: 102).



출처: 천정웅(2014: 102). 그림 3.

【그림 II-3】 체코웨이의 청소년참여의 8단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참여 단계를 제시한 모형으로는 Hart(1997)의 ‘참여의 사다리’ 모형이 대표적이다. Hart는 조작, 장식, 형식적 노력과 같은 참여는 진정한 참여로 볼 수 없고, 청소년의 주도성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참여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Hart의 모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단계는 청소년이 주도하면서 성인들이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이다(김현철 외, 2012: 24). 또한 Hart는 진정한 참여(genuine participation)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수준 또는 능력에 따라 최대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천정웅, 2011: 32). 아울러 청소년참여의 원리로서 ‘알려진 선택권(informed choice)’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천정웅, 2011: 32). 즉, 진정한 참여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청소년위원회, 2005; 천정웅, 2011: 32에서 재인용).



출처: Hart(1997: 41), 김현철 외(2012: 24), <그림 II-7>에서 재인용.

【그림 II-4】 하트의 참여의 사다리

이 같은 단계적 계층화 모형들은 대체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인의 관점에서 성인들을 위해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천정웅, 2011: 39). 또한 단계적 연속형 모형의 특성 상,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단계에 도달해야 하는 하나의 수직적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천정웅, 2011: 43). 그렇지만 청소년참여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단계적 모형의 의미는 언제나 가장 높은 최상위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나 능력, 상황에 따라 최적의 단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천정웅, 2011: 43).

2) 비계층적 연속형 모형

청소년참여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모형들 가운데 비계층적 연속형 모형은 청소년참여의 종류 또는 방법을 중심으로 모형을 설계한 것으로, 단계적 모형이 수직적 개념을 상정하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참여를 저위수준의 참여(low level of participation)와 고위수준의 참여(high level of participation)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형태 또는 종류로 이해한다(천정웅, 2011: 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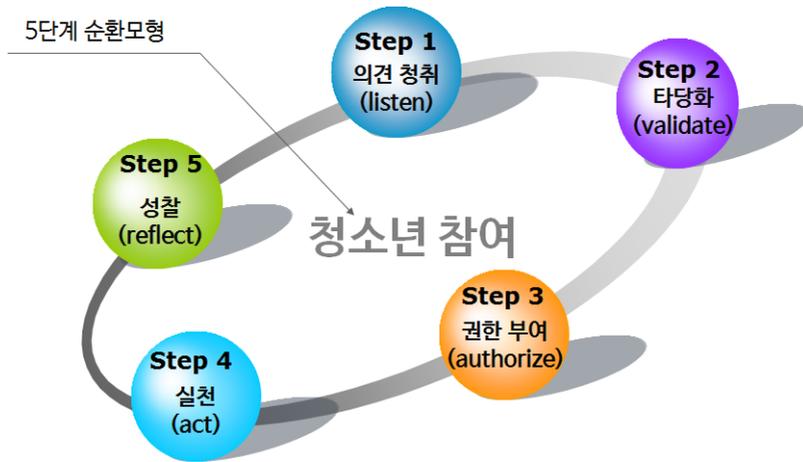
비단계적 모형의 구체적 사례로는 The Australian Youth Foundation(1999)이 제시한 청소년참여의 6단계 모형, Fletcher & Vavrus(2006)의 청소년참여의 5단계 순환적 모형, Delgado & Staples(2008)의 모형 등이 있다. 먼저, The Australian Youth Foundation(1999)은 청소년참여는 특별 투입, 구조화 된 협의, 영향, 위임, 협상, 통제의 6단계로 이루어진 연속체라고 보았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단계의 구분은 통제(control) 단계에 가까울수록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참여에는 이처럼 상이한 단계가 존재할 수 있고, 특정 상황에 더 가치 있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최창욱·김승경, 2010: 16에서 재인용)

1	2	3	4	5	6
특별 투입 (<i>ad hoc</i> input)	구조화 된 협의 (structured consultation)	영향 (influence)	위임 (delegation)	협상 (negotiation)	통제 (control)

출처: 최창욱·김승경(2010: 17). [그림 II-3]

【그림 II-5】 청소년참여의 연속체

Fletcher & Vavrus(2006)는 청소년참여가 5단계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원형(circle)의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모형에서 5단계는 청취(listen), 타당화(validate), 권한 부여(authorize), 실천(act), 성찰(reflect)로 구성된다(천정웅, 2011: 36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인 청취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이고, 네 번째는 청소년이 실천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청소년참여를 통한 사회변화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일컫는다(천정웅, 2011: 36에서 재인용).



출처: Fletcher & Vavrus(2006), p.5 그림을 번역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II-6】 Fletcher와 Vavrus의 청소년참여 5단계 순환모형

한편, Delgado & Staples(2008: 70)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청소년 주도인지 성인 주도인지를 기준으로 참여 수준을 구분하여 모형으로 제시하였다(김현철 외, 2012: 25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성인주도형 청소년참여(모델1)'는 청소년이 활발히 참여하지만 권한이 없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성인주도-청소년 제한적 파트너형(모델 2)'에서는 성인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김현철 외, 2012: 25에서 재인용). '청소년-성인 공동 파트너십형(모델3)'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하게 권한을 갖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주도 성인지원형(모델4)'에서는 청소년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하는 역할만을 맡는다(김현철 외, 2012: 2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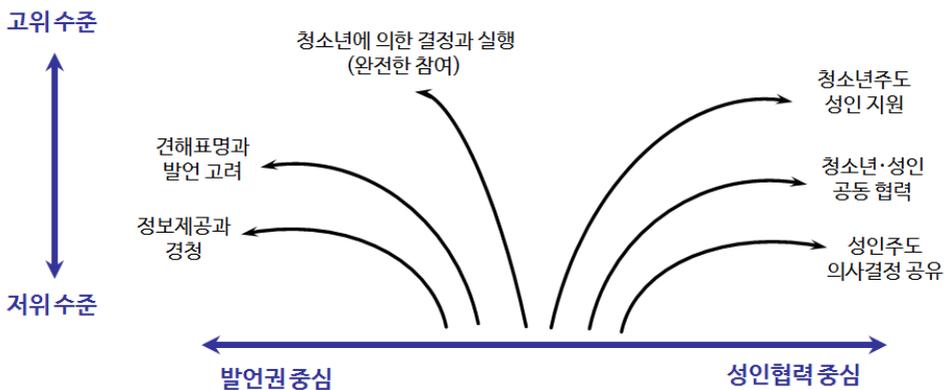
출처: Delgado & Staples(2008: 69), 김현철 외(2012: 25), [그림 II-8]에서 재인용.

【그림 II-7】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스펙트럼

상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참여 수준을 특정 단계로 구분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참여를 권리와 권력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지역사회 참여의 다양한 양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참여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이채식·박은식, 2007: 398).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기존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정, 학교, 지역공동체 등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소년참여의 양상을 담아내고,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절충형 모형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단계적 계층화 모형과 비계층적 연속형 모형을 절충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천정웅(2011)은 양자를 절충한 대안적 모형으로 ‘참여수준-형태별 연속체 모형’을 구안한 바 있다. 이 모형에서 참여수준은 저위수준(low level)과 고위수준(high level)으로 구분되고, 참여형태는 발언권 중심과 성인협력 중심으로 구분하였다(천정웅, 2014: 118).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한 연속선상에 각각의 청소년참여 유형을 배치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에서 제시한 청소년참여 유형은 6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여기에는 ①정보제공과 경청, ②견해표명과 발언 고려, ③청소년에 의한 결정과 실행, ④성인주도 의사결정 공유, ⑤청소년-성인 공동협력, ⑥청소년주도와 성인지원 등이 포함된다(천정웅, 2011).



출처: 천정웅(2011), p.43. [그림 1].

【그림 II-8】 청소년참여 유형화의 대안 모델: 참여수준-형태별 연속체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참여 모형들은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청소년참여에 있어서 성인의 역할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천정웅, 2011: 44). 또한 청소년참여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참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성인들이 가진 권한의 일부를 청소년들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천정웅, 2011: 44). 진정한 청소년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인들이 만들어놓은 과정과 공간에 청소년을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천정웅, 2011: 44).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를 위한 고려 사항

여기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설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내용 측면의 고려 사항

(1) 청소년 주도성

성공적인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를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e.g. 백병부 외, 2016; 우성희·허보나, 2016; 조운정 외, 2016: 250).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의정부에서 실시된 마을교육공동체 성공 사례를 분석한 조운정 외(2016)의 연구에서는 의정부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를 보장했으며, 이를 위해 의정부 사례에서는 교사, 상담가 등이 청소년들의 자발성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울타리를 쳐 주었다(조운정 외, 2016: 249). 청소년들은 자발성과 주체성을 토대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주인의식을 갖고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주관하였다(조운정 외, 2016: 249). 이처럼 참여 과정에서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과 문제해결능력도 보다 제고할 수 있었다(조윤정 외, 2016: 250).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참여의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은 여타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꿈의학교」 사례를 분석한 백병부 외(2016)의 연구에서는 이 사업이 학생들의 주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했던 운영 방식이 성과의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꿈의학교」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자각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백병부 외, 2016: 6). 그 결과, 청소년들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경험으로 인해 「꿈의학교」 운영 주체들이 운영에 대한 전권을 학생 혹은 학생동아리에 부여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백병부 외, 2016: 6).

한편,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주도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참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회참여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는 자칫하면 지역사회 참여를 ‘환경미화’나 ‘민원 제기’처럼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참여 경험은 향후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우성희·허보나, 2016: 29). 따라서 바람직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우성희·허보나, 2016: 30).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청소년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주도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든가 어른들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백병부 외, 2016). 따라서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성인 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의사결정과정의 공유,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2) 권한의 부여: 영향력의 행사 및 의사결정의 공유

앞서 학자들이 제시한 청소년참여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진정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다(e.g. Hart, 1997). 따라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은 이 같은 영향력의 행사와 의사결정과정의 공유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운영 측면의 고려 사항

(1) 체계적인 사전 교육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사례를 소개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e.g. 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우성희·허보나, 2016).

청소년들이 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엇이며, 어떠한 목적과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107).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과 흥미도 제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여 활동의 목적, 의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정리한 우성희·허보나(2016)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

(2) 적절한 관리와 지원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리와 지원도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장현(2002)은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동기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다수의 기관들이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감독보다는 획일적으로 감독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그램의 지도·감독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요구를 잘 알지만,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 개인의 목적과 요구는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장현, 2002).

이처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대했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참여에 대한 사명감과 소속감이 현저히 약화되어 자신들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결국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장현, 2002: 42). 따라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구성 요소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3) 인정과 보상의 제공

지역사회 참여 모형은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을 통해 만족을 느낌으로써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이 같은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이장현, 2002: 42).

단, 흔히 시행해왔듯이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평가지향적’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성희·허보나(2016)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프로그램은 사회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스펙 쌓기’로 치부되지 않도록 평가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우수팀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기존 방식의 형태로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우성희·허보나, 2016). 그보다는 경험학습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경험, 협업과 협동, 사회적 관계망 확대 등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를 객관화할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성희·허보나, 2016: 3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장현(2002: 42-43) 역시 인정과 보상은 중요하지만 보상 수단을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인정과 보상의 전달은 각 개인의 동기와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참가자별로 의미 있는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예컨대 성취지향적인 사람에게는 보다 책임 있고 중요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상 방안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인정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표창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장현, 2002; 42-43).

(4) 시간과 공간의 확보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참여활동이 이루어질 시간과 공간의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참여활동을 할 시간의 확보가 관건임을 지적하고 있다(e.g. 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118; 우성희·허보나, 2016: 18, 29). 이와 관련하여, 김정주·길은배·정화수(1999: 118)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시간 부족을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시간 확보의 문제는 최근까지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 최근에 수행된 우성희·허보나(2016: 18)의 연구에서도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생각을 나누고 사회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고 역설하였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 입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부 이외의 활동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부모, 교사로부터 환영받기 어렵고, 그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는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청소년들이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118).

한편 참여공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주·길은배·정화수(1999: 1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활동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활동범위의 협소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안에서도 매번 똑같은 학교 주변의 거리만 활동범위로 삼는 등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118).

3) 환경 측면의 고려 사항

(1) 참여 기회의 확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은 제한된 소수가 아닌, 일반적 다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은 입문형-실전형과 같이 참여 단계를 고려해 모형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즉, 참여 의지가 높은 참가자들이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높은 단계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실전형'이라고 한다면, 참여 의욕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하여 작은 변화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입문형'으로 구분하여 기획함으로써(우성희·허보나, 2016: 123), 기존에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입문형 모델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변화를 기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데 목적을 두고 설계한다(우성희·허보나, 2016: 123). 입문형 모델을 경험한 후 좀 더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전형 모델을 적용한다(우성희·허보나, 2016: 123). 실전형 모델에서는 입문 프로그램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자신 있게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우성희·허보나, 2016: 123).

표 II-4 입문형·실전형 사회참여 프로그램 구성 안

	입문형(ready) 사회참여 프로그램	실전형(Action) 사회참여 프로그램
목적	사회참여에 관심을 갖게 하기	청소년 주도 사회참여 경험 기회제공
대상	청소년 일반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청소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에 관한 가벼운 토론 • 현장탐방이나 사람책 등 사례 접하기 • 캠페인, 일상의 변화 약속과 같은 가벼운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

출처: 우성희·허보나(2016: 124), <표 III-3>

한편, 절대적인 참여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인 참여 기회의 격차 해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소수의 청소년들에게 집중되거나,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존에 수행된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가 보다 유리한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중될 개연성이 큼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참가학생들의 특성을 조사한 백병부 외(201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 대다수가 학교생활, 가정배경, 진로의식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거나 매우 우수한 학생들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꿈의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공공성의 가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략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백병부 외, 2016).

(2) 지역사회 기관 간 유기적 연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모형을 구안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입문형·실전형의 단계적 모형의 운영 역시 특정 기관에서 입문형과 실전형 모형을 모두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우성희·허보나, 2016: 123). 예컨대,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 등에서 각자의 역량과 대상에 맞는 입문형 또는 실전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원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우성희·허보나, 2016: 123). 따라서 한 기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우성희·허보나, 2016: 123),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교사 등 주변의 인식이 변화하고, 청소년참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주(1999: 119)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데는 입시 준비 부담에 따른 부모의 반대가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참여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성세대가 청소년에게 갖는 고정관념도 난관으로 작용한다. 여전히 기성세대가 청소년은 미숙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청소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김정주·길은배·정화수, 1999: 119). 최근 들어 청소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보호받아야 할 미숙한 존재로 보는 시선은 여전히 잔존한다.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개발되고, 그것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소년참여를 바라보는 제한된 시각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 사회참여의 현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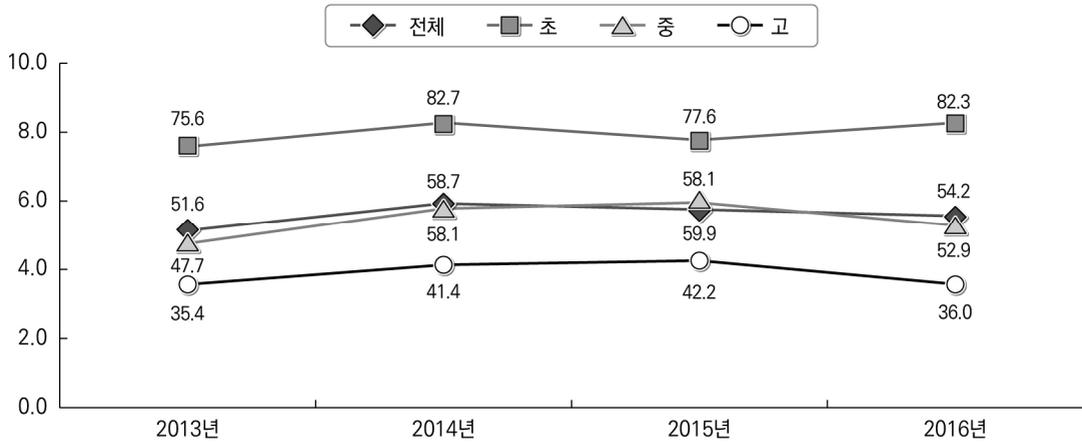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참여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청소년참여 정책 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다수의 청소년들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학생 참여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의 장애요인을 점검하였다.

1) 청소년 사회참여 수준

(1) 청소년 사회참여 보장 수준

본격적으로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사회참여 보장 수준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을 보인 청소년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51.6%, 2014년 58.7%, 2015년 58.1%, 2016년 54.2%로 나타나 50%대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눈에 띄는 것은 학교급별로 대단히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75~83% 수준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중학생은 47~60% 수준, 고등학생은 35~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권리 의식이 발달하면서 참여 욕구도 증대되고 청소년문제를 더 깊게 체감하게 되는 데 비해, 현실에서는 이러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는 권리의식이 발달한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통로가 보다 다양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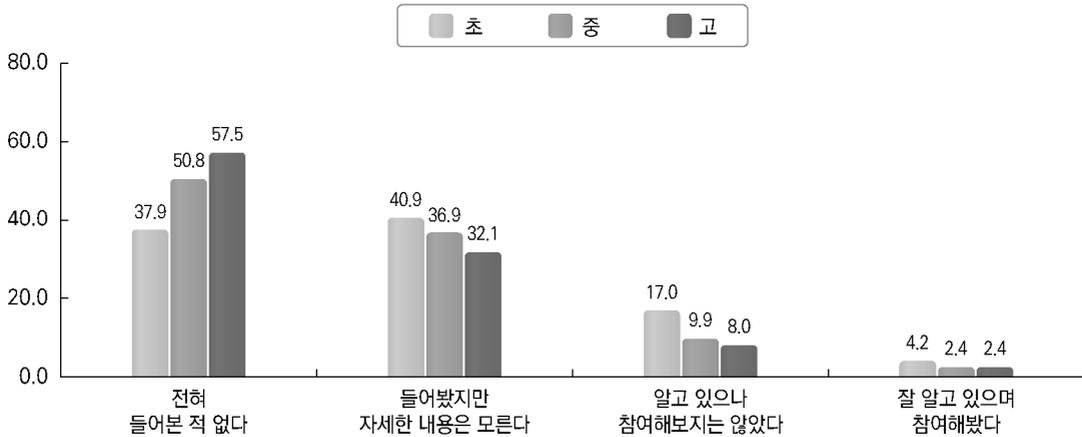
주: 제시된 비율은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들의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출처: 김영지·유설희(2016), 159쪽 <표 III-106-1>의 결과를 그림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II-9】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 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2) 청소년참여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참여 경험

본 장(章)의 제2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간 전개된 청소년참여 논의에서는 정책참여가 중핵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참여 정책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와 같은 참여기구에 중점을 두어 왔다. 실제로 참여 공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광역 시·도나 시·군·구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구성·운영하며, 청소년특별회의는 각 지역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역사회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참여해보았는지에 관한 조사 자료를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II-10]과 [그림 II-11]에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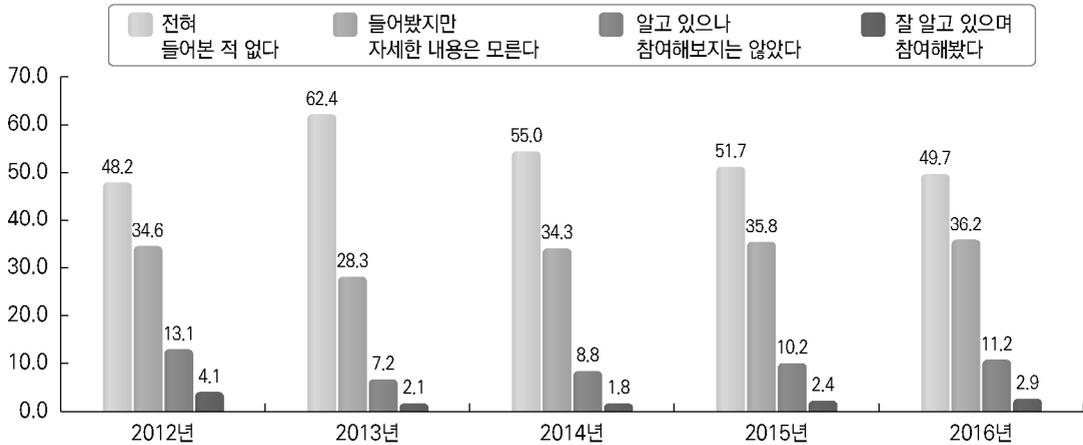


주: 제시된 결과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김영지·유설희(2016), 154쪽 <표 III-101-1>의 결과를 그림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II-10】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학교급별 비교)

먼저, [그림 II-10]에는 최근에 실시된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고,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36.2%, ‘알고 있으나 참여해보지는 않았다’ 11.2%,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9% 순으로 나타난다. 바꿔 말하면, 청소년참여 기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85.9%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상승하는 것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초등 37.9%, 중학생 50.8%, 고등학생 57.5%). 한편,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봤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이 4.2%로 나타났고, 중·고등학생은 2.4%에 불과했다.



주: 제시된 결과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김영자·유선희(2016), 154쪽 <표 III-101-1>의 결과를 그림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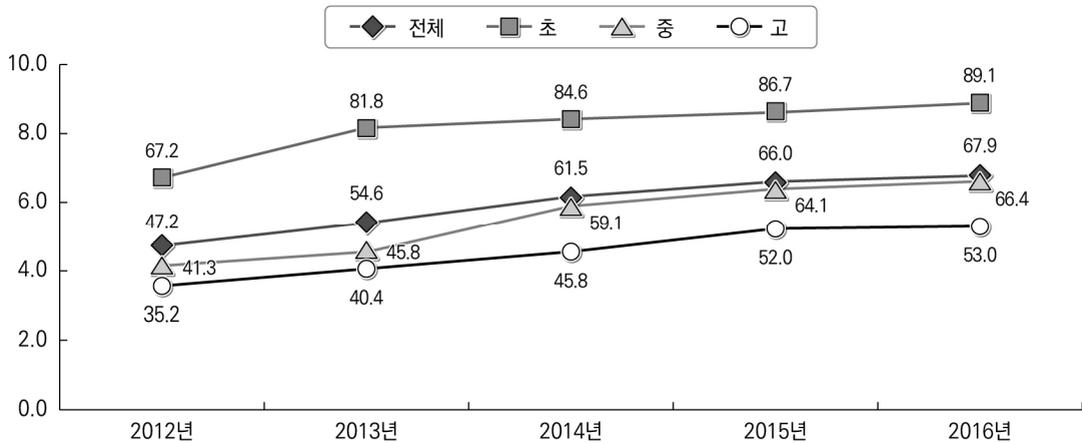
【그림 II-11】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연도별 추이)

[그림 II-11]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및 경험 여부를 시계열별로 비교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2013년 이후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은 62.4%에서 49.7%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참여해봤다’는 응답은 2012년 4.1%에서 2016년 2.9%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참여 통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3) 학교에서의 참여 수준

학교는 그 자체로 독립된 교육기관이지만, 공간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학교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그 어떤 공간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친밀한 곳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에서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참여가 일상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청소년참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김영지 외, 2016)에 포함된 문항 가운데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가”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반영한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2012년에는 47.2%에 불과했지만, 2013년 54.6%, 2014년 61.5%, 2016년 66.0%, 2017년 67.9%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학생 인권이나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나름대로 참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참여 모형을 개발할 때, 학교를 중요한 공간이자 매개체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 제시된 비율은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들의 응답 비율을 합산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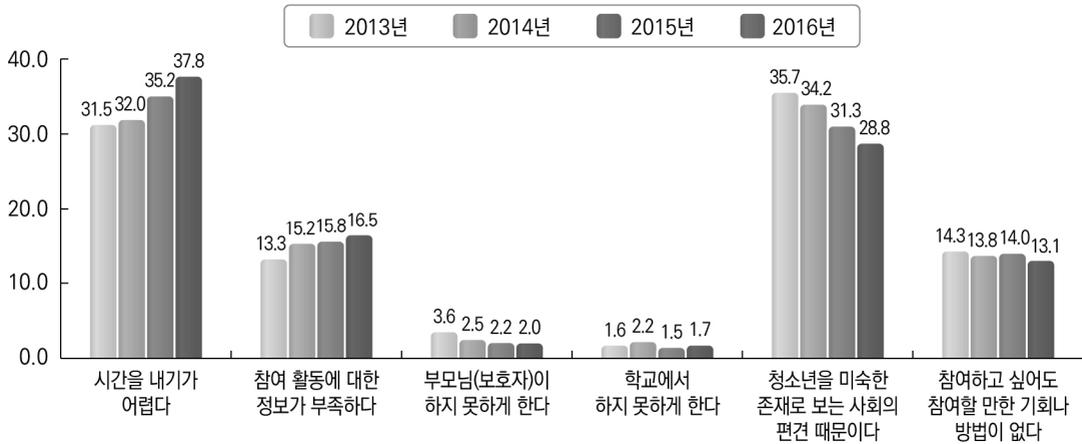
출처: 김영지·유설희(2016), 143쪽 <표 III-94-1>의 결과를 그림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II-1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연도별 추이)

2) 청소년 사회참여의 장애 요인

앞서 살펴본 청소년 사회참여 수준에 대한 기존의 조사 결과는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우리 사회가 청소년참여를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참여정책인 참여기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그에 비해 학교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 비율이 70% 수준에 육박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 제시된 결과는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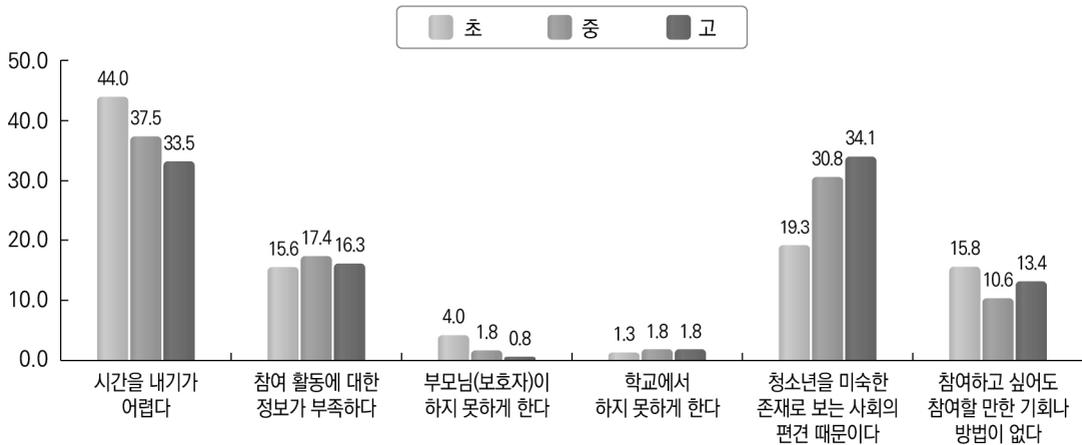
출처: 김영지·유설희(2016), 160쪽 <표 III-107>의 결과를 그림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II-13】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참여가 어려운 이유(연도별 추이)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 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먼저 [그림 II-13]에는 청소년참여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시계열별로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은 감소세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교육경쟁이 심화되면서 공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2013년 13.3%에서 2016년 16.5%로 미세하나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14.3%에서 2016년 13.1%로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욕구가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참여에 관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형 개발 단계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 1) 제시된 결과는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2) 전체 사례수는 11,309명임(초등 3,110명, 중학교 3,714명, 고등학교 4,214명).

출처: 김영지·유설희(2016), 160쪽 <표 III-107>의 결과를 그림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II-14]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참여가 어려운 이유(학교급별 비교)

[그림 II-14]에는 청소년참여 장애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학교급별로 밀착해서 살펴보면, 청소년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답한 청소년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44.0%로 가장 높고, 중학교 37.5%, 고등학교 33.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여활동에 할애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소 상반된다.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은 그 보다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에 비해 훨씬 높았다(초등 19.5%, 중학교 30.8%, 고등학교 34.1%).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은 참여시간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청소년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6. 요약 및 시사점

이 장(章)에서는 이론적 입장에서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본질,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과 의의, 지역사회 참여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와 관련하여 그간에 제시되었던 이론 모형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참여를 구성하는 본질은 '영향력의 행사'와 '의사결정의 공유'를 통한 '변화의 도출'로 집약되었다. 즉 청소년참여란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도출해가는 것으로서, 실제 변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자문이나 건의는 청소년참여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참여에 관한 이론적 모형들에 대한 검토 결과, 모형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청소년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인들과 청소년 간의 권한의 분배와 공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성인들이 가진 권한의 일부가 청소년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과정과 공간에 청소년들이 객체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천정웅, 2011: 44)이 그간 개발된 청소년참여 모형의 지향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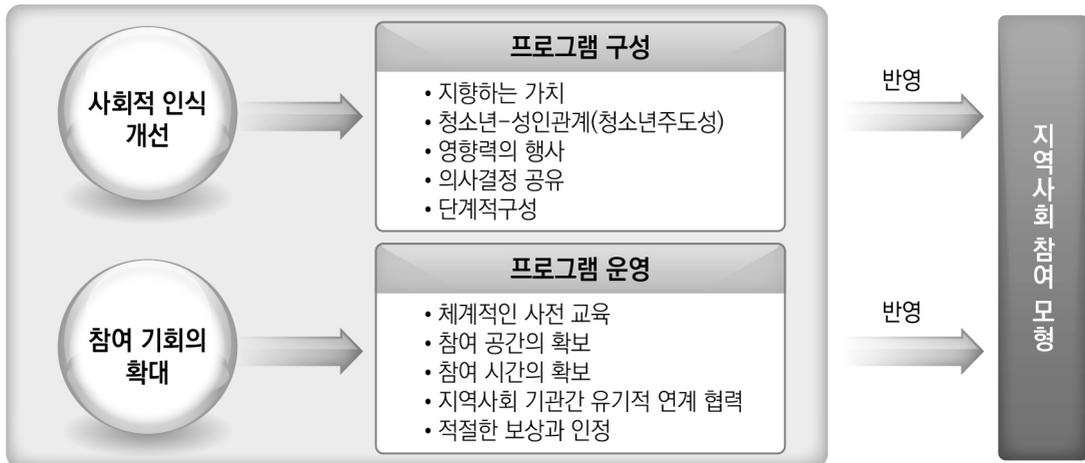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한 결과, 내용 측면의 고려사항과 운영 방법 측면, 그리고 환경 측면의 고려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내용 측면의 고려사항에서는 청소년 주도성, 권한의 부여(영향력의 행사 및 의사결정의 공유)가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도출되었다. 즉,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은 청소년이 주도성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 방법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사전 교육, 적절한 관리와 지원, 인정과 보상의 제공,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도출되었다. 이는 새롭게 개발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포함하고,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 인정과 보상이 제공될 때 참여활동의 효과도 배가되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현장적용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참여활동이 이루어질 시간과 공간에 대한 확보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 측면에서는 참여 기회의 확대, 지역사회 기관 간 유기적 연계, 청소년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도출되었다. 이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은 제한된 소수가 아닌, 일반적 다수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양질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활성화 되려면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 주변에 위치한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와 청소년 참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15]에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지역사회 참여모형 설계의 고려 사항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II-1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를 위한 고려 사항

제 Ⅲ 장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 환경 분석

1. 분석의 개요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분석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 III 장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 환경 분석*

1. 분석의 개요

이 장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기존의 법령과 정책들을 진단함으로써, 모형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개발된 모형이 작동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령 및 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법령 분석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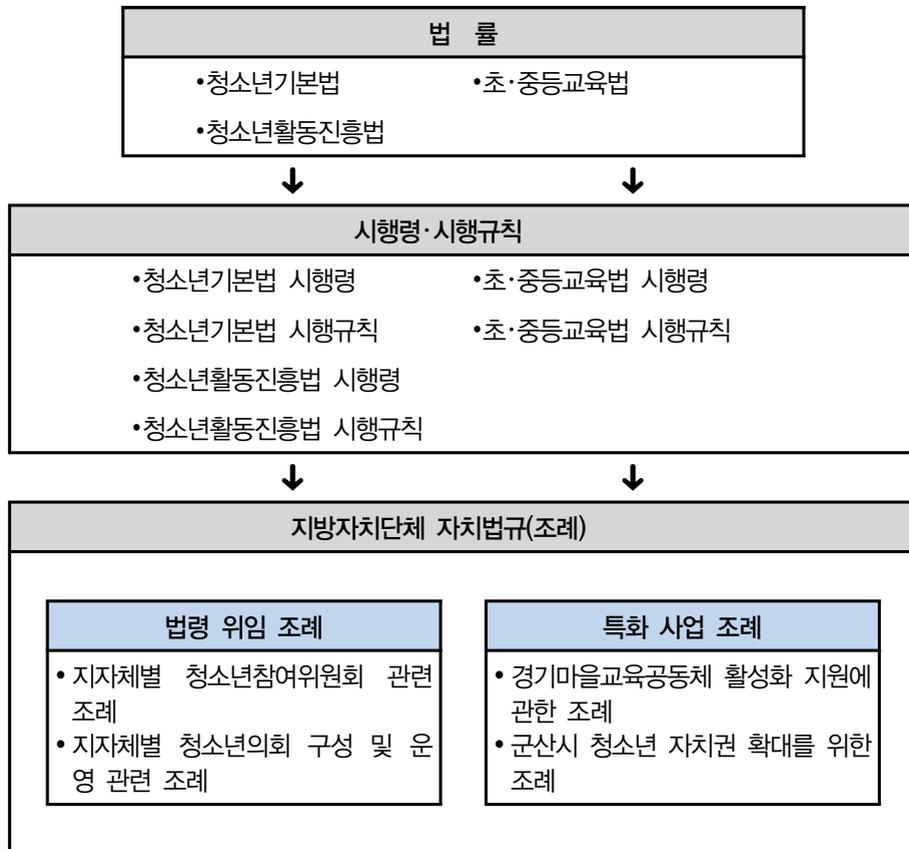
정책 환경 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다. 법령 검토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법령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이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약들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청소년 참여에 대한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검토한 자치법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법령에서 위임한 일반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제정한 조례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례들은 상위 법령에 해당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조례로 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상호 유사하며 지역별로 크게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단, 제3절에서 경기도교육청 추진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 품의학교」 정책사업에 관한 내용은 백병부 박사(경기도교육연구원)가 집필한 내용을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하였다.

차별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특화 사업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참여에 역점을 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정한 자치법규들이 있다. 학생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담당하는 「학생이 만드는 경기꿈의학교」 사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조례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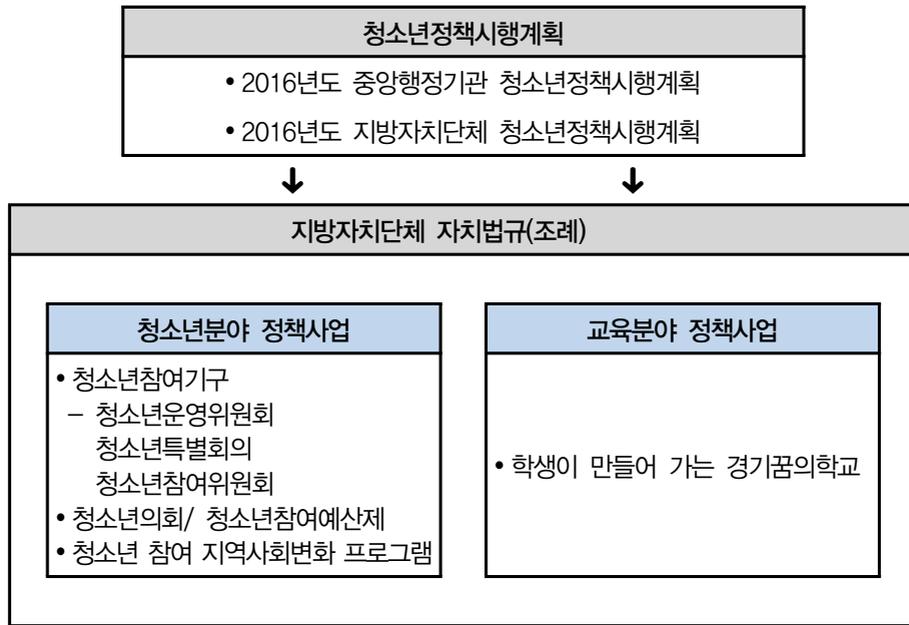
【그림 III-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분석 대상

2) 정책 분석의 개요

다음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였다. 정책분석을 통해 그간 추진되었던 청소년 참여사업들이 지역사회 참여 관점에서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나타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상술한 목적에서 실시한 정책분석의 대상이 【그림 III-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살펴본 것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다.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 사업들을 편성하고 있는지, 또 해당 정책 사업들은 지역사회 참여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개괄하는 데 유용하다. 여기에서는 가용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지역사회 참여 사업이 운영되는 실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는 청소년분야 정책과 교육분야 정책으로 대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청소년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청소년참여 사업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집중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을 살펴보았다. 교육분야에서는 중앙부처가 추진한 지역사회 참여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꿈의학교」 사업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사업을 검토하였다.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분석

1)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²⁾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법령 분석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청소년기본법」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청소년기본법 제1조 참조), 청소년 관계 법령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를 가늠하는 데 적합하다.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청소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방향, 정부의 역할, 청소년특별회의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집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당위성과 방향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제2항은 정부가 청소년 관련

2) 본 장에서 인용된 청소년기본법은 2017년 7월 26일 시행된 법률 제14839호이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은 2017년 1월 1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27751호이다. 이하 같다.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절차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가 단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포괄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2017.09.19.인출.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참여기구의 일종인 ‘청소년특별회의’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과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일컫는다(여성가족부, 2016c).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는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에서는 17개 시·도 광역 특별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등이 청소년특별회의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그 최종 목표가 중앙부처에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밀착된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고, 시·도 단위 특별회의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요소를 일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2017.09.19.인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서 2017.09.19.인출.

2)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도 청소년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역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된 지역사회 참여 관련 내용은 참여 활동 보장에 대한 당위적 선언,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요체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사회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내포한다기보다는, 참여활동을 비롯한 청소년활동 전반의 진흥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청소년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본 장에서 인용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은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법률 제14705호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은 2017년 9월 19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8322호이다. 이하 같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2017.09.19.인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된 내용 가운데 지역사회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4조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련시설마다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생활권 수련시설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시설로, 실제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점은 청소년 참여가 영향력을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2017.09.19.인출.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에서 2017.09.19.인출.

3)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다음으로 교육 분야 법령에서는 「초·중등교육법」(2017.3.21.개정, 법률 제14603호)과 동법 시행령(2017.6.20.개정, 대통령령 제28112호)을 검토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교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다수의 청소년들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를 매개로 한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 보호, 발달과 더불어 참여를 4대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김영지 외, 2016). 이러한 내용을 적용해보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조항은 학교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에서 2017.09.19.인출.

한편, 동법 제17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자치활동 보장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가 존중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조직과 운영의 구체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참여와 자치를 지원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은 학생회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에서 2017.09.19.인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2017.09.19.인출.

4) 법령 위임 조례

(1)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일반 사항을 규율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한 조례들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전국 28개 지자체(광역시 3개, 기초 25개)⁴⁾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관련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상호 유사한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위촉·임기·해촉,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28개 지자체의 조례 가운데,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4860호, 2017.2.10.제정]을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예시로 제시하였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2. 다른 시·도 및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구성 등) (중략)....

4) 2017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지자체 자치법규는 광역자치단체는 대전, 세종, 경남 등 3개 시·도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강동·광진·도봉·서대문·서초·송파·용산, 부산 동래·부산진·해운대, 대구 북구·수성·중구, 광주 동구, 경기 광명, 강원 고성, 충남 논산·서산, 전북 군산, 전남 광양·담양·함평·화순, 경남 사천·양산 등 25개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9.21.인출).

제5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대전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4860,20170210\)](http://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4860,20170210)))에서 2017.09.21.인출.

(2)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러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제도 가운데,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둔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다. 2017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총 20개⁵⁾로 파악된다. 조례의 내용은 상호 유사한데, 여기에서는 20개 지자체의 조례 가운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231호, 2016.9.28.제정]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해당 조례에는 목적, 정의, 기능을 비롯해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의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사퇴,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의견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출·선발된 청소년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등 참여 활동을 하며,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231호 참조).

5) 2017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의회 관련 지자체 자치법규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주, 세종 등 2개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강동·성북, 부산 금정·중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 경기 가평·고양·동두천·성남·수원·여주·하남, 충북 충주·보령·아산, 전북 군산·완주 등 18개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7.09.21.인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출·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을 고려하여 매년 선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한다.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서는 원활한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해 청소년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장애·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등 소수집단 청소년을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련 사무를 위해 청소년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 등을 정하거나 의결한다.

…… (중략) ……

제12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조례/\(1231,20160928\)](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조례/(1231,20160928)))에서 2017.09.21.인출.

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특화 조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처럼 법령의 일반위임에 의해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제정한 자치법규와는 달리, 특정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한 조례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특화 조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및 군산시 조례를 검토하였다.

(1) '경기꿈의학교' 운영을 위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학교 밖 배움터 만들기 운동인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진행을 위해, 2015년 11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5078호)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비 지원의 책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기꿈의학교가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제2조에서는 경기꿈의학교에 대해 “경기도 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경기꿈의학교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주도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되는 학교 밖 배움터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그 밖에 제2장에서는 경기꿈의학교 사업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사업)에는 경기꿈의학교의 일환으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한 경기꿈의학교 지원”을 명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경기꿈의학교 사업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경기꿈의학교·교육협동조합·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경기꿈의학교”란 경기도 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 소외극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7.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8.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 (생략)
-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꿈의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교육협동조합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 및 마을주민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05078,20151104\)](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05078,20151104)))에서 2017.09.19.인출.

(2) 청소년 자치권 보장을 위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⁶⁾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법령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라북도 군산시가 제정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371호)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동 조례 제1조 참조).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제정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구나 군산시 조례는 제정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는 지역 시의회의원과 군산시 청소년 자치기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두달여 간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심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정건희, 2017).

조례는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3조(정의)에서는 청소년 자치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군산시는 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6) 여기에서 인용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는 2016년 9월 29일 제정된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371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에서 2017년 9월 19일 인출하였다. 이하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략

제3조(정의) …… (중략) ……

3. “청소년 자치권”이란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산시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에서 2017.09.19. 인출.

또한 제5조에서는 지자체 장이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3년마다 수립해야 함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청소년참여의 실질적 보장과 문호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관련 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참여기구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참여가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청소년에게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답변이 제공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시에 제안한 의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모바일 앱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 정책, 사업, 예산 등이 알기 쉽게 홍보한다.

- ③ 모바일 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에서 2017.09.19. 인출.

아울러, 군산시 조례에서는 청소년 참여와 자치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매년 자체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같은 점검·평가도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동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총 11명 이내의 평가위원 가운데 업무담당 과장 1인, 청소년 전문기관 소속 2인, 시의회의원 1인 등 총 4인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이 청소년들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즉 평가위원의 과반이 청소년들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례의 내용은 청소년 정책의 입안, 추진, 그리고 추후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청소년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청소년 참여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자치권 평가)**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제시에 대한 평가하고 이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① 평가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임기는 평가기간으로 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 계장으로 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7명 이내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소속 2명
 4. 시의회의원 1명
 - ② 평가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실행사항을 평가 한다.
 2. 청소년 참여를 위한 모바일 앱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논의한다.
 3.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해 평가한다.
 - ③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사항은 기본계획수립 및 차기년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에서 2017.09.19. 인출.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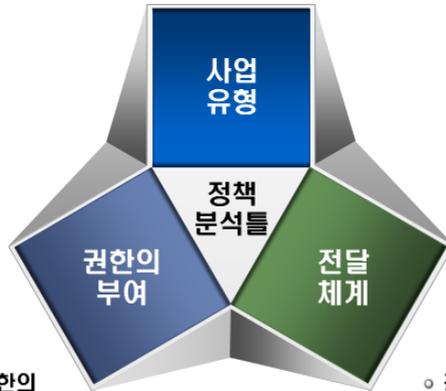
1) 지역사회 참여 관점에서 본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앞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검토하였다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계획과 정책사업들을 살펴보았다. 정책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⁷⁾이다. 「청소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년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개괄하는 데 적합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가용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자료를 토대로, 시행계획 내용 가운데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이 있는 정책 사업들을 선별하고,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분석을 위해, 사업 유형, 권한의 부여, 전달체계 등 3가지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사업 유형’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의 다양성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 외에 여타 지역사회 참여 정책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권한의 부여’는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청소년참여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진정한 청소년참여는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반영하여, 각각의 세부 사업들이 실제로 청소년에게 얼마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운영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점검 지표로 삼았다. 상술한 시행계획 분석 틀이 [그림 III-3]에 제시되어 있다.

7) 여기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KpOCzy9NMcQWu9cWjZm4T71P.mogef20?mid=plc502&bbfSn=703562)에서 2017.7.20. 인출하였다.

- 지역사회 참여정책의 다양성 진단
- 참여기구 외 여타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청소년에게 부여된 권한의 수준 확인
- 의사결정참여/의견제시/ 기타 구분
- 정책사업의 주된 전달체계 확인
- 학교/청소년 시설/정부(지자체)/ 기타 등으로 구분

【그림 III-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청소년정책시행계획 분석 틀

(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지역사회 참여 사업

2016년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가운데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가 수립·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중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정책은 총 6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2016년 시행계획 총 과제수 240개의 2.5%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이 4개, 교육부 1개, 보건복지부 1개로 파악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내용을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고 사업내용의 다양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검토한 총 6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이 참여기구 등에 해당하는 사업이었고, 여타 사업은 2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과제는 그 비중도 대단히 미미하지만, 추진되는 과제의 성격도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즉 사업내용이 대부분 청소년참여기구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참여 정책들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권한의 부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검토한 6개 사업 가운데 청소년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2개에 불과했

고, 나머지는 모두 청소년들이 단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청소년 참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처럼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하는 것은 진정한 참여로 보기 어렵다고 역설해왔다. 참여는 의사결정에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인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통로로 청소년의 견해를 구하는 '자문'과는 차별화 된다는 것이다(정건희, 2013). 따라서 여기에서 분석된 결과는 향후 청소년 참여 정책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재정비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달체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과제들이 중앙부처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지자체 등 하위 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제도의 성격 상 청소년시설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학교를 통해 추진되는 지역사회 참여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단 한 개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있지만, 그간 교육정책이 학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습자 중심의 지역친화적 교육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 현황(2016년)

연번	부처명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유형						권한의 부여				진달 체계				비고
				청소년 특별 회의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 예산제	기타	의사 결정 참여	의견 제시	기타	학교	청소년 시설	정부/ 지자체	기타		
1	여성 가족부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 사이트 개발·운영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위원 대상으로 온라인 활동 확인서 발급 형태로 운영 	
2	여성 가족부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						○							
3	여성 가족부	청소년의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	○					○							
4	여성 가족부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추진 					○							○			
5	교육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에서 운영 	
6	보건 복지부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아동인권 증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아동총회 지역대회 및 본 대회 개최 지원 참여 아동 선정 													○		
합 계				3	2	1	0	1	2	2	2	5	1	0	1	4	2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지역사회 참여 사업

다음으로, <표 III-2>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6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가운데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사업을 검토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검토와 마찬가지로, 사업 유형, 권한의 부여, 전달 체계 등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시행계획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추진하는 청소년정책 가운데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사업은 총 50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총 사업수 943개의 5.3%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강원 및 전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5개로 가장 많은 편이었고, 경기·충북·충남이 각각 4개, 서울·대구·인천·광주·제주는 3개로 파악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내용을 '사업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참여기구 추진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50개의 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이 청소년참여기구 추진 사업이었다. 나머지 중에서는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이 3개, 청소년의회 사업이 1개로 파악되었다. 기타 중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보도하는 기자단이나 웹진, 방송국 관련 사업,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사업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권한의 부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검토한 50개 사업 가운데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49개 사업이 의견 제시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들 사업 가운데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20개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 의사결정 관여 요소가 있다고 분류된 사업들은 대부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들이다. 이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이 본래 청소년단체나 시설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자치기구(최창욱·전명기, 2013: 16)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것이지,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창욱·전명기(2013: 20)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들도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전달 체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5개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시설 17개, 기타 11개 등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지자체) 및 청소년시설 추진 사업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학교를 주요 전달체계로 활용하거나 혹은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추진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 또는 사업 내용의 편중과도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간 시행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들은 그 성격이 다양하지 못하고, 대부분 참여기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학교와의 연계·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학교 전달체계를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들도 부재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 현황(2016년)

연번	지자체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유형						권한의 부여				전달 체계			비고						
				청소년 특별 회의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 예산제	기타	의사 결정 참여	의견 제시	기타	학교	청소년 시설	정부/지자체	기타							
1	서울시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역사회 내 한부모에게 대한 정책 제안 활동 	○								○											
2	서울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청소년시설의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청소년의 욕구 충족 및 시설 발전 도모 			○						○											
3	서울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및 지역별 청소년복지의 향평성 제고 									○											
4	부산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회의, 청소년관련 활동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봉사활동, 워크숍 운영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집행 과정에 청소년 참여 	○																			
5	부산시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례회(매월 1회)와 임시회(수시)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지문·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																	

연번	지자체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유형					권한의 부여				전달 체계			비고		
				청소년 특별 회의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의회	청소년 예산제	기타	의사 결정 참여	의견 제시	기타	학교	청소년 시설	정부/ 지자체		기타	
6	대구시	대구지방 "청소년기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사업과 활동이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자단 운영 															
7	대구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소년시책 자문 및 건의, 청소년 특별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 		○									○				
8	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										○			
9	인천시	청소년웹진 MOO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집지를 정기 월 1회 업데이트 • 청소년 중심의 사회, 교육, 문화 관련 내용을 청소년이 직접 취재하고 구성하여 자신들의 공감대를 형성 													○		
10	인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을 통해 시 청소년정책 및 사업추진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지역은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 운영 • 군/구 지역은 직접 운영
11	인천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예산학교(예산 캠프)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연번	지자체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유형						권한의 부여				전달 체계			비고
				청소년 특별 회의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 예산제	기타	의사 결정 참여	의견 제시	기타	학교	청소년 시설	정부/지자체	기타	
12	광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 회의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지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위탁운영
13	광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지원·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						○						
14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및 위탁기관 운영
15	대전시	공공청소년수련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등을 청소년이 직접 참여·자문·평가함으로써 자율적 시설 운영 유도 		○						○						
16	대전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 청소년관련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 반영 		○						○						
17	울산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 정책 및 사업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						○						
18	울산시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소년시설의 운영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평가·모니터링 함으로써 주체적인 책임역할 수행 		○						○						
19	세종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위원회와 특별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욕구와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위탁 운영

연번	지자체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유형					권한의 부여				전달 체계			비고		
				청소년 특별 회의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 예산제	기타	의사 결정 참여	의견 제시	기타	학교	청소년 시설	정부/ 지자체		기타	
20	세종시	청소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에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및 청소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청소년들 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남부) 		○					○	○			○				
21	경기도	공공청소년수련 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소년수련 시설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을 통해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	○			○				
22	경기도	청소년 차세대(참여) 위원회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청소년이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				○			
23	경기도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참여(차세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반 조성 		○						○				○			
24	경기도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GIBC)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관련 뉴스 및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공 												○			
25	강원도	지역사회청소년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간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정책참여 사업의 실효성 자료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위탁 운영

연번	지자체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유형						권한의 부여				전달 체계			비고
				청소년 특별 회의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 예산제	기타	의사 결정 참여	의견 제시	기타	학교	청소년 시설	정부/지자체	기타	
27	강원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청소년정책의 추진실태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거점 점검 및 평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위탁 운영
28	강원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제시와 지문·평가·모니터링 실시 		○								○				
29	강원도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수련시설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제공 			○											
30	충청북도	아동·청소년 포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공동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관한 제안 및 지문과 아동청소년 성장과 권리 증진 														
31	충청북도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및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의 제안·발굴 및 조정 주요 현안·시책 홍보를 통한 조정참여 유도 및 활성화 														
32	충청북도	청소년참여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33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에게 수련시설의 운영과 평가 등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 			○											
34	충청남도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기회의 및 지역사회 활동 도내 청소년참여기구 교류 활동 		○												

연번	지자체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유형				권한의 부여				전달 체계				비고	
				청소년 특별 회의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 예산제	기타	의사 결정 참여	의견 제시	기타	학교	청소년 시설	정부/지자체		기타
35	충청남도	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지자체 정책·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위탁 운영 	
36	충청남도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내 참여기구 담당자 직무 회의 및 연수 지원 도내 청소년참여기구 연간 활동우수사례 공모전 및 참여대회 등을 실시 		○												
37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수렴 및 참여지치 학습 및 체험기회 제공 					○									
38	전라북도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선발·위촉, 정기회의 및 청소년 의견조사활동, 성과 발표참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위탁운영 	
39	전라북도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구 담당자 및 공무원 간담회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청소년 참여 컨퍼런스 및 활동보고대회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참가희망 청소년 참여 가능 전라북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위탁운영 	
40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지원·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												
41	전라북도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이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													

연번	지자체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유형				권한의 부여				전달 체계			비고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 운영 위원회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 예산제	의사 결정 참여	의견 제시	기타	학교	청소년 시설	정부/지자체		기타	
42	전라북도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 의견 제시 및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							○						
43	전라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및 시군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 		○											○	
44	전라남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					○					○	
45	경상북도	청소년정책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정책 발굴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정책 제언과 정보 공유 														○
46	경상북도	청소년위원회 (시설, 참여)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추진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
47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지자체 정책,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											○
48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 			○											○
49	제주도	청소년참여 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지자체 정책,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 			○											○
50	제주도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회의 및 임시의회의 실시를 통한 청소년 정책 제안·설정 및 추진 점검 														○
합 계				6	19	17	1	3	10	20	49	3	0	17	25	11	

자료: 여성가족부(2016),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2)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은 대부분 청소년참여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그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의 주종을 이룬 참여기구 정책을 별도로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 III-3>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의 목적과 기능, 현황과 주요 활동, 그리고 이들 참여기구의 지역사회 참여 관련성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검토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는 제도의 속성 상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안하며 자문하는 것이 주요 기능으로 설정되어, 청소년들의 주장이나 의견이 실행력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특별회의는 범정부적 문제를 다루는 등 거시적 차원의 정책의제 발굴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연계성도 낮은 편이다.

그에 비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 대한 심의·평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특별회의보다는 실행력과 영향력이 담보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들 제도는 모두 일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위원으로 선정된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개방성은 낮은 편이었다.

표 III-3 청소년참여기구의 주요 기능 및 지역사회 참여 관련성

구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기구로서, 개인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참여기구

구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 •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 •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에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며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지역별로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 • 연구를 통해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제안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기준 전국 305개소, 총 5,168명의 청소년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기준, 여성가족부에 1개,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188개 등 총 189개 설치 •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 총 3,446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기준, 청소년 242명 및 전문가 등 총 250명이 참여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의 전용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모니터링,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제안·참여·평가, 홍보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 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제 발굴 • 특별회의의 활동에 대한 홍보, 토론회·캠페인 등
지역 사회 참여 관련성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을 참여의 장(場)으로 함. •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접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적 차원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지역사회와의 밀착도는 낮은 편이지만,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 주변의 문제를 건의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음.

출처: 여성가족부(2016c), pp.82-86 내용을 표로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주: 지역사회 참여 관련성은 연구진이 추가 작성하였음.

3)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전통적인 청소년참여기구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확대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제도로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예산제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의회는 과거에는 의회 방청이나 단순 의정활동 체험에 그쳤지만(내일신문, 2017.08.23.),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회 사업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당을 구성하며, 지역사회를 비롯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와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강동구,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직접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보자 신청부터 선거의 전체 과정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한다(내일신문, 2017.08.23.).

청소년의회 사업을 통해 송파구 청소년의회는 그간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65개 정책을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학교주변 신호등 개선이나 중고생 교통카드 지원 등에 관해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되었다(내일신문, 2017.08.23.). 또한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소년인권센터 설치·운영안, 청소년 연합축제 기획안 등을 의결했다(내일신문, 2017.08.23.). 아울러 은평구 청소년의회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회 지원예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중학생들을 위해 주말·방학기간에 고등학교를 개방하고, 학생회별로 교류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내일신문, 2017.08.23.).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청소년의 일상적 삶과 연계되거나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나갈 문제들로서, 청소년의회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청소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관계부처합동, 2012: 58)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예산을 제안하고 조정하며, 청소년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과 예산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윤민중·정은진·정건희, 2016: 16-17)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참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 배정에 의존하며 일회성 정책 제안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 왔던 데 비해,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이 행정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 심의에서 우선순위에 포함되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할 것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소년 정책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윤민중·정은진·정건희, 2016: 17-18).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 역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 왔다. 기존의 청소년참여기구들에 배태되어 있던 대표성 문제, 운영의 형식성, 공감대 부족, 청소년참여기구와의 차별성, 참여인원 확보에 따른 어려움 등이 청소년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들로 거론된다(윤민중·정은진·정건희, 2016: 18).

4)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1) 개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분석에서 검토할 사업 가운데, 앞서 살펴본 참여기구들과 구별되는 참여 정책으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이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6c: 87).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0년 공모를 통해 청소년관련 기관을 지원하던 ‘참여공모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20개 내외의 팀을 선정하여 지원해왔다(여성가족부, 2016c: 87). 이후 2011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2011년에는 74개팀, 2012년에는 60개팀, 2013년에는 65개팀이 지원을 받았고, 2014년 및 2015년에는 각각 70개팀,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50개 팀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여성가족부, 2016c: 87)⁸⁾.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참여 부문은 사회구성원 관계 개선, 지역사회 개발 개선, 청소년 권익 개선, 청소년 정책과제 실현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모팀을 선정한다. 참여 부문에 주로 포함되는 활동 내용을 다음과 같다.

표 III-4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 부문 세부 분야별 주요 활동 내용

세부 분야	활동 내용
지역사회 개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홍보 및 문화유산 지키기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사회구성원 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세대 간 소통·화합 프로그램 개발·활동 • 소수자(장애, 다문화, 취약 등)를 위한 활동 및 의식 개선 • 학교내외 유해환경 개선, 학교폭력방지 및 청소년보호 활동 • 지역의 환경변화에 참여하여 의식을 개선하는 활동
청소년 권익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권리(청소년 근로, 선거권 등) 보장을 위한 활동 • 청소년 공공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8) 2016년까지 선정된 공모팀의 수는 여성가족부(2016c: 87) 자료를 참조하였고, 2017년 수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3.3). ‘2017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자료를 참고하였다.

세부 분야	활동 내용
청소년 정책과제 실현	•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과제와 관련된 활동

출처: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홈페이지, <http://www.wngonet.go.kr/ycon/hs/intro/intro/intro.do>에서 2017.09.29.인출.

(2) 신청자격 및 선정 기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참여’ 부문을 제외한 여타 사업(활동 및 보호)에서는 모두 청소년시설 및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특수법인 등이 공모의 주체가 되지만, ‘참여’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청소년관련 시설·단체 내 위원회·동아리, 학교 내 동아리 등 ‘자율적으로 구성된 청소년팀(10~20명 내외)’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공모사업 홈페이지, 2017.09.29.인출). 팀 구성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24세 이하) 위주로 하되, 프로그램 지도·자문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또는 교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공모사업 홈페이지, 2017.09.29.인출).

참여 사업 선정 기준은 활동·보호 분야와 유사한데, 사업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 창의성, 단체역량 및 지도자 전문성, 사업 기대효과, 프로그램 창의성 및 청소년 참여도,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도, 지역사회 변화 기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5> 참조). 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제시된 기준도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지표가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타 활동·보호 분야와는 달리 참여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 분야의 경우에는 청소년참여에서 강조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제시된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도’등이 청소년의 주도성·자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포함되어 있는데, 단지 프로그램 기획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 과정을 청소년들이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 이미 정형화 된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객체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등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III-5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심사기준

심사기준	세부 지표
사업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체계성, 사업추진 일정 준수 가능성 항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프로그램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내용의 독창성 청소년의 관심 및 흥미 유발 가능성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기획과정에서의 청소년 의견 반영
단체역량 및 지도자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및 시설장비 확보의 적정성, 안전 및 위생관리 적절성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활용 정도, 홍보 계획 프로그램 담당자의 전문성, 기타 지도자의 전문성, 자원봉사인력 활용 정도 등
사업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결과 기대되는 파급효과, 타 기관에서의 보급가능성
프로그램 창의성 및 청소년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내용의 독창성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도 청소년팀 구성원 전체의 참여의지 및 참여가능성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자의 적정성 공공기관 및 지역인프라 등 지역자원 연계·활용 정도, 홍보계획
지역사회 변화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지역특화 정도 사업추진 결과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등 그 밖의 기대효과

출처: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홈페이지, <http://www.wngonet.go.kr/ycon/hs/intro/intro/intro.do>에서 2017.09.29.인출.

상술한 심사 기준에 따른 선정 과정을 거쳐 2017년에는 사회구성원 관계 개선에 17개 사업, 지역사회 개발 개선에 24개 사업, 청소년 권익 개선에 9개 사업, 청소년정책과제 실현에 2개 사업 등 참여 분야에서 총 5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발표자료, 2017.3.3.). <표 III-6>에는 2017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 부문에 선정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 III-6 2017년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참여분야' 선정 사업

구분	사업명	기관명	지역
사회 구성원 관계 개선	우리는 Youth 2642(이웃사이)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인천
	청소년 지친마음 안아주기 Project 포옹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인천
	소원을 말해봐	곡성군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전남
	'울.화.통!'(우리 화합하고 소통해요)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서울

구분	사업명	기관명	지역
	패밀리 go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경기
	미담-대신-전달 해드립니다.	달서구청청소년수련관	대구
	뒷밭 가꾸기로 겪는 성장통 (지역주민과 성장하고 소통하기)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경남
	<춤>바람 부는 동네	문래청소년수련관	서울
	다정하고 정답게 하나되는 우리(다정하리)	산남부영아파트 작은도서관	충북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보이는 라디오 '공감 콘서트'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경기
	너와 내가 만드는 '다이어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경기
	신명나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노(는물은달라도). 바(라는대로서로의).디(덤돌이 되어보재)얼썩!!”	세종시청소년문화의집	세종
	찾아가는 안전한 대리어카 프로젝트	안양시석수청소년문화의집	경기
	청소년과 어르신의 소통과 공감의 장 '우리의 유쾌한 시간'	영월군청소년수련관	강원
	청개구리가 美(아름다워지는) 소리	청미청소년문화의집	경기
	방방곡곡 침묵에 경종을 울리다. 다(함께하는)문(화활동), 화(합의 장을 향해서!)프로젝트	청예단 전남동부지부	전남
		통진청소년문화의집	경기
지역 사회 개발 개선	강정 바다쓰기 100점!	강정청소년문화의집	제주
	아지랑이(아름다운 지구랑 함께만드는 환경이야기)	관악청소년회관	서울
	주거취약지역 환경개선 프로그램 '망원동을 부탁해' 시즌 2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서울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프로젝트 「살기좋은·면Ⅱ」	김포시청소년수련원	경기
	G-G 프로젝트 (그랑환경탐사단-그린시티하남 프로젝트)	덕풍2동청소년문화의집	경기
	버리지말개(犬)-유기동물보호예방프로젝트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대전
	문전성시<부제 : 전통시장을 통한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Ⅲ>	동구청소년수련관	인천
	정이 가득한 중랑구 전통시장과 만나기 '마케팅(Market+Meeting)'	망우청소년수련관	서울
	전통시장활성화 프로젝트 “안다.미.로 시장여행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경기
	우리동네 생생(生生) 명인통(通)	서산문화복지센터	충남

구분	사업명	기관명	지역
	YOU익 YOU해 청소년전파단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서울
	우리의 재능으로 골목을 바꾼대 골목의 귀재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서울
	청소년 여행길잡이 전주 꽃심 투어	솔내청소년수련관	전북
	한성백제 문화재를 지키는 기운 뽀 청소년들 (한성백제 문.지.기)	송파청소년수련관	서울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벽화 캠페인 “밝은 모퉁이”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서울
	대흥청단(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청소년 봉사단)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서울
	주마등(주짓수, 마을을 지키는 등불)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경기
	역.발.상(역사를 발견하여 영상을 만드는 청소년들)	양촌청소년문화의집	경기
	청소년에 의한, 하나되는 공동체 마을 ‘청소년 만세’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인천
	훈훈한 청소년이 만드는薰(훈)薰(훈)한 우리마을	일동청소년문화의집만덕불이	경기
	손수레가 요란하다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전북
	붓-topia 제주의 꿈을 그리다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제주
	도봉구 전시장(전통시장) 갈래?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서울
우리동네 아름다운 재능기부가 그린 벽화	통진청소년문화의집	경기	
청소년 권익 개선	청소년알바 알지(알바지킴이)	남동청소년문화의집	인천
	공공의 편	마포청소년수련관	서울
	정정당당, 우리들의 권리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부산
	강서구 놀이공간 랜드마크! 강서구 놀.ZONE	서울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서울
	니모를 찾아서(You가 모르는 권리를 찾아서)	서울특별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경기
	인권도 나이순인가요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청소년수련관	인천
정책 과제 실현	알바툰	중봉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경기
	MC Adventure Time!	마천청소년수련관	서울
	청소년의 정책을 구현하는 역발상	만안청소년수련관	경기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발표자료(2017.3.3.), 「2017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결과 공고」.

(3) 성과 및 한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활동장소나 시설환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체 응답자 가운데 36.3%가 활동장소와 시설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199).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청소년 프로그램공모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운영할 때, 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개선 요구도 2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참여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199).

5) 교육정책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 경기도교육청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⁹⁾

앞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개괄하였다. 이어서 여기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꿈의학교」에 주목하였다.

기실 그간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의 주도적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는 「경기꿈의학교」는 기존 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모델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2015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유·초·중등 학생의 26.4%¹⁰⁾가 속해 있을 만큼 관할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정책의 파급효과도 크다. 이에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교육정책인 「경기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9) 이 내용은 백병부 박사(경기도교육연구원)가 집필한 것을,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한 것이다.

10)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등 총 학생수는 6,635,784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 지역 학생수가 1,754,187명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22).

(1)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정책 개괄

「경기꿈의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참여하되,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기획·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는 학교”를 일컫는다(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5). 「경기꿈의학교」의 핵심은 학교 밖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내용을 학생이 직접 기획·운영한다는 데 있다. 즉 「경기꿈의학교」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어디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한데, 그 답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기획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통해 찾아야 한다는 데 기본적인 철학을 두고 있다(성기선 외, 2015; 백병부 외, 2017).

이러한 「경기꿈의학교」의 지향점은 「경기꿈의학교」의 가치체계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림 III-4]에는 ‘2017 경기꿈의학교 가치 체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경기꿈의학교」는 “스스로 꿈꾸고 도전하는 학생”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상상, 질문, 기획, 스스로, 도전, 열정, 성찰, 민주, 공동체 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있다(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 내부자료). 이것은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기획과 도전을 강조한 경기꿈의학교의 취지나 목적과 상통하는 것이다.

2015년 처음 시작된 「경기꿈의학교」는 초기에는 방과후 꿈의학교, 계절형 꿈의학교, 심포형 꿈의학교, 혼합형 꿈의학교 등 4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고, 개인과 비영리단체, 지자체, 교육지원청, 교사동아리 및 연구회 등이 응모할 수 있게 하였다(백병부 외, 2016). 2015년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2016년부터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와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로 구분하고, 운영 단계도 ‘마중물 꿈의학교’, ‘꿈의학교’, ‘심화형 꿈의학교’로 세분하였다(백병부 외, 2016).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는 공모를 통해 교사, 학부모, 비영리단체 등을 운영 주체로 선정하고, 이들이 학교장으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한 반면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이 특정 꿈의학교의 학교장이 되도록 하여 이들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학생 모집, 강사 섭외 등 꿈의학교 운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보다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가 학생주도성을 훨씬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백병부 외, 2016).

2017 경기꿈의학교 가치체계 (안)



출처: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 내부자료(2017). 2017 경기꿈의학교 가치체계.

【그림 III-4】 경기꿈의학교 가치 체계

이와 관련하여, <표 III-7>과 <표 III-8>에는 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2015-2016년 「경기꿈의학교」 운영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2017)에 따르면 2015학년도에 운영된 꿈의학교 중에서 ‘대표형 꿈의학교’가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보면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는 2015년에 25교에서 2016년 148교로 6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참가 학생도 2015년에는 674명에 그쳤지만, 2016년에는 3,236명으로 증가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도출된 이 같은 성과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할 때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7 경기꿈의학교 정의 및 추진 개요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정의	•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참여하되,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기획·운영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학교	
운영주체	비영리단체 중심	학생, 교사, 학부모, 비영리단체, 지자체, 개인 등 다양화
운영유형	방과후/계절형/심표형/혼합형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운영단계	구분 없음	마중물 꿈의학교 → 꿈의학교 → 심화형 꿈의학교
학교연계	없음	교육지원청에 ‘학교-마을 공동실천모임’ 시범 운영
예산지원	도교육청/도청	도교육청/도청/시군지자체

출처: 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2016), 백병부 외(2016: 21), <표 2-2>에서 재인용.

표 III-8 2015-2016년도 경기꿈의학교 유형별 현황

유형	2015년도			
	방과후, 계절형, 혼합형 꿈의학교	토요 꿈의학교	심표형 꿈의학교	계
학교 수	51	67	25	143교
학생 수	4,240	3,459	674	8,373명
지원예산(천원)	2,522,900천원	1,559,852천원	498,063천원	4,580,815천원
교당 평균지원액(천원)	49,469천원	23,281천원	19,923천원	평균 30,891천원
학생1인당지원액(천원)	595천원	451천원	739천원	평균 595천원
유형	2016년도			계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학교 수	215	148		363교
학생 수	11,391	3,236		14,627명
지원예산(천원)	6,253,689천원	1,049,191천원		7,302,880천원
교당 평균지원액(천원)	29,087천원	7,089천원		평균 18,088천원
학생1인당지원액(천원)	549천원	324천원		평균 436천원

출처: 백병부 외(2016: 22-23), <표 2-3> 및 <표 2-4>. 원자료는 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내부자료.

(2) 경기꿈의학교 추진체계 및 주요 특성

① 추진 체계

「경기꿈의학교」는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컨설팅, 오리엔테이션, 인증제로 이어지는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꿈의학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면담내용, 2017.7.17.).

다음으로, 경기도 전체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도교육청-교육지원청-꿈의학교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권역별로 지정된 꿈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컨설팅과는 별도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7).

아울러, 경기꿈의학교 운영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 워크숍, 개교 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쇼미더스쿨’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컨퍼런스는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학생 주체(꿈짱)와 이들을 지원하는 성인(꿈지기)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꿈의학교의 상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꿈의학교 평가 및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꿈의학교의 일부를 우수 꿈의학교로 인증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자원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백병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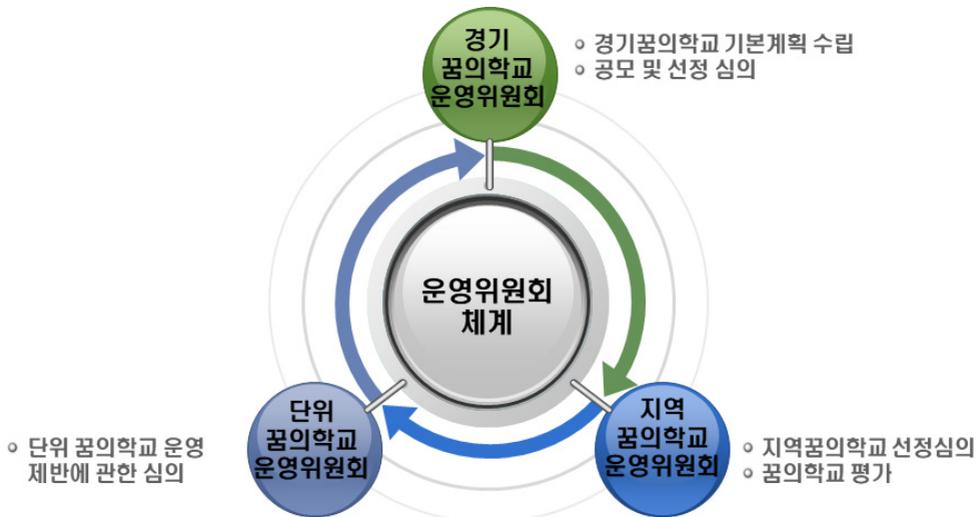
표 III-9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 오리엔테이션 ‘쇼미더스쿨’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주요 내용
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 열고 이야기 경청하기 - 꿈꾸는 것이 왜 중요하지? - 꿈꾸는 걸 어떻게 실행할까?
방글방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하는 우리, 반가워요! - 간단한 자기 소개, 꿈의학교 소개 - 인사하고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이름	주요 내용
몽실몽실	○ 선배 꿈쟁들의 사례 알아보기, 지역별 모임 만들기 - 우리가 정말 꿈의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까? -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와글와글	○ 꿈의학교 운영 방안 나누기 - 마을에서 함께 할 방안 나누기 - 꿈의학교 운영 아이디어 나누고 구체화하기
똑똑똑	○ 학교운영계획 정리하고 표현하기 - 아이디어 다듬고 정리하기 - 종이상자에 학교 운영 계획 표현하기

출처: 백병부(2017: 9).

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각의 꿈의학교에 꿈의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꿈의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과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과 단위 꿈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꿈의학교를 중심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꿈의학교를 비롯한 마을의 교육 기능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2017)에서 규정한 각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출처: 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2017)에 제시된 운영위원회 주요 기능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Ⅲ-5】 「경기꿈의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체계 및 기능

꿈의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함으로써 마을의 교육 기능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교-마을 공동실천모임이나 꿈지기 및 마을 리더 연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교-마을 공동실천모임은 지역의 교사, 학부모, 지자체·유관기관 실무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해낼 뿐만 아니라 경기꿈의학교의 활동과 학교의 교육과정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② 주요 특징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사업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에 갖는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별 운영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는 2016년부터 운영단계를 마중물 꿈의학교 → 꿈의학교 → 심화형 꿈의학교의 3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백병부 외(20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꿈의학교’의 취지가 학교 안팎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비롯한 마을의 교육력이 ‘마중물 꿈의학교’를 통해 결집되도록 하여 경기꿈의학교의 취지와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들이 ‘경기꿈의학교’로 지정되도록 하여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꿈의학교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 운영된 경기꿈의학교의 일부를 ‘심화형 꿈의학교’로 전환하여 활동의 깊이와 지속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꿈의학교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조직(시·도교육청)-중간조직(교육지원청)-단위학교(개별 꿈의학교) 간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전체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도교육청-교육지원청-꿈의학교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권역별로 지정된 꿈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컨설팅과는 별도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7).

(3) 사업 성과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모델로 시도되는 ‘경기꿈의학교’는 일부 보완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과 방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성과와 관련하여, 백병부 외(2015)에서는 경기꿈의학교가 기존의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기 힘든 성과를 거두었다

고 보고했다. 참가 학생들에게 몰입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맛보게 했다는 것이다(백병부·성열관·양성관, 2015). 나아가 일부 경기꿈의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진로모색을 위한 공적 체험의 장이 되도록 했고, 이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복원에 기여한 점도 있다고 보고했다(백병부·성열관·양성관, 2015).

특히 백병부·성열관·양성관(2015)의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성과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했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이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사교육이나 청소년수련원 등과 같은 학교 밖 프로그램과 구분된다. 백병부·성열관·양성관(2015)에서는 경기꿈의학교에서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이 실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이들은 이와 같은 방식이 참여 학생들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여 전술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백병부·성열관·양성관, 2015).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향후 개발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작동할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 분석 결과, 현행 법령에는 청소년참여의 당위성, 정부가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청소년참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기존의 법령 및 정책분석 내용은 그간 청소년참여 정책이 대부분 참여기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외 여타 참여정책이나 사업은 충분히 발굴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소년참여가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본다면, 참여의 기회가 소수의 청소년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령에서 선언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의 기회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참여정책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별한 '이벤트'로서의 참여가 아닌,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참여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술한 참여기회의 확대와 일상적 참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사업은 총 240개이며, 이 가운데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정책은 총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청소년사업에서 2.5%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 6건의 정책 가운데 4건이 참여기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참여정책의 빈곤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943건 가운데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정책은 총 50건으로 파악되었고, 이 가운데 36개 사업이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청소년참여 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관심으로는 참여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난망하다.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은 양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지만, 질적으로도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고, 의견 제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정책 환경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새로 발굴되는 정책사업들은 참여기구 중심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참여가 실제 변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문에서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령기 학생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대다수가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참여는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청소년참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이 증진되어야 하며, 학교와 연계한 참여사업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정책과 관련하여, 군산시가 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등은 향후 청소년 참여 정책의 방향 설정이나, 본 연구에서 개발할 지역사회 참여 모형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군산시 조례는 조례의 제정 과정에도 청소년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조례의 내용도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등 참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추진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은 일부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참여 사업 가운데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이 아니라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마을과 연계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IV 장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의 개요
2. 청소년시설 중심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작된 변화」
3.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4. 핀란드 청소년 사회참여 시스템 「루티(Ruuti)」
5. 교과 내용에 반영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
사례
6.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모형 「Project Citizen」
7.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몽실학교」
8.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플랫폼,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9.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유스벤처(Youth Venture)」
10. 요약 및 시사점

제 IV 장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의 개요

1) 사례 분석의 목적

이 장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를 위해, 국내·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역사회 참여 사업 또는 프로그램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례 분석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었다.

첫째, 모형 설계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현장에서 수년간 적용되어 온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안정적인 모형 개발을 위한 구성 요소를 도출하고, 개발된 모형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며, 모형 설계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장에 안착해서 운영 중인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학교, 청소년시설 등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사례 분석이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사례별로 가급적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에서 운영 절차, 세부 프로그램의 구성, 운영 결과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석준 대표(꿈지락네트워크),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이 집필하였다. 박석준 대표(꿈지락네트워크)는 제3절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사례를 집필하였고,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는 제8절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사례를 집필하였다.

2) 사례 선정의 기준

상술한 사례 분석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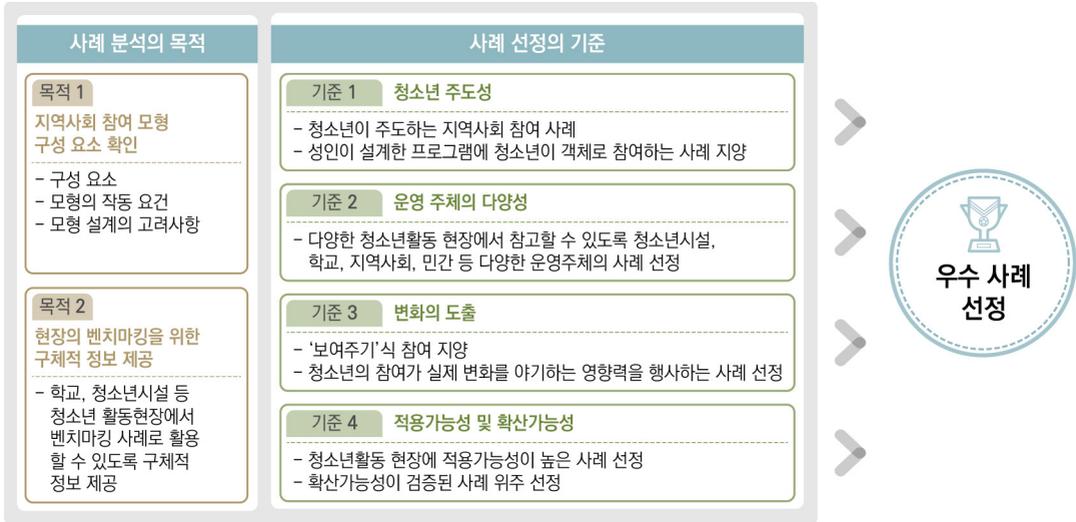
첫째, '청소년 주도성'이 확보된 지역사회 참여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중에는 성인이 주도하고 청소년이 객체로 참여하는 사례도 있고, 성인이 주도하고 청소년은 제한적으로만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그간 현장에서 추진된 지역사회 참여 사업 중에는 이 같은 형태로 운영된 사업들이 많다. 예를 들면, 성인들이 설계하고 틀을 짜놓은 프로그램에 청소년은 객체로 참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도 청소년이 참여의 경험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청소년 주도성'이라는 판단 하에, 청소년의 의사결정권한이 광범하게 보장되는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운영 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은 청소년시설을 비롯해 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등 여러 주체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이에 보다 확장가능성이 큰 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현장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주체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시민단체, 민·관 연합체, 국제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 중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셋째, 청소년들의 참여가 실제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지도록 담보하는 사례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간 시행된 청소년 참여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 가운데, 청소년 참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참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청소년 참여의 본질적인 요소가 의사결정의 공유와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실제 변화를 도출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수의 청소년 참여 사업 또는 프로그램들이 참여를 '체험해보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통해 실제로 지역사회에 변화가 야기되거나, 최소한 이러한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내포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형의 확산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지역사회 등 청소년활동 현장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위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급적 이미 다른 곳에 확대 적용해봄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이 검증된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림 IV-1]에는 본 장(章)에서 실시한 사례 분석의 목적과 선정 기준을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IV-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선정 기준

상술한 목적과 선정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 가운데 다음의 8가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작된 변화'사업(Case 1)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7년째 지속되고 있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수년 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인근 학교 및 타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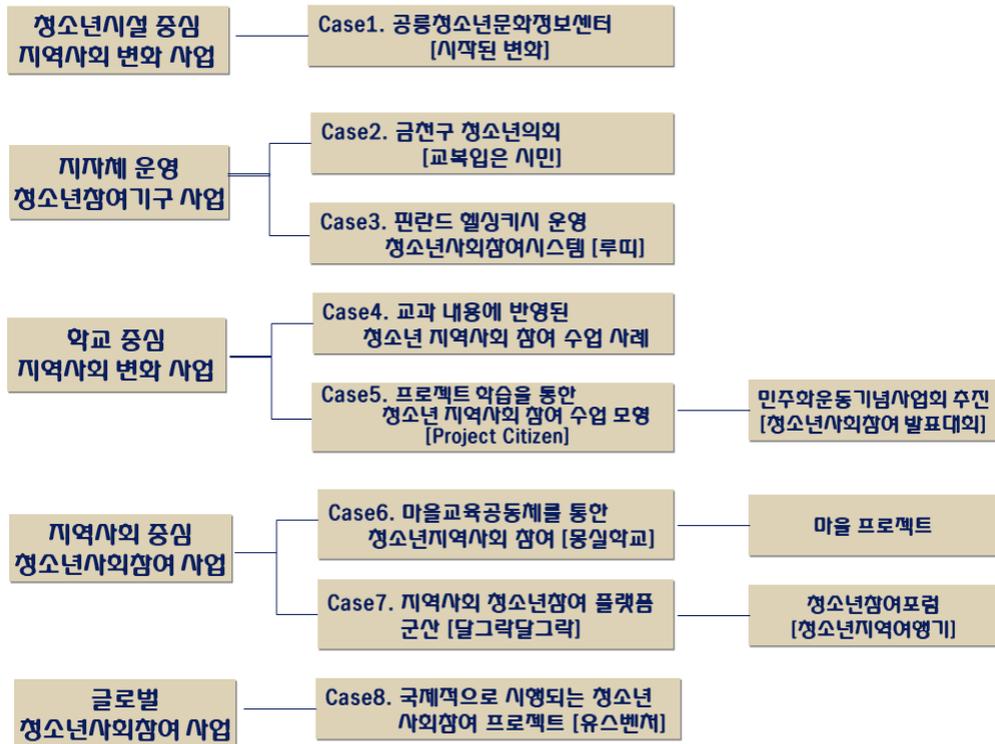
둘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 사업 가운데 발전된 모형으로 평가되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사업 '교복입은 시민'(Case 2)과 핀란드 헬싱키시가 운영하는 '루띠'시스템(Case 3)을 소개하였다. 서울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은 관내 청소년들이 총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하는 대안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마을정부를 구성하거나,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의회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실행력이 높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핀란드 헬싱키시가 운영하는 '루띠(Ruuti)'는 기존의 청소년의회 제도가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집중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루띠는 헬싱키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된 지역사회 참여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교과 내용에 반영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 사례(Case 4)를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 내용을 반영한 사례와, 고등학교 '지역 이해' 교과에서 적용된 사례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사회과 교과에서 프로젝트 학습으로 광범하게 시행되는 'Project Citizen'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 사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80여개국에 도입되었는데, 국내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청소년사회참여 발표 대회'를 통해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함께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 청소년 사회참여 사업으로 경기도 의정부에서 적용 중인 '몽실학교'(Case 6)와 전북 군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Case 7)을 검토하였다. '몽실학교'는 본래 지역사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던 학교 밖 배움터에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확대된 사례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되어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군산에 위치한 시민단체인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운영 주체가 민간영역이며, 지역사회와의 광범한 유대와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특히 군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소년들의 제안 내용이 실제 시정(市政)에 반영되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유스벤처(Youth Venture)'(Case 8)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단체 아쇼카(Ashoka)에서 사회혁신가의 범위를 확장하여 장려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여년 동안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되어, 37만 5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쇼카한국, 2017: 20).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가능성이 크며, 특히 한국에서는 학교 수업을 통한 적용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정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청소년시설,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운영 프로그램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각 사례별로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례 도입·운영의 배경 또는 개요를 개괄하고, 각 사례의 운영 방법이나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성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 장에서 검토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의 구성과 제시 순서는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대상

3) 사례 조사를 위한 전문가 면담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 자료 검토와 더불어, 각 사례별로 담당자 또는 해당 사례를 적용해 본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검토한 8개 사례 가운데, 핀란드 헬싱키의 '루띠'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별도의 면담 또는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나 성과, 주된 고려사항 등에 관해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전문가 면담 내용은 크게 해당 사업 운영 배경과 사업의 주요 내용,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가능성, 운영상의 애로사항, 주요 성과, 청소년 참여모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면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는 각 사례 분석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였다. <표 IV-1>에는 면담조사 주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IV-1 전문가 면담조사 주요 내용

면담 주제	구체적 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내용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및 추진 경과 • 활동의 내용 및 운영 방법 • 해당 활동 운영 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연계 • 활동의 성과 등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 운영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 등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학교 교육 간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제도적 개선사항 등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 추진의 애로사항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사항 <p>정책 추진 주체(예: 학교, 지자체, 중앙정부)별 개선 사항</p>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또는 교육분야) 전문가 입장에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 시, 반영 또는 고려하기를 희망하는 사항 • 기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2. 청소년시설 중심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작된 변화」

Case 1	청소년시설 중심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작된 변화」			
사례 개요	• 서울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2011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사회참여활동			
사례 특징	운영 주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소년시설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자체)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
	접근 기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개방성 낮음	
	정책 제안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책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비공공부문 제안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혼합형

1) 개요 및 배경

노원구에서 2011년 시작된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사회참여활동으로, 1년 간 지속되는 프로젝트로서, 실천 활동을 통해 마을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비판적 사고 능력, 기획력과 실행력을 기르고, 활동 과정에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이승훈, 2013: 28).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청소년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11년 9개 팀의 참가로 시작된 이래, 1년 만에 2012년 16개로 참가 팀이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21개팀, 2015년 37개팀, 2016년 47개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뿐만 아니라,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혁신교육센터(노원구청 교육지원과), 문화공동체취는시간 등 지역사회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작된 변화 리플렛 참조, 2017.10.11.인출).

2) 주요 내용

(1) 운영 방법¹¹⁾

「시작된 변화」는 개인이 아니라 모둠을 단위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둠을 구성해서 지원하면 된다. 활동은 크게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한 다음,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를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따른다.

제1단계인 ‘모여서 동네 돌아보기’에서는 모둠을 구성한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을 탐색하면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동네를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했다면, 2단계인 ‘변화 계획 세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동네를 돌아보며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마을에서 발견된 문제점 중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3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세운 계획을 실제 현실에 적용해서 실천해보는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회를 통해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11)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은 「시작된 변화」 리플렛(<http://www.gycenter.or.kr/sub02/sub03.php?ptype=view&idx=5241&page=1&code=sub0203>)에서 2017.10.11.인출)의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출처: 「시작된 변화」 리플렛 내용을 참조하여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V-3】 노원구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시작된 변화’ 활동의 4단계

한편, 「시작된 변화」에서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워크숍을 활용한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담당 지도자 간의 주기적인 만남과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사전에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이 워크숍에서 청소년들은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을 만날 기회를 갖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을 키운다(이승훈, 2013: 28). 워크숍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기인 4월,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인 여름방학 이렇게 2번 진행되는데, 여름방학 중 워크숍은 ‘세상과 마을을 바꾸는 청소년 학교’라는 이름을 줄여서 ‘세마창’이라고 부른다(이승훈, 2013: 28).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은 대안교육운동가, 주민조직가, 인권운동가, 마을활동가 등을 만나고, 직접 소셜활동가로서 무엇을 바꾸고 싶고, 바꿀 수 있는지를 상상하고, 발표한다(이승훈, 2013: 28). 이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참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효능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이를 계기로 실제로 지역사회를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게 된다(이승훈, 2013: 28).

(2) 활동 사례 :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2016년 기준 「시작된 변화」 사업에는 총 47개팀이 참여했는데, 활동 내용은 크게 마을 공동체, 사회인식 개선, 친화적 환경 조성, 환경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마을 공동체 영역에 15개팀, 사회인식 개선 영역에 10개팀, 친화적 환경 조성 7개팀, 환경 영역 11개팀이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노원구청 혁신교육지원센터·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2016). <표 IV-2>에는 2016년에 참가한 4개 영역 43개 팀의 활동 내용이 간략히 정리되어 있다.

표 IV-2 2016년 '시작된 변화'를 통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프로젝트 내용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마을 공동체	내가 아는 과학 이야기	• 과학고 학생들과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는 활동
	전통시장아, 다시 숨쉬어볼래?	• 지역 전통시장인 상계중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활동을 계획 및 실행
	일상생활에서 이웃 간의 정 되찾기	• 학교 친구들과 이웃 주민들 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인사 캠페인, 하이파이브 캠페인 실시
	식물을 통해 마을과 소통하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들리니?”	• 마을 사람들 간의 소통이 단절된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고자 식물을 이용한 여러 활동 진행
	청소년의 고민은 우리에게 말해보세요!	• 우리 동네 청소년들의 고민(연애, 학업, 진로)을 들어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 수행
	스에노의 문지 마 도시락 배달	• 이웃과 직접 소통하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 마을의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감사한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 비가 오는 날에만 볼 수 있는 길거리 아트를 실시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그지’ 같은 시간, 재미있게 보내기	•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 실시
	쿨 썸머	• 음료판매활동을 실시하고 판매수익금을 기부하는 봉사활동
	마음대로 꿈꾸는 마을	• 음료 및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을 동네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봉사활동
	골목길에서 하려고 했던 골목축제 프로젝트	• 마을 주민들이 서로 정을 나누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
	‘한도초과’ 될 때까지 한 번 놀아볼까?	• 동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다양한 놀이 활동 실시
	유기견 구출 대작전	• 각종 마을행사에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유기견 보호 단체에 기부하는 프로젝트 진행
	메마른 감성에 단비를 내리다	•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문학의 날’ 활동 진행
사회 인식 개선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과 교육활동	•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마을의 맞벌이 가정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냄
	일상생활에서 욕 사용 줄이기	• 마을 축제 참여, 욕 사용 금지 캠페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욕 사용 줄이기 프로젝트
	위안부 소녀들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 일본군 ‘위안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위안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실시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월호”	• 노란리본의 의미, 세월호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한 활동
	시민보호를 위한 안전귀가 서비스 홍보	• ‘여성안전귀가서비스’의 홍보 개선 및 건의를 통해 안전귀가서비스의 활성화 및 안전한 마을(노원구) 만들기
	유기동물 인식개선 프로젝트	• 유기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청소년 문제 해결사 - 제대로 알고 행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고 필수적인 아르바이트에 관한 수칙들과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법을 안내
	청소년 여가생활 개선	•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개선을 위해 노원구 내의 적절한 여가활동 장소의 정보(교통정보, 이용안내 등)를 제공
	노원구 문화의 거리 흡연 방지 및 미화 캠페인	• 노원구 문화의 거리에 직접 디자인한 재떨이를 설치하여 금연효과 및 거리 미화 캠페인
	우리학교 특수학급 친구의 인권 지키기 프로젝트! - 시선[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	• 특수학급 친구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학교폭력예방 인권 동아리
	노원구 복지정책 바로 알리기	• 노원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원구 구민 대상 복지서비스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 템플릿(책자)을 제작 및 배부
	계단 사용 권장 캠페인 활동	•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을 때의 좋은 점을 안내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
	이러려고 뱃지 만들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 마을을 위한 뜻을 담은 팬시(뱃지, 스티커) 제작 및 판매
	공릉중학교 냄새 탈취 작전	•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내의 문제·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릉중학교 화장실에 방향제 설치
	죄송한데요... 냄새나요..	• 원자력병원 앞 쉼터인 열린 공간의 흡연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금연거리 설정 운동 전개
친화적 환경 조성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 인권 의식의 향상 - 서라벌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통해	• 교내 쓰레기통의 위치와 개수 변화에 따른 쓰레기 감량과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학교의 학습 환경 개선
	버스를 타요 - 버스 이용의 불편함 개선	•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소 버스 이용 시에 경험했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신호등이 필요해요	• 마을의 교통 문제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
환경	지금 길거리는 개판 오 분전!	• 노원구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동시에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여 마을의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을 개선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업사이클링(Upcycling)	• 버려지는 물건을 다른 용도의 물건으로 업사이클링하여 이웃(복지관, 탁아소)에 기부
	공릉2동의 쓰레기 우리 개미들이 책임진다!	• 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난 수익금으로 우리 마을 경춘선 철길에 직접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관리
	청결 유지를 통한 건강한 마을 만들기(M.I.Clean?)	• 청결유지를 통한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천연 비누 제작 및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명, 당현천을 지켜라!	• 우리 마을 하천(당현천)의 환경정화 활동(쓰레기 줍기)
	돌아다니는 쓰레기통으로 청결한 은행사거리 만들기	• 은행사거리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 및 쓰레기 올바르게 버리기 캠페인 실시
	어서와, 업사이클링은 처음이지?	• 재활용, 업사이클링을 알리기 위해 직접 업사이클링을 실천한 뒤 영상을 찍어 SNS에 홍보
	음료수 병뚜껑을 이용한 아트	• 깨끗한 노원구 길거리를 만들기 위해 길거리에 버려진 음료수 병뚜껑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
	우리 동네 주변의 마을쓰레기	• 노원역에 버려지는 무분별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민원 등 다양한 방법의 활동 실시
	재활용품으로 청소 도구 만들기 및 쓰레기 줍기	•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청소도구를 만들고 직접 청소도구를 활용해 쓰레기를 수거
	환경이 갑이다!	• 환경과 관련된 명언 책갈피, EM활성액을 이용한 비누·발효액을 만들어 노원구 주민에게 배부

출처: 노원구청 혁신교육지원센터·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2016). 2016년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보고서 ‘시작된 변화’. 전체 내용을 압축하여 표로 재구성.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노원구 용화여고 및 청원여고 1~2학년 학생들 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SEED’에서 추진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SEED팀은 경제·경영 분야에서 동아리 팀원들의 관심을 고려해, 관심이 많은 의제를 결정하기로 하고, 마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에 의해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전통시장 살리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노원구청 혁신교육지원센터·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2016: 9-1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탐방, 소비자 및 상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수요 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주된 대상으로 삼은 상계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충,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행사나 기획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상인들이 바라는

젊은 젊은 세대의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데 착안하여, 청소년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시장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노원구청 혁신교육지원센터·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2016: 9-14).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회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였다. <표 IV-3>에는 상술한 참여 활동의 과정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표 IV-3 2016년 ‘시작된 변화’ SEED동아리의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주요 내용

단계	과업	주요 활동 내용
모여서 동네 돌아보기	문제 확인	• 청소년들이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마을을 탐색한 결과, 청소년 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대형마트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살리기의 2가지 의제를 발견하게 됨.
	주제 선정	• 동아리 구성원들이 모두 경제·경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시된 2가지 의제 가운데 최종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를 활동 주제로 선정함.
변화 계획 세우기	활동 계획 수립	• ‘시작된 변화’ 전체 오리엔테이션 이후, 멘토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주제를 구체화시켜 나감. • 2016년 7월 24일,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상계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직접 탐방함. – 현장조사 이후, 프로젝트 주제를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보다 구체화하여, ‘상계중앙시장의 이용 활성화하기’로 일부 수정하게 됨.
	설문 조사	• 실태 파악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상계중앙시장 소비자와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함. – 2016년 8월 5일, 상계중앙시장 인근 노원정보도서관에서 소비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2016년 8월 11일, 상계중앙시장 상인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 실시
	개선방안 도출	• 주차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할인행사 및 문화행사의 기획, 젊은 연령층의 시장 이용 등에 대한 수요를 확인 • 이 가운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 도출
실천하기	캠페인 활동	• 상계중앙시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직접 상계중앙시장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진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퀴즈 이벤트 실시
성찰하기	활동 소감	•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게 여겨졌던 활동들을 조원들이 협업하여 잘 추진할 수 있었음. •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앞으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 태도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됨.

출처: 노원구청 혁신교육지원센터·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2016). 2016년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보고서 ‘시작된 변화’ 9-14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3) 성과 및 시사점

이 사업을 기획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이승훈 센터장은 「시작된 변화」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스스로 찾은 마을 문제의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타인과 관계 맺기, 협력과 협동, 갈등 관리와 조정 등의 역량을 기르게 된다(이승훈, 2013: 28-29). 또한,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탐색하고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성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이승훈, 2013: 29).

‘시작된 변화’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무대로 참여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을 구성원과 자원 간의 연계효과가 높아졌다는 점이다(이승훈, 2013).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해서 실천하는 활동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 중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들도 속속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통해 기존 구성원들도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하게 되었음을 방증한다(이승훈, 2013: 22). 이 같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 지지적 관계는 청소년 참여 활동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이승훈, 2013: 28). 요컨대,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제고되고, 이러한 지역 내 사회자본과 구성원 간 신뢰와 우호적 관계가 다시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관계가 조성된 것이다.

둘째,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이끈 초기 모델로서,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로 확대 적용되었다. 청소년시설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시작된 이 모델은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도 도입·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안으로도 확산 되고 있다. 실제로 월계동의 염광중학교와 녹천중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시작된 변화」 모델을 도입하여 적용 중이다(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면담 내용, 2017.09.05.). 또한 앞서 제시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꿈의학교」 정책과, 「몽실학교」 사례에서도 「시작된 변화」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면담 내용, 2017.09.05.). 이 같은 확장은 지역사회 참여 모델이 청소년시설은 물론, 학교 현장, 지역사회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¹²⁾

Case 2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참여기구 활동,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사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총선거를 통해 청소년정당을 선출하고, 청소년의회를 구성 • 청소년의회는 구(區)가 추진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청소년정당을 통해 마을정부를 구성해서 직접 정책을 실행 				
사례 특징	운영 주체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부(지자체)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
	접근 기회	<input type="checkbox"/> 개방성 높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성 낮음		
	정책 제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공정책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비공공부문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1) 개요 및 배경

서울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은 금천구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선거 방식으로 총선거를 통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주민참여예산제와 접목하여 청소년정책에 대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며, 마을정부와 연계하여 정책실행까지 함께 한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되는 다양한 청소년의회 운영 모델 가운데 가장 진일보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동안 청소년의회는 지방의회 방청이나 단순 의정활동 체험에 머무르는 등(내일신문, 2017.08.23.), 피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 참여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회도 이전 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청소년이 주도하는 의회이자,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례로 평가받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사례를 검토하였다.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은 기존에 운영되던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되었다. 금천구에서는 본래 2012년부터 ‘금천청소년별발두레단(약칭 금별단)’이라는 명칭의 금천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다(조성익, 2017: 21). 금별단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30명을 공개모집하여 청소년정책토론회, 청소년연합축제 등 다양한 청소년사업을 직접 기획하여 운영해왔다(조성익, 2017: 21).

이러한 금별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정책참여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기회를

12) 이 내용은 박석준 대표(꿈지락네트워크)가 작성한 것을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재구조화 및 수정·보완한 것이다.

얻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별단을 구성하는 청소년의 대표성 부족, 금별단이 제안하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조성익, 2017: 23). 금별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원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참여의 제약이 없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만, 선발에 관한 정보가 관내 청소년에게 모두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천구 청소년을 광범하게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조성익, 2017: 23). 또한 금별단에서 제안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애써 발굴한 정책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조성익, 2017: 23).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면서 청소년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생겨났다는 점이다(조성익, 2017: 23).

이에 금천구에서는 새로운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참여기구를 지금과 같은 청소년의회의 형태로 운영하게 된 것도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다. 즉,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논의하면서 금천구에서는 기존과 같이 성인들이 모두 구성해놓은 무대에 청소년이 역할극처럼 참여하는 ‘보여주기’식의 참여기구는 지양할 것을 분명히 했다(박석준, 2017). 그리하여 청소년을 대표할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당사자인 청소년이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2015년 7월 금천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와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 즉 금별단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새로운 청소년참여기구의 필요성과 그 구성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박석준, 2017).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들이 현재 운영되는 「교복입은 시민」 프로젝트와 같은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구성원리 및 의사결정의 구조를 도출해냈다(박석준, 2017).

2) 주요 내용

(1) 청소년의회 구성

금천구 청소년의회 구성은 학생회와 자기추천의 두 가지 통로를 통해 구성되는데, 학생회 대표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생 대표로 뽑힌 학생집단(학생회, 학생간부 등) 중 청소년의회 참여 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참여한다(조성익, 2017: 23). 학생 대표가 청소년의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생이기 때문에,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당위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금천구 청소년의회 사업담당자 면담내용, 2017.09.05.). 한편, 학생 대표 외에 자기추천으로도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자기추천은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의회 참여의지가 있지만 학교 내 학생회에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조성익, 2017: 23). 이 같은 참여방식을 통해 2017년 청소년의회는 약 120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2) 의사결정 구조 : 청소년정당제 도입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당제를 채택했다. 청소년 정당제를 채택한 이유는 대부분의 청소년기구가 따르는 분과별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분과별 조직에서는 각각의 하위분과들이 명목상 조직의 성격이 강하고 실행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소속감, 공동체성이 약하다는 문제들이 노정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제 중심의 운명공동체인 '청소년정당'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박석준, 2017).

새로 만들어지는 청소년기구는 학교별 조직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당제의 형태를 띠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학생회 대표들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한 축을 이루는데,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교별 실행조직과 선거가 연동될 경우, 학생수에서 우위에 있는 학교가 청소년의회를 장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청소년의회의 논의가 특정 학교의 문제로 한정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다(박석준, 2017).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정당을 구성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기존의 청소년참여기구에 내재되어 있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박석준, 2017). 이와 관련하여, [그림 IV-4]에는 2017년 구성된 제2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정당들이 제시되어 있다. 2017년에는 '할수있당', '똑같이위풍당당', '밝은미래당', '꿈틀당' 등 4개 정당이 구성되었다. '할수있당'은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고, '똑같이위풍당당'은 청소년인권 문제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다. '밝은미래당'은 청소년의 교육문제를 주된 의제로 삼고 있으며, '꿈틀당'은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문제 해결이 주된 공약이다.



[정당별 주요 정책]



[청소년의회 총선거 투표 독려 홍보 포스터]

출처: 금천구 청소년의회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uthsimin>에서 2017.10.19. 인출.

[그림 IV-4] 제2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정당

(3) 실행력의 확보: 마을정부 및 주민참여제와의 연계

① 마을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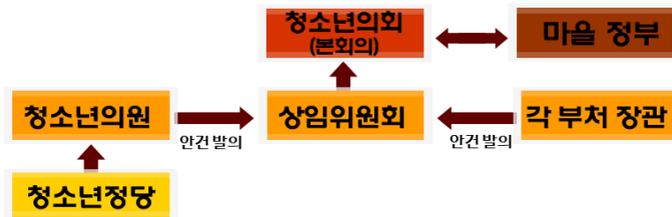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정책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인 마을정부 개념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입법과 행정의 민주주의 조직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도 여타 청소년의회와 차별화 된다. 마을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천구에서는 청소년총선거를 실시한다. 2017년 총선거는 5월 13일 실시되었고, 실제 투표와 동일한 시설에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제 투표'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조성익, 2017: 31). 총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정당은 집권당이 되고, 집권당에서 '마을총리'가 선출된다. 마을총리는 모든 정당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부처를 구성하고, 부처가 구성되면 각 정당의 청소년당원을 '마을정부 장관'으로 지명한다. 마을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은 금천구 청소년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된다(조성익, 2017: 30).

표 IV-4 제1대 금천구 청소년마을정부 구성

부처명	주요사업	장관/당명
■ 마을총리 : 오경선		
루미토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명 : luminous + history를 합친 이름 •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의식 고취 • 주요 공약 : 평화의 소년상 건립 	임권호 (밝은미래당)
사부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명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사부사부 음식에서 차용 • 주요 공약 : 모든 학교들이 모여 다함께 체육 교류활동 및 학교 간 체육대회 실시 	김은수 (꿈틀당)
깜냥깜냥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명 : '자신의 힘을 다하여'라는 의미 • 주요 공약 : 청소년 선거권 확대 요구 	이 온 (할수있당)
팝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명 : 톡톡튀는 아이디어 상징 • 주요 공약 : 청소년 인권 신장에 힘씀 	박수빈 (똑같이위풍당당)
꿈나르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명 : '꿈과 날아오르다'라는 뜻 • 주요 공약 :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 나갈 공간 발굴 	최예지 (꿈틀당)

출처: 조성익(2017). 30쪽.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같은 일련의 사업들이 기성세대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청소년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주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는 [그림 IV-5]와 같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인의 의견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청소년정당 또는 각 부처에서 수렴된 의견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가다듬어지고,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후, 가부(可否)를 다루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둘째, 어떠한 의견도 견제 받지 않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정 정당의 정책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정당의 견제를 거쳐 정책이 발의되며, 입법과 행정의 균형을 통해 정책이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성을 통해, 청소년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만한 납득 가능한 정책들이 도출되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박석준, 2017).



출처: 박석준(2017). 2쪽.

【그림 IV-5】 금천구 청소년의회 의사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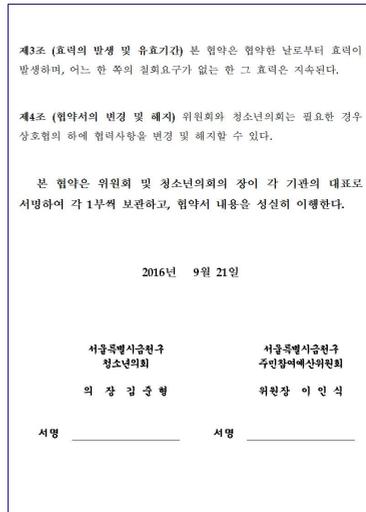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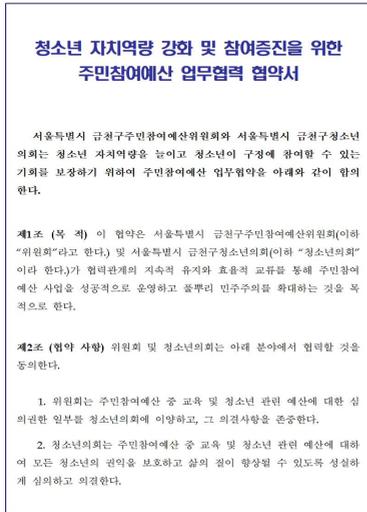
②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에 청소년의회의 참여 보장 13)

아울러 금천구에서는 청소년의회 활동 내용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에 청소년의회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조성익, 2017: 28). 금천구에서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참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금천구에서 운영되는 기존의 청소년 참여기구가 참여예산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의사결정 집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조성익, 2017: 28).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청소년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전에 실행하지 못했던 청소년의 정책참여가 다시 화두에 올랐고, 청소년의원과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회에 주민참여예산의 심의·의결권 등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었다(조성익, 2017: 28). 그 결과, 금천구에서는 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일부를 청소년의회에 이양하고, 그 의결사항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조성익, 2017: 28).

청소년들이 이처럼 교육 및 청소년 사업 예산에 심의·의결 권한을 갖게 되자, 거버넌스에 중요한 변화가 야기되었다. 이전까지 청소년의회는 그들이 제안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촉구하는 데 그쳤지만, 협약 체결을 통해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면서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조성익, 2017: 29). 청소년들이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청소년 관련 사업과 예산을 구성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경험은 이른바 ‘청소년에 의한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조성익, 2017: 29)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별화 되는, 진일보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13) 이 내용은 조성익(2017: 28-30)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전문가 면담내용을 반영·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출처: 금천구 교육지원과 내부자료. “청소년 자지역량 강화 및 참여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업무협약 협약서”.

【그림 IV-6】 청소년의회의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 심의·의결권한 보장을 위한 협약서

(4) 민간과의 유기적 연계: 청년단체 「꿈지락네트워크」를 통한 운영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지역사회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단체 「꿈지락네트워크」가 사업의 실행을 맡고 있다. 꿈지락네트워크의 특징은 이 단체에 속한 청년들이 대부분 청소년기에 참여활동을 통해 성장한 청년들이라는 점이다. 스스로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체감한 청년들이 지역의 청소년 참여 사업을 맡아 진행함으로써, 이전에 체득한 노하우를 후배들과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었다.

기수제로 운영되는 청소년활동에서는 선배집단과 후배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실제로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전신(全身)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역시 ‘자문단’이라 불리는 선배집단과 현재 활동을 하는 후배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다 활동의 연속성을 잃은 바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선배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성과가 후배들과 공유되기 어렵다. 그러나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기에 직접 참여 경험을 한 선배들이 사업의 수행을 맡으면서, 청년들 역시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누구보다 청소년 참여의 가치와 효과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참여’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박석준, 2017).

(5) 모형의 확산 : 동작구, 관악구, 광진구로의 확대

금천구 청소년의회 사업을 운영한 꿈지락네트워크는 금천구 사례를 기반으로 인근 지역인 동작, 관악으로 청소년의회를 확대했다. 타 지역으로 청소년의회를 확대할 때 각별히 유의한 것은 금천구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중심이 된다'는 운영 철학은 유지하되, 금천구 청소년의회 사업구조와 실행체계를 타 자치구에 이식하듯 전과하는 것은 지양하고,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동작구의 경우에는 청소년, 구청, 학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했다. 꿈지락네트워크에서 동작구로부터 청소년의회 사업을 위탁받았을 때는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2년차 사업이 진행된 상태였다. 구청에서 청소년의회 참가 희망자를 모집·선발하여 임명장까지 수여한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중단된 상태에서 꿈지락네트워크에 위탁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로 인해 이미 임명된 청소년 의원들조차 의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며, 청소년의회가 구청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조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구청에서도 청소년을 정책 파트너나 시민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고, 따라서 논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 불신은 참여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했다(박석준, 2017).

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동작구 청소년의회에서는 청소년이 참여 주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내면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출이 아닌 임명된 청소년 의원이지만, 스스로를 주체자로 인식하고 조직 구성 및 의제 발굴에 주도성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구청 역시 기성 세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청소년 스스로 필요에 의한 조직 구성(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과 의제 발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박석준, 2017).

이 같은 과정을 거치자, 실제 변화가 참여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이 참여해봤자 변하는 것이 없다'는 불신이 '우리가 참여하면 바뀐다'는 정치적 효능감으로 변모하였고, 적극적 참여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구청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청소년을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더 많은 권한을 청소년들에게 이양했다. 「2017 동작혁신교육축제」는 이러한 동작구 청소년의회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사례이다. 이 행사는 청소년이 축제의 주인이 되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처럼

동작구청소년의회는 금천구처럼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박석준, 2017).

이처럼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 사례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모형만이 유일한 전형(典型)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즉 ‘청소년의회’라는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모형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 IV-5>에는 현재 꿈지락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서울 시내 4개 자치구별 청소년의회 주요 구성 방식과 특징이 정리되어 있다.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운영 모델 중에도 동일한 구조와 방식이 적용된 곳은 없다. 다만, 광진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천구의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유사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광진구 청소년의회 역시 사업이 진행되면서 금천구와는 차별화 되는 광진구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의회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석준, 2017).

표 IV-5 꿈지락네트워크 운영 자치구별 청소년의회 비교

구분	금천구 청소년의회	동작구 청소년의회	관악 청소년자치의회	광진구 아동청소년의회
출범연도 (위탁연도)	2015년 (2015)	2015년 (2016)	2016년 (2017)	2017년 (2017)
대상	관내 중·고등학생 거주 청소년	관내 중·고등학생 거주 청소년	관내 초5,6학년· 중·고등학생	관내 초5,6학년· 중·고등학생
선출방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직선제	참가희망자 대상 정책토론회 /간선제	민주시민교육 및 의정교육을 통한 자격제	민주시민교육 및 의정교육을 통한 자격제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 /권익위 복지위 /조정위	문화상임위원회 인권상임위원회 환경복지상임위원회	문화상임위원회 안전상임위원회 인권상임위원회	아동위원회 청소년위원회1 청소년위원회2
특징	청소년정책정당 마을정부 및 총리 청소년참여예산제	학생회집행부연합 청소년분과 등 타 자치회 연계	1년 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소년 대상 의정 활동	-

출처: 박석준(2017). 5쪽.

3) 성과 및 시사점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을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조성익, 2017: 22). 또한 청소년참여가 어른들에 의한 ‘보여주기식’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효능감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안착한 모델로 평가받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사업의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저히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새로운 참여방식으로 ‘의회’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에서부터, 의회의 구성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청소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선택한 결과물이다. 이러한 과정은 그 자체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고,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 선거를 통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의원과 정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별도의 연임규정을 둘 필요 없이 다수의 선택에 의해 재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참여 청소년들은 재신임을 받기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게 되고, 정당을 통해 노하우와 성과를 축적한다.

셋째, 지역사회 청년단체가 청소년 참여사업의 실행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 운영 방식을 통해 청소년활동과 청년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었고, 지역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에게 ‘자문’의 역할이 아닌, ‘보좌관’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직적 서열문화를 탈피하여, 청소년과 청년 각 주체가 명확한 정체성을 갖도록 한 점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박석준, 2017).

마지막으로, 구청과 교육청 간에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금천구에서는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청소년 총선거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총선거에 참여하면 2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7년 제2대 총선거에는 1300여명의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이 같은 시도는 참여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인정이나 생활기록부 기재와 같은 보상이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4. 핀란드 청소년 사회참여 시스템 「루띠(Ruuti)」

Case 3	핀란드 청소년 사회참여 시스템 루띠(Ruuti)				
사례 개요	•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규모 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제안된 정책을 정책담당자들이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사회참여 시스템				
사례 특징	운영 주체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부(지자체)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
	접근 기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개방성 낮음	
	정책 제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공정책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비공공부문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1) 개요 및 배경¹⁴⁾

루띠 프로그램은 헬싱키에 거주하는 13~20세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규모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신의 삶이나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안하면, 이렇게 제안된 정책들을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검토하여 실제로 시(市)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Högnabba & Mattila, 2016: 17-26). 루띠는 핀란드어로 ‘화약(gunpowder)’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생동력, 통찰력, 변화의 시작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요컨대,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Högnabba & Mattila, 2016: 1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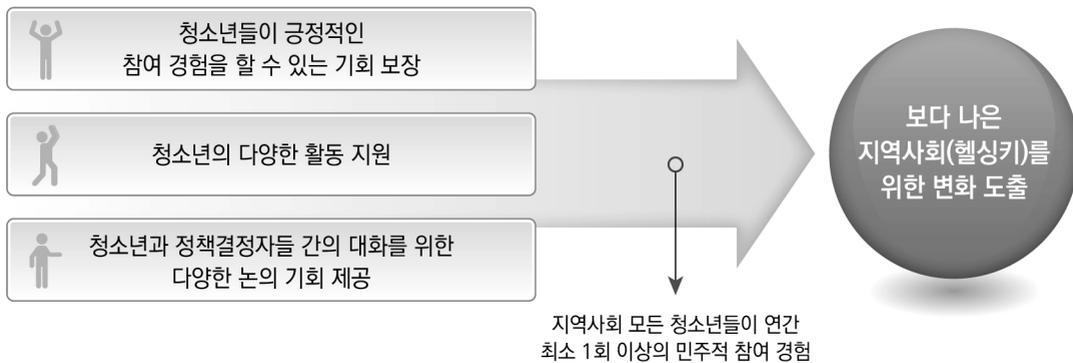
이 같은 루띠는 기존에 운영되던 청소년 참여사업인 ‘청소년의회’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핀란드에서는 이전부터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각각 청소년의회를 운영해왔다. 청소년의회는 대체로 해당 지역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지역 청소년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핀란드 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같은 청소년의회 또는 명칭은 다소 다르더라도

14) 루띠 시스템 개요 및 도입 배경에 대한 내용은 Högnabba & Mattila(2016.03.28.). The Youth report and youth participation models in Helsinki, 16쪽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 자료는 <https://www.djht-europe.de/downloads/doctrine/WebforumVeranstaltungenWebsiteBundle:ProgrammpunktDownload-file-11/Presentation%20Helsinki.pdf> 에서 2017.7.19. 인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기구를 운영하고 있다(Högnabba & Mattila, 2016: 16).

이처럼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담당자들에게 전달할 경우, 정책담당자들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들만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이렇게 참여 기회를 얻는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들은 이미 다양한 참여 경험을 가지거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다수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 등 소수집단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이 같은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결국 소수자 집단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루띠는 바로 이 같은 접근기회의 폐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시스템이다(Högnabba & Mattila, 2016: 16). 실제로 루띠 프로그램을 통해 헬싱키시의 청소년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부여받는다.

루띠 시스템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해서 보다 나은 헬싱키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루띠 시스템에서는 헬싱키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일 년에 적어도 1회 이상의 민주적인 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요컨대 루띠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의견을 내거나 혹은 대의를 위한 변화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루띠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압축하면 [그림 IV-7]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출처: <http://ruuti.munstadi.fi/en/ruuti/>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V-7】 핀란드 루띠 시스템의 목표

2) 주요 내용

(1) 참가 자격¹⁵⁾

헬싱키시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13~20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루띠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해서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사전 경험이나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다. 다만 루띠는 기본적으로 '개인'보다는 '단체'를 지원한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모둠이나 단체를 구성해서 여럿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전시킨 형태로 제안하는 것을 지향한다(루띠 홈페이지, 2017.10.18.인출).

(2) 운영 구조 및 구성 요소

① 운영 구조 : 핵심 집단(core group)과 활동 집단(activity group)

루띠 시스템은 ①핵심 집단(core group)과 ②활동 집단(activity group)으로 구성된다. 이 '핵심 집단'과 '활동 집단'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① 핵심 집단(Core Group)¹⁶⁾

i) 구성

- 핵심 집단은 매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20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헬싱키시에 거주하는 13~17세의 청소년들은 누구나 루띠 핵심 집단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입후보 시에도 사전 경험 유무 등 여타 특별한 자격 조건은 요구하지 않는다.
- 핵심 집단은 매년 가을 개최되는 루띠 박람회에서 후보자 발표를 통해 선거가 시작되며, 핵심 집단 구성원은 헬싱키시의 13~17세 청소년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15) 이 내용은 <http://ruuti.munstadi.fi/en/ruuti/> (2017.10.18.인출)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16) 핵심 집단에 대한 내용은 <http://ruuti.munstadi.fi/en/ruuti-core-group/>(2017.10.19.인출)의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ii) 기능

- 핵심 집단은 헬싱키시 청소년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루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정책결정자들과 청소년들의 연례 회담인 ‘빠따야미띠(Päättäjämitti)’에서 논의할 주요 이슈들을 선정하고, 해당 이슈와 관련한 자료들을 취합하며, 행사의 실무를 담당한다.
 - 정책제안 내용을 모두 취압하여 개최되는 ‘루티 박람회’에서 논의할 주제를 선정하고, 루티 박람회의 전체적인 컨셉, 운영 방식, 홍보 방안 등을 결정한다.
 - 헬싱키시 청소년담당관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제안 내용들에 대해 토론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헬싱키시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인 ‘루티 버짓(Ruuti Budget)’의 실행계획들을 점검함으로써, 참여예산 사업 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활동 집단(activity group)과 마찬가지로 핵심 집단도 나름의 고유한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핵심 집단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선정한 의제들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 정규직 청소년 활동가가 핵심 집단의 활동을 지원한다.
- 핵심 집단의 활동은 루티 시스템의 활동 내용들을 공유하는 루티넷 웹사이트의 “핵심 집단 블로그(Core Group Blog)”를 통해 공유된다.

2 활동 집단(activity group)¹⁷⁾

i) 구성

- 활동 집단은 특정 주제(예: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합법적인 그래피티 벽화 그리기, 동물 보호 등)에 관해 실제 참여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조직을 일컫는다.
- 청소년들은 스스로 활동 집단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만들어진 집단에 참여할 수 있다.
 - 신규 그룹을 결성할 때는, 같은 의제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 10명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코어 그룹과 달리, 별도의 구성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관심 있는 활동 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17) 활동 집단에 대한 내용은 <http://ruuti.munstadi.fi/en/activity-groups/>(2017.10.19.인출)의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ii) 기능

- 활동 집단의 구성·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활동 집단이 집중하는 의제나 이슈가 성인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 활동 집단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한 문제와 의제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한다.
- 모든 활동 집단의 활동 내용은 루티넷(ruuti.net)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 활동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포스팅함으로써, 루티 핵심 집단을 비롯해 정책결정자들이 루티넷(Ruuti.net) 웹사이트에 올라온 활동 그룹의 내용을 공유하고, 이들이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② 기타 구성 요소 18)

그 밖에 루티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는 ①루티 박람회(ruuti Expo), ②정책 세미나(빠따야미띠, Päätäjämitti), ③학교 학생회, ④헬싱키 시 교육부가 지정한 '학생회의 날(Student Association Days)', ⑤청소년참여예산 축제인 '루티 버짓(ruuti Budget)', ⑥루티넷(ruuti.net) 등이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

① 루티 박람회(Ruuti Expo)

루티 박람회는 매년 가을 헬싱키시 청소년부가 개최하는 대규모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행사다. 박람회에서 헬싱키시 정책결정권자들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부처 관계자,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청소년이 함께 만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한다. 박람회 세부 행사는 강연, 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루티 박람회에서는 이전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대안 가운데 채택된 내용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청소년 참여가 '보여주기식' 참여나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행사 참가비는 별도로 없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루티 박람회에서 핵심 집단(core group) 청소년들은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새로운 핵심 집단 구성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절차를 개시한다.

18) 여기 소개된 주요 내용은 [제 IV 장
사례 분석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http://ruuti.munstadi.fi/en/events/(2017.7.21.인출)의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p></div><div data-bbox=)

참고로 2014년 개최된 루띠 엑스포에는 약 4,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루띠 홈페이지¹⁹⁾, 2017.7.21.인출).

② 정책세미나 ‘빠따야미띠(Päättäjämitti)’

빠따야미띠는 매년 봄에 개최되는 일종의 정책 세미나로, 청소년, 정책결정자, 헬싱키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은 그들이 제안한 정책 대안들을 정책담당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기회를 갖는다. 빠따야미띠 행사는 오전부터 시작되는데, 오전 세션에 청소년들은 주제별로 소규모 그룹 토론에 참여하면서 정책 대안들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헬싱키시 공무원, 정책결정권자들과 함께 하는 주제별 워크숍을 통해 준비한 정책대안의 추진 방법이나 전달 체계 등을 구체화 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공무원들과 청소년이 함께 협력해서 마련한다.



출처: Högnabba & Mattila(2016). 19쪽.

【그림 IV-8】 루띠 엑스포 개최 사례



출처: Högnabba & Mattila(2016). 18쪽.

【그림 IV-9】 빠따야미띠 개최 사례

③ 루띠 학생회의 날(Ruuti Student Association Days)

루띠 ‘학생회의 날’은 매년 가을 개최되는 행사로, 여러 학교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학생회의 날’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상호 교환하고,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회 대표자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헬싱키시가 주최하는 ‘학생회의 날’ 채택된 선언문의 내용들이 실제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진다.

19) 루띠 홈페이지 <http://ruuti.munstadi.fi/en/ruutiexpo-influential-day-year-coming/>에서 2017.7.21.인출.

④ 헬싱키 시장 개최 학생회의 날(Lord Mayor' s Student Association Days)

루띠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학생회의 날' 행사와는 별도로, 헬싱키 시장이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학생회의 날 행사가 별도로 운영된다. 헬싱키시 학생회의 날 행사는 2년 마다 한번씩 시청에서 열리는데, 이 행사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는 시장과 부시장이 주관하고, 헬싱키 시에 위치한 모든 종합 중등학교, 특수학교, 병원학교,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교육기관이 총망라하여 참가한다. 이 행사에서는 학생과 정책담당자들이 시청에 함께 모여, 학교 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은 고유의 선언문을 채택하며, 여기에서 채택된 내용들은 시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공무원, 교사, 학생 등에게 전달된다.

⑤ 루띠 예산 축제(Ruuti Budget Festival)

루띠 예산 축제는 청소년들에게 예산 편성 및 재정지원 권한을 부여하는 청소년참여예산 활동을 위한 일종의 시범 사업이다. 루띠 예산 축제는 매년 봄에 헬싱키 전역에 걸쳐 개최되며, 주로 종합 중등학교의 상위학년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루띠 예산 축제가 진행되는 방식을 2014년 사례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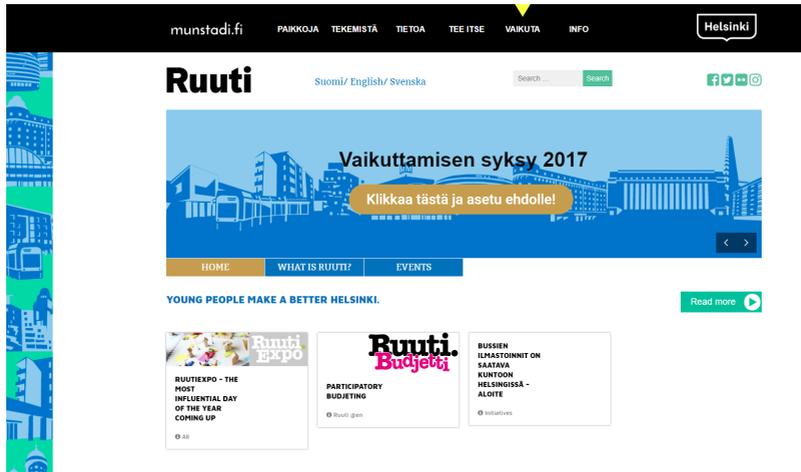
2014년에 헬싱키 동남부 지역 청소년들은 루띠 예산 행사에 참여해서 지역 내 청소년 활동/서비스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관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루띠 시스템의 예산 관련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했고, 이러한 제안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청소년들은 루띠넷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취합된 정책 아이디어를 워크숍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는다. 이렇게 완성된 정책 대안은 개별 학교로 전달되고, 학생들이 제시된 안에 대해 투표한다.

⑥ 루띠넷(Ruuti.net)²⁰⁾

루띠넷은 헬싱키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생산해내는 활동, 아이디어, 정책 대안, 의견들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루띠넷을 통해 청소년 참여 활동의 다양한 내용들이

20) 루띠넷에 관한 내용은 루띠 홈페이지 <http://ruuti.munstadi.fi>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2017.7.21.검색하였다.

소개되고,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이 헬싱키시 정책담당자들에게 전달된다. 즉 루띠넷은 청소년 참여활동 기록이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이자, 제안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화 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통로로 작용한다.



출처: 루띠넷 홈페이지 <http://ruuti.munstadi.fi/en/>에서 2017.10.19.인출

[그림 IV-10] 루띠넷 홈페이지 운영 화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헬싱키 청소년들은 누구나 루띠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헬싱키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루띠 시스템을 통해 헬싱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공감하는 청소년 10명 이상을 모아 활동 집단(activity group)을 결성 / 또는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 결성된 기존의 집단에 합류
- 루띠넷 웹사이트에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
- 루띠넷 웹사이트에 있는 「게스트 블로그(Guest Editorial Blog)」에 게시물 작성
- 정책세미나(빠따야미띠) 또는 루띠 엑스포 행사에서 정책담당자 등 참가자들과 의견 교류
- 학교 학생회 활동에 참여
- 루띠 핵심 집단(core group) 선거에 입후보
- 지역사회 내 인근 청소년센터로부터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

상술한 루띠 운영 시스템을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IV-11]과 같다.



출처: 루띠 웹사이트 <http://ruuti.munstadi.fi/mika-on-ruuti/#>(2017.7.21. 인출)에 제시된 그림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IV-11] 루띠 시스템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3) 성과 및 시사점

루띠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헬싱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루띠는 1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활동 집단(activity group)을 구성하면, 바로 참여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혹은 새로 모임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운영되는 활동 집단 가운데 본인이 관심 있는 집단에 합류함으로써 언제든지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접근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루띠가 이처럼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보이는 것은 루띠 시스템이 기존에 운영되던 청소년의회의 제한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도입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루띠는 처음부터 선발된, 혹은 우수한 소수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루띠의 운영 방식은 청소년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참여정책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루띠 시스템의 운영 주체가 헬싱키시 당국이며, 루띠를 통해 제안된 정책을 시정(市政)에 반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루띠에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대

안이나 아이디어들이 단지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장치들이 운영 과정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 루띠 박람회, 정책세미나인 빠따야미띠 등을 개최할 때 실제 정책담당자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청소년들과 상호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 그리고 정책추진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청소년 참여가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상호보완을 통해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특징이다. 루띠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인 루띠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헬싱키시 정책담당자들과 공유된다. 이러한 온라인 기반 참여는 접근가능성과 개방성을 극대화하고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그렇지만 전체 참여 과정이 온라인 활동에만 의존할 경우, 자칫하면 참여 활동의 실체나 성과가 모호할 수 있다. 루띠는 루띠 박람회, 정책 세미나, 워크숍, 학생회의 날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로 정책담당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상호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이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참여를 통한 성취나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고, 정책화 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상술한 성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헬싱키시에서는 루띠 시스템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수행한 참여 활동을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지,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유권자와 후보자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인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가 보다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청소년 사이의 의견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Högnabba & Mattila, 2016: 24).

5. 교과 내용에 반영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 사례

Case 4	교과 내용에 반영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 사례				
사례 개요	•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정규 수업내용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참여 내용을 다룬 사례				
사례 특징	운영 주체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시설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자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
	접근 기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개방성 낮음	
	정책 제안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책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비공공부문 제안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혼합형	

1) 개요 및 배경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누구나 손쉽게 경험하도록 접근기회를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간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정규 교육과정을 활용해 지역사회 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2000년대 초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을 표방하며, 이른바 ‘참여’, ‘일상’, ‘숙의’, ‘비판적 사고’, ‘실천적 지식’ 등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었다(홍미화 외, 2016: 2). 지역사회 참여도 이러한 가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들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목적에서 교사 연수와 교육용 교재 개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홍미화 외, 2016: 2).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국제 계열 전문 교과로 ‘지역 이해’가 별도의 교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지역 이해’교과는 주요 목표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각 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종합·평가하고, 그 지역의 문제, 주제 및 쟁점을 탐구할 수 있는 관점을 기르며, 각 지역의 특성 파악을 토대로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24]: 32). 이러한 규정들은 학교에서 지역사회 참여가 실시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힘입어 학교 현장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수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주로 사회과 교과를 활용해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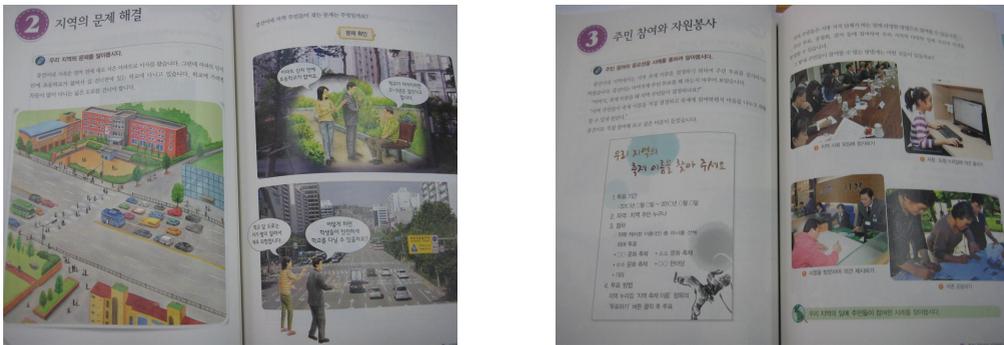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2) 주요 내용

(1)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교 안전지도 만들기 21)

① 진행 방법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지역의 문제해결’, ‘주민 참여와 자원봉사’ 단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교과서 내용과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참여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같은 내용을 실천 없이 교과서만으로 학습하게 되면 형식적 학습에 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밭 딛고 살아가는 지역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경험하며 체험하는 학습을 나누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성 상, 사회교과뿐만 아니라, 국어와 미술 등 다양한 과목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배성호, 2016: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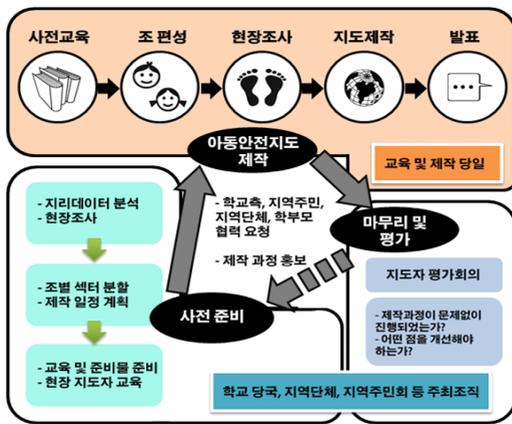
출처: 배성호(2016).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세상*, 59쪽.

【그림 IV-12】 현행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 중 지역사회 참여 관련 단원

21) 이 내용은 배성호(2016).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세상.”에 소개된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2016년 10월 19일 개최한 「2016년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민주시민포럼」 자료집(57-66)에 수록되었고, 이 자료는 http://www.siminedu.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333&sid=8ee1cbba834c9052aa26a0221f056c29&module_srl=140 에서 2017.10.20. 인출하였다.

상술한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적용하기에 적절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학교안전지도 만들기’를 들 수 있다. 학교안전지도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역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이 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보는 학습과 범죄 예방 교육 등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배성호, 2016: 60). 특히 학교안전지도 만들기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의 생활 주변, 생활 공간에서 쉽게 접하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보며, 그것이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배성호, 2016: 60).

학교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확산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꼭 지원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제시된 절차를 따라 쉽게 해볼 수 있는데, 크게 사전교육, 현장조사, 지도제작, 발표 등의 단계를 따라 진행된다(배성호, 2016: 61). 구체적으로, 사전교육 단계에서는 학교 주변처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동선에서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실제 현장조사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학교 주변 위성지도를 출력해서 직접 해당 장소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모듈별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모여 지도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발표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체 과정이 마무리된다(배성호, 2016: 61).



[학교안전지도 제작 과정]



[학교안전지도 운영 결과물 예시]

출처: 조진일·박성철(2012). [그림 8].

http://edzine.kedi.re.kr/article/issue_01.jsp에서 2017.10.20.인출.

출처: 신사종합사회복지관 게시판,

<http://sscc.or.kr/bbs/?act=bbs&subAct=view&bid=story2&seq=1840>에서 2017.10.20.인출

[그림 IV-13] 학교안전지도 운영 모형 및 결과물

② 응용 모형

학교 안전지도는 최근 많이 이용되는 커뮤니티 매핑과 연계해서 적용해볼 수도 있다. 커뮤니티 매핑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지역 현안이나 불편사항을 시민이 직접 구글맵, 마이크로소프트 Bing 맵스 등이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데, 흔히 시민이 직접 교통, 생활정보, 각종 시설물 등 다양한 요소들을 지도에 표시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일종의 시민참여형 지도 제작 기술로 활용된다(배성호, 2017: 9). 예컨대 장애인이 휠체어 이동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도 위에 표시하고, 지자체는 이를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다(네이버 지식백과, 2016.1.3.; 배성호, 2017: 9에서 재인용). 학교안전지도 만들기도 이러한 커뮤니티 매핑 방법을 적용해서, 온라인으로 운영해볼 수도 있다.

아울러, 안전지도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까지 모형을 확장해 볼 수도 있다. 지도 제작만 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학교안전지도의 핵심은 위험한 곳으로 표시된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있다(배성호, 2017: 3). 본래 지역사회 참여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공유한 다음, 해결책을 고민해서 제안하는 단계까지 경험해보는 것이 참여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배성호, 2017: 3). 따라서 학교안전지도 만들기의 후속 단계로, 학생들과 더불어 학교 주변을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까지 연장해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상술한 수업 모델은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해보는 것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배성호, 2017: 3).

(2)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역 이해」 교과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22)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국제 계열 전문 교과로 「지역 이해」 교과가 포함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지역 이해 교과는 사회과 심화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교육과정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역 이해 교과를 운영하면서, 교육내용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접목한 사례가 있다.

22) 이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6). 제7회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 자료집, 110-130에 소개된 “모두가 찾는 안전한 안산의 첫 마을 만들기” 사례 내용과, 해당 프로그램을 지도한 교사와 실시한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7.08.29.실시)을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① 문제 인식의 배경

안산 지역은 세월호 사건의 직접 피해 지역으로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타 지역보다 더 높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과 우려에 비해 실제 지역사회 시설 중에는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곳도 많다. 안산 신길 선사유적공원도 바로 그러한 곳 중 하나이다. 신길 선사유적공원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며, 안산 지역 청소년들이 체험학습을 위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그런데 실제 공원에는 담배꽂초나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고, 예술품이라는 이름으로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들이 여기 저기 놓여 있다. 또한 불에 타기 쉬운 짚더미로 만들어진 움집 옆에는 금연 표지판이나 소화기도 비치되지 않아서,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위험 속에 방치된 역사유적공원의 안전도를 개선하여, 모두가 찾는 안전한 지역사회 자원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112).

② 교육과정과의 연계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사회과 심화교과인 ‘지역 이해’ 교과 수업 내용으로 다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지역 이해’는 고등학교 전문교과로서,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학교마다 선택하는 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 교과로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경우 ‘교육과정 클러스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인근 지역 학교 간에 교육과정과 교과목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과정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지원 체계를 의미한다(경기도교육청, 2015: 5). 구체적으로는 보통 진로와 연계된 교과 혹은 심화과목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클러스터 내 타 학교로 이동해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특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경기도교육청, 2015: 5).

안산에서도 사회과 심화과목인 ‘지역 이해’ 교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모아 W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했는데, 이때 수업 내용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역 이해는 주당 3단위로 편성되는 수업인데, 교육과정 클러스터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타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1주일에 1번 3시간을 연달아 블록 형태로 운영하였다(담당 교사 면담내용, 2017.08.29). 수업은 민주화운동기념본부에서 제시한 청소년 사회참여의 단계를 차용하여 진행되었다. 주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문제에 민감한 안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자주 찾는 인근 신길 역사유적공원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담당교사 면담내용, 2017.08.29).

③ 운영 절차

안산 W고등학교에서 ‘지역 이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압축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6 ‘지역 이해’ 과목을 활용한 안산 W고등학교 지역사회 참여 사례 주요 내용

단계	구분	주요 활동 내용
1단계 문제 실태 파악	①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 역사유적 공원 안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 실시 • 타 유적지와와의 비교를 위해 규모가 비슷하다고 알려진 시흥 선사유적지와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도 각각 별도 방문 → 철제 구조물 문제, 소방 관련 시설 부족, 주차 공간 부족, 전반적인 관리 부실 문제 도출
	②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 역사유적 공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W고등학교 학생 18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2단계 원인 분석	① 문제의 원인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의 부실시공과 지자체 담당부서의 이원화 • 지자체 및 주민들의 무관심
3단계 대안 모색	① 법률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전반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검토 • 소화기 설치 문제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 금연표지판 설치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안산시 금연 조례’ 검토 • 법률적 노력의 한계 확인
	② 마을 주민들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 네트워크에서 추진한 마을 주민들의 노력 검토 • 마을 주민들의 노력의 한계 확인
4단계 공공 정책 제안	① 철제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제구조물 재활용 방안 제안 • 신석기 유적지 테마를 활용한 철제구조물 디자인 제안
	② 소화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설치 및 활용 절차 제안 • 신석기 유적지 테마를 적용한 소화기함 디자인 제안
	③ 금연표지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표지판 설치 • 신석기 유적지 테마를 적용한 금연표지판 디자인 제안
	④ 화장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설치 후보지 제안
5단계 실행 계획 수립	① 학교에서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 역사공원 시설물 관련 설문조사 • 역사공원 개선을 위해 한국사 및 미술 교사 대상 인터뷰

단계	구분	주요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학생 대상 설명회 개최
	② 마을에서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 역사유적공원 시설물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425명 서명) • 지역사회 단체 '신길 네트워크' 대표 인터뷰 • 안산시 청소년 예산정책제안 대회 참가 → 시청으로부터 제안 내용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피드백 • 지역사회 인사(시의원) 초청 간담회
	③ 인터넷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메일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 안산시청 게시판에 제안 내용 게시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6). 112-129쪽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표로 재구성.

3) 성과 및 시사점

(1) 성과

① 참여를 통한 실질적 변화

여기에서 살펴본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2가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례는 공통적으로 실제 변화를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적 효능감의 함양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학교안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개선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방문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배성호, 2016: 60). 또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길 역사유적지 안전 개선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제안 내용이 채택되어 2016년 11월 안산시에서 신길 선사유적지 환경 개선 공사 착수 계획을 밝힌 바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128).

②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증진

이처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결과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해 느끼는 보람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 증진으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안산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참여 소감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변화는 정치인과 같은 성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여겼는데, 청소년들도 지역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130). 아울러

이러한 문제 해결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득하는 것도 참여 활동의 주요한 성과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여럿이 협력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130)

(2) 시사점

여기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참여 활동이 정규 수업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수업시간에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청소년들이 참여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모두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학교 교육의 일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청소년 참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환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학교안전지도 만들기 사례는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지역사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흔히 초등학생은 사회참여를 하기에 너무 어리다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 초등학생들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 참여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생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변화를 도출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초등학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체험 과정에서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통해 실제로 박물관에 도시락 먹을 공간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이 사례는 초등학생 사회 참여의 대표적 사례로서 최근 교과서 개편에 반영되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배성호, 2016: 64).

초등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어릴 때부터 사회참여를 습관화 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가 있다. 아울러 수업시간에 적용할 경우에도 초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특성 상, 한 명의 교사가 대부분의 교과를 담당하기 때문에 블록수업 운영이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사례는 향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입시 교육으로 인해 참여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 지역사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는 고등학교에 정식 편성되어 있는 '지역 이해'라는 심화과목 수업시간을 활용해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 그것이 실제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는 고등학교

에서도 얼마든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해당 활동을 지도한 담당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확보’가 가장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소개한 사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활용해 주 3단위의 수업을 매주 1번씩 오후 7시~10시까지 3시간을 연이어 운영하는 일종의 블록 수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다 수월히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실제 활동 시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체험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모형 「Project Citizen」

Case 5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모형 「Project Citizen」				
사례 개요	• 청소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만들어서 정부나 지자체에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활동				
사례 특징	운영 주체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시설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자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
	접근 기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개방성 낮음	
	정책 제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공정책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비공공부문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1) 개요 및 배경²³⁾

미국에서 실시하는 「We the People: Project Citizen」(이하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는 민주시민교육 커리큘럼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청소년단체, 성인단체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재 비영리 교육단체인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의 관리 하에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프로젝트 시티즌 브로셔, 2017.7.21. 인출).

23) 이 내용은 미국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이하 CCE) 홈페이지 [http://www.civiced.org/pc-program\(2017.07.21.인출\)](http://www.civiced.org/pc-program(2017.07.21.인출)) 및 [http://www.civiced.org/resources/curriculum/lesson-plans/458-we-the-people-project-citizen\(2017.07.21.인출\)](http://www.civiced.org/resources/curriculum/lesson-plans/458-we-the-people-project-citizen(2017.07.21.인출))의 내용을 번역·요약한 것이다.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주(州)정부와 지역정부를 대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공공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동시에 민주적 가치와 원칙, 관용, 정치적 효능감을 함양한다(프로젝트 시티즌 브로셔, 2017.7.21.인출). 그 결과, 1995-1996학년도에 미국 내 12개 주에서 시범적으로 최초 적용된 이래, 2006년 11월 기준 약 22,500명의 교사와 14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TN Center for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 <http://www.tccl.org/project-citizen.html>에서 2017.7.21.인출). 한편 프로젝트 시티즌에 적용되는 시민교육 자료들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어, 약 80여개국에서 이 프로그램의 교재를 번역하여 활용하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5: 3).

2) 주요 내용

(1)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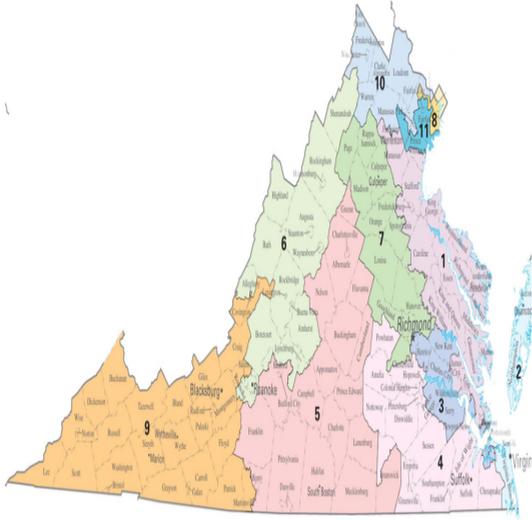
① 운영 조직²⁴⁾²⁵⁾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미국 주의회협의회의 지원을 받는 '시민교육센터'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교육센터는 미국 전역의 청소년에게 이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 내 50개주를 비롯해 미국령인 사모아, 괌,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버진 제도까지 사업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디네이터 네트워크는 각 주별로 이를 총괄하는 총괄 코디네이터와 더 작은 지역 수준에서 활동하는 지역 코디네이터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주에는 1명의 총괄 코디네이터와 11명의 지역 코디네이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림 IV-14]에는 버지니아주 11개 지역의 구분과,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코디네이터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24) 제시된 내용 가운데 운영 조직에 관한 내용은 Center for Civic Education 웹페이지, <http://www.civiced.org/pc-program> (2017.07.21.인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25) 제시된 내용 가운데 코디네이터에 관한 내용은 Center for Civic Education 웹페이지, <http://www.civiced.org/pc-community/coordinators> (2017.07.31.인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버지니아주 지역 코디네이터 배치도

담당 지역	이름	소속
State Coordinator	Bill Wilson	James Madison University
VA01	Jeff Girvan	Prince William County Public Schools
VA02	Kimberly Robillard	Salem Middle School
VA03	Lesley Boger & Elizabeth Leatherwood	Andrews PreK-8 School
VA04	Edward Bosha	James River High School
VA05	Wendy Mattox	Gretna Middle School
VA06	Kelly Carmichael	The Center for the Constitution at James Madison's Montpelier
VA07	Kathryn Niemeier	Deep Run High School
VA08	Rory Dippold	Mary Ellen Henderson Middle School
VA09	Donna Confere	E B Stanley Middle School
VA10	Bill Wilson	James Madison University
VA11	Joyce Gardella	Washington Irving Middle School

버지니아주 지역 코디네이터 명단

출처: <http://www.jmu.edu/pcinva/coordinators.shtml>에서 2017.07.31.인출.

[그림 IV-14] 버지니아주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 담당 코디네이터 분포 및 명단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디네이터들은 해당 지역에서 의회, 기업, 지역사회 리더, 교사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관리 외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교재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시민교육센터는 코디네이터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PAW(Partner Access Website)'²⁶⁾를 운영하고 있다.

26) 시민교육센터에서 프로젝트 시티즌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PAW주소는 http://partners.civiced.org/paw/login.php?forward=%2Fpaw%2Flogin.php%3Fsign_out%3Dyes 이다(2017.07.31.인출).

② 프로그램 참여 주체별 역할²⁷⁾

프로젝트 시티즌에서는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한다. 각 주체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IV-7 프로젝트 시티즌 참여 주체별 역할

참여 주체	주요 역할
교사/ 청소년단체 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별 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시민교육센터에 요청하여, 학생(또는 청소년)에게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 제공 • 주정부/지방정부 공무원, 지역사회 지도자, 기업 대표, 기타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시티즌 참여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준비에 협조해줄 것과, 포트폴리오 발표회 및 공청회 참여 요청
정부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 시상, 포트폴리오 발표회 및 공청회에 연설자 및 평가자로 참여, 방문 청소년 응대 등을 통해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 • 공공정책 이슈들에 대해 교실에서 학생들과 토론하고, 교사 대상 워크숍에서 강연 제공 • 주(州) 총괄 코디네이터 및 지역 코디네이터들이 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지역사회 시설, 기업, 전문가 협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참여, 리더십 지원 제공, 포트폴리오 발표회 및 공청회에 평가자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실행 지원 • 프로그램 자료 구매, 지역 및 주(州) 단위에서 개최되는 발표회 행사 지원,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급 학생들이 주(州)나 지역에서 개최되는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을 제공

출처: 프로젝트 시티즌 브로셔 4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2017.7.21.인출).

27) 이 내용은 프로젝트 시티즌 브로셔 4쪽 내용을 번역한 것이며, 이 자료는 <http://www.civiced.org/images/brochure/brochure-projectcitizen.pdf>에서 2017.07.21.인출하였다.

(2) 운영 과정 및 구성 요소²⁸⁾

① 운영 과정 ²⁹⁾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체 학급 또는 청소년들이 함께 지역사회 내 공공정책의 문제를 탐색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알아본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대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때 최종 산출물인 실행계획은 주정부 및 지역정부에 정책 제안으로 전달된다.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시티즌 활동의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제작하고, 공개 발표회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 앞에서 활동의 결과를 발표한다.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 그룹 중 대다수는 실제로 그들이 제안하는 정책의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접촉하여, 제시된 대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직접적인 시민 참여를 경험하게 된다(Center for Civic Education 홈페이지 <http://www.civiced.org/pc-program>, 2017.07.21. 인출).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와 소통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프로젝트 시티즌 브로셔, 2011: 3). 프로젝트 시티즌 활동의 5단계 과정이 [그림 IV-15]에 제시되어 있다.



출처: 프로젝트 시티즌 브로셔(2011), 5쪽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V-15] 프로젝트 시티즌 5단계 진행 절차

28) 여기 소개된 내용은 Center for Civic Education 홈페이지, <http://www.civiced.org/pc-program>에서 2017.07.21. 인출하였다.

29) 운영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civiced.org/resources/curriculum/lesson-plans/458-we-the-people-project-citizen>을 토대로 번역·요약하였으며, 이 자료는 2017.07.21. 인출하였다.

② 구성 요소

프로젝트 시티즌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공공정책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의 구성 요소로는 교재, 발표회,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들 수 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트 시티즌에서 공공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봉사나 선행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갈등들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해결해 가는지를 배우고 체험하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자료, 2017.08).

다음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서 교재도 중요한 자원이다. 프로젝트 시티즌의 교재³⁰⁾는 Level 1교재와 Level 2교재의 두 단계로 개발되어 있다. 이 중에서 Level 1교재는 주로 5~8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중학생과 청소년단체에 적용할 때 사용된다. Level 2교재는 9~12학년 이상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 혹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된다. 각 단계별로 교사용 가이드북도 별도로 제작되어 있는데, 교사용 가이드북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 포트폴리오 제작, 모의 공청회 준비에 관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5). 프로젝트 시티즌 교재 참조).

프로젝트 시티즌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show case)³¹⁾도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 프로젝트 시티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지역(선거구), 주(州),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개최되는 포트폴리오 발표회 또는 공청회에 참여하는데, 발표회에서 청소년들은 크게 4개 그룹 중 하나에 속해서 역할을 맡게 된다.

30) 교재에 관한 내용은 프로젝트 시티즌 브로셔 Center for Civic Education (2011, 5, 31), "Project Citizen Brochure(<http://www.civiced.org/pc-program/instructional-component>)" 3쪽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내용은 <http://www.civiced.org/pc-program>에서 2017.07.21. 인출하였다.

31) 발표회(show case)에 관한 내용은 Center for Civic Education 웹사이트, <http://www.civiced.org/pc-program/pc-showcases/pc-showcase-levels/high-school>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이 내용은 2017.07.21. 인출하였다.



【그림 IV-16】 프로젝트 시티즌 포트폴리오 발표를 위한 역할 구분

포트폴리오 제작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각 집단별로 맡은 역할에 따라 발표물을 준비하고, 발표회에 참여하여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패널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들의 질문에 답한다. 패널의 구성원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공공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프로젝트 시티즌 홈페이지, 2017.07.21. 인출).

한편, 담당자의 전문성 개발³²⁾ 역시 프로젝트 시티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프로젝트를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주(州)와 전국 단위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들이 제공된다. 예컨대 이전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계 강좌(summer institute)가 총 5회 개최된 바 있고, 최근에는 주별, 혹은 지역 차원에서 워크숍 등 다양한 기회가 상시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반드시 사전에 미리 2~3일 간의 교사연수를 수료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수 기회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자료, 2017.08.³³⁾).

32) 전문성 개발에 관한 내용은 Center for Civic Education 홈페이지, <http://www.civiced.org/pc-program/professional-development>에서 2017.08.07. 인출하였다.

3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자료(2017.08.10). 「미국 시민교육센터 설명자료」.

3) 국내 적용 사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추진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은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8년 미국 시민교육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를 토대로 2009년부터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전국 대회로 개최하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자료, 2017.08.10.).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운영 모형과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발표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개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사업)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지역사회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사업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사업)에서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사업회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를 학습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자료, 2017.08.10.), 정관이 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회는 2009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2017년 제8회 대회까지 개최되었다. 2017년 대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미국 시민교육센터가 후원하며, 대회 참여는 11세~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4~8명 규모의 모둠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자료, 2017.08.10.). 각 모둠에는 지도교사(학교 동아리) 또는 소속기관 활동가(청소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동아리) 1명이 반드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과정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장(학교 동아리) 또는 소속기관장(청소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동아리)에게 대회 참가 허가를 받도록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30).

(2) 운영 모형

미국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이 본래 5단계 과정으로 구성된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마지막 단계인 정책 제안을 생략한 4단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IV-17]과 같다.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6).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 참여하는 청소년, 세상을 바꾼다」. 13쪽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V-17】 청소년 사회참여 4단계 방법

‘청소년 사회참여 4단계’ 모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단계: 문제점 찾기’의 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하는데, 첫째, 반드시 청소년이 중심이 돼서 문제점을 찾고 조사할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의 담당자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선정한다는 데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점 찾기 단계가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후에는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는데, 그 단초가 되는 문제의식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거나 성인에 의해 주도된다면 그때부터

이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담당자 자문회의내용, 2017.08.10.).

둘째,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서 대면할 수 있는 ‘작은’ 주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거시적 수준의 담론들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행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까지 청소년이 직접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15). 이에 청소년의 생활 주변 또는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 문제들을 선택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문제 선택 단계에서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권유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15).

한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4단계 모형에 따라 사회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대회참가신청서 및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런 다음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예선심사(원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모듬이 선정하며, 본선에 진출하는 모듬은 본선 대회를 위해 포트폴리오와 활동기록파일을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본선 대회에서 발표 및 시상을 하는 것으로 전체 과정이 마무리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6).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 참여하는 청소년, 세상을 바꾸다. 30쪽.

【그림 IV-18】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참여 방법

(3) 주요 사례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국내에 적용한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통해 실제로 수행된 활동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8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주요 사례

참가팀	소속기관	참여 활동 내용
서논지	울산서 여지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울산 남부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제시 • 활동내용: 슬리퍼 크기가 이용자에게 잘 맞지 않는 문제, 책상과 의자 높이 문제, 책장 높이 문제, 책장 간 간격 문제 등을 발견하고, 설문조사 등을 거쳐 도서관에 개선 방안 제시
ASPECT	청소년 자치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잘 반영되지 않거나, 지자체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개선 • 활동내용: 해외 사례 및 국내 여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현행 조례의 개선안 제시/ 청소년기자단 활동을 통해 지역신문이 지속적인 기고 및 기사 게시를 통해 의제 형성/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TFT' 구성 논의
V.I.P	신성여자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한라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활동내용: 문제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및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제주환경운동연합 등과 인터뷰 실시/ 한라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봉투 무인지급제, 에코포인트제, EM 퇴비화 정책, 청소년 한라산 지킴이 인증제 등의 방안을 제안
YES美인	연무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력부족 문제에 직면한 논산시 농가의 문제 파악 및 농가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 활동내용: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해 농업 현장 문제점 및 농업 인력수급 관련 문제점 파악/ 외국인 고용허가제 문제점 분석/ 대안으로 (가칭)에스민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제시(센터 내용, 운영 효과, 운영제시 방안, 기대 효과 등)/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를 통해 정책점검 실시/ 시청 게시판에 정책제안 내용 게시/ 시청 홈페이지에 면담 요청 글을 게시하여 시장 면담 진행/ 국민신문고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책 제안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2016). 제7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참여 보고서 수록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표로 재구성.

4) 성과 및 시사점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시민성과 민주시민 관련 지식,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이끄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프로젝트 시티즌 브로셔, 2011: 3). 이처럼 실증적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학교에 운영할 경우 학급 전체가 다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소수의 제한된 혹은 선발된 청소년만 참여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학급 학생들이 모두 참여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운영 시스템의 측면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시민교육센터는 미국 연방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주(州)정부와 미국 주의회협의체로부터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후원을 받는다. 특히 연방 교육부와 일부 주(州)에서는 시민교육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이 입법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교재 제작과 보급, 담당 교원 연수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셋째, 청소년의 발달수준과 참여의 단계를 고려해 수준별로 프로그램이 세분되어 있다.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연령과 참여 단계를 고려해 Level 1과 Level 2로 나누어 개발되었으며, 그에 따라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도 별도로 제작되었다. 실제로 Level 1과 Level 2에서는 요구하는 참여의 단계와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처럼 수준별로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넷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하려면 담당 교사는 반드시 사전에 2~3일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요령을 담은 교사용 지도서가 제공되어, 원활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학 등을 이용하여 교사 연수 및 워크숍 등이 개최되어, 지속적으로 전문성 제고가 가능하다.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본래 취지를 구현하면서 원활히 운영되는 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이 지도자의 역량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무척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7.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몽실학교」³⁴⁾

Case 6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몽실학교」			
사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학습을 실천해가는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 특히 몽실학교 사업 중 ‘마을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사례 특징	운영 주체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시설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자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input type="checkbox"/> 민간단체
	접근 기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개방성 낮음		
	정책 제안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책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비공공부문 제안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혼합형

1) 개요 및 배경

(1) 몽실학교와 마을 프로젝트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몽실학교」는 꿈(夢)을 실현하는 학교라는 의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복합 문화공간을 일컫는다(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2017.10.20.인출). 몽실학교는 2014년 「꿈이룸배움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래, 2015년에는 「꿈이룸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지속해왔으며, 이후 2016년에 구(舊)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몽실학교」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2017.10.20.인출).

몽실학교의 교육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는데, 프로젝트 기반 학생자치배움 과정, 학교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진로·직업·현장학습, 그리고 학교 밖 배움터 과정이 그것이다(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명자료, 2017.09.07: 2).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학생자치배움 과정에는 세부적으로 마을 프로젝트, 창업 프로젝트, 견우 프로젝트 등 3가지 하위 사업들이 추진된다(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명자료, 2017.09.07: 2). 넓게 보면 몽실학교 내용 전반이 청소년이 주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지만, 좁게 보면 이 가운데 ‘마을 프로젝트’가 청소년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34) 이 내용은 서유철(2017), “학생 주도 교육의 장 ‘꿈이룸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및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명자료(2017).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를 안내합니다 Q&A” 자료를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회 참여와 정확히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몽실학교 설립 배경 및 과정

몽실학교의 출발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다. 몽실학교의 시작이 된 ‘꿈이룸배움터’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주민, 단체, 교사들로 구성된 민간교육공동체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형성된 일종의 마을학교였다(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명자료, 2017). 의정부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마을학교를 고민하게 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혁신학교 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광범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서우철, 2017: 48).

혁신학교³⁵⁾는 학부모와 학교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학부모의 참여가 피상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데까지 이어지며, 학생들에게 자발적인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러한 혁신학교의 성과가 학생들이 혁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반학교로 진학하면서 단절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생님들과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학교-주민-학생-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서우철, 2017: 48-49). 아울러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학생들도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는 특정 학교에 국한하기보다는 여러 학교의 아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형태에 대한 수요를 낳았으며, 그 결과 지역학교 형태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안하게 되었다(서우철, 2017: 49).

새로운 형태의 교육공동체는 시작부터 이전과는 차별화되었다. 우선, 마을학교를 준비하는 교육주체들은 처음부터 청소년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서우철, 2017: 49). 이러한 시도는 새로 설계되는 교육공동체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서우철, 2017: 49). 몽실학교의 전신인 꿈이룸배움터는 교사 또는 학부모에 의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교육은 지양하고, 청소년들

35)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혁신학교 정책은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을 기본 가치로 하고,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이다(백병부·성열관·하봉운, 2014: ix). 이러한 혁신학교는 교수-학습 중심체제, 교사 전문성 공동체,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와 돌봄의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백병부·성열관·하봉운, 2014: 18).

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몰입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청소년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서우철, 2017: 49). 요컨대 어른들이 다양한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스스로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배움'을 찾아 나서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 것이다(서우철, 2017: 49).

그리고 그러한 배움의 실현을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해나가고자 하였다. 즉 학교를 넘어서 함께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미래세대 지역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새로운 교육의 형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서우철, 2017: 49). 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자,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모였고, 지역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도 이러한 고민을 나누는 토론회에 동참하였으며, 청소년 문제와 연결선상에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공유했다(서우철, 2017: 49). 토론회는 2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었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토론에 참여했던 100여명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취지의 배움이 지속되기를 스스로 원했고, 마을학교를 준비하던 교사, 지역주민 등 여타 주체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거쳐 2015년 초에 1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서우철, 2017: 49-50).

청소년들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마을'이라는 주제에서 '공간', '길', '사람'의 3가지 키워드를 도출해내고, '마을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하고, 그 공간은 길로 이어져 있으며, 그 길을 사람으로 이어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서우철, 2017: 50). 몽실학교의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마을 프로젝트'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2) 주요 내용

(1) 운영 방법 36)

① 참가자 및 운영 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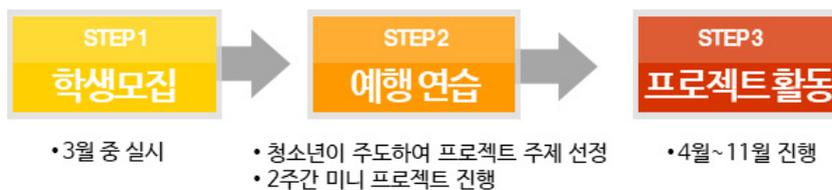
여기에서는 꿈이룸학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 가운데,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직결되

36) 꿈이룸학교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를 안내합니다」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자료는 해당사업 담당자를 통해 제공받았다.

는 ‘마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참가자 구성과 운영 방법, 운영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을 프로젝트는 꿈이룸학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생자치배움’과정 중 하나이다. 프로젝트 기반 학생자치배움 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5명~20명 정도가 동아리를 구성해서, 실제 생활과 연계된 마을 만들기, 창업 프로젝트를 연간 72시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사업 내용

마을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알고, 마을을 바꾸고, 마을을 만드는’사업이다. 3월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2주간에 걸쳐 예행연습으로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주제 제안은 철저히 청소년들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니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4월~11월까지 본격적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마을 프로젝트의 특징은 청소년들이 자발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있다.



출처: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를 소개합니다」 2-3쪽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V-19】 꿈이룸학교 마을 프로젝트 진행 절차

꿈이룸학교 마을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함께 모여 진행해나간다. 예를 들어, 2015년 진행된 공간팀의 “안락한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 청소년들은 이 공간 프로젝트를 위해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공간을 방문하고, 공간 상상력을 촉진하는 강좌들을 진행하며 공간을 채워 갈 목공수업, 카페 만들기를 위한 바리스타 수업들을 기획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에 도움을 줄 지역사회 내 자원과 사람들을 탐색했다. 그 이전까지 여타 청소년시설이나 진로체험센터에서 진행되는 목공수업이나 바리스타 수업이 어른들의 기획에 의해 프로그램으로 개설되고, 청소년들이 신청해서 수강하는 방식이라면, 꿈이룸학교 마을 프로젝트의 목공수업, 바리스타 수업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스스로 찾아가며 교육과정을 채워간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별화 되는 지점이다(서우철, 2017: 51).

그 밖에 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은 의정부 제일 시장 지도 제작을 위해 협의하고 시장을 탐방하는가 하면, 어떤 팀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앞 화단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열심히 땅을 갈기도 했다. 그 밖에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축제 등도 마을 프로젝트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서우철, 2017: 51).

표 IV-9 꿈이룸학교 2015년 마을 프로젝트 내용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공간	안락한 공간 만들기	•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가구제작과 소품공예 등을 통해 의미 있고 안락한 공간으로 개선함.
	청소년 영화관	• 기자단과 함께 청소년들이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 영화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배움
	우리 공간 운영하기	• 청소년 동아리 댄스, 밴드팀 등을 위한 연습실, 쉼터, 노래방, 파티룸 등 공간을 대여, 운영
	꿈이룸배움터 카페	• 카페를 기획하고 만들고 운영하며 사회적 경제를 배우고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
	예술의 전당 음악회	• 의정부 예술의 전당을 활용, 청소년동아리가 함께 음악회를 기획하고 개최
	공간 방음시설 실험	• 청소년 공간의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음시설을 연구하고 설치
길	다같이 돌아 동네한바퀴	• 가장 가까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인 의정부에 대해 공부 하고 탐방
	스케치+악+도보여행	• 공정여행을 바탕으로 길과 배움을 접목하여 청소년의 새로운 배움의 길을 모색
	템플스테이	• 의정부에 있는 절을 탐방하여 마음수련을 쌓고 마음을 치유하는 템플 스테이
	행복로 북카페	• 행복로의 길을 활용하여 전통양식의 북카페를 운영하며 의정부를 알 리고 배움
	길거리 버스킹음악회	• 길거리에서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하며 가고 싶은 길, 행복한 길을 만들
사람	마을책 만들기	• 우리 마을의 형성과정, 주민, 공간, 모임 등을 취재하고 의정부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만나 인생사를 기록하며 주민들과 소통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울할매 이야기	• 홀로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인생을 배움
	익명 우체국	• 내 이야기, 내 고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들어주면서 서로에게 치유와 나눔이 되도록 함
	도시락전달 프로젝트	• 의정부의 외국인 노동자들 위해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전달하며 그들을 만나며 외로움을 치유
	무료 멘토링	• 의정부의 청소년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듣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들에 대한 기사를 씀
	진로카페 프로젝트	• 진로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을 만나며 상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
기자단	소식지 발간	• 꿈이룸배움터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소식지를 발간
	팟캐스트	• 청소년들이 말하고 싶은 것, 의견과 주장을 팟캐스트로 만들어 방송
	꿈을 담은 카메라	• 방송, 영상, 편집기술 등을 배워 꿈터 활동 등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상영
행복동네	올해의 뉴스	• 의정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과 사건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뉴스로 발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전함
	맛집을 소개합니다	• 의정부에 있는 맛집을 탐방·조사하여, 그것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타마 프로젝트	• 동아리원들의 재능을 살려 달력을 제작한다

출처: 김현주,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프로젝트 학교에서 배우는 자치공동체」, 10-11쪽.

표 IV-10 꿈이룸학교 2016년 상반기 마을 프로젝트 내용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마을을 배우다	UFO	• 의정부시의 의료시스템을 홍보를 통해 활성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감
	위아래	• 드론 제작, 꿈터 항공 촬영, 프로젝트 항공 촬영
	셰프	• 함께 음식을 만들고 주변과 나눔
	보배	• 학교공부 멘토링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흥미와 공부하는 이유를 일깨워 주기 위한 프로젝트
	딜레마지션	• 꿈터의 애매한 선택상황들을 토론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함양과 다양한 경험 획득

구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또래올래	•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과 나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을 고쳐 좋은 점으로 바꾸어 내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을 활동을 통해 발전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기
마을에서 놀다	공연기획	• 꿈이룸학교의 행사 및 마을의 행사나 공연들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
	놀.뛰.웃	•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체육활동 함으로써 나이와 성별에 대한 담을 허물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기르기.
	빨간극장	• 영화를 통해 소통하고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영화 만들기, 꿈터 영화제, 청소년 영화관 운영)
	공방살리기	• 미술(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작업할 장소가 필요한 꿈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유 창작 공간 마련
	Cambiar	• 연극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바꾸기
	히스토리 트래블	• 근현대사 역사를 배우고 관련된 지역에 답사를 다녀온 후 기행문 및 영상 제작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립덱	• 뮤직비디오 형식의 홍보영상을 제작. 의정부를 홍보시켜 의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
마을을 만들다	평화만들기	• 개인적인 평화, 공동체의 평화를 공부하고 알리고 전파하는 프로젝트
	Politics People(PP)	• 학생과 청년, 시민들에게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실태를 알림으로써 보다 더 나은 정치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기
	WE ♥ 의정부	•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곳곳을 보다 새롭게 변화를 주어 곳곳에 즐거움이 숨겨져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
	당신의 전단지	• 평소해보지 못했던 미디어 제작에 도전하고 공동체 (의정부 전통시장)와 소통하고 나누기 위한 프로젝트
	마스코트 2기	• 꿈터 안에 식물, 동물을 키우며 꿈터 마스코트를 만들어 감
	베프	•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진실들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누리나눔	• 꿈이룸학교 내의 각 팀들의 활동을 취재&기록하여 꿈터 내의 소식 공유
	인문학, 빛나는 마음	• 세상 만나기, 건강한 마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본다.
	작업장학교	• 실제적인 창업을 통해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꿈꾼다
	공동체여행	•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탐방을 계획, 실행

출처: 김현주,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프로젝트 학교에서 배우는 자치공동체」, 12쪽.

③ 길잡이교사

꿈이룸학교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잘 운영되는 데는 이를 주도하는 청소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잘 활동하도록 돕는 길잡이교사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길잡이교사는 청소년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코치 또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일컫는다. 길잡이교사는 지역사회 내 교사, 마을활동가, 주민, 학부모, 청년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매주 월요일에 자발적인 미팅을 통해 청소년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안내를 제공하고, 평가하며, 향후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협의한다. 꿈이룸학교 프로젝트에서 길잡이교사는 활동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길잡이교사는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실질적으로 견인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2017.09.07: 3).

(2) 정책 마켓³⁷⁾

한편, 몽실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제안한 내용이 실제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마켓 행사를 개최한다. 2017년 처음 개최되는 정책 마켓은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 내용을 한 데 모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교육청 관계자, 시·구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등 정책수요자들과 연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실제 현실 정책에 반영되도록 돕는 일종의 정책 박람회다. 정책 마켓을 통해 청소년들은 정책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되고,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표 IV-11>에는 2017년 10월 28일 개최되는 2017년 몽실 정책 마켓의 세부 프로그램(안)이 제시되어 있다.

표 IV-11 2017 몽실(夢實) 정책 마켓 프로그램 개요(안)

구성	주요 내용	시간	세부 프로그램
정책 사연 우체통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창구 운영	10월1일 ~10월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참여하는 정책 제안 참여의 장 • 정책 포토존 게시 • 정책 사연 소개 팟캐스트 방송 (미디어 경칭)

37) 이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2017.09.26), “아동·청소년 몽실 정책마켓 계획(안)”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이 자료는 해당 사업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았다.

구성	주요 내용	시간	세부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청년 정책마켓 (모듬곰방)	다양한 우수 정책, 청소년들이 생산한 생활 정책 안내	10:3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아동-청소년-청년 우수 정책 제안 •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정책 제안 • 청소년이 제안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 정책 설명 및 판매 (지자체, 교육청, 의회등) • 구매자와 정책 반영 계약서 체결 • 정책 포토존 운영 • 정책 마켓 팸플렛 및 자료집 발간
정책 토크 콘서트 (모듬곰방)	청소년이 제안하는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토크 콘서트, 라이브 방송	11:30~12:00 14:0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청소년 제안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정책 마켓 구매자(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청 관계자 등)와의 토론
		16: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성남 시장, 유은혜 국회의원 초청 정책 경연 및 토크 콘서트
정책 재미 부스 (정보소통방)	딱딱한 정책 제안의 장에 다양한 놀이로 참여할 수 있는 부스 운영	10:3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반영 부스 뺏지 제작 및 전시 • 정책 포어 공모전 • 정책 부르마블 게임 • 정책 마켓 팟캐스트 운영 (미디어 경칭)

출처: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2017.09.26.), 아동·청소년 몽실 정책마켓 계획(안).

3) 성과 및 시사점

몽실학교 성과를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몽실학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발휘했다고 평가한다(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참조). 그 결과 청소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주말마다 100~150여명이 모여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계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서우철, 2017: 51).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다(서우철, 2017: 51). 이러한 시도는 참여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몽실학교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학교 중심,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몽실학교와 그 세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마을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참여를 실천하면서 청소년이 주도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연계하는 것을 뛰어 넘어,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학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사회 참여-교육과정 연계와는 패러다임을 달리 한다.

둘째, 몽실학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는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팀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교육지원청이 가진 행정력은 학교와 연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서우철, 2017: 50). 특히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는 ‘드림하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중·고등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을 연속사업으로 4년 동안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5년 사업 설명회에서 꿈이룸배움터 청소년 기획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참가자 모집에 큰 홍보가 되었다(서우철, 2017: 50).

한편, 몽실학교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추진한 ‘경기꿈의학교’ 정책이 중요한 전기로 작용하였다. 정책 취지와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몽실학교의 목적이 ‘경기꿈의학교’와 대단히 유사했기 때문에, 몽실학교는 경기꿈의학교 공모사업에 신청하였고, 여기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에는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서 사업의 취지와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민·관 모두 청소년이 주도해야 한다는 사업 취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바람직한 민·관 결합 모델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서우철, 2017: 51).

셋째, 몽실학교의 성공이 청소년참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참여가 청년들의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참여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가시화되면서 마을이 지지하고 지원하며, 청소년들은 청년이 돼서 다시 길잡이교사로 들어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서우철, 2017: 52). 이러한 시도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외부 자원들과의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한 사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사례로서 몽실학교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김해 혁신교육지구, 세종시교육청, 익산교육지원청, 전주시청 등에서 경기도 몽실학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 자치 배움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2017.09.07.: 5).

8.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플랫폼,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³⁸⁾

Case 7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플랫폼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사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플랫폼 • 청소년들이 관심분야에 따라 자치기구(동아리)를 구성하고, 청소년참여포럼 등의 기회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지자체에서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사례 특징	운영 주체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시설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자체)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단체
	접근 기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개방성 낮음		
	정책 제안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책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비공공부문 제안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혼합형

1) 개요 및 배경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더 활기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일종의 청소년 사회참여 플랫폼이다. ‘달그락달그락’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활동을 하고, 스스로를 대표하는 조직을 선거로 선출한다. ‘달그락달그락’의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활동의 후반기에는 ‘청소년참여 포럼’을 통해서 그간의 활동내용들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한다(정건희, 2017).

‘달그락달그락’에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기성세대의 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지원조직은 청소년위원회와 실천연구위원회, 사회참여위원회, 진로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범위한 후원자 그룹이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결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상근 활동가도 있다. 상근 활동가의 주된 역할은 ‘달그락달그락’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소통하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는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데 주력한다(정건희, 2017).

38)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사례는 정건희 소장(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이 집필하였으며, 황여정 연구위원(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달그락달그락’이 자리 잡고 있는 군산에서는 청소년기가 지나면 지역사회는 어떻게든 떠나야 하는 곳이며,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담론이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를 떠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괜한 열패감을 갖는 경우도 생겼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는 오래도록 거주하며 구성원들과 심리적 유대감을 갖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괴리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바로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머물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청소년 자치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게 되었다(정건희, 2017).

2) 주요 내용

(1) 청소년 자치조직의 구성

‘달그락달그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참여 활동들은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들이 이끌어 간다. 이를 위해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자치기구를 통해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회인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와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대표 기구인 ‘달그락 청소년 대표자회의’를 소개한다.

①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

‘달그락달그락’의 활동은 청소년자치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치기구는 각각의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청소년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는데, ‘달그락달그락’에서는 청소년의 주도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둠이나 동아리라는 명칭 대신 자치기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017년 ‘달그락달그락’에는 총 15개의 자치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8월 기준 195명의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5개의 자치기구 가운데 ‘연합회 대표자회의’를 제외한 14개는 개별 활동 조직이다. 청소년자치기구 활동 영역은 크게 경제활동, 진로활동, 사회참여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치기구는 명칭을 비롯해 세부적인 운영 절차까지 모든 것을 청소년들이 결정하고 이끌어간다. 자치기구별로 정기 모임은 대부분 매주 1회 이상이며,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좀 더 자주 모임을

갖는다. 모든 자치기구는 개별 회칙이 있고 모임 이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유한다. 이처럼 자치기구별로 회칙을 마련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다.

표 IV-12 2017년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회 조직

연번	자치기구명	활동	인원	정기모임	비고
1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 대표자회의	청소년자치기구 대표자들로 달그락 연합활동	7	격주1회	대표 회의
2	달케테	경제·경영 관련 학습 및 소논문 작업 활동	6	주1회	
3	불꽃길	드라이플라워 제작 및 판매활동	5	주1회	
4	스네일	미용 관련 경제활동	2	주1회	
5	달달베이커리	제과제빵 경제활동	6	주1회	
6	보dana	문화예술 기획 및 활동	3	주1회	
7	메카트로니스트	3D프린팅 학습 및 제작활동	21	주1회	
8	WAY	인문학 공부를 기반으로 진로 관련 글쓰기 및 강연활동	23	주1회	
9	BODA	진로활동 및 진로콘서트 기획	7	주1회	
10	Aspect	청소년기자단으로 취재 및 일간지에 매주 기사 작성활동	38	주1회	
11	달봉	달그락 자원봉사단으로 봉사활동 기획 및 진행	31	주1회	
12	눈맞춤	청소년작가단으로 글을 쓰고 잡지제작 활동	16	주1회	
13	D.라이트온	청소년 인권모니터링 및 인권 프로그램 활동	11	주1회	
14	리베라	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활동	3	주1회	
15	DYBS (달그락청소년방송국)	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방송 기획, 제작, 송출 활동	16	주1회	
합 계			195		

■ 청소년들이 만드는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달그락달그락’의 각 자치기구들은 연초에 새로 구성원을 맞이해서 재조직화 되고, 1년 동안 추진할 활동내용을 고민해서 연간 사업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계획은 매년 대표자 회의 선거일에 자치기구 발대식을 겸하면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자치기구별로 발표함으로써

공유한다.

■ 청소년이 주도하는 자치기구 발대식과 선거

이 같은 청소년자치기구 발대식과 선거도 모두 청소년들이 기획해서 개최된다. 이를 위해 전년도 임원과 TF청소년들이 두 달여 동안 준비를 하게 되고 대표자회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특히 자치기구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모든 자치기구가 필수적으로 "지역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고민하게 된다. 보통 자치기구별로 연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몇 주에 걸쳐 토론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 자치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변화를 위한 연대 활동의 기반이 조성된다.

② 달그락 청소년 대표자회의

달그락 청소년 대표자 회의는 '달그락달그락'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자치기구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매년 초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자치기구별로 청소년들이 각자 연대해서 선거에 출마할 조직을 꾸린다. 자치기구별로 연대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기자단의 청소년과 경제활동 자치기구 청소년 몇몇이 연대해서 정당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고, 공약과 1년 사업을 제안한다. 2017년에는 '달고나당'과 '라온아제' 2개 당이 조직되어 공약과 1년 사업을 제안했고,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투표를 통해서 '달고나당'이 선출되어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게 되었다. 대표자회의는 14개의 청소년자치기구를 대표하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대학 실습생 면접관부터 청소년참여포럼, 상상캠프 등 자치기구 전체가 연대하는 연합활동들을 기획하여 진행하게 된다.

대표자회의는 격주로 개최되며, 이를 기반으로 매달 정기적인 전체 임원 회의가 이루어진다. 이때 전체 임원회의에는 대표자회의 청소년들과 각 자치기구 대표들이 모여서 한 달 여 간의 활동 공유와 계획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대표자회의가 연합해서 진행한 주요 활동으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일에 지역 내 투표소 앞에서 실시한 18세 선거권 및 투표독려 캠페인, 달그락 자치기구 연합회 임원을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 8월 방학 기간 중 개최된 전체 청소년대상의 상상캠프 등이 있다. 또한 9월에는 2017년 '청소년 참여포럼'을 통해, 그간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을 통해 논의하고 제안한 다양한 대안들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가는 작업을 추진했다.

(2) 활동 내용

① 청소년 참여포럼: 청소년들이 지역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기록, 「청소년지역여행기」

■ 포럼을 통한 정책대안의 공유

「청소년지역여행기」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기록’의 줄임말로, ‘달그락달그락’에서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청소년 참여포럼’의 고유 명칭이다. 해마다 연초부터 7~8개월 동안 진행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포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포럼 개최를 준비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포럼 구성을 위해 세부 영역을 나눈다. 2017년에는 그간 운영되던 영역을 재구성하여, 청소년인권참여, 청소년문화, 청소년교육진로, 청소년복지안전, 청소년경제 등 다섯 개 영역으로 새롭게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각 세부영역별로 청소년들 중심의 팀을 구성한다. 팀 구성은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우선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가능하면 청소년자치기구에서 활동했던 청소년들이 관련 영역에 참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프리마켓 등 경제·진로활동을 꾸준히 해 온 청소년들은 경제영역이나 교육진로 영역에서 정책 제안 활동 준비를 하게 된다.

영역별 팀이 구성되면 팀 내 분과장이 선출되고 분과장 중심으로 정책 제안한 내용들을 논의한다. 이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사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해 자료를 찾고, 학습을 하며, 전문가 인터뷰 등도 진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정책)분과일 경우 청소년문화와 관련한 전공서적을 찾아 문화, 청소년문화 등의 개념을 이해해보고, 지역사회에서 실제 문화 활동을 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책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인터뷰를 하며, 청소년축제나 동아리활동 등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문화 활동의 예산을 찾아서 분석하고 지역의 공간 등을 찾아보는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주변 친구들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 등 수요조사의 의견수렴의 절차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책대안들을 원고로 정리하여 포럼에서 발표하는 것이다. <표 IV-13>에 제시된 내용은 바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대안들이다.

표 IV-13 2016년 청소년 참여포럼을 통해 군산시에 제안된 정책대안 내용

분야	문제점	제안 번호	제안사항	비고 ³⁹⁾
1. 참여	1-1. 청소년 알권리 보장	1-1-1	• 청소년 대상 정책설명회	
		1-1-2	• SNS를 활용한 정보 공개,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이 관련 공문을 볼 수 있게 의무화	교육
		1-1-3	• 공공성 있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의무적으로 열린 시정 및 홈페이지에서 홍보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필요	
	1-2. 청소년참여활동 지원 및 참여예산 편성	1-2-1	• 학교에서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치위원회를 시에서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기구로 소통	교육
		1-2-2	• 청소년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위원회 구축 (지자체-연구자-청소년)	
		1-2-3	• 청소년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입시공부가 아닌 민주시민교육 등 실시, 청소년 강사단 운영)	
		1-2-4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로 프로그램 구성	
		1-2-5	• 청소년 참여예산제 시행	
	1-3. 청소년 정책제안 사항 반영비율 저조 개선	1-3-1	• 청소년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형태의 청소년 참여포럼을 시차원에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제안의 공식적인 수렴 체계를 갖추어야 함	
		1-3-2	• 청소년 참여활동을 장학금 형식의 지원필요 (공모전, 발표대회 등)	
	1-4. 군산시 청소년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 활용 필요	1-4-1	• 모바일 앱 뿐만 아니라 어린이 홈페이지 및 일반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실시간 정책제안 방안 적극 독려	
		1-4-2	• 안건별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 탑재 (평가위원회 송부 → 심의 → 우선순위 결정 → 시민참여 평가 등)	
2. 경제	2-1. 경제교육 부재	2-1-1	• 학교에서 신용 경제교육의 실시 확대 (상업 계열과 함께 인문계에서도 실시)	교육
		2-1-2	•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	교육
	2-2. 청소년 근로권 침해	2-2-1	• 청소년 근로장 페이지를 개설하여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을 명시하고 비양심 가게는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관리	
		2-2-2	• 관리감독기관이 해당 사업장의 단속을 강화	

분야	문제점	제안 번호	제안사항	비고 ³⁹⁾
	2-3. 청소년 경제활동 지원	2-3-1	• 프리마켓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특별공간을 청년 물에 입점	
3. 복지	3-1. 시민 자율 활용 공간 부족	3-1-1	• 월명체육관 무료개방 및 시민참여단이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체계구축	
		3-1-2	• 실내 운동시설 확충	
	3-2. 학교밖 및 결혼가정 지원 미비	3-2-1	• 청소년 보호시설 설립	
	3-3. 장애학생 교내 복지 체계 부족	3-3-1	• 일반교에 특수교사 배치	교육
4. 안전	4-1. 민원 제기 후 진행 상황 확인 불가	4-1-1	• 학교, 공공시설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설문조사, 건의함 설치 등) 보수할 점과 위치 등을 명확히 받고 즉각 조치 가 되어야 함	교육
	4-2. 교통 (불법주차 단속, 버스 노선 개선)	4-2-1	• 불법주차 단속구역을 늘리고, 학교 내 차량진입을 제한	
		4-2-2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의 노선과 버스배차를 늘 려야 함	
		4-2-3	• 알림시스템 재정비 및 모바일 어플 개선	
	4-3. 도로 내 불법 노점상 단속 미비	4-3-1	•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 화하고 관련 과와 경찰서가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 여야 함	
	4-4. 형식적인 안전교육	4-4-1	• 군산시에 맞는 안전프로그램 개발(화재 및 지진 등)	
		4-4-2	• 안전교육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정규 교육 횟수 확충	교육
	4-5. 급식 납품과정 비공개	4-5-1	•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식자재를 전체 공개하고 급식 납 품과정을 청소년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함	
4-6. 야간 치안 문제 무방비	4-6-1	• 청소년 집중이동시간(야간자율학습 후) 가로등 보수 확인		
	4-6-2	• 야간 안전지킴이 프로그램 개발		
	4-6-3	• 야간 버스 배차 확충 및 스쿨버스 대수 증폭		
5. 환경	5-1. 학교폭력 사태 미해결	5-1-1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절차적인 조치 필요	교육

분야	문제점	제안 번호	제안사항	비고 ³⁹⁾
	5-2. 학생 인권조례 무시	5-2-1	• 학생(청소년)인권 모니터링 단을 시 차원에서 운영(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주체)	교육
6. 활동	6-1. 청소년활동시설 부족	6-1-1	• 주민 센터를 주말에 이용	
		6-1-2	• 주민 센터 개방을 시범운영으로 시험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6-1-3	• 분관형태의 청소년 활동시설에 인력파견	
	6-2. 진로활동시간 미보장	6-2-1	• 청소년들과 기획하는 체험형 진로활동을 학기 초에 개설	교육
		6-2-2	•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강사초빙	교육
	6-3. 청소년동아리활동 비활성화	6-3-1	• 학생부에게 선생님들과 동등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육
		6-3-2	• 외부연계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장치 필요	교육
		6-3-3	• 시에서 주최하는 동아리 축제	
	7. 교육	7-1. 다양한 청소년 교육의 장 마련 필요	7-1-1	• 학교로 오는 학과 박람회(부스체험)
7-1-2			• 시 주체의 청소년 진로활동 발표대회 등 장학금과 연결된 대회 및 공모전 확충	
7-1-3			• 청소년 및 학생자치회에서 기획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예산지원	교육
7-1-4			• 적성 찾기 프로그램	교육
7-1-5			• 플립러닝 수업 방식 도입	교육
7-2. 민주시민교육		7-2-1	• 시민단체 연계 교육 및 현장학습 필요	교육

출처: 정건희(2017). 16-18쪽, <표 3>.

39) 비고란에 교육으로 표기된 제안은 교육지원청의 협조가 필요한 안건, 또는 군산시 차원에서 교육지원청과 연계가 필요한 안건을 의미한다.

■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대안 실현을 위한 장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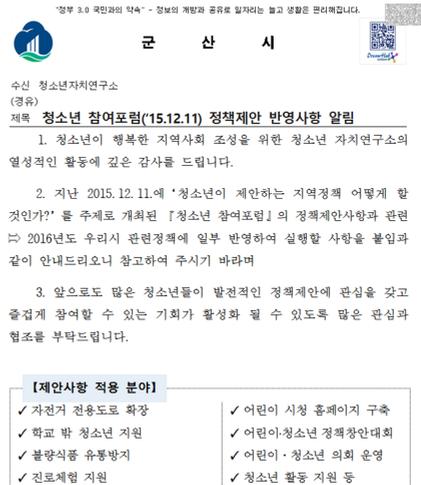
포럼에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청소년들이 발표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 함께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통 지역 시의원,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한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대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상호 논의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정리된 정책 제안 내용을 모아서 군산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하고, 군산시에서는 제안한 내용별로 부서에서 회람하여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대안 내용을 확인하고, 반영 가능한 내용과 불가능한 내용을 정리하여 달그락달그락을 운영하는 '청소년자치연구소'로 공문으로 보내준다. 2015년에는 자전거전용도로 확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 불량식품 유통 방지를 비롯해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 어린이청소년정책 창안대회, 진로체험 지원 등의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실제 현실화 되었다.

참고로, [그림 IV-20]에는 청소년참여포럼 「청소년지역여행기」 개최를 위한 준비 과정에 사용되는 워크북이 예시로 제시하였고, [그림 IV-21]에는 2015년 청소년 참여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군산시가 검토를 거쳐 정책에 채택·반영한 내용을 알려온 공문이 제시되어 있다.



출처: 청소년자치연구소(2016). 청소년 참여포럼 자료집 표지.

【그림 IV-20】 청소년참여포럼 워크북



붙임 분야별 2016년 업무계획 1부. 끝.

출처: 정건희(2017). 18쪽, [그림 2]

【그림 IV-21】 군산시 청소년참여포럼 정책제안 반영사항 알림 공문

② 청소년의 주도로 전국 유일의 청소년자치권 확대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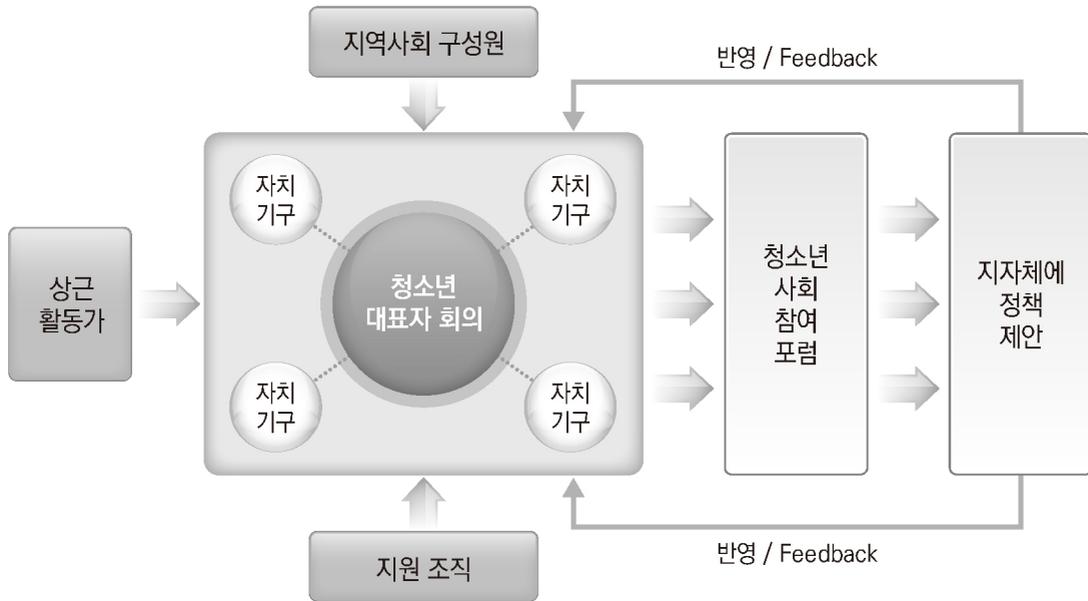
‘달그락달그락’ 청소년들의 주도로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군산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⁴⁰⁾는 군산시 시의원과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들이 TF를 구성하여 두 달여 간 토론과 논의 끝에 제정한 조례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앞으로 군산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군산시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앱을 통해 정책이나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시는 제안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을 하게 된다. 또한 시장은 관련한 청소년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조례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조례에서는 대부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명기하였다. 이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는 의미가 없다”면서 강력한 실행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포럼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청소년들이 참여의 결과로서 애써 제안하는 제안의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한 두 번의 포럼을 준비해서 제안하기보다는 지속적·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달그락달그락’에 참여하는 소수의 청소년들만 제안의 기회를 갖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반영되어 있었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문제의식과,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의 협업을 통해 조례 제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 달여 간 청소년들의 제안과 시의원의 정보제공, 그리고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조례가 만들어졌다. 전국에서 유일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의 통과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외출증까지 끊어서 시의회에 조례 심의·표결 과정을 참관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달그락달그락’의 지역사회 참여 과정을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IV-22]와 같다.

40) 이 조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을 분석한 본 보고서 제Ⅲ장 제2절에 소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출처: 정건희(2017) 원고 내용을 그림으로 구성.

【그림 IV-22】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사회참여 과정

3) 성과 및 시사점

(1) 성과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2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에 존재하는 크지 않은 규모의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자연스럽게 홍보채널이 되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했다. 또,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달그락달그락’ 청소년기자단은 매주 1회 전북신문에 단독지면을 할애 받아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달그락달그락’의 참여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최초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 외에도, 보다 의미 있는 결과는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애착이 강화되었고, 청소년을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연계가 공고해졌으며, 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지역 구성원 간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참여를

통한 청소년들의 효능감과 시민의식이 제고된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2) 시사점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있는 ‘달그락달그락’의 운영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각자 개인으로 분절화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치기구로 조직화되어 서로 연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달그락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들은 사회참여, 진로활동,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자치기구로 조직화 되어 있고, 이들을 대표하는 청소년자치기구 대표자회의를 선거로 선출하여 연대한다. 개별 자치기구내에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고, 연합활동은 연대하여 지역사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각 자치기구의 활동도 필수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주제로 계획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활동이 지역사회 참여로 확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성인들의 자발적인 지원조직이 있다는 점이다. ‘달그락달그락’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인 청소년자치연구소 안에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 위원회와 실천연구위원회, 사회참여위원회, 진로위원회 등 네 개의 위원회가 있다. 또한 꿈청지기 청소년자원활동가와 청년들로 이루어진 진로자원활동가 그룹이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들은 모두 월 1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통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전개하는 참여 활동 가운데 본인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재능기부와 재정기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청소년위원회와 자원활동가 등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



출처: 정건희(2017) 원고 내용을 그림으로 구성.

【그림 IV-23】 달그락달그락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의 구성

셋째,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지원했다는 점이다. 상술한 4개 위원회 등의 지원조직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이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참여포럼에 분과별 전문 멘토로 참여하기도 하고, 진로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 여기에 소개하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이 하는 활동 가운데 청소년프리마켓이 있는데, 이 프리마켓을 운영을 돕기 위해 많은 소상공인들과 전문가들이 청소년들과 연계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참여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되고, 이러한 관계가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함에 따라 참여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넷째,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달그락달그락’은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의 존재는 청소년들이 자치기구별로 모임을 갖거나 전체 회의를 개최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는 학교와 같은 기존 체제에서 평가받거나 서열화 되는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달그락달그락’에 2년째 참여하며 올해 대표자회의에 선발된 ‘달고나당’의 임원은 학교와는 다른 자유로운 공간이 좋아서 더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달그락달그락 참여 청소년 면담내용, 2017.08.19.).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참여 문화가 자리잡도록 도운 청소년활동가와 실무자가 있었다. ‘달그락달그락’이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차별화되는 청소년자치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가치와 신념에 공감하는 역량 있는 활동가들의 기획과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 특히 ‘달그락달그락’을 운영하는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는 예비청소년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예: 길위의 청년, 청년의꿈 과외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된 활동가들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9.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유스벤처(Youth Venture)」⁴¹⁾

Case 8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유스벤처」			
사례 개요	• 청소년들이 스스로 팀을 구성하고, 주변에서 문제를 발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사례 특징	운영 주체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시설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자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교육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단체
	접근 기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개방성 낮음		
	정책 제안	<input type="checkbox"/> 공공정책 제안형	<input type="checkbox"/> 비공공부문 제안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혼합형

1) 개요 및 배경

유스벤처는 글로벌 단체인 아쇼카(Ashoka)가 사회혁신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장려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이다. 유스벤처(Youth Venture)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팀을 구성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리더십, 팀워크, 공감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른바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연마하도록 돕는다(아쇼카한국, 2017).

41) 「유스벤처(Youth Venture)」 사례 내용은 아쇼카한국(2017). 「청소년 체인지메이커들의 모험을 위한 가이드북: 안내자용」과 아쇼카한국(2016).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인지메이커들의 경험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요약·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 수록된 내용은 아쇼카한국 및 2017년 9월부터 「유스벤처」 사업을 전담하는 유스망고(Youth Mango) 측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 온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아쇼카는 지난 37년 동안 전세계 88개국에서 3,300명이 넘는 사회혁신가들을 선정해서 지원해왔다(아쇼카한국 홈페이지, 2017.10.21.인출). 이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개선하는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크든 작든 행동을 통해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주변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유스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아쇼카한국, 2017: 20). 아쇼카한국이 발간한 유스벤처 프로그램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동안 아쇼카의 유스벤처 프로그램은 미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한국 등 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적용되었다. 그 결과 1만 7천개 이상의 팀, 37만 5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주도의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아쇼카한국, 2017: 20).

교육환경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유스벤처 프로그램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참여 교육생태계의 저변 확장을 위해, 최대한 공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5년 10명의 초·중·고 교사들의 예비적(pilot) 운영을 시작으로, 한국의 교육 현실에 맞도록 커리큘럼을 재구성하였고, 청소년단체, 지역사회센터, 교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현장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 한국에서 24개 도시, 200여개 학교에서 자율동아리, 진로수업,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하여 3,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유스벤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쓰망고 김하늬 대표 서면자문의견, 2017.12.01.). 참고로, 유스벤처 프로그램은 그간 사단법인 아쇼카한국에서 운영하였으나, 2017년 9월부터 아쇼카한국에서 독립하여 별개의 교육단체인 “유쓰망고(YouthMango)”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스벤처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 라이선스는 “유쓰망고”에서 보유하고 있다(유쓰망고 페이스북 페이지, 2017.12.02.인출).

2) 주요 내용

(1) 핵심 원칙

유스벤처 프로그램은 다음의 5가지 가치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1의 원칙은 ‘주도성’이다.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 팀을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감성이다. 청소년들이 ‘나’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깊이 관찰하며,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스벤처에서 '나'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보다, 나와 관련이 있거나 스스로 실제 겪고 있는 사회문제로부터 참여를 시작할 때,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문제가 아닌, 내가 직면한 문제로부터 출발할 때 문제해결의 의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아쇼카한국, 2017: 23).

세 번째 원칙은 시스템적 사고(systematic thinking)이다. 시스템적 사고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의미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적 접근을 위해, 유스벤처에서는 가급적 1인으로 혼자 활동하기보다는 팀을 구성할 것을 권한다. 비슷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팀을 구성해서 문제의 근본원인을 탐구하며, 자연스럽게 팀 안에서 역할분담을 통해 당면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유한다(아쇼카한국, 2017: 23).

넷째, 연결성이다. 연결성은 문제를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의 연계와 관련하여, 멘토와의 연계, 혹은 이해관계자의 지원도 필요하다. 멘토는 팀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멘토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지원과 충고를 제공하는 멘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활동이 지속 가능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도 필요하다(아쇼카한국, 201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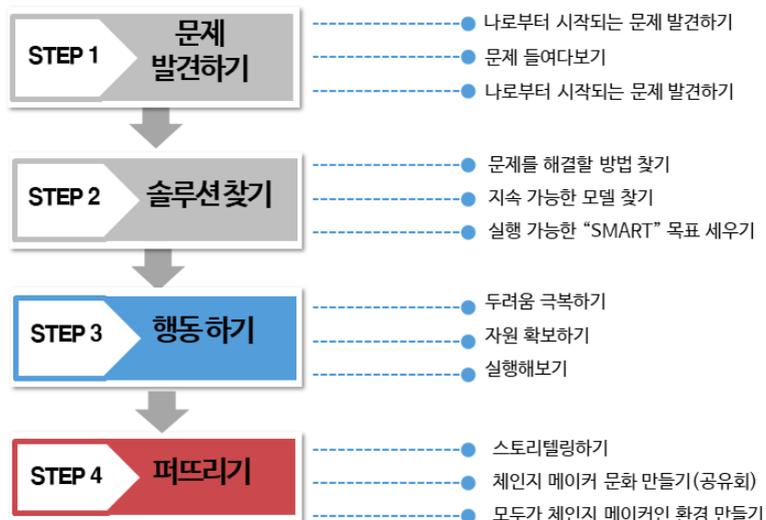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치는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은 활동의 결과로 산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갖추어 지속적인 사회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아쇼카한국, 2017: 22).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활동을 지속해갈 것을 강조한다(아쇼카한국, 2017: 23).

(2) 운영 과정

상술한 원칙을 바탕으로, 유스벤처 프로그램은 [그림 IV-24]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유스벤처 활동은 제1단계, '문제 발견하기'로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들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을 고민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탐색한다(아쇼카한국, 2017: 46-47). 실제로 전체 활동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는 데는 문제 발견의

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단계에 ‘공감 캠페인하기’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교실 밖 현장에 나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보고, 대중의 반응을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진짜 문제를 정의하게 된다(유쓰망고 김하늬 대표 자문의견, 2017.12.01.). 2단계는 ‘솔루션 찾기’이다. 여기에서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다. 이러한 해결책 탐색을 위해, “내가 찾은 문제는 진짜 문제인가?”, “우리 팀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찾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솔루션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등을 고민하게 된다(아쇼카한국, 2017: 46-47).

3단계는 ‘행동하기’이다. 여기에서는 앞 단계에서 도출된 대안을 토대로,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실천해보게 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은 “행동하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는 벽은 무엇인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나에게 필요한 자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실제로 실천해보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아쇼카한국, 2017: 46-47). 유스벤처 활동의 마지막 4단계는 ‘퍼뜨리기’로서, 활동 결과의 확산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발견된 나만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다른 친구의 이야기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웠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등을 고민하게 된다(아쇼카한국, 2017: 46-47).



출처: 아쇼카한국(2017). 46-47쪽, “청소년 체인지메이커들의 모험 로드맵” 그림을 재구성.

[그림 IV-24] 유스벤처 프로그램 운영 절차

3) 주요 사례

(1) 이천 Y여고 ‘행복한 동물원 프로젝트’

유스벤처 프로그램을 적용해 추진된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여기에서는 경기도 이천 Y여고에서 실시된 ‘행복한 동물원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이천 Y여고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다양한 활동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학교 안에서 ‘체인지 메이커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체인지 메이커 학교’는 주변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소정의 지원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행복한 교육, 2016년 7월호: 15).

이 같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Y여고에는 학생인쇄서비스 동아리, 플리마켓 동아리, 분실물 찾아주기 동아리, 동물원 관람문화 개선 동아리, 공유경제 동아리 등이 생겨났다(행복한 교육, 2016년 7월호: 15).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2015년에 추진된 동물원 관람문화 개선 활동인 ‘행복한 동물원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참여 활동은 유스벤처에서 제시하는 문제 발견하기→솔루션 찾기→행동하기→퍼뜨리기의 4단계를 따라 이루어졌다. Y여고 사례에서 특히 눈에 띄는 활동들은 실제 대안을 적용한 대상인 어린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 제시를 위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해본 것, 그리고 대안으로 도출한 ‘동화책’만들기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SNS를 활용한 펀딩 활동을 해서 실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한 것 등이다. 전체 활동의 구체적 내용은 <표 IV-14>에 정리되어 있다.

표 IV-14 이천 Y여고 ‘행복한 동물원 프로젝트’ 지역사회 참여 사례 주요 내용

단계	구분	주요 활동 내용
1단계 문제 발견하기	관심 있는 이슈 찾기	•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동물원의 월요병’을 시청하고, 관심을 갖게 된 5명의 청소년으로 팀 구성
	팀원 구성	•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 수의사가 꿈인 친구, 남을 설득하는 일을 잘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꿈인 친구 등 각각 장점을 가진 친구들로 팀원 구성
	문제 들여다보기	• 2015년 5월, 실제로 동물원에 방문해서 현상을 관찰

단계	구분	주요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육사, 수의사와 인터뷰를 하며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을 파악 • 관람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감 캠페인 진행
2단계 솔루션 찾기	문제 해결의 대상이 되는 그룹 만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원에 오는 어린이들이 특히 올바른 관람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인식을 알아보고 교육하기 위해 7월에 한 팀원이 인근 초등학교 방문
	인터뷰와 대화를 통해 솔루션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행복한 동물원의 모습’을 그려보는 활동 전개 • 초등학생과 함께 한 활동을 통해, 동화책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 도출
3단계 행동하기	동물원 관람문화 개선을 위한 대중인식 개선 프로젝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관람문화로 피해를 입는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 카카오의 스토리 펀딩을 통해 2015년 9월부터 6주간 뉴스를 연재하여 300만원 이상의 펀딩 확보 • 강력한 스토리 구성을 위해 동물원과 기타 사회혁신 단체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프로젝트 진행
	교내 다른 동아리와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디자인 동아리인 ‘양디’ 친구들과 협력하여, 그림책을 만들어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에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리워드를 제작해 배송
4단계 퍼뜨리기	교내 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체인지메이커 행사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공유 • 다른 친구들에게 학교 밖,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의 의미와 보람에 대해 확산
	외부 채널을 통한 스토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카카오에 스토리 펀딩 진행 중, KTV방송의 요청으로 다큐멘터리로 제작

출처: 아쇼카한국(2017), 48-49쪽의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표로 재구성.

4) 성과 및 시사점

(1) 성과

유스벤처 활동의 주요 성과는 앞서 살펴본 여타 사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참여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효능감을 얻는다는 데 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이천 Y여고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유스벤처 활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교 공유회, 사회혁신 단체 모임,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곳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아쇼카한국, 2017: 49). 경기도 이천에 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여러 가지로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스벤처 프로그램의 체인지메이커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과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이 대단히 컸으며, 그 결과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다고 밝히고 있다(아쇼카한국, 2017: 49).

(2) 시사점

여기에서 제시한 유스벤처 프로그램과 이를 적용한 이천 Y여고 사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체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단체인 아쇼카(Ashoka)에서 이미 운영해오던 유스벤처 프로그램을 한국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기 때문에,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지도교사가 참여 청소년들에게 안내를 제공하기에도 유용하고,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갖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워크숍 등도 진행되는데, 이러한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이 도출한 대안이 실제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금 모금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병행되었으며, 이러한 활동 또한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스벤처에서는 해결책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활동비 모금 방법 요령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현물 지원(실제 필요한 물품 기부받기), 자금 모금을 위해 지원사업에 도전하거나 개인기부 요청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아쇼카한국, 2017: 65), Y여고 사례는 이 가운데 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을 모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도는 참여 활동의 결과물로 단순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제3자가 이를 반영해주기를 기다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우수 사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청소년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활동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들이 주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참여의 필요성을 청소년들이 상호 공유하고, 기획, 공유할 문제의 발견, 해결 방안 모색, 대안 제시까지 전 과정을 청소년이 주도한다. 물론 해당 사업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성인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량 있는 성인 지도자의 개입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풍부하게 만든다. 성인 지도자들은 참여활동을 주도하거나 틀을 정형화 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한다.

둘째, 개인보다 팀별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시작된 변화」는 4명 이상의 동아리 구성을 요구하고, 핀란드 헬싱키시의 「루띠」는 동일한 이슈에 관심을 가진 10명 이상의 청소년들로 활동 그룹(activity group)을 구성해서 참여 활동을 전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의 한국 버전인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서도 4~8명의 모둠을 구성해 사회참여 활동을 하도록 했고, 몽실학교의 ‘마을 프로젝트」도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5명~20명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연간 72시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 요체로 삼는다. 아울러 ‘달그락달그락」의 사회참여 활동도 자치기구를 기본 활동 단위로 삼아 이루어지는데, 자치기구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쇼카한국의 「유스벤처」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이 팀을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들이 모두 개인 단위가 아니라 팀 단위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여럿이 팀을 구성해서 참여 활동을 했을 때 참여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일례로 개인이 관공서의 게시판에 제안을 하는 것도 사회 참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참여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면, 참여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여기에서 검토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개인이 아니라 팀 단위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었다.

셋째, 여기에서 살펴본 프로젝트형 사회참여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4단계 혹은 5단계의 참여 방법을 강조하고 있었다. 각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인 단계의 명칭은 다르지만, 대체로 지역사회 문제 발견→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조사→대안 제시→실천하기→공유하기 등의 흐름을 따르되,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약간의 변형을 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회참여의 단계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모색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실천'과 '공유'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단지 '체험'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직접 실행수단을 찾아서 실천해보고, 그것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까지를 참여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넷째, 청소년의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이다.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에서는 청소년의회의 제안사항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마을정부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사업 및 교육 사업은 청소년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보장하였다. 또 핀란드 「루띠」 시스템에서는 정책세미나인 「빠따야미띠」를 통해 정책담당자와 청소년이 함께 정책대안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렇게 마련된 정책대안에 대해 루띠 박람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의 제안이 현실화되도록 지원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또 「Project Citizen」에서도 마지막 단계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지역 의회에서 발표함으로써 공공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몽실학교」에서는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입안자와 청소년이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고,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참여포럼에서 최종 도출된 정책대안들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송부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공문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참여를 통해 실제 변화를 야기하는 '영향력의 행사'는 청소년 참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내에서 운영된 청소년 참여 정책의 경우, '보여주기식' 참여에 그치며 실제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청소년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는 보다 면밀한 사업 설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성인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 활동을 이끌고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자치조직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검토한 사례 가운데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정당으로 구성되며, 이 정당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총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선출한다. 그리고 집권당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총리가 각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마을정부를 구성한다. 핀란드의 「루띠」에서도 각 의제별로 참여활동을 하는 활동 집단(activity group)과는 별개로, 핵심 집단(core group)을 돕으로서 이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부를 운영하도록 한다. 핵심 집단은 루띠 박람회에서 선출된다. 이 같은 구성방식은 군산 「달그락달그락」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달그락달그락」에는 각 자치기구의 연합체인 '달그락달그락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회' 외에, '달그락 청소년 대표자회의'가 구성된다. 이 대표자 회의는 연초 개최되는 전체 모임에서 참가 청소년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 대표자 회의에서 사업 진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해 실제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한다. 즉, 참여의 과정이나 방식이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거나 구성원이 바뀐다고 해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실제로 청소년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개발된 지역사회 참여 모형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주요 시사점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제시한 사례 분석의 주요 내용과 그로부터 도출된 모형 설계 및 정책적 시사점이 <표 IV-15>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IV-1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요소	사례 분석 주요 내용	모형 설계 및 정책적 시사점
① 청소년시설 중심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작된 변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스스로 문제 탐색 및 해결책 모색 - 자발적으로 4명 이상으로 모둠을 구성해, 문제해결 단계를 따라 지역사회 참여 활동 전개 • 사전교육으로 워크숍의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설계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모형 설계 원칙 도출 • 개인이 아닌 모둠 단위 참여 모형 도출 •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형 운영 방법으로 제안
프로그램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된 변화」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모형 개발
②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참여기구 활동,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도입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스스로 새로운 청소년 참여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규 설립 기구의 구성 원리, 의사결정의 구조를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의 기본 방향으로 청소년 주도성 도출 • 모형의 구성 요소로 자치에 기반 한 의사결정구조 포함

요소	사례 분석 주요 내용	모형 설계 및 정책적 시사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를 통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청소년 정당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로 청소년 자치 의사결정 구조 도출
연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정부 및 주민참여제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집행력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인 마을정부 개념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 모형 설계의 기본 방향으로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단체와의 유기적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단체 「꿈지락네트워크」가 사업 진행을 맡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언 관련, 청소년참여-청년참여 간 순환적 구조 조성을 위한 청년활동가 양성 관련 내용 반영
프로그램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역인 동작구, 관악구, 광진구로의 모형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모형 설계
③ 핀란드 청소년 사회참여 시스템 「루띠(Ruuti)」		
참가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싱키에 거주하는 청소년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 패러다임이 제한적 소수 참여에서 일반적 다수 참여로 변모해야 함을 제시 • 접근가능성, 개방성이 큰 모형 제시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싱키시 당국이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에 의해 제안된 정책 대안 및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고 방안 도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집단과 활동 집단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의 구성요소로서 자치조직을 반영하고, 핵심 집단에 해당하는 '대표자회의'의 구성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구성요소를 통해 루띠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띠박람회, 정책세미나 '빠따아미티', 루띠 학회의 날, 루띠넷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박람회와 정책세미나, 루띠넷을 모형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정책제언에도 관련 내용 반영
④ 교과 내용에 반영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 사례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정규 수업시간을 통해 참여활동이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참여 활동을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은 다르지만, 각 학교급별 수준에 맞게 변형된 문제해결 방식의 단계를 따라 참여수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의 구성 원리로,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참여 모형 도출
⑤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수업모형 「Project Citizen」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도록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모형 운영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도출 • 개방성이 큰 모형 설계의 원칙 도출

요소	사례 분석 주요 내용	모형 설계 및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발달수준과 참여의 단계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프로그램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적용이 가능한 모형 도출 • 모형 작동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기반 참여 모형의 구성단계로, ‘공유하기’ 단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므로,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이 작동하기 위한 정책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제공 관련 내용을 포함함.
⑥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몽실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만들어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개발의 원칙으로,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 도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길잡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 환경 구축을 위한 제언으로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제공 방안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제안한 내용이 실제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몽실학교 정책마켓”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의 구성요소 및 정책방안으로 청소년참여박람회 제안
⑦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플랫폼,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사업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자치 기구를 통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을 도출하고, 모형의 구성요소로 청소년 자치 의사결정 구조를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전개되는 데는 기성세대의 자발적 지원조직이 든든한 바탕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의 구성요소로 성인 지원조직을 반영함.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 포럼을 통한 정책대안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의 구성요소로, 청소년 참여 포럼의 성격을 지닌 ‘청소년참여세미나’를 제안함. • 정책제언 관련하여, 대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청소년참여세미나 도입·운영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주도로 전국 유일 청소년 자치권 확대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언과 관련하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사항으로 타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제안함.

요소	사례 분석 주요 내용	모형 설계 및 정책적 시사점
⑧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유스벤처(Youth Venture)」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개발의 주요 원칙으로 ‘청소년 주도성’ 및 ‘프로젝트 기반 참여’를 도출하고 모형에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체계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단체 등의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지원 - 교사 대상 연수와 워크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언으로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지원 방안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도출한 대안이 실제 현실에 적용 되도록 기금 모금 등 적극적인 조치가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의 구성요소로 ‘실천하기’ 단계를 포함하고, 제안된 대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모형에 포함함.

제 V 장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탐색을 위한 심층 분석
5. 요약 및 시사점

제 V 장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지금까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현장 실무자(교사, 청소년지도사, 민간단체 담당자 등)이다. 조사 대상을 지역사회 참여 활동 유경험자로 한정하는 이유는 적합성 높은 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참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로부터 운영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설문의 구성 및 문항 개발

(1) 설문 개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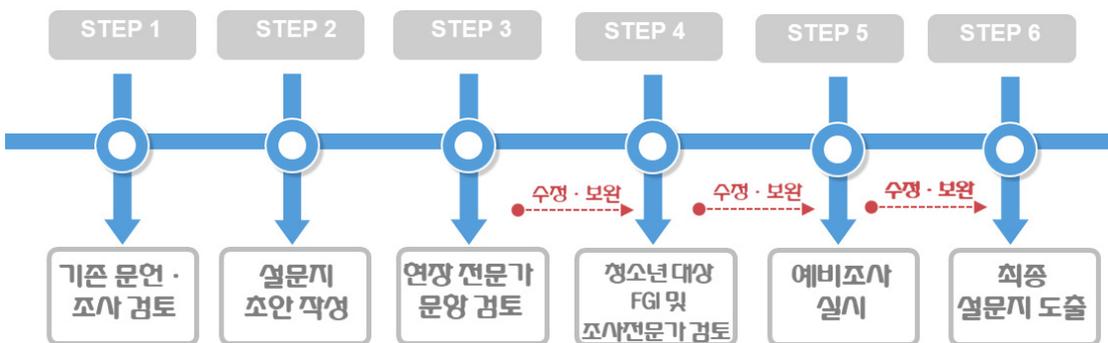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실태 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먼저, 청소년참여, 청소년활동, 지역사회 참여, 주민 참여, 사회 참여를 비롯해 마을만들기, 학생자치활동 등에 관한 보고서와 논문 등 문헌자료를 포함하여 내용관련성이 있는 여타 통계조사의 조사표를 광범하게 검토하였다.

기존 문헌 및 조사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인 청소년과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검토를 거쳤다. 현장 실무자 검토는 학교,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청소년시설, 민간단체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 초안에 포함된 문항 및 선택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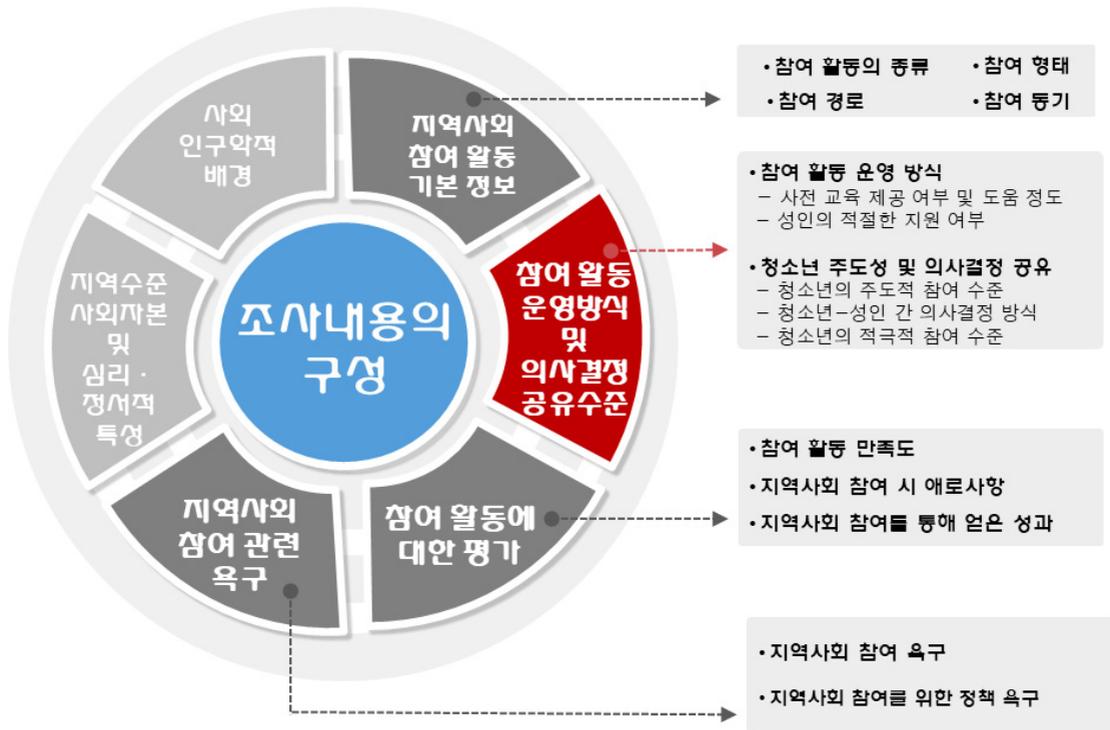
또한 응답의 난이도와 설문지 구성이 주요 조사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적절한지 확인하고 각 문항별 선택지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초안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여기까지 수정·보완을 거친 설문지 초안 내용에 대해 조사 분야 전문가가 영역별 문항 배치 및 질문의 분량, 문항 길이 등을 검토했다. 현장 전문가 및 조사분야 전문가, 그리고 청소년 대상 FGI 실시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수정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다소 어렵게 느낀 일부 문항 및 표현, 어휘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조사표가 확정되었다. [그림 V-1]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개발 절차가 정리되어 있다.



【그림 V-1】 설문 개발 절차

(2)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개발

기존 문헌과 조사표를 검토하여 도출된 설문지는 [그림 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 주요 조사 내용은 <표 V-1>에 제시되었다. 설문지는 청소년용을 기준으로 삼았고, 청소년용 조사 문항 가운데 전문가에게도 교차 확인이 필요한 문항을 선별하여 전문가용으로 문구와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경험이 전문가에게 미친 영향 등 일부 문항의 경우에는 청소년용과 별개로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V-2】 설문지 초안의 내용 구성(청소년용 기준)

표 V-1 설문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조사 영역	조사 항목
■ 청소년용	
경험했던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활동의 종류(생애 경험 및 현재 참여 프로그램) • 참여 활동의 운영 형태 • 지역사회 참여 경로 • 지역사회 참여 동기
참여 활동의 운영 방식 및 의사결정 공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 적극성 수준 • 사전 교육 제공 여부 및 사전 교육의 도움 정도 •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수준 • 성인의 적절한 지원 여부 • 의사결정 방식 및 의사결정의 공유 여부 • (의사결정이 공유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참여 활동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 • 지역사회 참여 시 애로사항 •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얻은 성과/효과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지역사회 참여 관련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의사 • (지속적인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욕구
지역수준 사회자본 및 심리·정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애착 • 공동체 의식(시민성) • 자아존중감 및 자율성
사회 인구학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및 연령 • 재학 정보(재학 여부, 학교급, 학년 및 학업 성적)
■ 현장전문가용	
운영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했던 참여활동의 종류
참여활동 운영 환경 및 의사결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여부 및 도움 정도 • 참가자에 대한 보상 및 피드백 제공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 실무자의 역량 강화 지원 • 참여 활동이 이루어진 시설·공간 등 환경의 적절성 • 참여 활동에 소요된 일정, 시간, 예산의 적절성 • 청소년의 주도성 및 의사결정의 공유
참여활동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애착 증진 효과 • 청소년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 •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도 • 청소년 진로탐색에 대한 기여도 • 청소년의 사회성/자존감 향상 효과 • 지역사회 참여 활동 운영 시 느낀 애로사항(개선점)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건

○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기본 정보

응답자들이 경험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동시에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종류와 운영 형태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청소년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경로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해 알게 되었으며,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운영 방식 및 의사결정 공유 수준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사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성희·허보나(2016)의 연구를 반영하여 사전 교육 여부 및 그 효과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고, 운영하는 도중에 청소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성인의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참여 활동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또 의사결정이 공유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주도성과 의사결정의 공유 실태를 파악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두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의사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공유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공유 수준에 관한 문항은 청소년용과 실무자용 조사표에 표현을 달리하여 각각 포함되었다.

○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참여 활동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찾았다면 추후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참여 경험에 대한 만족도, 참여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참여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한편, 현장전문가용 조사표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 참여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실무자 입장에서 체감한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도 추가하였다.

○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수요

지역사회 참여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지표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참여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항도 추가하였다. 또한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실무자 대상 조사표에서도 표현을 달리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정책 지원 방안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 지역수준 사회자본 및 심리·정서적 특성

지역사회 참여 경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지역사회 애착, 자존감, 도전의식 등 효과성 측정의 지표로 활용 가능한 요인들을 조사 내용에 포함하였다. 지역사회 애착은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지역수준 사회자본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자존감 및 도전의식 역시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데 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사회인구학적 배경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영역에서는 통계분석 및 응답자의 기본 특성 파악을 위해, 성별, 연령과 학교에 다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 학년 및 학업성적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 조사에 사용한 문항의 개발 근거는 <표 V-2>와 같다.

표 V-2 설문 문항 개발의 근거

영역	문항	개발 근거
■ 청소년용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기본 정보	문1.~문1-1. 경험했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종류	•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2.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형태	• 최창욱 외(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문항 사용
	문3.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참여 경로	• 윤민중·정은진·정건희(2016).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항을 참조하되, 문항 성격에 맞게 선택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
	문4.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 윤민중·정은진·정건희(2016).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에 사용된 선택지와 백병부 외(2016).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선택지를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한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

영역	문항	개발 근거
프로그램 운영 방식 및 의사결정 공유 수준	문5.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수준	• 최창욱·전명기(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문항을 사용하되,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
	문6.~문6-1. 사전 교육 여부 및 도움 정도	• 연구진이 개발
	문7.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방식(청소년 주도성, 기획 단계에서 청소년 참여 여부, 담당자의 지원 수준 등)	• 문7-1, 문7-4, 문7-6, 문7-7은 백병부 외(2016),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문7-2, 문7-3, 문7-5는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8.~문8-1. 의사결정의 공유 여부 및 공유되지 못하는 이유	• 연구진이 자체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문9.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최창욱 외(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문10. 프로그램 참여 시 애로 사항	• 문10-1, 문10-2는 백병부 외(2016),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문항을 참고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문10-3, 문10-4, 문10-5, 문10-6, 문10-7, 문10-8, 문10-9는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11.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은 성과	• 문11-1, 문11-7, 문11-8, 문11-9는 백병부 외(2016),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문항을 참고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문11-2, 문11-3, 문11-4, 문11-5, 문11-6은 김현철 외(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문항을 참고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지역사회 참여 관련 욕구	문12.~문12-1. 향후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의향 및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13.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욕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2016),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항을 참조하되, 선택지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지역수준 사회자본 및 심리·정서적 특성	문14. 지역사회 애착	• 문14-1, 문14-2, 문14-4, 문14-5, 문14-6은 최창욱 외(2016), 「2016년 동작성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참여활성화 정책연구」 문항 사용 • 문14-3은 백병부 외(2016),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문항 사용

영역	문항	개발 근거
	문15. 시민성(공동체 의식)	• 백병부 외(2016).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공헌의식 문항 척도를 사용함
	문16. 자아존중감 및 도전의식	• 백병부 외(2016).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및 도전의식 문항 척도를 사용함

■ 현장 전문가(교사, 청소년지도자,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자 등)용

프로그램 기본 정보	문1.~문1-1. 운영했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종류	• 연구진이 자체 개발
프로그램 운영 환경 및 의사결정 방식	문2. 프로그램 운영 환경	• 문2-1, 문2-2, 문2-3, 문2-4, 문2-5, 문2-6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 • 문2-7, 문2-8, 문2-9는 최창욱 외(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문항을 참고하되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문3. 의사결정 방식	• 연구진이 자체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문4.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친 효과	• 문4-1은 최창욱 외(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 문4-2는 백병부 외(2016).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 문4-3, 문4-4, 문4-7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 • 문4-5, 문4-6은 김현철 외(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문5. 프로그램이 전문가에게 미친 효과	• 연구진이 자체 개발
	문6.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 사항	• 연구진이 자체 개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문7.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	• 윤민중·정은진·정건희(2016).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문항을 참조하되 선택지 표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일부 선택지는 연구진이 추가 개발
	문8.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및 지원 방안 (개방형 질문)	• 연구진이 자체 개발

3) 표본의 구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되는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다. 여기에서는 연령을 일차적인 표본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 초·중·고등학교 재학 연령에 해당하는 만 19세 미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24세를 포괄하지만, 법률상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만 19세 미만과 성인은 사회참여의 양상, 실제 보장되는 권리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전달 체계에서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실제적 고려를 바탕으로 연령을 제한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닌, 만 19세 미만 중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의 모집단 규모를 특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또한 현장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에 의한 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이 아닌 비확률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으로 유의할당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

표본할당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종류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류는 전문가 면담과 자문을 거쳐, 전달체계와 운영 주체를 고려하여 ①청소년시설 중심 활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②학교 중심 활동(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참여, 학교-지역사회 연계 마을만들기 사업 등), ③기타 지역사회시설 및 민간단체 중심 활동(지역사회 내 시설 및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구분했다. 한편, 현장 실무자에 대한 조사는 청소년조사가 이루어지는 해당 기관(청소년시설, 학교, 민간조직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그림 V-3] 참조).



【그림 V-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할당 틀

상술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 880명, 전문가 128명 등 총 1,008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V-3>과 같다.

표 V-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청소년 응답자]			
전 체		880	100.0
성별	남성	366	41.6
	여성	513	58.3
활동 기관	청소년시설 중심 활동	615	69.9
	학교 중심 활동	145	16.5
	기타 지역사회시설/민간단체 중심 활동	120	13.6
지역	서울	257	29.2
	경기	329	37.4
	광역시	92	10.5
	기타 시·도	202	23.0
[현장 전문가 응답자]			
전 체		128	100.0
활동 기관	청소년시설 중심 활동	62	48.8
	학교 중심 활동	22	17.3
	기타 지역사회시설/민간단체 중심 활동	43	33.9
지역	서울	26	20.3
	경기	47	36.7
	광역시	19	14.8
	기타 시·도	36	28.1

4) 분석 결과의 구성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경험 및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결과는 [그림 V-4]와 같은 흐름에 따라 제시되었다. 먼저, 청소년 대상 기본실태조사에서는 개괄적인 수준에서 ①응답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참여한 활동의 종류, 참여 동기, 참여 경로 등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②사전교육 제공 여부 및 도움 정도, 의사결정 방식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운영 방식을 파악한다. 그리고 ③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애로사항을 점검한 후, ④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검토하고, ⑤향후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⑥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현장 전문가 대상 기본실태조사도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①그간 운영해 본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종류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②사전교육과 기타 제반 여건,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그 동안 운영했던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운영 방식을 점검한 후, ③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④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기본실태조사 외에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OLS 회귀분석과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청소년 대상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모형 개발과 정책 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흐름을 따라 제시된 분석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V-4] 실태조사 결과 분석의 구성과 흐름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지역사회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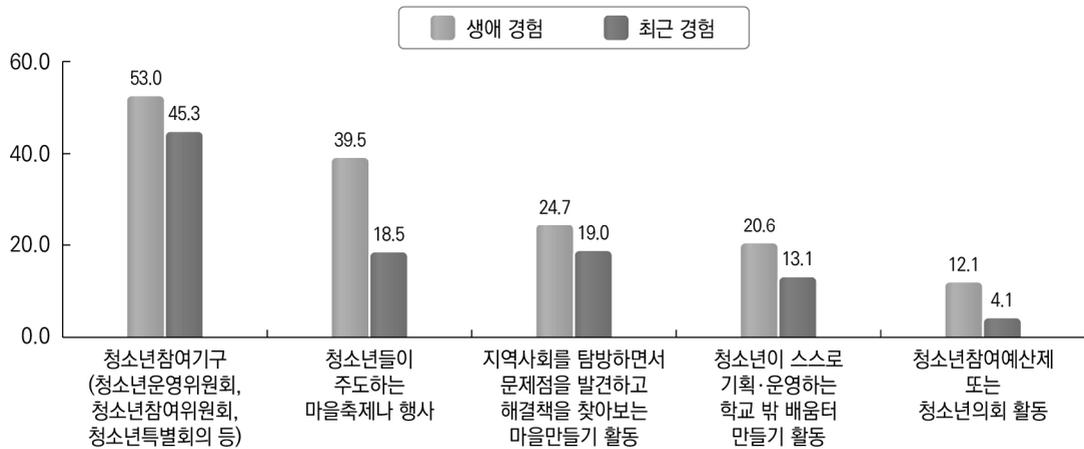
(1) 경험했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운영 기제나 방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동안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 여기에서는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유형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활동과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V-5]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종류의 경우,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활동'이 53.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들이 마을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보는 활동'이 39.5%, '지역사회를 탐방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마을만들기 활동' 24.7%,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배움터 만들기 활동' 20.6%, '청소년참여예산제 또는 청소년의회 활동' 12.1% 순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현재 하고 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이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마을만들기 활동'이 19.0%로 2위를 차지했고,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마을축제나 행사가 18.5%로 3위,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배움터 만들기 활동'이 13.1%로 4위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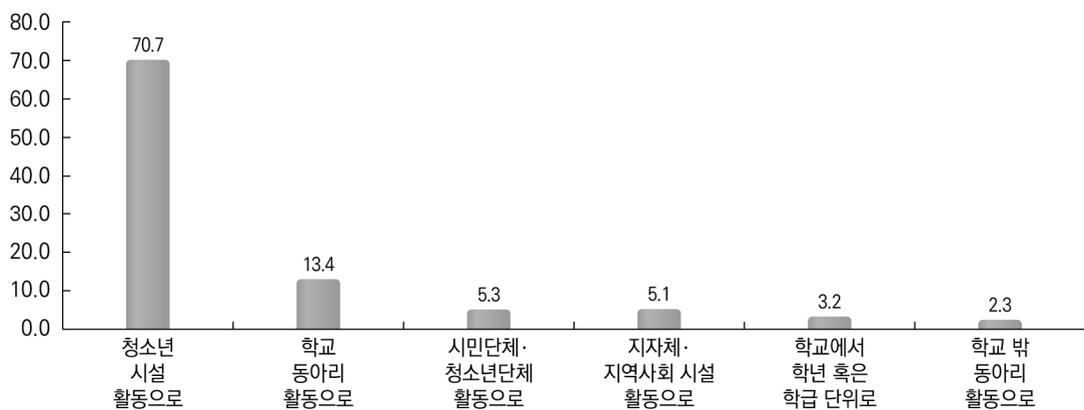
생애 경험에 비해 최근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과 관련하여, 이 같은 마을만들기 종류의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가장 주요한 결과는 여전히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가 참여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참여기구 외에 다양한 참여활동의 통로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5】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생애경험 및 최근 경험)(단위: %)

(2)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형태

다음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70.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교 동아리 활동 13.4%, 시민단체·청소년단체 활동 5.3%, 지자체·지역사회 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활동 5.1%로 파악되었다(【그림 V-6】 참조).



【그림 V-6】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형태(단위: %)

지역사회 참여 활동 형태를 성별 및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남자 17.3%, 여자 10.6%), 반대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 시설 활동으로 참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남자 63.8%, 여자 75.7%). 또한 학교급별로는 초·중학교 등 연령이 낮은 청소년은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초·중학교 17.0%, 고등학교 11.2%), 고등학생은 청소년시설 활동으로 참여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파악되었다(초·중학생 63.9%, 고등학생 74.8%).

표 V-4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형태

(단위: 명(%))

내용/구분		학교에서 학년 혹은 학급단위로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청소년 시설 활동으로	지자체· 지역사회 시설 활동으로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학교 밖 동아리 활동으로	χ^2
전체		28(3.2)	117(13.4)	615(70.7)	44(5.1)	46(5.3)	20(2.3)	-
성별	남자	13(3.6)	62(17.3)	229(63.8)	21(5.8)	20(5.6)	14(3.9)	19.189** (d.f.=5)
	여자	15(2.9)	54(10.6)	386(75.7)	23(4.5)	26(5.1)	6(1.2)	
학교급	초·중학교	17(4.8)	60(17.0)	225(63.9)	24(6.8)	16(4.5)	10(2.8)	17.865** (d.f.=5)
	고등학교	11(2.2)	57(11.2)	379(74.8)	20(3.9)	30(5.9)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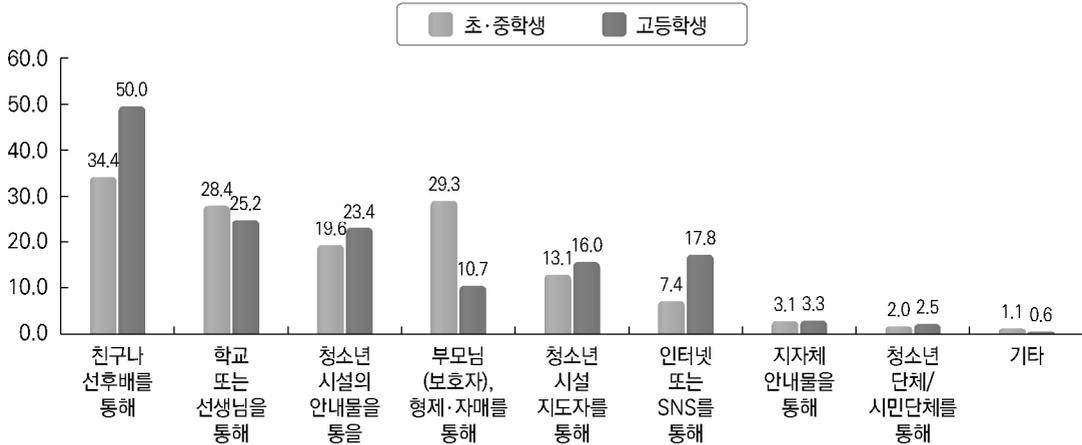
* α .05, ** α .01, *** α .001

(3)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된 경로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참가자들이 주로 유입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된 경로를 조사해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학교 또는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6.4%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안내물을 통해' 21.9%,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를 통해' 18.5%, '청소년시설 지도자를 통해' 15.3%,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13.7% 등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알게 된 경로는 학교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초·중학생 등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은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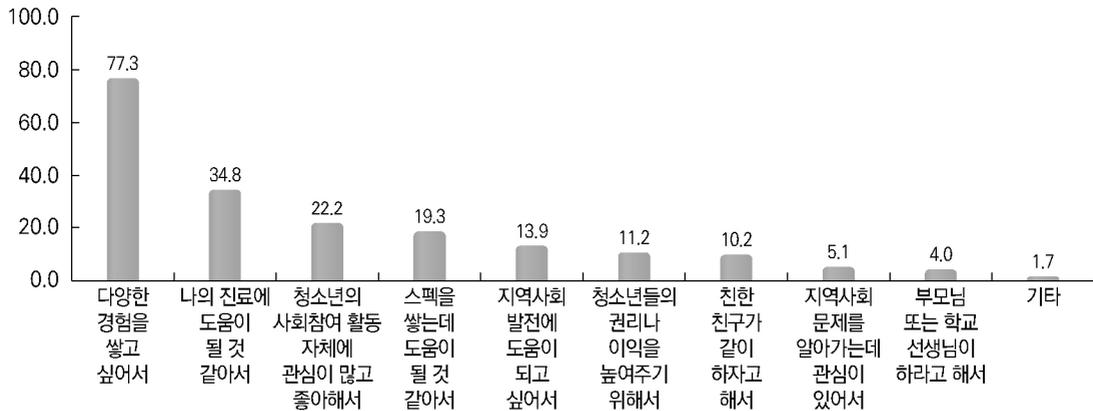
응답 비율이 고등학생에 비해 더 높았고(초·중학생 29.3%, 고등학생 10.7%), 반면 고등학생들은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초·중학생 34.4%, 고등학생 50.0%). 특히 고등학생은 절반이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해, 주변의 유경험자를 통한 유입이 주요한 확산 경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V-7】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된 경로(중복응답)(단위: %)

(4)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된 이유

청소년들이 어떤 이유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참여 동기를 조사해보았다.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7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4.8%,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22.2%,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9.3% 등이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13.9%, '청소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11.2%, '친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10.2%, '지역사회 문제를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서' 5.1%,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지역사회 문제나 참여 활동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진로나 스펙 쌓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



【그림 V-8】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된 이유(중복응답)(단위: %)

2)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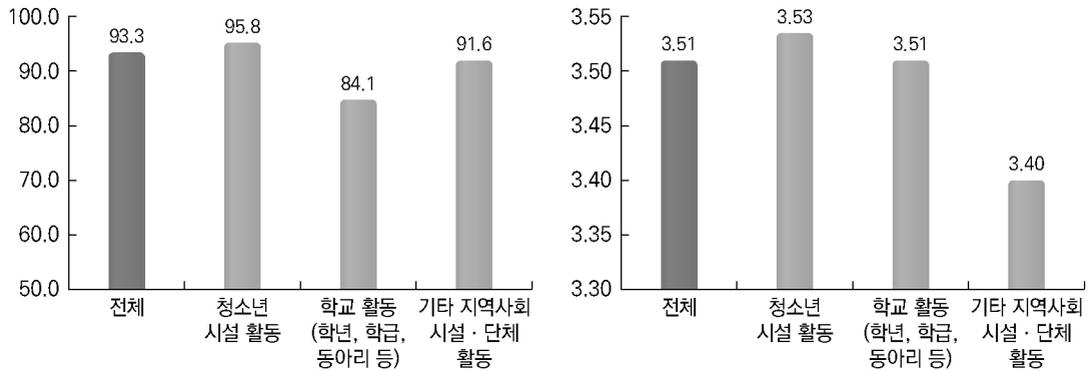
(1)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전교육 실시 여부와 그 효과, 의사결정의 공유, 의사결정 방식에 관해 조사해보았다. 먼저, 사전교육 실시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가 [그림 V-9]와 [그림 V-10]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활동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진행 절차나 방법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사전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93.3%가 사전 교육이 있었다고 답했고, 사전교육이 없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 사전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활동이나 지자체·청소년단체·시민단체·기타 지역사회 시설을 통한 활동의 경우 사전 교육 실시율이 90%를 초과하는 반면, 학교 활동으로 참여했다고 답한 경우에는 사전 교육 실시율이 84.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전 교육이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도움 정도를 묻는 4개 문항⁴²⁾에 대한 응답치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4점 만점에

3.51점을 나타내 대부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활동기관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청소년시설이나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사회 시설이나 단체, 지자체 활동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주: 활동기관별 차이 검증 결과 $\chi^2=25.852(\alpha.001, df=2)$ 주: 1) 활동기관별 평균 비교 결과 $F=3.368(\alpha.05)$
 2) 집단 간 차이는 청소년시설 vs. 기타 시설($\alpha.05$)

【그림 V-9】 사전교육 경험률(단위: %)

【그림 V-10】 사전교육 도움 정도 평균 비교

(2) 의사결정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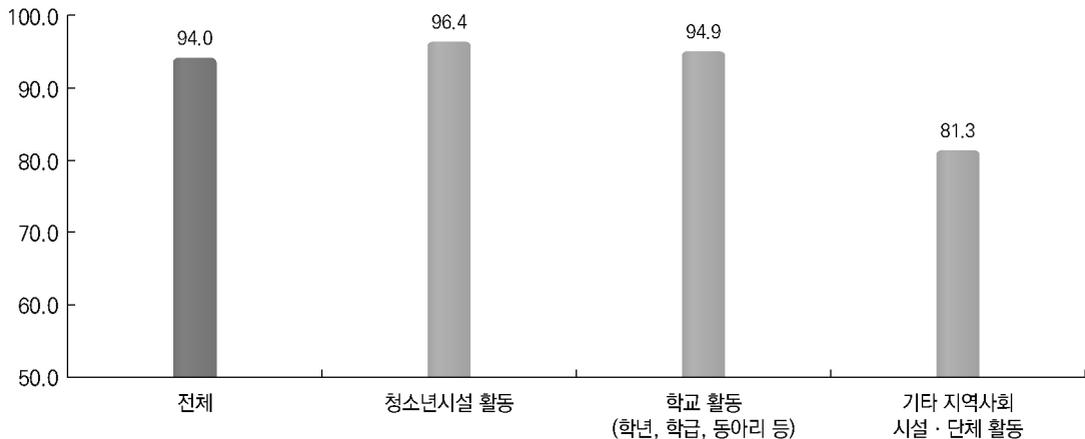
청소년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진정한 의미의 청소년참여는 의사결정에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때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e.g. 정건희, 2013). 이처럼 의사결정의 공유와 영향력의 행사는 청소년참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지,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① 청소년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주도하려면 활동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요구될 때, 청소년들이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권한이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지역사

42) 사전 교육의 도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사전 교육은 참여 활동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전 교육은 참여활동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나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전 교육은 참여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게 했다. 사전 교육은 참여 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했다.

회 참여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청소년 중심의 조직이나 기구가 존재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주: 활동기반별 차이 검증 결과 $\chi^2=38.466(p<.001, df=2)$

【그림 V-11】 청소년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조직이나 기구 존재 유무(단위: %)

그 결과, 이 같은 조직이나 기구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4.0%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이를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청소년시설이나 학교 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94~96%가 이러한 조직이나 기구가 있다고 답한 반면, 기타 지역사회 시설·단체 활동(지자체,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시설 등)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청소년 중심의 의사결정 조직이나 기구가 있었다는 응답이 81.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술한 결과는 청소년 참여 활동 운영 경험이 많은 청소년시설에 비해 기타 지역사회 시설·단체 활동에서는 청소년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미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②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 반영 가능성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지적 가운데, 참여 활동은 그 특성 상 청소년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 활동도 여타 청소년 활동처럼 '프로그램화(programmed)'되어 활동의 내용이 '참여'의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청소년들은 어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단지 참가자로 참가하는 데 그치고, 청소년의 의견이나 주장이

반영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이 같은 일각의 비판을 확인해보기 위해, 최근에 경험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과정에서 ‘어른들이 정해놓은 대로 참여 활동을 진행해야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25.7%가 ‘어려웠다(매우 그렇다 10.2%+그렇다 15.5%)’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에 응한 청소년 4명 중 1명은 참여 활동 과정에서 어른들이 정해놓은 대로 해야 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학교급이나 참여활동 기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참여활동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어른들이 정해놓은 대로 해야 해서 청소년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참여기구(예산제·의회 포함) 활동에서는 20.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학교 밖 배움터 활동은 27.3%, 마을만들기·축제 활동은 32.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참여 활동의 경우에는 청소년 참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운영 절차나 방식은 참여의 본질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실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표 V-5 어른들이 정해 놓은 대로 해야 해서 청소년 의견반영이 어렵다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66(33.9)	317(40.4)	122(15.5)	80(10.2)	-
학교급	초·중학교	101(30.8)	127(38.7)	60(18.3)	40(12.2)	6.484 (d.f.=3)
	고등학교	162(36.2)	184(41.2)	61(13.6)	40(8.9)	
참여 활동 유형 ⁴³⁾	참여기구 활동	141(37.7)	158(42.2)	44(11.8)	31(8.3)	13.761* (d.f.=6)
	학교 밖 배움터 활동	33(30.0)	47(42.7)	19(17.3)	11(10.0)	
	마을만들기/축제 활동	92(30.7)	112(37.3)	58(19.3)	38(12.7)	
참여 활동 기관 ⁴⁴⁾	청소년시설	194(34.8)	231(41.5)	82(14.7)	50(9.0)	8.266 (d.f.=6)
	학교(학급·동아리 등)	32(27.4)	44(37.6)	25(21.4)	16(13.7)	
	기타 시설·단체	40(36.0)	42(37.8)	15(13.5)	14(12.6)	

* α .05, ** α .01, *** α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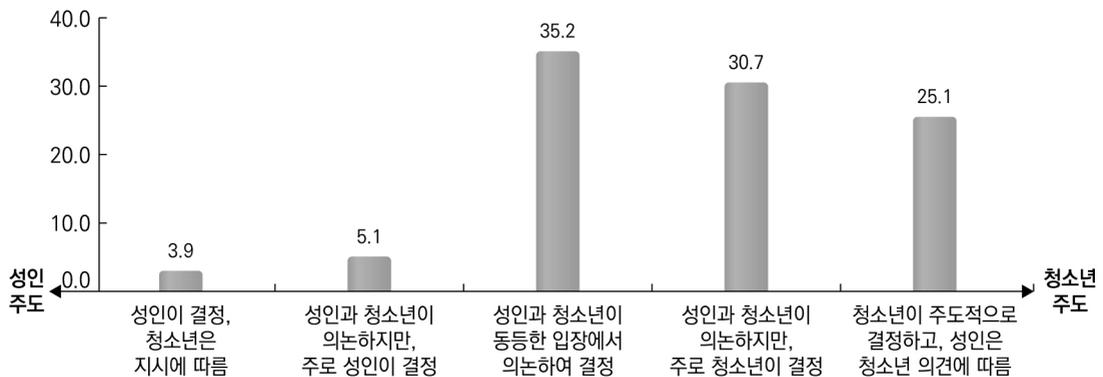
43) 여기에서 참여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①참여기구 활동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의회 활동이 포함된다. ②학교 밖 배움터 활동에는 학교 밖에서 학생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배움터 만들기 활동을 의미한다. ③마을만들기/축제 활동에는 지역사회를 탐방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마을만들기 활동과, 청소년들이 마을축제나 행사를 기획하

(3) 의사결정 방식

① 의사결정 방식

청소년이 참여 활동을 주도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에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의사결정 방식과 구조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활동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55.8%, '성인과 청소년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응답이 35.2%, 그리고 '성인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9.0%로 파악되었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의 경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은 우리들의 의견에 따른다'는 응답이 25.1%,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지만, 주로 청소년의 의견대로 결정된다'는 응답이 30.7%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 주도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이 결정해서 지시하고, 청소년들은 그 의견에 따른다'는 응답이 3.9%,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지만, 주로 어른들의 의견대로 결정된다'는 응답이 5.1%로 파악되었다.



【그림 V-12】 의사결정 방식(단위: %)

고 직접 진행해보는 활동이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은 이 장(章)의 여타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44) 여기에서 참여활동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①청소년 시설에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이 해당되며, ②학교(학급, 동아리 등) 범주에는 학교에서 학년 혹은 학급 단위로 참여한 활동, 그리고 학교 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한 활동이 포함되었다. ③기타 시설·단체 범주에는 지역사회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시민단체, 온라인 동아리활동, 종교단체 활동, 그 밖에 기타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이 장(章)의 여타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배경변인별로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참여활동 유형과 참여활동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청소년이 주도한다는 응답 비율이 참여기구 활동(예산제·의회 포함)은 65.6%인데 비해, 학교 밖 배움터 활동은 51.3%, 마을만들기·축제 활동은 44.5%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활동 기관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청소년시설에서 하는 활동은 청소년이 주도한다는 응답이 60.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36.2%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는 '성인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응답 비율이 17.0%로 전체 평균 보다 약 2배 가량 더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는 청소년시설에 비해 청소년 중심의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방증한다.

표 V-6 의사결정 방식

(단위: 명(%))

내용/구분		성인이 결정하고, 청소년은 지시에 따름	성인과 청소년이 의논하지만, 주로 성인이 결정	성인과 청소년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논하여 결정	성인과 청소년이 의논하지만, 주로 청소년이 결정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성인은 청소년 의견에 따름	χ^2
전체		34(3.9)	44(5.1)	305(35.2)	266(30.7)	217(25.1)	-
학교급	초·중학교	18(5.2)	19(5.5)	121(35.1)	93(27.0)	94(27.2)	7.115 (d.f.=4)
	고등학교	15(2.9)	22(4.3)	181(35.6)	170(33.4)	121(23.8)	
참여 활동 유형	참여기구 활동	5(1.2)	15(3.5)	127(29.7)	141(32.9)	140(32.7)	62.755*** (d.f.=8)
	학교 밖 배움터 활동	4(3.6)	11(9.9)	39(35.1)	27(24.3)	30(27.0)	
	마을만들기/축제 활동	25(7.7)	18(5.5)	138(42.3)	98(30.1)	47(14.4)	
참여 활동 기관	청소년시설	15(2.5)	29(4.8)	195(32.0)	205(33.6)	166(27.2)	37.903*** (d.f.=8)
	학교(학급·동아리 등)	14(9.9)	10(7.1)	66(46.8)	28(19.9)	23(16.3)	
	기타 시설·단체	5(4.3)	5(4.3)	44(38.3)	33(28.7)	28(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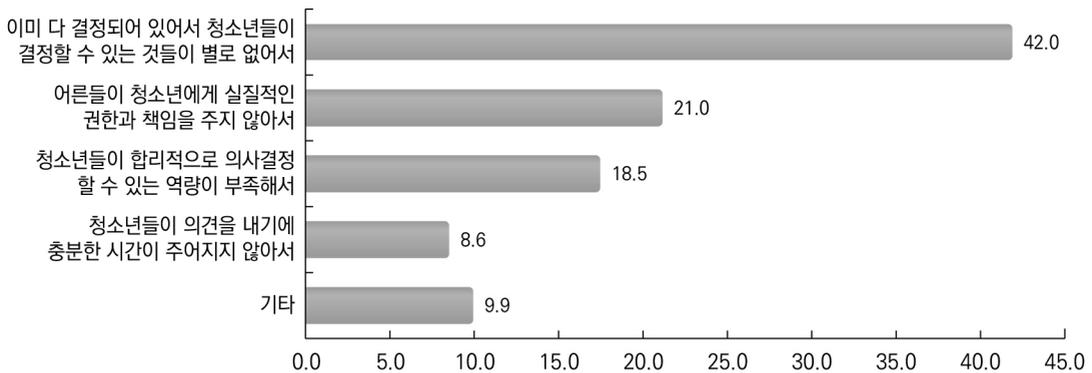
* α .05, ** α .01, *** α .001

② 청소년들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

앞서 살펴본 문항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주로 성인들에게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지 않아서' 21.0%,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18.5%, '청소년들이 의견을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8.6%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의 상당수가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 주도성이 담보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미 틀이 짜여진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객체로 참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림 V-13] 청소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단위: %)

3)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애로사항

여기에서는 참여 활동에서 경험한 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 측면, 참가자 및 운영진과의 의견 조율 측면, 그리고 참여 여건 및 인프라 관련 측면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1) 활동 내용 관련 애로사항

① 참여 활동의 내용이나 수행 과제의 난이도

<표 V-7>에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난이도가 어려웠는지에 관한 응답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 '어렵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9.5%로 소수에 그쳤고,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90.4%(전혀 그렇지 않다 28.3%+그렇지 않다 62.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현장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은 대체로 청소년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학교급의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초·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내용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조금 더 높게 파악되었다(초·중학생 11.9%, 고등학생 8.0%). 한편, 참여 활동 운영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배경변수로 투입해서 비교해 본 결과,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다고 답한 경우에는 활동 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72%에 그친 반면,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는 활동 내용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16.9%로 2배 이상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운영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활동 내용이 부담이 되거나 어렵더라도 이러한 불만이나 개선 요구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하거나 이를 토대로 조정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이나 난이도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7 참여 활동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어려움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49(28.3)	546(62.1)	76(8.6)	8(0.9)	-
학교급	초·중학교	112(31.6)	200(56.5)	36(10.2)	6(1.7)	10.404* (d.f.=3)
	고등학교	135(26.3)	337(65.7)	39(7.6)	2(0.4)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	반영 된다	168(28.8)	373(64.0)	40(6.9)	2(0.3)	19.320*** (d.f.=3)
	반영되기 어렵다	47(23.3)	121(59.9)	29(14.4)	5(2.5)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18(23.1)	46(59.0)	13(16.7)	1(1.3)	10.906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88(28.9)	186(61.0)	30(9.8)	1(0.3)	
	청소년 주도	138(28.6)	309(64.0)	32(6.6)	4(0.8)	

* $p < .05$, ** $p < .01$, *** $p < .001$

② 활동 내용의 비체계성

활동 내용에 관한 애로사항으로, 활동 내용이 엉성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어려움이 있었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1.5%, '어려움이 없었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8.5%로 부정 의견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비교에서는 학교급,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 의사결정 방식별로

유의한 차이가 감지되었다. 학교급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고등학생보다 초·중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초·중학생 13.8%, 고등학생 9.9%). 또한 활동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다고 답한 경우에는 활동 내용으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8.4%에 그친 반면,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21.8%로 약 3배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의사결정 방식의 경우, 청소년이 주도하거나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활동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9~10% 수준에 그친 반면, 성인이 주도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23.1%로 약 2배 더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성인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활동 내용이 청소년의 눈높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V-8 활동 내용이 영성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음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49(39.7)	429(48.8)	95(10.8)	6(0.7)	-
학교급	초·중학교	150(42.4)	155(43.8)	44(12.4)	5(1.4)	9.382* (d.f=3)
	고등학교	197(38.4)	265(51.7)	50(9.7)	1(0.2)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	반영 된다	247(42.4)	287(49.2)	48(8.2)	1(0.2)	30.512*** (d.f=3)
	반영되기 어렵다	63(31.2)	95(47.0)	40(19.8)	4(2.0)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13(16.7)	47(60.3)	17(21.8)	1(1.3)	27.164***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129(42.3)	143(46.9)	33(10.8)	0(0.0)	
	청소년 주도	202(41.8)	234(48.4)	43(8.9)	4(0.8)	

* $p < .05$, ** $p < .01$, *** $p < .001$

(2) 구성원 간 의견조정 의 애로사항

① 참여 청소년 사이의 의견 조율 문제

여기에서는 구성원 간 의견조율의 애로사항을 확인해보기 위해, 참여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 들끼리, 혹은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먼저, 청소년들끼리 의견을 조정하기가 어려웠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2.5%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87.5%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의견조정 어려움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활동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된다고 답한 경우에는 청소년들끼리 의견을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9.7%에 불과한 데 비해, 활동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 응답 비율이 21.3%로 약 2.2배 더 높게 파악되었다. 아울러,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성인·청소년이 동등하게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청소년이 주도하여 결정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청소년들끼리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응답이 9~10% 수준에 그친 반면, 성인들이 주도하여 결정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35.9%로 훨씬 더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경직된 운영 구조에서는 청소년 참가자들 간의 의견 조율도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표 V-9 참여 청소년 사이의 의견 조정의 어려움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10(35.3)	459(52.2)	104(11.8)	6(0.7)	-
학교급	초·중학교	133(37.6)	179(50.6)	39(11.0)	3(0.8)	1.283 (d.f=3)
	고등학교	176(34.3)	272(53.0)	62(12.1)	3(0.6)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	반영 된다	224(38.4)	302(51.8)	55(9.4)	2(0.3)	26.329*** (d.f=3)
	반영되기 어렵다	49(24.3)	110(54.5)	39(19.3)	4(2.0)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14(17.9)	36(46.2)	27(34.6)	1(1.3)	50.742***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100(32.8)	175(57.4)	28(9.2)	2(0.7)	
	청소년 주도	190(39.3)	244(50.5)	47(9.7)	2(0.4)	

* α .05, ** α .01, *** α .001

② 성인들과 청소년 사이의 의견 조율 문제

다음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여하는 성인들과 참가하는 청소년의 의견이 달라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4%, ‘어려움이 없었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2.6%로 나타나, 성인과 청소년들 간의 의견 조율로 인한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여기에서도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차이가 감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운영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인과 청소년 간 의견 조정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의사결정이 성인 주도로 이루어진다고 답한 경우에는 성인들과 청소년 사이에 의견 조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이 24.3%로 나타나, 청소년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답한 경우(4.9%)에 비해 약 5배 더 높게 파악되었다.

표 V-10 성인들과 청소년 간 의견 조정의 어려움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86(43.9)	428(48.7)	56(6.4)	9(1.0)	-
학교급	초·중학교	158(44.6)	166(46.9)	24(6.8)	6(1.7)	2.865 (d.f=3)
	고등학교	225(43.9)	253(49.3)	32(6.2)	3(0.6)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	반영 된다	282(48.4)	276(47.3)	25(4.3)	0(0.0)	46.563*** (d.f=3)
	반영되기 어렵다	61(30.2)	113(55.9)	19(9.4)	9(4.5)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16(20.5)	43(55.1)	15(19.2)	4(5.1)	56.274***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125(41.0)	160(52.5)	19(6.2)	1(0.3)	
	청소년 주도	239(49.5)	220(45.5)	21(4.3)	3(0.6)	

* α .05, ** α .01, *** α .001

(3) 지역사회 참여 인프라 및 여건의 애로사항

①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참여 시간 확보의 문제, 부모님 등

주변의 비우호적 태도 등 참여를 둘러싼 인프라와 주변 여건에서 비롯되는 애로사항을 조사해보았다. 먼저, <표 V-11>에는 참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참여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8.1%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2.0%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 비율은 참여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청소년시설 활동에서는 6.2%에 그친 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는 13.1%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 사례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공간의 제약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시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위한 공간이지만, 학교는 수업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수업 외 여타 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표 V-11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389(44.3)	419(47.7)	58(6.6)	13(1.5)	-
참여 활동 기관	청소년시설	289(47.0)	288(46.8)	30(4.9)	8(1.3)	14.741* (d.f=6)
	학교(학급·동아리 등)	53(36.6)	73(50.3)	17(11.7)	2(1.4)	
	기타 시설·단체	47(39.5)	58(48.7)	11(9.2)	3(2.5)	

* α .05, ** α .01, *** α .001

②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

다음으로, <표 V-12>는 학교 숙제나 학원 등 공부 때문에 참여 시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26.4%가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매우 그렇다 3.6%+그렇다 22.8%),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73.6%(전혀 그렇지 않다 30.9%+그렇지 않다 42.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더 우세하기는 하지만,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입시 위주 교육 풍토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에 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단히 강력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학교급과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학교급의 경우, 학업 때문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초·중학생은 22.3%인 데 비해 고등학생은 28.8%로 6.5%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고등학생들이 초·중학생에 비해 학업으로 인한 시간 할애의 부담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의사결정 방식의 경우, 활동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청소년이 주도해서 결정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참여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24~26% 수준에 머무른 반면, 성인이 주도하여 결정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34.6%로 더 높게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대상 심층면담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은 참여를 위한 모임 날짜나 시간을 청소년들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고, 그래서 참여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 데 비해, 이미 다 정해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모임이나 활동 날짜가 정해져서 공지되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어렵다(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참여 청소년 대상 면담내용, 2017.08.19). 이 같은 연유로 성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활동의 경우, 참여 시간 확보에 대해서도 더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V-12 공부 때문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72(30.9)	375(42.7)	200(22.8)	32(3.6)	-
학교급	초·중학교	126(35.6)	149(42.1)	64(18.1)	15(4.2)	11.016* (d.f=3)
	고등학교	140(27.3)	225(43.9)	132(25.7)	16(3.1)	
청소년 의견 반영 여부	반영 된다	177(30.4)	264(45.3)	128(22.0)	14(2.4)	7.002 (d.f=3)
	반영되기 어렵다	62(30.7)	80(39.6)	48(23.8)	12(5.9)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18(23.1)	33(42.3)	18(23.1)	9(11.5)	19.178**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97(31.8)	134(43.9)	64(21.0)	10(3.3)	
	청소년 주도	151(31.3)	205(42.4)	116(24.0)	11(2.3)	

* α .05, ** α .01, *** α .001

③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부모님의 비우호적 태도로 인한 어려움

<표 V-13>에는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눈치가 보인다’는 문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10.5%(매우 그렇다 1.7%+그렇다 8.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9.6%(전혀 그렇지 않다 59.2%+그렇지 않다 30.4%)로 나타나, 부모님의 비우호적 태도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본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이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 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한 경우에는 참여 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응답 비율은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초·중학생은 그 비율이 7.9%에 머무른 반면, 고등학생은 12.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무래도 고등학생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업 외에 참여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13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부모님의 비우호적 태도로 인한 어려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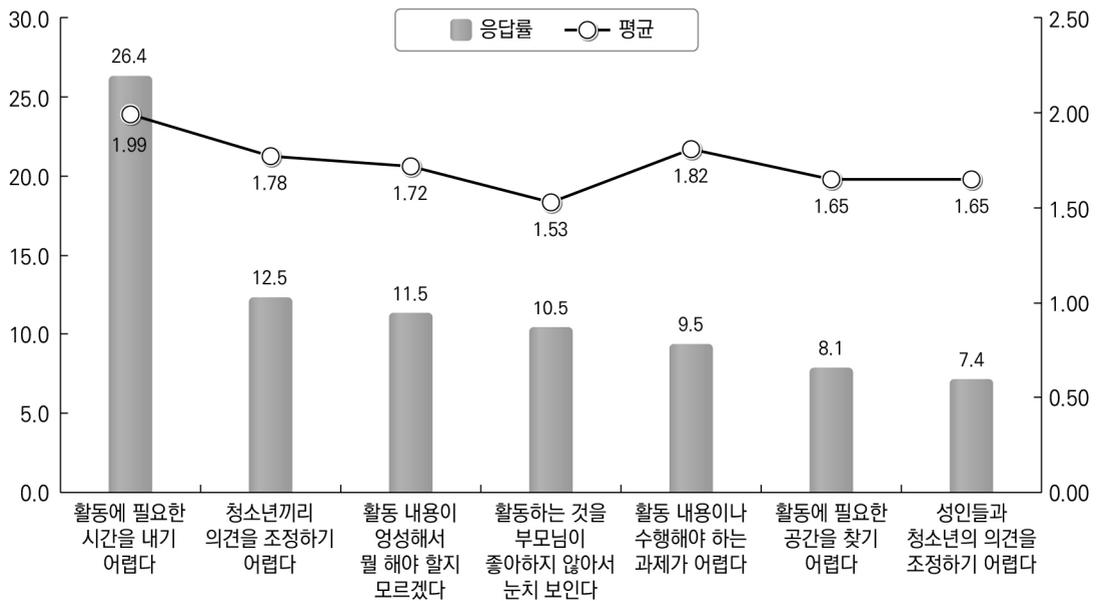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520(59.2)	267(30.4)	77(8.8)	15(1.7)	-
학교급	초·중학교	223(63.0)	103(29.1)	20(5.6)	8(2.3)	9.531* (d.f=3)
	고등학교	289(56.3)	161(31.4)	56(10.9)	7(1.4)	

* α .05, ** α .01, *** α .001

[그림 V-14]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문항별로 압축하여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학교 숙제나 학원 등 공부 때문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끼리 의견을 조정하기 어렵다’, ‘활동 내용이 영성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나, 1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에 필요한 시간 확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과 연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교육과정 개정 등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적용 가능한 제도의 범위 안에서 시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인들과 의견 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10%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데 비해 오히려 청소년끼리 의견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12.5%로 2위를 차지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 자체가 타인과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해가는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으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와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 1) 응답률은 각 문항별로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한 응답자 비율임.
 2) 평균은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④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문항의 평균값임.

【그림 V-14】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애로사항 (단위: %, 점)

4)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성과

여기에서는 사전교육 여부, 의사결정 방식 등 운영 방식에 따라 참여 활동의 성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개괄적인 수준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얻은 변화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표 V-14>에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⁴⁵⁾를 배경변인별로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4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경변인별 비교에서는 학교급이나 사전교육 여부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참여 이유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이유에서는 여타 사유에 비해 부모님·선생님·친구 등 주변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경우에는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의사결정 방식의 경우에는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청소년이 주도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비해, 성인이 주도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경우 만족도가 유의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5) 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4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 한 것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0.8620이다: 참여 활동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다, 참여 활동이 진행된 시설·공간이나 진행에 사용된 장비에 대해 만족한다, 참여 활동의 일정과 시간이 적절하다, 참여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표 V-14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내용/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사후검증
전체		867	3.47	0.47	-	-
학교급	① 초·중학생	351	3.50	0.48	1.788	-
	② 고등학생	505	3.44	0.47		
사전교육 여부	① 사전교육 받았음	806	3.47	0.47	0.749	-
	② 사전교육 받지 않음	59	3.42	0.45		
참여 이유	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511	3.49	0.47	7.640***	①~④*** ②~④*** ③~④*
	② 청소년 권리·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	145	3.52	0.46		
	③ 진로·스펙에 도움	131	3.45	0.46		
	④ 주변의 권유·기타	80	3.23	0.49		
의사결정 방식	① 성인 주도	68	3.23	0.55	9.168***	①~②*** ①~③***
	②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304	3.49	0.46		
	③ 청소년 주도	483	3.48	0.46		

* $p < .05$, ** $p < .01$, *** $p < .001$

(2)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얻은 변화

① 자기 이해 및 자신감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얻은 변화는 '자기 이해 및 자신감'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자기 이해 및 자신감과 관련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V-15>에 정리되어 있다. 조사 결과, '그렇다'는 긍정의견이 92.4%(매우 그렇다 41.1%+그렇다 51.3%), '아니다'는 부정 의견이 7.7%(전혀 그렇지 않다 0.5%+그렇지 않다 7.2%)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참여 이유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감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선생님·친구 등 타인이 하라고 해서 활동에 참여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긍정 응답 비율이 75.9%로 나타나, 다른 이유로 참여한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게 파악되었다. 또한 의사결정 방식의 경우, 주요 의사결정이 성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부정 응답 비율이 16.7%로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의에 의해 참여하거나, 청소년 주체성이 담보되지 않은 참여는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표 V-15

자기 이해 및 자신감: (1)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짐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0.5)	63(7.2)	451(51.3)	361(41.1)	-
참여 이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0(0.0)	31(6.0)	264(51.2)	221(42.8)	70.261*** (d.f=9)
	청소년 권리·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	1(0.7)	10(6.8)	57(39.0)	78(53.4)	
	진로·스펙에 도움	0(0.0)	5(3.7)	82(61.2)	47(35.1)	
	주변의 권유·기타	3(3.6)	17(20.5)	48(57.8)	15(18.1)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0(0.0)	13(16.7)	47(60.3)	18(23.1)	20.356**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1(0.3)	24(7.9)	152(49.8)	128(42.0)	
	청소년 주도	2(0.4)	26(5.4)	247(51.1)	208(43.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V-16>에는 현재 하고 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조사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73.8%(매우 그렇다 29.4%+그렇다 44.4%),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26.2%(전혀 그렇지 않다 3.0%+그렇지 않다 23.2%)로 나타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약 3배 더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참여 이유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참여가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대부분의 집단에서 73~81% 사이의 분포를 나타낸 데 비해, 부모·선생님·친구 등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참여했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55.4%에 불과해, 여타 집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16 자기 이해 및 자신감: (2)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됨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6(3.0)	204(23.2)	390(44.4)	258(29.4)	-
참여 이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16(3.1)	123(23.9)	235(45.6)	141(27.4)	27.324** (d.f=9)
	청소년 권리·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	3(2.1)	26(17.8)	67(45.9)	50(34.2)	
	진로·스펙에 도움	2(1.5)	23(17.2)	57(42.5)	52(38.8)	
	주변의 권유·기타	5(6.0)	32(38.6)	31(37.3)	15(18.1)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3(3.8)	25(32.1)	34(43.6)	16(20.5)	10.090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13(4.3)	69(22.7)	128(42.1)	94(30.9)	
	청소년 주도	9(1.9)	108(22.4)	226(46.8)	140(29.0)	

* $p < .05$, ** $p < .01$, *** $p < .001$

지역사회 참여가 시민참여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청소년기 참여 경험은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매커니즘이 형성되려면, 초기 참여 경험을 통해 효능감과 자신감을 체험하고, 그것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다른 참여 프로그램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가 아래 <표 V-1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다른 참여 프로그램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응답 비율이 94.7%(매우 그렇다 45.7%+그렇다 49.0%)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은 5.3%(전혀 그렇지 않다 0.7%+그렇지 않다 4.6%)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이후의 참여를 추동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한편, 배경변인별 비교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이유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부정적 응답 비율이 여타 경우는 2~5%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게 나타난 데 비해, 부모·선생님·친구 등 주변의 권유로 참여 활동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비율이 20.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생적 동기에 의해 참여하게 된 경우에는 참여의 효과가 저하될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V-17

자기 이해 및 자신감:
(3) 다른 참여 프로그램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김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6(0.7)	40(4.6)	431(49.0)	402(45.7)	-
참여 이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2(0.4)	12(2.3)	259(50.2)	243(47.1)	60.364*** (d.f=9)
	청소년 권리·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	1(0.7)	7(4.8)	58(39.7)	80(54.8)	
	진로·스펙에 도움	0(0.0)	7(5.2)	68(50.7)	59(44.0)	
	주변의 권유·기타	3(3.6)	14(16.9)	46(55.4)	20(24.1)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0(0.0)	7(9.0)	47(60.3)	24(30.8)	11.268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3(1.0)	12(3.9)	149(48.9)	141(46.2)	
	청소년 주도	2(0.4)	21(4.3)	232(48.0)	228(47.2)	

* α .05, ** α .01, *** α .001

②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전제로 한다. 이에 지역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표 V-18>에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말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89.9%(매우 그렇다 40.5%+그렇다 4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정 응답 비율은 10.2%(전혀 그렇지 않다 0.5%+그렇지 않다 9.7%)로 나타나, 긍정 응답 비율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함을 보여준다.

한편, 배경변인별 비교에서는 참여 이유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응답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이유의 경우, 여타 사례는 긍정 응답 비율이 88~92% 수준을 나타낸 데 비해, 주변의 권유로 지역사회 참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긍정 응답 비율이 75.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의 권리나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52.7%가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의사결정 방식의 경우,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협의하는 방식 또는 청소년주도형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긍정 응답 비율이 90~91% 수준을 나타낸 반면, 성인주도형 의사결정 방식의 참여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긍정 응답 비율이 79.5%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여타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참여 동기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V-18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 내 생각을 타인에게 더 잘 말하게 됨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0.5)	85(9.7)	434(49.4)	356(40.5)	-
참여 이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0(0.0)	40(7.8)	263(51.0)	213(41.3)	52.260*** (d.f=9)
	청소년 권리·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	1(0.7)	13(8.9)	55(37.7)	77(52.7)	
	진로·스펙에 도움	0(0.0)	15(11.2)	71(53.0)	48(35.8)	
	주변의 권유·기타	3(3.6)	17(20.5)	45(54.2)	18(21.7)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1(1.3)	15(19.2)	44(56.4)	18(23.1)	16.852**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1(0.3)	29(9.5)	147(48.2)	128(42.0)	
	청소년 주도	2(0.4)	40(8.3)	237(49.1)	204(42.2)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V-19>에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94.1%(매우 그렇다 37.3%+그렇다 56.8%), 부정 응답 비율이 5.9%(전혀 그렇지 않다 0.2%+그렇지 않다 5.7%)로 나타나, 긍정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청소년들이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우세한 가운데, 참여 동기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었다. 그리하여 여타 사유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참가하게 된 집단은 긍정 응답 비율이 93~96%를 유지하는 데 비해, 부모님·선생님·친구 등 타인의 권유로 참가했다고 답한 집단은

긍정 응답 비율이 82.0%에 머물러, 10%p 이상 낮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의사결정 방식의 경우에도, 청소년·성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경우, 혹은 청소년 주도형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이 93~95%로 나타난 반면, 성인이 의사결정을 주도했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87.2%로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표 V-19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됨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2(0.2)	50(5.7)	499(56.8)	328(37.3)	-
참여 이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0(0.0)	20(3.9)	295(57.2)	201(39.0)	43.593*** (d.f=9)
	청소년 권리·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	1(0.7)	9(6.2)	68(46.6)	68(46.6)	
	진로·스펙에 도움	0(0.0)	7(5.2)	84(62.7)	43(32.1)	
	주변의 권유·기타	1(1.2)	14(16.9)	52(62.7)	16(19.3)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0(0.0)	10(12.8)	52(66.7)	16(20.5)	17.596**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1(0.3)	19(6.2)	165(54.1)	120(39.3)	
	청소년 주도	1(0.2)	20(4.1)	279(57.8)	183(37.9)	

* $p < .05$, ** $p < .01$, *** $p < .001$

앞서 살펴본 결과 추이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조정하는 방법을 배웠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표 V-20>에 제시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92.8%(매우 그렇다 37.4%+그렇다 55.4%)로 대단히 높게 나타난 가운데, 참여 이유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차이가 감지된다. 그리하여 주변의 권유로 참여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여타 사유로 참여한 응답자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성인 주도형 의사결정 방식이 이루어진 참여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청소년 주도형 의사결정 방식 혹은 성인과 청소년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 적용된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유의하게 낮게 파악되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율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場)이 될 수 있지만, 타의에 의한 참여, 혹은 청소년 주도성이 결여된 지역사회 참여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표 V-20 내 생각과 다를 때 조정하는 방법을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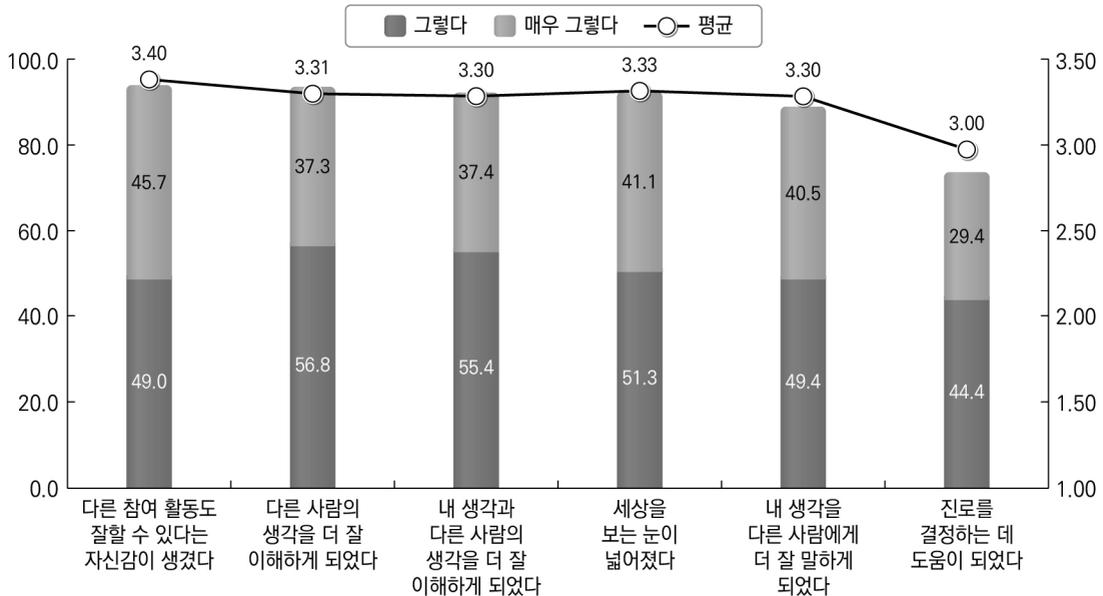
(단위: 명(%))

내용/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4(0.5)	59(6.7)	487(55.4)	329(37.4)	-
참여 이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1(0.2)	24(4.7)	286(55.4)	205(39.7)	56.604*** (d.f=9)
	청소년 권리·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	2(1.4)	10(6.8)	69(47.3)	65(44.5)	
	진로·스펙에 도움	0(0.0)	6(4.5)	84(62.7)	44(32.8)	
	주변의 권유·기타	1(1.2)	19(22.9)	48(57.8)	15(18.1)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1(1.3)	15(19.2)	48(61.5)	14(17.9)	39.449*** (d.f=6)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2(0.7)	25(8.2)	169(55.4)	109(35.7)	
	청소년 주도	1(0.2)	17(3.5)	267(55.3)	198(41.0)	

* α .05, ** α .01, *** α .001

[그림 V-15]에는 앞서 살펴본 6개 문항에 대해 각각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과 각 문항별 평균 점수를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문항별로 평균 점수는 모두 3점 이상을 나타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자신에 대한 이해나 자신감을 강화하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 활동의 효과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른 참여 활동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항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94.7%의 청소년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자의 약 절반(45.7%)이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참여 경험이 추후 지속적인 사회참여의 동인이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주: 평균은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④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문항의 평균값임.

【그림 V-15】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통한 변화 긍정(단위: %, 점)

(3)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지역사회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홍정희, 2016: 50), 그로 인해 지역 내 사회자본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⁴⁶⁾을 준거로 삼아,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이 작동했을 때 지역사회 애착이 강화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6개 문항으로 측정된 지역사회 애착의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14점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애착 수준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인 참여 과정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참여 이유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여타 집단은 모두 지역사회 애착 평균이

46) 지역사회 애착은 다음과 같은 6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것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0.861이다: 나는 우리 동네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다. 나는 월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내가 노력하면 우리 동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사 가게 된다면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3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님·선생님·친구 등 타인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한 집단의 평균은 2.92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나 청소년 주도형 의사결정에 비해, 성인 주도형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애착 수준이 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의에 의한 참여, 그리고 청소년 주도성이 배제된 참여는 지역사회 참여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표 V-21 참여 이유 및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지역사회 애착 차이 검증 (단위: 명, 점)

내용/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전체		879	3.144	0.528	-	-
참여 이유	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516	3.167	0.531	6.615***	①~④** ②~④***
	② 청소년 권리·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	146	3.224	0.495		
	③ 진로·스펙에 도움	134	3.107	0.541		
	④ 주변의 권유·기타	83	2.924	0.486		
의사결정 방식	① 성인 주도	78	2.985	0.484	3.856*	①~②* ①~③*
	②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305	3.152	0.514		
	③ 청소년 주도	482	3.160	0.535		

* $p < .05$, ** $p < .01$, *** $p < .001$

(4) 시민성

<표 V-22>에는 지역사회 참여 이유와 의사결정 방식 등 참여 조건에 따라 시민성⁴⁷⁾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시민성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097로

47) 시민성은 다음과 같은 3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것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0.792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세상에 도움이 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나타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를 지역사회 참여 이유와 참여 활동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비교해보면,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또는 청소년의 권리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시민성 평균 점수가 각각 3.104, 3.236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는 주변의 권유로 참여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시민성 평균 점수는 각각 2.995, 2.968로 3점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사후검증 결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다양한 이유 중에서도 ‘청소년의 권리나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시민성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비해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차이는 감지되지 않았다.

표 V-22 참여 이유 및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시민성 차이 검증 (단위: 명(%))

내용/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전체		879	3.097	0.566	-	-
참여 이유	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516	3.104	0.538	5.961***	②~③** ②~④**
	② 청소년 권리·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	146	3.236	0.579		
	③ 진로·스펙에 도움	134	2.995	0.648		
	④ 주변의 권유·기타	83	2.968	0.520		
의사결정 방식	① 성인 주도	77	3.065	0.504	0.183	-
	②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305	3.108	0.534		
	③ 청소년 주도	483	3.100	0.585		

* α .05, ** α .01, *** α .001

5)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 의사

(1) 지속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사

여기에서는 청소년기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향후 지속적인 시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의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속적인 참여 의사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지금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지만 향후 다른 활동을 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V-23>에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조건 따라 지속적인 참여 의사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88.4%는 앞으로 다른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다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 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 비율의 차이는 참여 이유, 사전교육 실시 여부,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 등 지역사회 참여를 둘러싼 경험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참여 동기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혹은 청소년의 권리나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91% 수준을 나타낸 반면, 부모님·선생님·친구 등 주변의 권유로 하게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비율이 72.5%로 나타나 약 19%p 더 낮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참여 활동에 대해 스스로 내적 동기를 갖는 것이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도 70% 이상이 앞으로도 계속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한 것은 일단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의 기회와 경험을 갖도록 접근 통로를 확대하는 것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사전교육 실시 여부에 따른 차이도 감지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참여 중인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할 때 사전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89.5%가 앞으로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반면, 사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비율이 72.9%로 약 12%p 더 낮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취지와 목적,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체 참여 과정에서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돕고, 그로 인해 추후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참여 과정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청소년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성인주도로 이루어졌는지, 즉 청소년에게 부여된 실질적인 권한의 수준도 지속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주요한 의사결정을 청소년이 주도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91.0%를 차지한 반면, 주요 의사 결정을 성인이 주도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비율이 80.0%로 11%p 더 낮게 파악되었다.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활동을 경험할 때 청소년들은 그 과정에서 참여의 성취감이나 효능감을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추후 지속적인 참여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23 **향후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 의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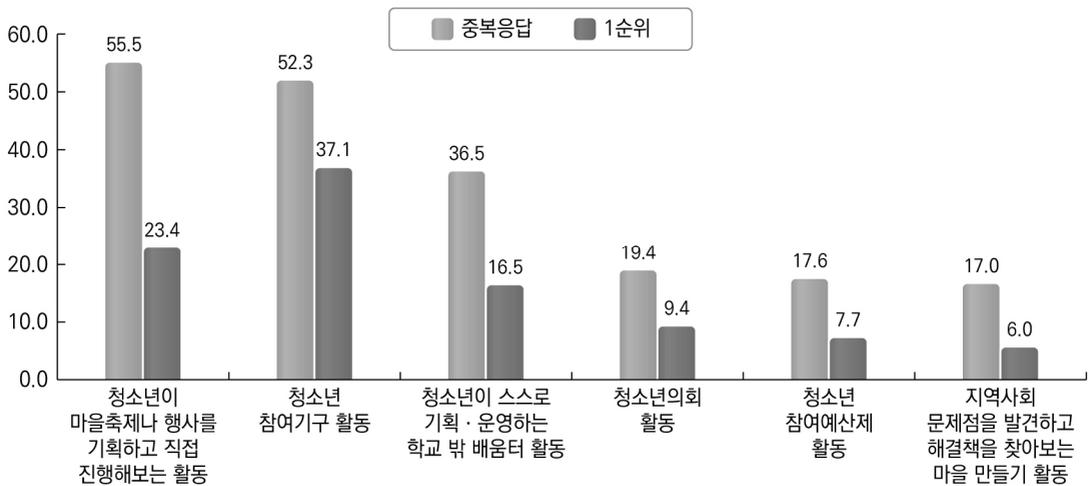
내용/구분		있다	없다	χ^2
전체		769(88.4)	101(11.6)	-
참여 이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464(91.0)	46(9.0)	25.497*** (d.f.=3)
	청소년 권리·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	133(91.1)	13(8.9)	
	진로·스펙에 도움	114(85.1)	20(14.9)	
	주변의 권유·기타	58(72.5)	22(27.5)	
사전교육 여부	사전교육 받았음	724(89.5)	85(10.5)	14.758** (d.f.=1)
	사전교육 받지 않음	43(72.9)	16(27.1)	
의사결정 방식	성인 주도	60(80.0)	15(20.0)	9.532** (d.f.=2)
	청소년·성인이 동등하게 결정	263(86.5)	41(13.5)	
	청소년 주도	437(91.0)	43(9.0)	

* $p < .05$, ** $p < .01$, *** $p < .001$

(2) 지역사회 참여 활동 내용에 대한 수요

[그림 V-16]에는 앞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활동 내용에 관한 수요 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1순위 응답으로는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이 마을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보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23.4%로 2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배움터 활동'이 16.5%로 파악되었다.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함께 고려한 중복응답 분석에서는 ‘청소년이 마을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보는 활동’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52.3%,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배움터 활동’ 36.5%, ‘청소년의회 활동’ 19.4%, ‘청소년참여예산제 활동’ 17.6%,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마을만들기 활동’ 1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청소년들이 쉽게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는 마을축제나 행사와 연계한 참여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입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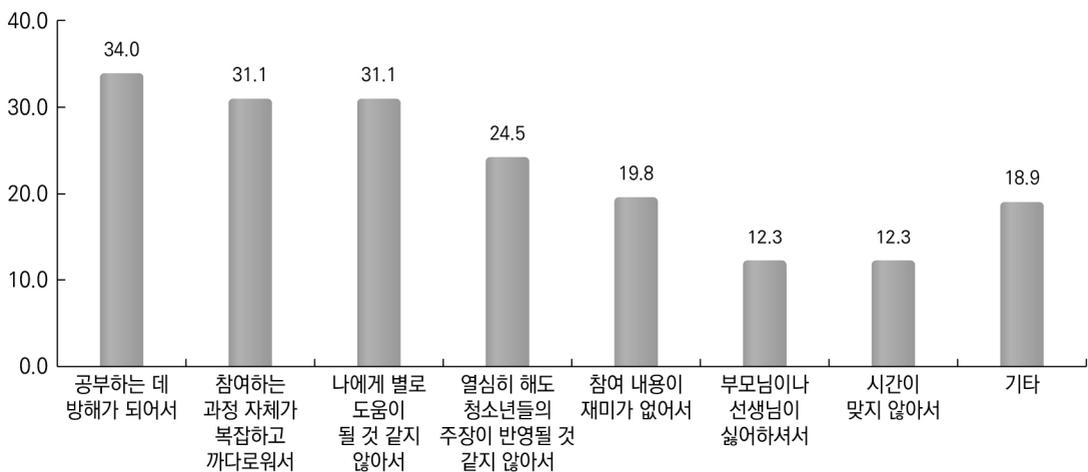
[그림 V-16] 지역사회 참여 내용에 대한 수요(1순위 및 중복응답)(단위: %)

(3) 지역사회 참여 방해요인

현재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1순위 및 2순위 응답을 합산하여 중복응답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주된 이유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및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31.1%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열심히 참여해도 청소년들의 주장이 반영될 것 같지 않아서’ 24.5%, ‘참여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19.8%,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싫어해서’ 및 ‘시간이 맞지 않아서’ 12.3% 등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업과 병행하는 데서 비롯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왜곡된 교육 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 같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역사회 참여로 인해 학업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굳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참여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참여 경험에 대해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하거나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등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가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도출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역사회 참여가 일상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별도의 노력과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특별한’ 과업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참여를 좀 더 일상화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열심히 해도 청소년들의 주장이 반영될 것 같지 않아서’ 등의 응답이 각각 31.1%와 24.5%로 도출된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취감과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가 [그림 V-17]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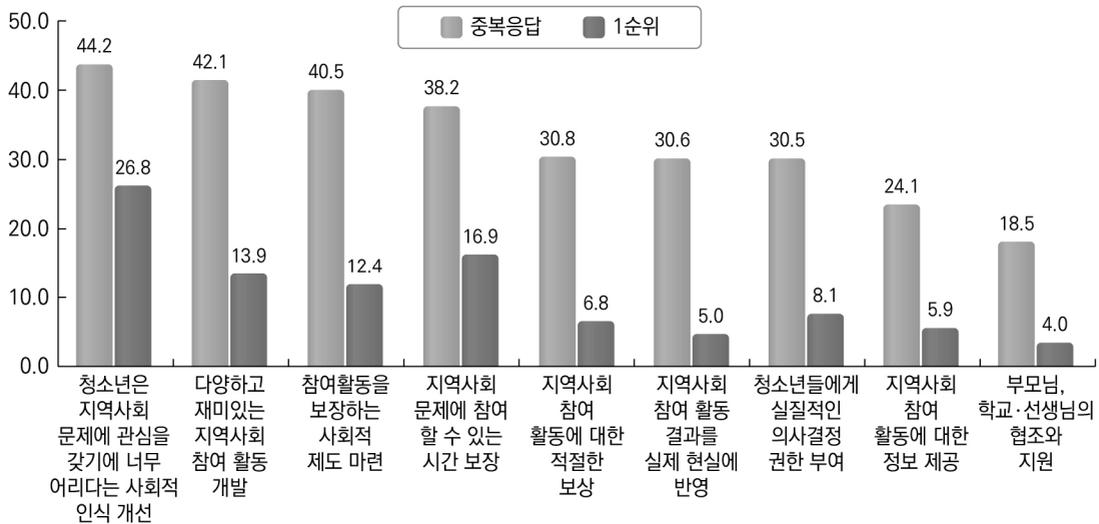


[그림 V-17] 지역사회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단위: %)

6)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순위 응답 결과, ‘청소년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보장’이 16.9%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개발’ 13.9%,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 마련’ 12.4% 등으로 나타났다.

1순위~3순위 응답 결과를 종합한 중복응답 분석 결과, 1순위 분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44.2%로 가장 높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개발’ 42.1%,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 마련’ 40.5%,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보장’ 38.2% 순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30.8%를 차지했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 결과를 실제 현실에 반영’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30.6%와 30.5%로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참여가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로 자리매김할 때,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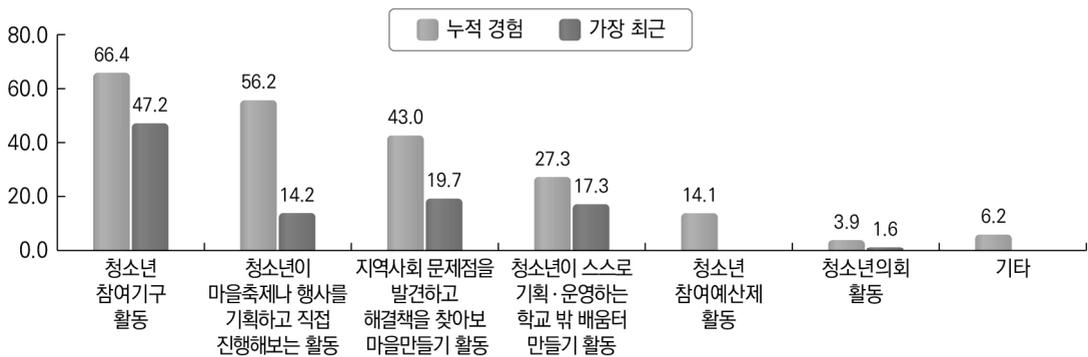
[그림 V-18]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1순위 및 중복응답)(단위: %)

3.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앞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참여 경험과 운영 방식, 애로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지도자나 교사 등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방식과 참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자 입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경험

본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조사에 응한 현장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본 지역사회 참여 사업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참여 사업은 무엇인지, 사업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업으로는 ‘청소년참여기구’가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이 마을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보는 활동’ 56.2%,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마을만들기 활동’ 43.0% 등이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지금까지 지역사회 참여가 참여기구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에 운영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청소년참여기구’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림 V-19】 사업내용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경험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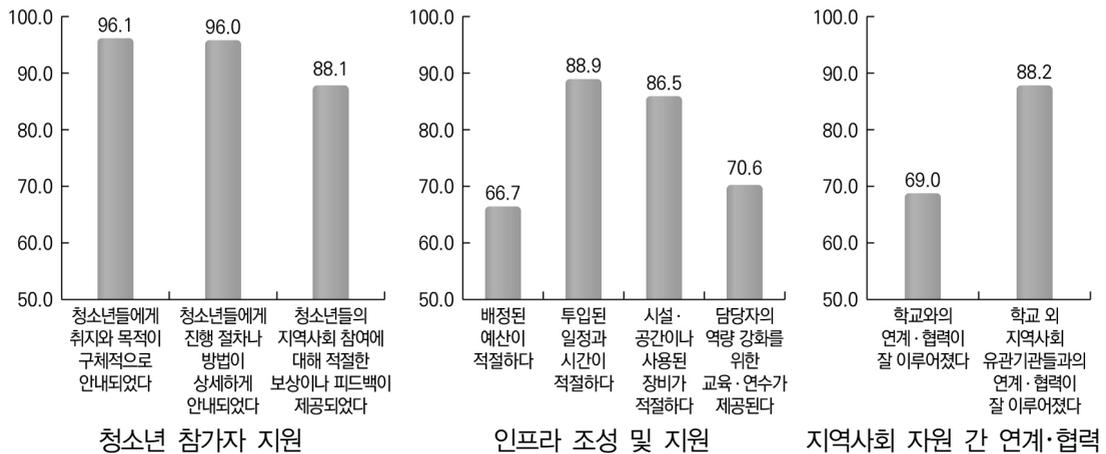
여기에서는 ‘현재’ 또는 ‘가장 최근에’ 운영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기준으로, 청소년 참가자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참여 인프라 조성 및 지원,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등 3가지 측면에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가 [그림 V-20]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었는지, 또 보상이나 피드백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취지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한 현장 전문가의 96.1%가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진행 절차나 방법이 상세하게 안내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96.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나 피드백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이 11.9%로 여타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피드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제시한 4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의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투입된 일정과 시간이 적절하다’는 데는 88.9%가 긍정하는 반응을 보였고, ‘시설·공간이나 사용된 장비가 적절하다’는 데는 86.5%가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가 제공된다’는 데는 70.6%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배정된 예산이 적절인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66.7%로 나타나, 여타 문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기본 인프라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 예산의 확충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사회 참여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학교 외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졌다는 데는 88.2%가 동의한 반면, 학교와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그 비율이 69.0%로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여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주지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대부분은 학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 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와의 연계·협력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향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V-20】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 실태(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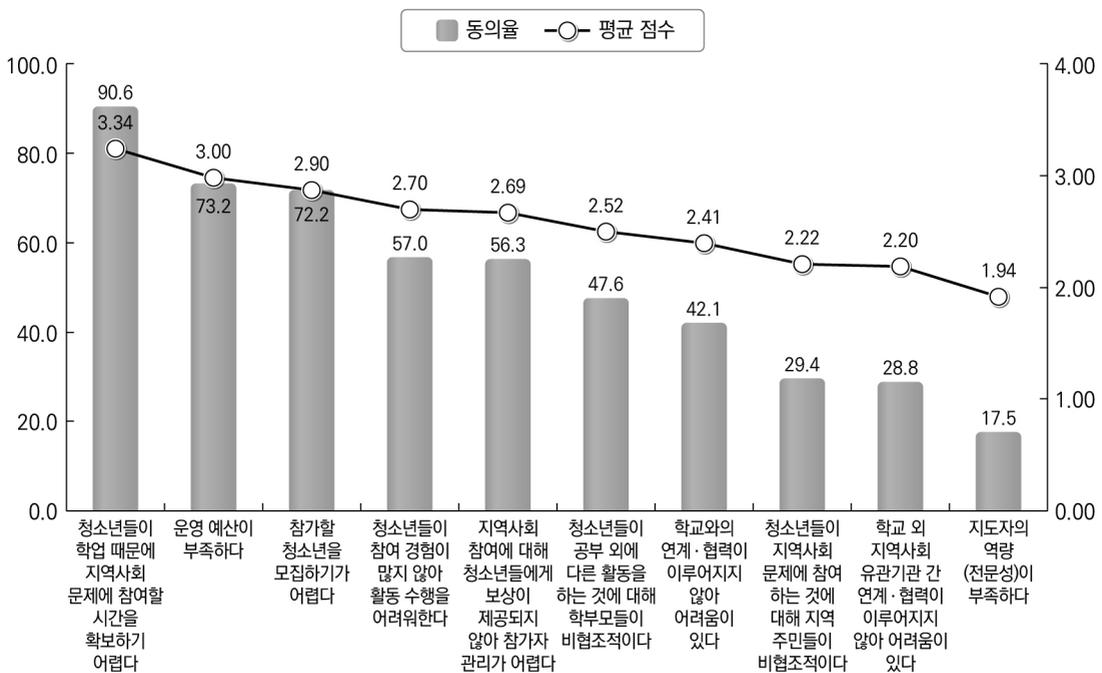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그림 V-21]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청소년들이 학업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90.6%가 이 같은 애로사항에 공감했다. 그 다음으로는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 73.2%,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하기 어렵다’ 72.2%,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많지 않아 활동 수행을 어려워한다’ 57.0%,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보상이 제공되지 않아 참가자 관리가 어렵다’ 56.3% 등이 운영자가 체감하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운영자들이 주로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참가자 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것도 참가자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고, 참가자 모집의 어려움, 그리고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미비 등 참가자

관리·유지에 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설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청소년들이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참가자 관리에 관한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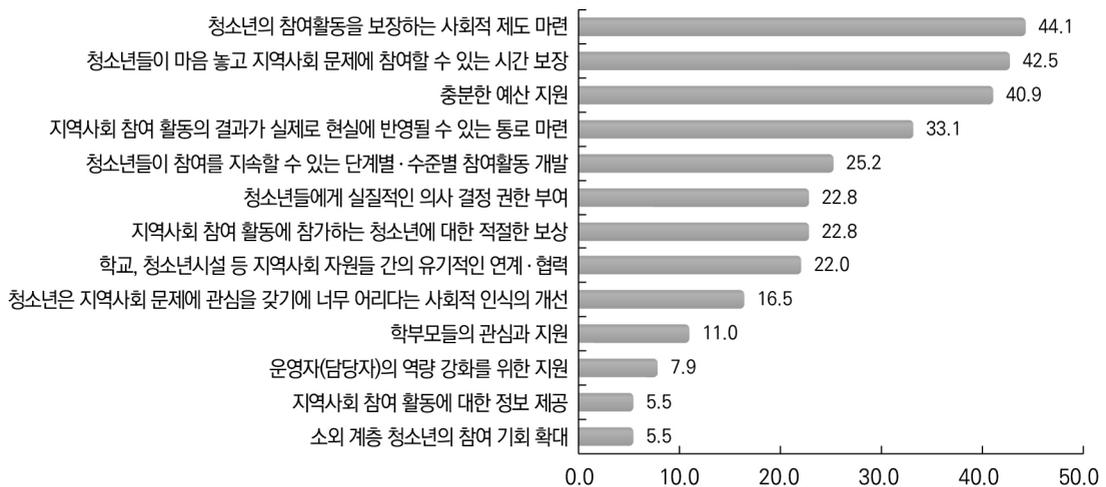
아울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과 관련하여, 학교를 제외한 여타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8.8%에 그친 반면, 학교와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42.1%로 13.3%p 더 높게 도출된 것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 현장과 학교와의 연계가 보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V-2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단위: %, 점)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 중요한 지원 방안 혹은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중복 응답으로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결과,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2.5%,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9%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될 경우, 청소년들은 별도의 시간 할애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고, 지역사회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V-2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중복응답)(단위: %)

다음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결과가 실제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33.1%로 비교적 높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참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참여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단계별·수준별 참여활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5.2%로 파악되었다.

이는 앞서 실태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주로 소수의 청소년들로 구성되는 참여기구 사업에 집중되는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이 높지 못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다.

그 밖에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응답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는 응답이 각각 22.8%로 나타났다. 청소년 당사자가 아닌 성인 운영자 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상당수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재 이루어지는 참여 활동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조사한 애로사항에서 청소년 참가자 모집·관리·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수위를 차지했던 것과 연계하여, 참가자에게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탐색을 위한 심층 분석

1) 심층 분석 개요

앞서 다양한 문항들을 토대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을 위한 요건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심층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분석 방법 및 분석 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변수

① 종속변수

여기에서 주된 관심은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 모형 도출을 위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참여 활동의 효과가 보다 긍정적으로 도출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준거변수는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 '지역사회 애착', '참여 자신감',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 의사' 등 4가지이다.

여기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은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는 역량이 향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준거변수로 투입하였다. '지역사회 애착'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여 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준거로 활용되었다. '참여 자신감'과 '지속적인 참여 의사'는 청소년기에 경험한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향후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활동의 결과로서 참여에 대한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성향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준거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인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V-24>에 제시되어 있다.

표 V-24 종속변수 설정의 근거 및 변수 구성

변수명	설명
타인과의 소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역량이 향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로 설정 • 변수 구성: 현재 하고 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조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등 4점 척도로 측정된 3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으로 투입
지역사회 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향상되는지, 이러한 지역수준 사회자본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입 • 변수 구성: '나는 우리 동네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다',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내가 노력하면 우리 동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사 가게 된다면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등 4점 척도로 측정된 6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으로 투입
참여 자신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이끄는 참여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준거변수로 투입 • 변수 구성: 현재 하고 있는 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다른 참여 프로그램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등 4점 척도로 측정된 2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으로 투입
지속적인 참여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향후 지속적인 참여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준거변수로 투입 • 변수 구성: "여러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질문에 '없다=0', '있다=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모형에 투입

②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들 변인들이 3단계에 걸쳐 모형에 투입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성별, 학교급, 학교성적, 지역 등 응답자의 '기본배경변인'들이 투입되었고, 지금까지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참여 동기, 참여 태도 등 '기본적인 지역사회 참여 경험'에 관한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교육 도움 정도, 참여활동 내용의 충실성, 청소년 주도성, 활동시간 확보의 어려움, 활동공간 확보의 어려움, 참여활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 '참여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내실성과 여건'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들이 추가되어, 종속변수의 성격을 고려해 적절하게 모형에 투입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의사결정구조 및 청소년, 성인들과의 의견조정 어려움을 묻는 문항이 변인으로 활용되었다. 여기에서 투입된 독립변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V-25>에 제시되어 있다.⁴⁸⁾

표 V-25 독립변수의 구성

변수명	설명
개인 특성	
성별	•남자 청소년 준거집단, 여자 청소년=1
학교급	•초등학생·중학생(또는 해당 연령대) 준거집단, 고등학생(또는 해당 연령대)=1
학교성적	•“학교 성적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에 대해 ①매우 못하는 수준, ②못하는 수준, ③중간, ④잘하는 수준, ⑤매우 잘하는 수준 등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사용
지역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서울/수도권·광역시/기타 시·도로 구분한 뒤, 기타 시·도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수도권·광역시 및 기타 시·도에 각각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투입
지역사회 참여 경험 및 참여 태도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것이 참여 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알아보기 위해 투입 •7가지 종류의 선택지(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참여예산제 활동, 청소년의회 활동, 학교 밖 배움터 만들기 활동, 마을만들기 활동, 청소년들이 마을축제나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활동, 기타 등) 중에서 그 동안 경험해 본 지역사회 활동의 총합
참여 동기	•참여 활동에 대한 내적 동기 및 외적 동기에 따라 참여 성과가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

48) 각 문항의 구체적인 출처는 본 보고서 제V장 제1절(1. 조사의 개요) <표 V-2>를 참조하기 바란다.

변수명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해 9개 범주로 조사한 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청소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등에 응답한 경우를 내적 동기로 분류하고,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에 답한 경우는 외적동기1(진로·스펙에 도움),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친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는 외적동기2(주변 권유)로 분류한 뒤, 내적 동기를 준거집단으로 삼아 외적동기1과 외적동기2에 각각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모형에 투입
적극적 참여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투입 • 측정문항: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약간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지역사회 참여 활동 운영 환경	
사전교육 도움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교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참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투입 •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고, 사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사전교육이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4개 문항(참여활동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 참여활동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나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
활동 내용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활동 내용이 난이도나 체계성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 • 변수구성: 참여활동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어렵다, 참여활동 내용이 어딘지 좀 엉성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할지 모르겠다 등 4점 척도로 측정된 2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투입
청소년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청소년 주도성이 실제 참여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 • 변수구성: 참여활동은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간다, 참여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참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법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등 4점 척도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투입
참여활동 시간확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 및 여건과 관련하여, 시간확보의 어려움이 향후 지속적인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 • 변수구성: ‘학교 숙제나 학원 등 공부 때문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재범주화 하여, ‘아니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구분한 뒤, ‘아니다’는 응답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그렇다’고 답한 집단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투입
참여활동 공간확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 및 여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향후 지속적인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 • 변수구성: ‘참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재범주화 하여, ‘아니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그렇다(그렇

변수명	설명
	다+매우 그렇다)로 구분한 뒤, '아니다'는 응답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그렇다'고 답한 집단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투입
참여활동에 대한 부모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시교육이 중시되는 사회 풍토에서, 참여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비우호적 태도가 향후 지속적인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 변수구성: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눈치가 보인다'는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재범주화 하여, '아니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구분한 뒤, '아니다'는 응답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그렇다'고 답한 집단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투입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성인 주도, vs. 청소년 주도)이 참여활동의 성과와 지속적인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투입 변수구성: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5개 범주로 조사된 것을 성인주도형(어른들이 결정해서 지시하고 청소년들은 그 의견에 따른다, 어른들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지만 주로 어른들의 의견대로 결정된다), 청소년-성인 협의형(어른들과 청소년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논해서 함께 결정한다), 청소년주도형(어른들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지만 주로 청소년의 의견대로 결정된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어른들은 우리들의 의견에 따른다) 등 3개 범주로 재범주화한 뒤, 청소년-성인 협의형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성인주도형과 청소년주도형에 각각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
청소년끼리 의견 조정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참여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들 간의 의견 조정의 애로사항 등이 참여 성과와 지속적인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 변수구성: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들끼리 의견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재범주화 하여, '아니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구분한 뒤, '아니다'는 응답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그렇다'고 답한 집단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투입
성인들과 의견 조정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참여 활동 과정에서 성인들과 청소년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의견조율의 어려움이 참여 활동 성과와 지속적인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투입 변수구성: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어른들과 우리들의 의견이 달라서 조정하기 어렵다'는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재범주화 하여, '아니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구분한 뒤, '아니다'는 응답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그렇다'고 답한 집단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로 투입

상술한 투입 변인들 가운데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가 <표 V-26>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V-27>에 제시되어 있다.

표 V-26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타인과의 소통 능력	지역수준 사회자본	참여 자신감
신뢰도(Cronbach's α)	0.840	0.861	0.709
요인	사전교육 도움 정도	활동내용의 비체계성	청소년 주도성
신뢰도(Cronbach's α)	0.893	0.710	0.833

표 V-27 투입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	M	S.D.
독립변수		
성별(남=0, 여=1)	0.42	0.49
학교급(초·중학교=0, 고등학교=1)	0.59	0.49
학교성적	3.51	1.02
지역(서울)	0.29	0.45
지역(수도권·광역시)	0.48	0.50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1.51	0.80
참여 동기(내적 동기=0, 진로·스펙을 위해서=1)	0.16	0.36
참여 동기(내적 동기=0, 부모님·선생님·친구의 권유로=1)	0.07	0.26
적극적 참여 태도	3.34	0.69
사전교육 도움 정도	3.27	0.99
참여활동 내용의 비체계성	1.77	0.57
청소년 주도성	3.47	0.47
참여활동 공간확보의 어려움(어려움 없음=0, 어려움 있음=1)	0.08	0.27
참여활동 시간확보의 어려움(어려움 없음=0, 어려움 있음=1)	0.26	0.44
참여활동에 대한 부모의 반대(눈치 보지 않음=0, 눈치를 봄=1)	0.10	0.31
의사결정 방식(청소년-성인 협의형=0, 성인 주도=1)	0.09	0.29
의사결정 방식(청소년-성인 협의형=0, 청소년 주도=1)	0.56	0.50
청소년끼리 의견 조정 어려움(어려움 없음=0, 어려움 있음=1)	0.13	0.33
성인들과 의견 조정 어려움(어려움 없음=0, 어려움 있음=1)	0.07	0.26
종속변수		
타인과의 소통 능력	3.30	0.54
지역사회 애착	3.14	0.53
참여 자신감	3.30	0.53
지속적인 참여 의사(앞으로 다른 참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0, 참여하고 싶음=1)	0.88	0.32

(2) 분석 방법 및 분석 모형

①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OLS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고, 종속변수가 이분변수(binary variable)인 경우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연속변수로 측정된 타인과의 소통능력, 지역사회 애착, 참여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OLS 회귀분석이, 이분변수로 측정된 지속적인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② 분석 모형의 단계별 구성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먼저, Model I에서는 성별, 학교급, 학교성적, 거주지(서울, 수도권·광역시, 기타 시·도) 등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반영하는 변인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기본 경험(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참여 동기, 참여 태도 등)을 포착하는 문항들을 투입하여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Model II에서는 이전 단계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모형의 간명성(parsimony)을 저해하는 변인들을 제거한 다음, 경험했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되었는지, 또 참여 환경과 여건은 어떠했는지를 반영하는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Model III에서는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성인 주도 의사결정과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 등 의사결정 방식의 차이가 실제로 참여의 효과에 차이를 야기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단계별 구성은 [그림 V-23]에 제시하였다.

	Model I	Model II	Model III
개인특성 변인	●	●	●
지역사회 참여 활동 관련 기본 경험	●	●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충실성 및 참여 여건		●	●
의사결정구조			●

【그림 V-23】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성과 및 지속적인 참여 의사 영향요인 탐색을 위한 분석모형의 단계별 구성

2) 분석 결과

(1)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건 탐색

① 타인과의 의사소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조건

지역사회 참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타인과 의견을 조율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지역사회 참여의 주요한 성과가 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을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타인과의 의사소통역량이 제고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분석 결과가 <표 V-2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Model I에는 기본배경변인과 그간 경험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기본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배경변인으로 투입한 변인들 중에서 성별과 학교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학교성적과 지역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지역사회 참여 활동 경험과 관련해서는 그간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종류의 다양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참여 동기와 참여 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동 자체에 대한 내적 동기로 참여한 경우에 비해, 외적 동기로 인해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적극적인 참여 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참여활동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변화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Model II에서는 참여 활동이 얼마나 충실하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Model II에서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은 모두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도움이 되는 사전교육을 받은 경우,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활동의 내용이 청소년들이 소화하기에 적절한 난이도와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내용의 난이도가 높고 영성한 경우에는 참여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087, p<.001$). 한편, 국내외에서 수행된 청소년 참여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청소년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할 때 참여의 효과가 배가된다고 주장한다(e.g. Hart, 1997; 백병부 외, 2016; 우성희·허보나,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주도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여 이를 변인으로 구성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실제로 분석 결과,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법의 결정까지 주도권을 갖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할 때, 참여의 효과는 훨씬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Model III에는 의사결정 구조 및 의사결정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문항들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는 의사결정구조나 청소년 간의 의견조율의 어려움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성인들과 의견 조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된 것이 이례적인데, 이는 참여 욕구가 크고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성인들과의 의견 조정 과정에 갈등을 느낄 성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V-28 지역사회 참여활동 효과에 대한 OLS 분석 결과: (1) 타인과의 소통 능력

	Model I		Model II		Model III	
	b(s.e.)	β	b(s.e.)	β	b(s.e.)	β
상수	2.308*** (.107)	-	1.001*** (.177)	-	1.059*** (.181)	-
개인특성변인						
성별(여=1)	-.009 (.035)	-.009	-	-	-	-
학교급(고등학교=1)	.046 (.035)	.043	.043 (.032)	.040	.052 (.032)	.048
학교성적	.051** (.017)	.098	.030 † (.015)	.056	.029 † (.016)	.054
지역(서울)	.084 † (.048)	.072	.086* (.042)	.074	.091* (.042)	.078
지역(수도권·광역시)	-.026 (.044)	-.024	.005 (.040)	.005	.014 (.040)	.013
참여 활동 기본 경험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005 (.021)	-.008	-	-	-	-
참여동기(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59 (.047)	-.040	-.013 (.043)	-.009	-.016 (.043)	-.011
참여동기(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시켜서)	-.325*** (.067)	-.158	-.159* (.062)	-.075	-.148* (.064)	-.070
적극적 참여 태도	.247*** (.025)	.323	.114*** (.023)	.149	.112*** (.023)	.148
참여 활동의 충실성						
사전교육 도움 정도			.062*** (.016)	.119	.064*** (.016)	.124
참여활동 내용의 비체계성			-.087** (.030)	-.092	-.098** (.033)	-.103
청소년 주도성			.498*** (.037)	.433	.486*** (.039)	.423
의사결정구조						
의사결정구조(성인이 결정)					-.040 (.064)	-.020
의사결정구조(청소년이 결정)					-.009 (.033)	-.009
청소년끼리 의견 조정의 어려움이 있음					-.061 (.054)	-.038
성인들과 의견 조정의 어려움이 있음					.154* (.068)	.073
Adjusted R ²	0.170		0.399		0.394	

† α .10, * α .05, ** α .01, *** α .001

② 지역사회 애착

<표 V-29>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준거변수로 삼아, 지역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기본적인 경험이 투입된 Model I에서는 학교급, 학교성적, 참여 동기,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교성적은 지역사회 애착과 정적(positive)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인 지역사회 참여 활동 경험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은 지역사회 애착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반면, 참여 동기와 적극적인 참여 태도는 지역사회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이유가 내적 동기에 기인하는 경우에 비해, 진로나 소위 '스펙'쌓기에 활용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에서 참여하는 경우,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등 주변에서 권유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애착을 증진시키는 데 오히려 부정(negative)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모님·선생님·친구 등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경우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212, p<.01$). 그에 비해 적극적인 참여 태도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181, p<.001$).

Model II에서는 참여 활동의 충실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들이 추가되었다. 여기에서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사전교육 도움 정도, 참여활동 내용의 비체계성, 청소년 주도성)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사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 활동 내용이 청소년 주도성이 강할수록 지역사회 애착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참여활동의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어렵거나, 내용이 엉성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활동 내용이 모호한 것은 참여활동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149, p<.001$). 한편, Model II에서 이들 변인이 추가되면서 Model I에서 유의하게 도출되었던 참여 동기는 통계적 유의성이 소실되었다. 한편, Model III에서 투입된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변인들은 지역사회 애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29 지역사회 참여활동 효과에 대한 OLS 분석 결과: (2) 지역사회 애착

	Model I		Model II		Model III	
	b(s.e.)	β	b(s.e.)	β	b(s.e.)	β
상수	2.540*** (.110)	-	1.645*** (.185)	-	1.681*** (.190)	-
개인특성변인						
성별(여=1)	-.002 (.036)	-.002	-	-	-	-
학교급(고등학교=1)	-.123** (.036)	-.115	-.140*** (.033)	-.132	-.132*** (.034)	-.125
학교성적	.036* (.017)	.071	.028 † (.016)	.055	.026 (.016)	.051
지역(서울)	.020 (.050)	.017	-	-	-	-
지역(수도권·광역시)	-.017 (.045)	-.016	-	-	-	-
참여 활동 기본 경험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013 (.022)	-.019	-	-	-	-
참여동기(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59 (.048)	-.041	-.033 (.045)	-.022	-.029 (.046)	-.020
참여동기(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시켜서)	-.212** (.070)	-.104	-.098 (.067)	-.047	-.099 (.068)	-.048
적극적 참여 태도	.181*** (.025)	.240	.068** (.024)	.091	.064** (.025)	.087
참여 활동의 충실성						
사전교육 도움 정도			.029 † (.017)	.057	.029 † (.017)	.058
참여활동 내용의 비체계성			-.149*** (.031)	-.161	-.182*** (.035)	-.196
청소년 주도성			.416*** (.040)	.371	.427*** (.041)	.383
의사결정구조						
의사결정구조(성인이 결정)					.019 (.067)	.010
의사결정구조(청소년이 결정)					-.044 (.035)	-.042
청소년끼리 의견 조정의 어려움이 있음					.075 (.057)	.048
성인들과 의견 조정의 어려움이 있음					.110 (.071)	.054
Adjusted R ²	0.086		0.292		0.288	

† α .10, * α .05, ** α .01, *** α .001

③ 참여활동을 통한 자신감

다음으로, <표 V-30>에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다른 참여 프로그램에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등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본배경변인과 기본적인 참여 활동 경험이 투입된 Model I에서는 참여 동기와 적극적 참여 태도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청소년의 권리 향상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 내적 동기에 의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에 비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혹은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참가한 경우에는 참여활동을 통한 자신감 형성에 상대적으로 부정적(negative)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385, p<.001$). 또한,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수록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285, p<.001$).

참여 활동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었는지를 포착하는 변인들을 투입한 Model II에서는 새로 투입된 변인들이 모두 참여활동을 통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사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 주도성이 강할수록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참여활동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짜임새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감 향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여타 준거변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입 단계에서 짜임새 있는 사전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활동 내용이 청소년이 소화하기에 적절하고, 과업 내용이 분명하며,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반적 과정 자체를 청소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Model III에서는 의사결정과정과 관련한 변인들을 추가로 투입했는데, 이들 변인들은 독립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0 지역사회 참여활동 효과에 대한 OLS 분석 결과: (3) 참여 자신감

	Model I		Model II		Model III	
	b(s.e.)	β	b(s.e.)	β	b(s.e.)	β
상수	2,322*** (.103)	-	1,134*** (.171)	-	1,185*** (.174)	-
개인특성변인						
성별(여=1)	.055 (.034)	.052	.074* (.031)	.069	.075* (.031)	.070
학교급(고등학교=1)	-.003 (.034)	-.002	-	-	-	-
학교성적	.027 (.016)	.053	.011 (.015)	.022	.009 (.015)	.017
지역(서울)	.006 (.046)	.005	-	-	-	-
지역(수도권·광역시)	-.049 (.042)	-.047	-	-	-	-
참여 활동 기본 경험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017 (.020)	-.026	-	-	-	-
참여동기(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66 (.045)	-.046	-.029 (.042)	-.020	-.026 (.042)	-.018
참여동기(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시켜서)	-.385*** (.064)	-.191	-.266*** (.060)	-.129	-.239*** (.061)	-.117
적극적 참여 태도	.285*** (.024)	.379	.170*** (.022)	.229	.166*** (.023)	.225
참여 활동의 충실성						
사전교육 도움 정도			.042** (.015)	.082	0.44** (.015)	.087
참여활동 내용의 비체계성			-.096** (.029)	-.103	-.100** (.032)	-.108
청소년 주도성			.456*** (.036)	.406	.452*** (.038)	.406
의사결정구조						
의사결정구조(성인이 결정)					-.016 (.061)	-.009
의사결정구조(청소년이 결정)					-.032 (.032)	-.030
청소년끼리 의견 조정의 어려움이 있음					-.057 (.052)	-.036
성인들과 의견 조정의 어려움이 있음					-.090 (.066)	.044
Adjusted R ²	.199		.407		.399	

† α .10, * α .05, ** α .01, *** α .001

(2)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린 시절의 참여 경험은 성인이 되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태준·오민아·이은경, 2015: 326). 이러한 연유로 청소년기 지역사회 참여 경험은 시민참여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을 위해, 참여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항 로짓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odel I 에서 투입된 개인특성과 기본적인 참여 활동 경험을 반영하는 변인 중에서는 성별, 참여 동기, 적극적 참여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할 확률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exp^{-0.695}=0.499$).

또한, 내적 동기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참가한 집단에 비해, 도구적 목적 등 외적 동기에 의해 참여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해보고 싶다고 답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참여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청소년의 권리 향상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 내적 동기에 의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에 비해, '나의 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약 0.6배($\exp^{-0.544}=0.580$) 수준에 그쳤다. 가장 부정적인 것은 타인이 시켜서 참가하게 된 경우였는데,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혹은 친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참가하게 된 청소년들은 향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내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에 비해 불과 0.3배($\exp^{-1.231}=0.292$)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지역사회 참여에 내적 동기를 갖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적극적 참여 태도는 향후 지속적인 참여 활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본래 참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다 강하게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 활동 내용의 충실성과 참여 여건을 반영하는 변인들이 투입된 모형II에서는 사전교육 도움 정도와 참여활동을 위한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향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하여 사전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수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할 가능성도 증가했다($b=.404, p<.001$). 반면, 공부 때문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고 답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른 참여활동도 해보고 싶다고 답할 확률이 절반 수준($\exp^{-0.635}=0.530$)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를 위한 시간 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앞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지역사회 애착, 자신감 등 여타 준거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던 청소년 주도성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지속 의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변인들이 추가된 모형Ⅲ에서는 성인-청소년 협의형에 비해 청소년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가진 경우,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약 1.6배($\exp^{0.438}=1.549$) 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효과가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성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속 가능성과 부적(negative)인 관계에 있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한편, 성인들과 청소년의 의견이 달라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청소년에 비해 오히려 지역사회 참여 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게 도출된 점이 다소 이례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과 의견 조정의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본래 청소년의 권리나 주체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의견 조율의 어려움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참여 활동에 대한 수요도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전 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인들이 모형에서 제외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변인이 $p<.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누적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지속적인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가 <표 V-31>에 제시되어 있다.

표 V-3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지속여부에 대한 Binary Logit 분석 결과

	Model I		Model II		Model III	
	b(s.e.)	Exp(b)	b(s.e.)	Exp(b)	b(s.e.)	Exp(b)
상수	.237 (.675)	1.267	-1.248 (1.344)	.287	-.233 (.918)	.792
개인특성변인						
성별(여=1)	-.695** (.234)	.499	-.575* (.259)	.563	-.590* (.244)	.554
학교급(고등학교=1)	-.023 (.238)	.977	.052 (.267)	1.053	.084 (.25)	1.087
학교성적	0.36 (.111)	1.036	-	-	-	-
지역(서울)	.516 (.369)	1.676	.678 † (.381)	1.969	.774* (.384)	2.169
지역(수도권·광역시)	-.334 (.287)	.716	-.218 (.309)	.804	-.223 (.300)	.800
참여 활동 기본 경험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다양성	.155 (.161)	1.168	.219 (.174)	1.244	.298 † (.173)	1.347
참여동기(진로나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544 † (.290)	.580	-.498 (.321)	.608	-.445 (.308)	.641
참여동기(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시켜서)	-1.231*** (.339)	.292	-.951* (.396)	.387	-1.225** (.365)	.294
적극적 참여 태도	.657*** (.156)	1.929	.448* (.182)	1.565	.498** (.169)	1.646
참여 활동의 충실성 및 참여 여건						
사전교육 도움 정도			.404*** (.101)	1.498	.436*** (.099)	1.546
참여활동 내용의 비체계성			-.146 (.260)	.864	-.367 (.252)	.693
청소년주도성			.350 (.296)	1.418	-	-
참여활동 시간확보의 어려움			-.635* (.290)	.530	-.780** (.268)	.458
참여활동 공간확보의 어려움			-.344 (.410)	.709	-	-
참여활동에 대한 부모의 반대			.636 (.450)	1.888	-	-
의사결정구조						
의사결정구조(성인이 결정)					-.283 (.408)	.754
의사결정구조(청소년이 결정)					.438 † (.259)	1.549
청소년끼리 의견 조정의 어려움이 있음					-.025 (.374)	.975
성인들과 의견 조정의 어려움이 있음					.876 † (.470)	2.401
Pseudo R ²	0.149		0.219		0.235	
-2log Likelihood	533.727		437.923		483.341	
Model Chi-square	66.415		87.854		105.470	

† α .10, * α .05, ** α .01, *** α .001

5. 요약 및 시사점

<표 V-32>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결과와, 효과성 높은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을 위한 심층 분석 결과, 그리고 그로부터 도출된 함의와 시사점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V-32 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조사 항목	주요 결과	모형개발 및 정책적 시사점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결과]		
① 지역사회 참여 경험	경험했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청소년 참여정책이 참여기구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시사 → 소수의 청소년만이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는 참여기구 외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모형 개발이 필요함.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된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또래집단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임. - 특히 이미 경험해 본 친구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효할 수 있음.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동기는 이후 성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임. 따라서 도구적·수단적 목적 이 아닌, 내적 동기로 참여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참여의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지원할 필요
② 지역사회 참여활동 운영 방식	사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은 참여 활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기관별 차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참여모형에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의사결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참여 활동의 경우에는 청소년 참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운영 절차나 방식은 참여의 본질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을 시사함. →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요구됨 • 대체로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 주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참여 사업 사례도 관찰됨. → 참여 모형 개발 시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모형 개발 필요

조사 항목		주요 결과	모형개발 및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과정이나 활동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활동의 상당수가 이미 프로그램으로 틀이 짜여져 있고, 청소년들은 객체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음. → 새로 개발되는 모형은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운영 방식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③ 지역사회 참여활동 애로 사항	내용 관련 애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활동이 요구하는 내용이나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난이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대다수를 차지함. - 단, 운영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는, 활동 내용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2배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과정에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활동 내용에 대한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시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이나 난이도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 →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성
	참여 인프라 및 여건 관련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활동을 하는 청소년 4명 중 1명은 학교 숙제나 학원 등 공부 때문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답함. - 특히 시간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가급적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함. → 다수의 청소년들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 교육과 연계한 지역사회 참여 모형 및 정책 개발이 요구됨.
④ 지역사회 참여활동 성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47로 높게 나타남. - 다만, 참여 동기 및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차이가 뚜렷해서, 다른 사람의 권유로 참여하거나 성인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그것이 참여 활동의 효과 제고 및 지속적인 참여를 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참여 활동에 대해 내적 동기를 갖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 모형을 채택해야 함.
	타인과의 소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참여 동기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 가능성 •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참여 활동에 대해 내적 동기를 갖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주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야 함.
	지역사회 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동기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참여 성과로 도출되는 지역사회 애착 수준에도 차이가 나타남. - 다른 사람의 권유로 참여하거나 성인이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애착 증진 효과가 감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의에 의한 참여, 청소년 주도성이 배제된 참여는 지역사회 참여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건으로 작용함을 시사함. → 청소년들이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내면화하도록 하고, 실제 활동 운영 시에는 청소년주도의 의사결정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⑤ 지속적인 참여 의사	지속적인 참여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의 88.4%는 앞으로 다른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나타내, 참여 활동에 대한 지속의사가 높은 편 -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비율은 참여 동기, 사전교육 실시 여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내적 동기를 토대로, 내실 있는 사전교육을 비롯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청소년 주도로 운영되는 활동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사회 참여 활동 내용 관련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해보고 싶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과 관련하여, 1~2순위 응답을 종합한 중복응답 분석 결과, '청소년이 마을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보는 활동'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52.3%,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들이 현재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청소년참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보다 다양한 참여사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사 항목		주요 결과	모형개발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사회 참여 방해요인		이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배움터 활동' 36.5%, 등으로 나타남.	- 참여기구 중심의 청소년 참여 정책의 다변화가 요구됨.
		• 앞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라는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및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각각 31.1%로 2, 3위로 분석됨.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업과 병행하는 데서 비롯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함.
⑥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청소년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보장'이 16.9%로 2위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참여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각 변화가 필요함. • 구체적인 정책 방안 관련해서는 참여기구에 편중된 참여 정책을 다양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야 함. •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 마련과,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보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형 모색이 필요함.

[현장 전문가 대상 실태조사 결과]

① 지역사회 참여사업 운영 방식	참가자 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지원에 관한 항목 중에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나 피드백에 제공되었는가에 대해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피드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함. - 봉사활동 시간 인정, 생활기록부 기재, 참여 활동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 등 피드백 제공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인프라 조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가 제공된다는 응답은 70.6%,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배정된 예산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66.7%로 나타남. 여타 문항에 비해 부정적 평가 의견이 도출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기본 인프라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예산의 확충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외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난 반면, 학교와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69.0%로 훨씬 낮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활동 현장과 학교 간의 연계·협력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함을 시사함.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② 지역사회 참여사업 운영의 애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의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청소년들이 학업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데 90.6% 공감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는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 73.2%,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하기 어렵다' 72.2%, '청소년들이 참여 경험이 많지 않아 활동 수행을 어려워한다' 57.0%,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보상이 제공되지 않아 참가자 관리가 어렵다' 56.3% 순으로, 주요 애로사항으로 파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 및 지원 방안 마련 시, 참가자 관리에 관한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함. → 참가자 확보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소년 활동 현장과 학교와의 연계가 보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함.

조사 항목	주요 결과	모형개발 및 정책적 시사점
③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 42.5%, '충분한 예산 지원'이 40.9%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됨.

[효과적인 모형 개발을 위한 OLS 및 Logit 심층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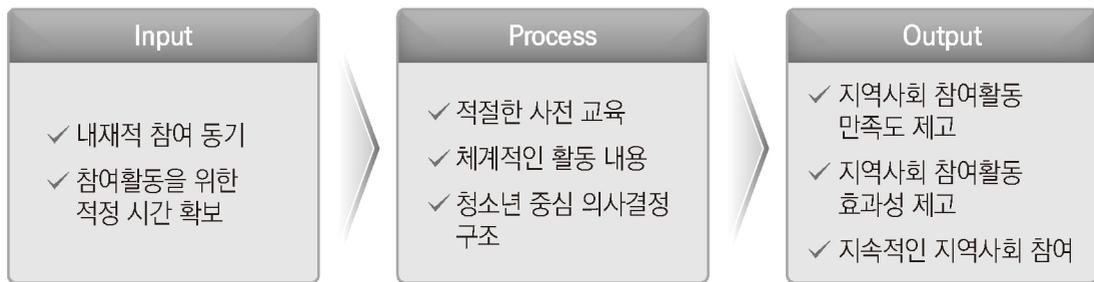
① 지역사회 참여활동 효과성 제고를 위한 조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을 위한 조건 탐색을 위해, 타인과의 소통 능력, 지역사회 애착, 참여 활동에 대한 자신감 등을 준거변수로 삼아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동기가 외부에서 하라고 해서 참여한 경우, 또 참여 내용이 비체계적이라고 느낀 경우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반면, 적극적 태도로 참여하고, 도움이 되는 사전교육을 받고,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에 참여한 경우 성과가 향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활동에 참여하는 단계에서는 스스로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내적 동기를 갖도록 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며, 적절한 활동 내용들로 구성된 모형 설계가 필요함.
②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 영향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 마련을 위해, 향후 지역사회 참여 지속여부에 대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Logit 분석 결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참여 동기, 시간 확보의 어려움 등은 지속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도움이 되는 사전교육을 받은 경우, 청소년이 의사결정권을 가진 참여 활동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참여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또한, 참여 활동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사전교육 등 참여활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 장(章)에서 도출된 핵심 내용들을 토대로 도출된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구성요소를 투입-과정-산출의 틀에 따라 배치해보면 [그림 V-24]와 같다. 여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시민성, 지역사회 애착,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 등을 함양하고,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갖도록 지원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위해서는 투입(input) 단계에서는 우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내재적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분석된 결과는 기본실태분석과 심층분석에서 모두 일관되게 청소년들이 내재적 동기가 아닌 외재적 동기, 특히 타인의 권유로 참여 활동에 참가한 경우, 그 효과가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성과가 긍정적인 것은 스스로 청소년들의 권리, 지역사회 문제, 청소년의 사회참여 문제 등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경우였다. 청소년의 참여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의 당위성에 대해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참여의 동기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투입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요소는 ‘참여 시간의 확보’이다. 이 장에서 분석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으로 참여시간의 확보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현장 전문가들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심층분석에서도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발된 지역사회 참여 모형에서는 청소년들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과정(Process) 단계에서는 적절한 사전 교육, 체계적인 활동 내용, 그리고 청소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필수적 요소로 도출되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적절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참여 활동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 향후 참여 의사 등이 제고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활동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체계적인 활동 내용의 의미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없이 촘촘하게 짜여 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청소년에게 적합한 난이도로, 참여의 성취감과 효능감을 맞출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이 영성해서 ‘참여를 해도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거나, 어른들에게 ‘보여주기식’ 참여로 비취이지 않도록 활동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는, 청소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분석된 결과는 일관되게 성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청소년은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존재로 머무르는 활동에서는 그 성과가 크게 저하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활동의 기획·운영을 비롯해 주요 의사결정이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상술한 내용이 [그림 V-24]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V-24】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단계별 구성 요소

제 VI 장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개발

1.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과 원칙
2. 모형 도출의 구체적 근거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도출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상세화 및 운영 방안

제 VI 장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개발*

1.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과 원칙

여기에서는 제II장에서 실시한 선행연구 검토, 제III장에서 제시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의 시사점, 제IV장에서 검토한 지역사회 참여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제V장에서 분석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실태 조사 결과 및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면담과 FGI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과 원칙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다.

1)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

(1)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 전환 : 소수의 제한적 참여에서 다수의 일반적 참여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청소년참여는 소수의 청소년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던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여 일반적인 다수의 청소년들이 광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청소년참여 정책은 참여기구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물론 참여기구도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참여 기회가 소수의 청소년에게만 허락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청소년참여가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본다면, 참여의 기회가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사회 참여 모형은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기회를 갖도록 개방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2) 청소년참여의 영향력 확보: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참여로

청소년참여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여주기식’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현실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참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현실의 변화를 도출하는 것이 청소년 참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소년들의 참여는 이 같은 실질적 영향력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 또는 사업들은 청소년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가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것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참여해도 소용이 없다’는 광범한 인식이, ‘참여를 하니깐 달라진다’는 확신으로 바뀔 때, 청소년참여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질적 참여를 지향할 것을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3) 청소년참여의 일상화 : 체험성 참여에서 일상적 참여로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사회 참여 모형은 ‘청소년참여의 일상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특별한 계기로, 가끔, 마치 체험하듯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언제든지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과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춤으로써,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모형 개발의 원칙

(1) 청소년 주도성

참여의 개방성, 참여의 실효성, 참여의 일상성을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방향을 토대로, 다섯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가운데 제1의 원칙이 ‘청소년이 주도성’을 보장하는 참여모형 개발이다. 여기에서 청소년 주도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지역사회 참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부터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창욱·전명기(2013: 9)는 참여는 타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보다는 청소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능동성’의 개념이 청소년참여를 구성하는 3대 핵심 개념의 하나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형을 구상하였다.

둘째,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 운영 전반을 청소년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참여 정책 또는 사업은 대부분 청소년이 이미 짜여진 틀과 프로그램에 객체화된 참가자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운영 방식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이에 새롭게 개발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에서는 청소년 주도성을 모형 개발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청소년 주도성을 보장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참여 활동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고, 그것이 현실에 반영되어, 실제 변화를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그 시발점이 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운영 원리로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참여’ 방법을 채택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프로젝트 기반 참여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단순 건의나 민원 제기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참여활동을 일컫는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주호·김태완·백혜리(2016: 19)에 따르면, “실제 문제나 과제(real issues/tasks)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중심(student centered)이 되어 협동적인 작업(collaboration/teamwork)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의 구체적 특성 중 하나로 ‘전통적인 학습공간을 넘어서서 실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실제 문제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학생의 생각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것이다(이주호·김태완·백혜리, 2016: 20).

이 같은 프로젝트 학습의 기본 개념과 특성은 지역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활동을 '지역사회 참여'로 규정하는 본 연구의 개념과 상당 부분 교집합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실천성과 실효성을 지향하는 본 연구의 참여활동을 '프로젝트 기반' 참여로 명명하고, 이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로 상정하였다.

(3)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모형의 개발

셋째, 모형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급적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汎用)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학교, 청소년시설, 민간단체/시민단체, 기타 지역사회 기관 등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아울러 기존 참여정책과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4) 공공정책과 일반 제안을 포괄하는 사회 참여 개념 적용

넷째,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비공공부문의 일반 제안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 참여의 개념을 적용하여, 폭넓게 적용 가능한 광범위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참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김영인(2007)은 청소년참여의 대상을 공적영역, 즉 정책참여에 집중하여 제시한 바 있다. 제Ⅲ장에서 검토한 미국의 프로젝트 시티즌 사례에서도 활동의 대상을 공공정책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고(홍정희, 2016: 14), 정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변화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 일련의 활동들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규정하고, 비공공부문의 활동이나 참여도 지역사회 참여의 범주에 포섭하고자 하였다.

(5) 단계별 적용이 가능한 모형 개발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 개발의 원칙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적용이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모형의 적용 환경과 여건, 참여의 수준을

고려해 선택적 운영이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모형은 교실 수업 장면, 혹은 청소년들끼리 구성된 개별 동아리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장한 모형은 의사결정 구조나 대안의 현실화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VI-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과 원칙

2. 모형 도출의 구체적 근거

앞 절에서 설명한 모형 개발의 방향과 원칙은 본 연구의 제II장~제V장까지 진행된 선행연구 검토, 법령 및 정책 분석,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모형 개발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모형 구성 요소 도출의 구체적 근거는 <표 VI-1>과 같다.

표 VI-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도출의 구체적 근거

	주요 연구결과 및 모형 도출의 근거	모형 반영 사항
선행 연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공적 영역, 정책 영역에 한정할 경우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의 범위/대상을 공공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적 참여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동안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는 각종 위원회 참여, 정책모니터단 참여 등의 형태로 발현되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참여의 방법으로서 위원회 등 선발을 전제로 한 참여보다는, 다수의 일반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청소년 주도성, 청소년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적인 사전 교육, 적절한 관리와 지원, 인정과 보상의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주도성 및 청소년과 성인 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의사결정 공유를 모형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도출 • 활동의 취지, 목적과 의의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 실시 • 활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 기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를 위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형 개발 - 학교 교육과 연계한 참여, 온라인 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기관 간 유기적 연계의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모형 개발의 기본 관점으로, 참여 기회 확대를 제시하고, '제한된 소수'의 참여가 아닌, '일반적 다수'를 위한 참여 모형 개발 •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모형 도출
법령 및 정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가운데 참여 정책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대부분 참여기구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기구에 편중된 참여정책을 다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 제시 • 지자체 및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참여 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청소년정책시행계획 분석 결과, 청소년 참여 정책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새로 개발되는 참여모형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모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에서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다수 청소년들에게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제로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참여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는 청소년을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이 작동하기 위한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로 조례 제정 확산 및 '경기꿈의학교' 사례처럼 지역사회와 교육청 등 교육부문 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 제언

	주요 연구결과 및 모형 도출의 근거	모형 반영 사항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활동의 단위로 개인이 아니라 팀(모둠)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활동 과정에서 타인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제고, 의견 조율 경험을 위해 팀 단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활동의 기본 단위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모형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나 워크숍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사전교육을 모형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참여활동의 경우, 대체로 4 단계 또는 5단계 절차를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발견 → 해결 방법 조사 → 대안 제시 → 실천 → 공유 등의 단계에서 일부 과정을 가감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문제에 영향력 행사를 위한 대부분의 모형이 따르는 절차를 준용하여, 프로젝트 기반 지역 사회 참여(Project-Based Community Participation) 모형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을 주도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당, 자치기구 대표자 회의, 핵심 집단(core group)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활동의 의사결정 구조로서, 각각의 팀(또는 하위 자치모임)을 대표하는 대표회의체를 둘 것을 모형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정부,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정책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엑스포, 담당공무원과 함께하는 추진 계획 수립, 공문으로 제안 내용 접수 및 공문으로 회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형 참여 모형에 지자체 및 정부 담당자들과 정책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반드시 정부 담당자들은 반드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형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란드 헬싱키시 루띠 시스템의 경우,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비롯해 참여 활동에 대한 착수부터 모두 청소년이 결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주최측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해야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한 반면, 루띠 시스템은 언제든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수준에서 이 같은 모델을 운영할 것을 제안 내용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 일상적, 상시적 참여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견인할 참여사업으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프로젝트 시티즌 사업의 경우, 체계적인 사업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시민교육센터가 사업을 전담하며, 주(州)별로 담당 코디네이터 및 지역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담당 부서에서 사업 확대 필요 → 참여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사업 및 재정지원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프로젝트 시티즌 사업의 경우, level별로 학생용 워크북 및 교사용 안내서가 별도로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모형 개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교사, 청소년지도자, 활동가 등)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워크숍 등을 모형 작동을 위한 정책제언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 및 자치권 보장을 위해 법령상의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의 선언적 규정과 하위법령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모형 작동을 위한 정책제언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의 확산(incubating)을 위한 체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등 교육과 가이드북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에서 교재 및 안내서 발간, 교육·연수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형 작동을 위한 정책제언에 포함 	
실태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은 대부분 참여기구에 집중됨. 그러나 앞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내용에 대한 조사에는 참여기구 외 여타 활동(예: 청소년이 주도하여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마을 축제나 행사 등)이 더 높게 도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구에 편중된 청소년참여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참여하는 것을 요체로 삼는 참여 모형 개발

	주요 연구결과 및 모형 도출의 근거	모형 반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참여의 가장 주된 장애물은 참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임 • 현장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 비율이 여타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심층분석 결과, 참여 동기가 내재적인 경우, 사전교육이 잘 이루어진 경우, 청소년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가 갖추어진 경우,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 참여 형 개발 • 학교 교육과 연계한 참여 모형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curriculum)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경험하도록 모형 설계 • 참여활동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을 모형 작동을 위한 정책제언에 포함 •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참여 동기의 내재화 • 청소년주도 의사결정구조를 모형 설계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 설정 • 적절한 사전교육을 모형의 구성 요소로 포함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전문가 면담/ FG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 전반에 걸쳐 청소년 주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참여활동을 할 주제(예: 해결방안을 모색할 지역사회 문제 등)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내용으로 결정해야 함 • 학교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 (지역사회) 참여 내용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협력이 필요함 • 학교에서 지역사회 참여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사들의 인식 개선을 비롯해, 교사들이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 지원이 필요함 • 학교 외 청소년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 청소년들에게 인정과 보상이 필요함(봉사활동 시간 인정, 생활기록부 기재 등) •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청년활동가들의 양성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주도성을 모형 개발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모형 전반에 청소년 주도성이 반영되도록 함 • 의사결정구조에 청소년 주도성이 반영되도록 모형 설계 • 학교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세부모형으로 개발하여 제시함 •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참여가 보다 강조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형 작동을 위한 정책제언에 포함 • 각종 교사 연수에서 (지역사회) 참여 문제를 다루고, 수업 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인식 개선을 견인함 • 교재, 워크북 등 수업자료 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정책제언에 포함 •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형 작동을 위한 정책제언에 포함 •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어 활동가로 돌아와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모형을, 모형의 확산 방안으로 제시함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도출

앞서 제시한 모형 설계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들로부터 도출된 모형 개발의 구체적 근거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그림 VI-2]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로 모형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본 모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듈(module)에 해당하는 '□□ 프로젝트 기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시설을 비롯해 학교, 시민단체, 지자체, 기타 지역사회 시설은 물론, 이러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들도 지역사회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툴(tool)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처럼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참여의 툴(tool)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참여 활동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확인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했는데, 이때 다수의 청소년이 함께하는 참여 활동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참여활동의 일련의 과정을 청소년이 주도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모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의사결정 구조 모형은 개별 팀이 아니라, 청소년시설 혹은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참여활동을 하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존재할 때, 이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기구를 나타낸다. 이러한 청소년 자치기구에서 참여활동에 관한 주된 의사결정을 하고, 성인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이들이 청소년 참여활동 전반을 주도하는 모형은 이론적으로는 Hart(1997)의 참여의 사다리에서 가장 상위 단계인 '8단계: 아동 주도로 성인과 공유하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Delgado & Staples(2008)가 제시한 모형에서는 청소년주도성이 가장 강한 '모형4: 청소년주도 성인지원형'에 해당한다. 또한 천정웅(2011)이 제안한 '청소년참여 유형화의 대안 모델: 참여 수준-형태별 연속체'와 관련해서는 발언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청소년에 의한 결정과 실행(완전한 참여)'단계에 해당하며, 성인과의 협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청소년주도 성인지원' 유형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청소년들의 참여결과가 단지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반영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참여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담보하는 '②대안 현실화'단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대안을 현실화 하는 장치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장치들은 '청소년참여 세미나', '청소년참여 박람회', '청소년참여 온라인 플랫폼' 등이 상정되었다. 이 가운데 '청소년참여세미나'는 청소년들이 이전 단계에서 프로젝트 기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도출한 대안의 정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실무자들과 함께 대안의 추진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는 데 주된 기능이 있다. 또한 '청소년참여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정책담당자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참여활동의 결과를 알리고 공유하는 장(場)을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는 청소년들의 참여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어 현실 변화를 견인하는 '③변화의 도출'단계이다. 현실에 반영된 대안들은 정책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고, 공공정책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직접 실행하거나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긍정적 경험은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으로 이어지고, 재참여 의사를 제고함으로써 연속적인 참여 활동으로 이어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참여활동 전반을 청소년이 주도하고 이끌어간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성인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모형의 기저에는 '④성인들의 적절한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인들은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시설의 지도자, 학교의 교사, 시민단체의 활동가, 혹은 청소년참여를 지원하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주체를 포괄한다. 이 모형에서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하거나 조직화 하는 등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서투르거나 잘 모르는 부분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혹은 촉진자(facilitator)로 기능한다.

상술한 내용이 [그림 VI-2]에 제시된 모형에 집약되어 있다.

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상세화 및 운영 방안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각 요소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프로젝트 기반 지역사회 참여 활동 및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 구조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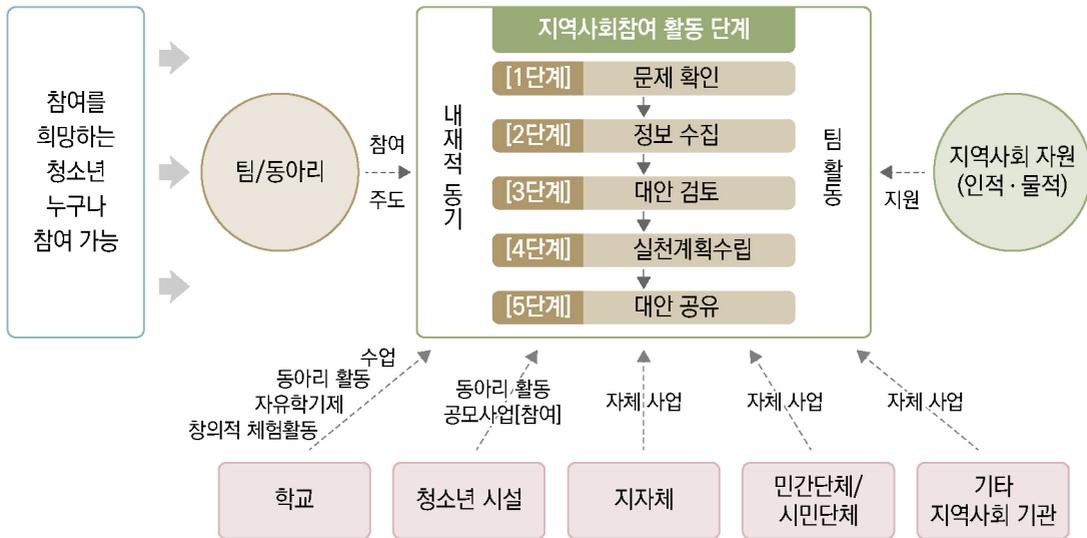
(1)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참여 활동 운영 방안

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기본 모듈(Basic Module) : 프로젝트 기반 지역사회 참여 활동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참여 모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듈은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참여활동’이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추진되는 대안의 현실화 과정(청소년참여 세미나, 청소년참여 박람회, 청소년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유)을 거치게 되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 참여 활동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기본 모듈로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해결할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보는 과정이 청소년참여의 본질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참여는 단순히 개인적 불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는 이러한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 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둘째, 프로젝트 기반 참여 활동의 방법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성인들이 조직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과 같은 청소년참여는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같은 모형을 채택하였다.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참여는 학교, 청소년시설, 지자체, 민간단체/시민단체, 기타 지역사회 기관에서 모두 적용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교과의 특성 상 사회과 교과에 우선 적용해볼 수 있다. 본 연구 보고서 제Ⅳ장에서 검토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에 적용된 ‘학교안전지도 만들기’ 사례나, 고등학교

‘지역 이해’ 교과에서 실시된 지역사회 선사유적지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활동도 여기에 속한다. 한편 교내 자율동아리활동, 방과 후 동아리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의 커리큘럼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참여부문 공모사업인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민간단체/시민단체, 복지관 등 기타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청소년 사업의 일환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모형이다.



【그림 VI-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모형의 상세화: (1)프로젝트 기반 참여활동 모형

② 참여의 단위 : 팀(모둠, 동아리) 단위 참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상정하였다. 사회참여는 물론 개인수준에서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참여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면, 다른 동료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동료들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논의하며,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③ 프로젝트 기반 참여활동 운영의 5단계

프로젝트 기반 참여활동은 기본적으로 5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제시된 절차는 본 연구보고서 제Ⅲ장에서 검토한 미국의 프로젝트 시티즌 사업의 5단계 운영 절차를 기본으로 하되, 마지막 단계에 일부 변형을 가한 것이다. 다만, 기관에서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 기반 사회참여의 운영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VI-2 프로젝트 기반 지역사회 참여활동 단계별 운영 방안

단계	주요 내용	비고
(0단계)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참여는 청소년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소개 • 참여활동의 취지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 강연,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실제 지역사회 활동가 등과 청소년이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제공 	기관에서 여러 팀을 운영할 경우 오리엔테이션 운영
(1단계) 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나 지역사회 문제점 생각해보기 • 이 가운데 대안이 필요한 문제 확인하기 (공공정책 또는 민간부문의 개선을 포함함) • 문제의 원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 찾기 	-
(2단계) 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평가 •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문헌자료 및 인터넷자료 검색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조사 방법 활용 	-
(3단계) 대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와 관련된 현행 정책이나 대응 방안 조사하기 • 그 밖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하는 대응 방안 조사하기 • 제시된 대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여 최적의 대안 도출 	-
(4단계) 실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할 대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 세워보기 • 다양한 실천 방법을 통해 직접 만든 대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해보기 	-
(5단계) 대안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그간의 활동 내용을 발표회 등을 통해 공유하기 • 스토리텔링 등의 방법 적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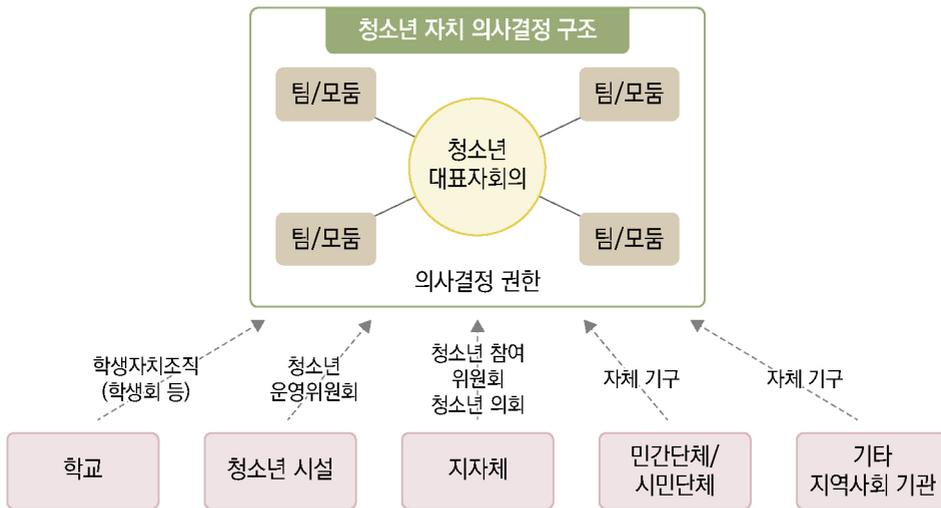
자료: 미국 시민교육센터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시티즌」 5단계 운영 방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추진 「청소년 사회참여」 방법 4단계, 유쓰망고(Youth Mango)가 추진하는 「유스벤처」 사업의 4단계 운영 절차를 검토하여 연구진이 작성

(2) 청소년 자치 의사결정 구조 운영 방안

다음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 전반을 청소년이 주도하고, 주요 의사결정이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모형으로 청소년 자치조직을 제안하였다. 그 구체적 설명과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 범위

이 모형은 학교, 청소년시설, 지자체, 민간단체/시민단체, 기타 지역사회 기관 등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맥락에 적용될 수 있다. 기본적인 구성은 참여활동을 하는 여러 팀(모둠, 동아리)이 있고, 이들을 대표하는 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제III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 가운데 핀란드 헬싱키시의 루띠 시스템, 금천구 청소년의회, 군산 달그락달그락 사례에 채택되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림 VI-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모형의 상세화: (2) 청소년 자치 의사결정 구조

② 청소년 자치조직 구조

청소년 자치조직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는 다양한 팀(모둠, 동아리)과, 이들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대표자회의로 구성된다. 대표자회의는 청소년들이 실시하는 선거를 통해 구성한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참여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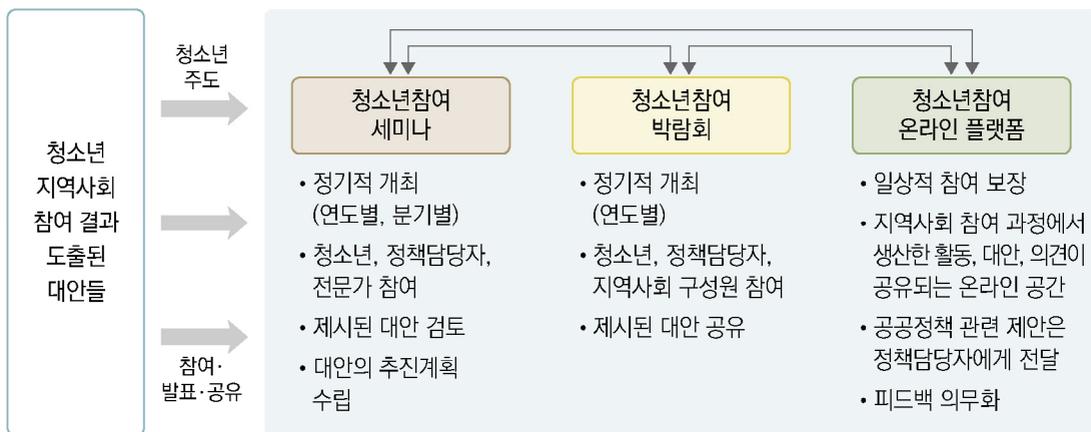
을 하고, 필요한 경우 성인 지도자(예: 청소년지도자, 교사, 활동가 등)들과 논의한다. 또한 각각의 활동팀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모아서 “제5단계: 대안 공유”에서 진행되는 발표회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 단계인 ‘대안 현실화’ 단계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참여세미나, 청소년참여박람회에서 논의할 대표 이슈들을 선정하고, 행사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또한 제시되는 대안들이 실제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자치조직의 체계적 운영

자치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청소년들로 구성되는 자치조직이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표자회의 모임이 월1회 이상 개최되도록 정례화하고(회의 개최일은 구성원들이 정함), 회의를 개최할 때는 각 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안건을 상정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구성원들과 회의결과를 공유하는 등 일련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2) 대안 현실화 장치의 운영 방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참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참여가 실제 현실의 변화를 견인하도록, 청소년참여활동의 결과 도출되는 대안의 현실화를 지원하는 장치를 모형의 구성 요소로 배치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참여 세미나, 청소년참여 박람회, 청소년참여 온라인 플랫폼 등이 해당된다.



【그림 VI-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모형의 상세화: (3)대안 현실화 장치

(1) 대안 추진계획(action plan) 수립을 위한 세미나 : 청소년참여 세미나

청소년참여 세미나는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대안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의미한다. 이것은 핀란드 루띠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정책세미나인 ‘빠따야미띠’를 원형(原型)으로 삼는다. 또,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례 중에는 군산 ‘달그락달그락’에서 매년 운영 중인 청소년사회참여포럼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1년간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결과를 집약하여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소년, 정책담당자(실무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하도록 한다. 이 자리에서는 참가자들이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고, 추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세운다. 아울러 이 같은 세미나도 청소년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대안 발표 및 공유의 장 : 청소년참여 박람회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대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청소년참여 박람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참여 박람회는 청소년들의 활동 내용을 한 데 모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場)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개최하는 ‘몽실학교 정책마켓’,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개최하는 ‘루띠 박람회’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람회에는 청소년, 정책결정권자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팀별 혹은 기관별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공유한다. 박람회 프로그램은 강연, 토론, 세미나, 워크숍,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박람회 역시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3) 청소년참여 온라인 플랫폼

일반적인 다수의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청소년참여 온라인 플랫폼은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생산해내는 활동, 아이디어, 정책대안, 의견들이 공유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공공정책에 관한 코너를 별도로 구축해서, 공공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정책담당자들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담당자의 피드백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는 아니지만,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 조례에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참여의견 전달 및 피드백 보장 규정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 변화의 도출

① 실질적인 영향력의 행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변화의 도출'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참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모형화 하였다. 대안의 현실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어진 대안들이 공공부문 혹은 지역사회 전반에 반영될 경우, 정책 변화와 지역사회 변화를 통해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참여활동의 경험과 이 같은 긍정적인 성과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시민적 자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긍정적 경험을 통한 지속적 참여의 선순환 구조 확립

여기에서 제시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참여 활동은 그 자체로 중요한 홍보수단이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청소년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변화가 야기되면 청소년 참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서는 긍정적인 참여활동의 성과가 피드백 되어, 지역사회에는 청소년참여를 지원하는 인적·물적 자원이 확대되고, 참여하는 청소년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모형의 구성 요소로 반영하였다.

4) 성인 지도자의 역할

지금까지 설명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인 지도자,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지도자는 학교 교사, 청소년시설의 지도자, 민간단체/시민단체의 활동가, 그리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형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차별화되는 청소년참여, 청소년자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주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기존의 참여 활동처럼 지도자들이 참여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조직화하여 운영하고 청소년들은 그 안에 객체로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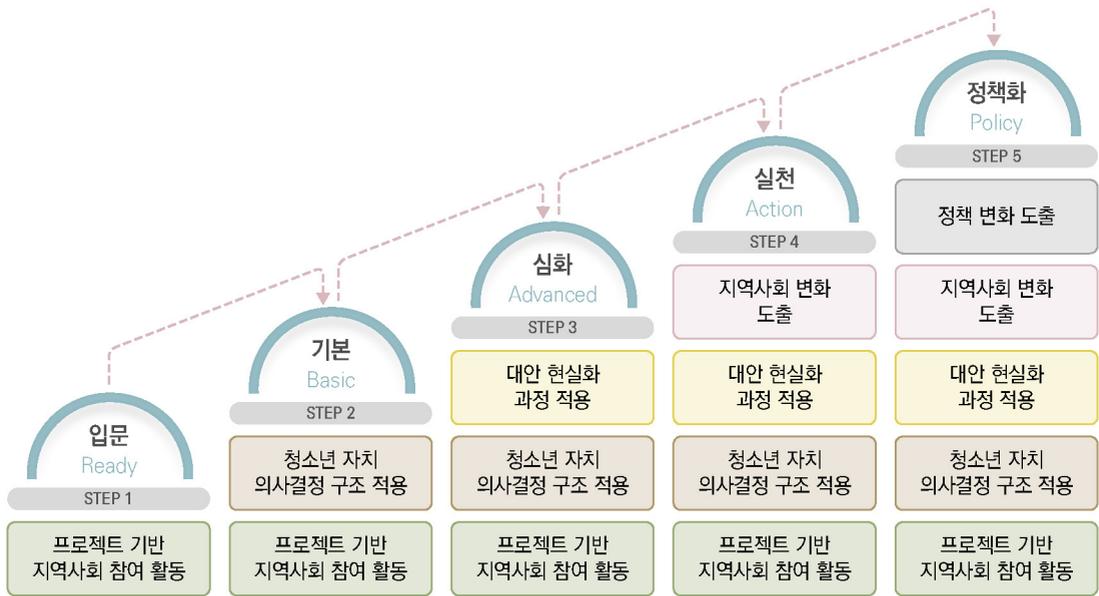
5) 참여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운영 방안

여기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은 적용 환경과 여건, 참여의 수준을 고려해 3가지 단계로 운영할 수 있다. 먼저 ①입문형은 기본 모듈인 ‘프로젝트 기반 참여 활동’만 적용해보는 단계이다. 학교에서 교과와 연계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청소년시설이나 민간단체/시민단체, 기타 지역사회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자치조직을 구성하지는 않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의 형태로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②심화형은 입문형에 청소년 자치조직이 첨가된 형태이다. 입문형에서 설명한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똑같이 이루어지되,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별도의 자치조직을 운영하는 형태가 ‘심화형’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단지 수업에서 교사의 주도에 의해 5단계 참여활동을 경험해보거나, 동아리활동으로 참여활동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활동의 기획·운영에 관한 전반적 의사결정을 청소년들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군산 ‘달그락달그락’ 사례에서 각각의 동아리(자치기구)를 대표하는 청소년 대표자 회의, 핀란드 루띠 시스템에서 ‘핵심 집단(core group)’을 통해 참여 활동 전반이 조율되는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③실천형은 심화형 모형에 정책 현실화 과정이 추가된 형태를 일컫는다. 정책현실화를 위해 청소년들과 실무자·정책입안자들이 함께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청소년참여세미나,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청소년참여 박람회, 그리고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 온라인 플랫폼 등이 함께 운영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책이 실제 현실에 반영되는 데까지 참여의 범위가 확장된 유형이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사례 중에서 군산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참여포럼(‘청소년지역여행기’)을 통해 군산시에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의견이 전달되는 사례, 또는 루띠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내용이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어 정책화 되는 과정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입문형, 심화형, 실천형 모형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운영하는 기관의 종류, 운영 여건, 그리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참여활동 경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적용 가능하다.



【그림 VI-6】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단계별 운영 방안

제 VII 장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의 개요
2. 정책과제

제 VII 장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제언의 개요

앞 장(章)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앞서 제시한 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은 제II장에서 살펴본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 제III장에서 검토한 지역사회 참여 모형 운영을 위한 정책 환경 분석 결과, 제IV장에서 실시한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결과, 제V장에서 실시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실태조사 및 제VI장에서 개발한 모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회의와 FGI, 유관 부처와의 정책협의회 내용도 함께 반영하였다.

한편, 이 같은 정책제언 도출에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참여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접근가능성 확대, 청소년참여의 실효성 보장, 청소년참여의 일상화 등 3대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앞서 모형 개발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과 관련하여 ①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강화, ②기존 정책의 수정·보완을 통한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 전환, ③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④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실질적 영향력 강화, ⑤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5개 영역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에 대해 10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10개 추진과제에 대해 2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과제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의 구조도가 [그림 VII-1]에 제시되어 있다.

*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그림 Ⅶ-1】 정책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구조도

2. 정책과제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강화

1) 제언 배경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작동할 정책 환경 진단을 위해 실시한 기존 법령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총론 측면에서 보면 현행 법령에는 청소년참여의 당위성, 정부가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참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각론 측면에서는 기존 법령에 명시된 청소년참여에 관한 내용이 참여기구 관련 규정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참여기구 관련 규정도 일관되지 않아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각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청소년 참여의 저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먼저 청소년 참여제도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명확한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소 피상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실제로 청소년 정책의 입안·실행·평가 등 정책 추진의 제반 과정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청소년참여 정책이 제한된 소수에서 일반적 다수를 대상으로 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참여는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권리와 의무이며, 따라서 참여의 기회가 소수의 청소년에게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령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기회를 가져야 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 분석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한된 범위에서만 주목할 만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군산시가 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로서,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등 참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정책 방향

상술한 제언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참여기회가 소수의 선발된 청소년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다수의 청소년이 보다 쉽게 참여하도록 문호를 넓히는 ‘개방된’ 접근으로 청소년 참여정책이 기본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적 근거의 정비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상위법률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그리고 법정계획 반영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세부 과제

(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추진 과제	(1)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세부 과제	1-(1)-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사회참여 활동 관련 내용 반영 1-(1)-②.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1-(1)-③. 청소년 참여정책의 법적 근거 정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 1-(1)-④.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개정 1-(1)-⑤.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확산

1-(1)-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사회참여 관련 내용 반영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검토해 볼 방안은 청소년활동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4705호] 제2조(정의)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4년 전문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이후 상당 기간의 시간이 흘러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만18세 선거권 부여 등 청소년의

참여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데, 여기 제시된 청소년활동에는 청소년참여활동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활동의 하나로 “청소년사회참여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표 VII-1> 참조).

표 VII-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의 정의 2. “청소년활동시설”의 정의 3.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 4. “청소년교류활동”의 정의 5. “청소년문화활동”의 정의 6. “청소년수련거리”의 정의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청소년사회참여활동”이란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활동을 말한다. 7. <현행 6조와 동일> 8. <현행 7조와 동일> 9. <현행 8조와 동일>

1-(1)-[2].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다음으로, 교육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되고,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분야 법령 가운데 「인성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규정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일컫는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 참조, 법률 제14396호). 그리고 동조 제2호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10)를 일컫는 청소년 사회참여는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조항에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의 하나로 “공동체 참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I-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4.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개정>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공동체 참여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4. <생략>

1-(1)-③. 청소년 참여정책의 법적 근거 정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정책인 청소년참여기구의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제한된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참여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청소년참여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청소년참여기구 가운데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운영위원회와는 달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로 인해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지자체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여부 및 운영의 질적 수준, 투입 예산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기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86)이 제안되어 있다.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제안하였다(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18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면서, 그간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제한적·피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청소년참여위

위원회가 실제로 실효성을 갖는 정책으로 개선되도록 정책의 형성·집행·평가의 제반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I-3 청소년 참여정책 법적근거 정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③ <생략> ④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에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u> ⑤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⑥ <신설> 제3항에 따른 <u>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1)-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제·개정

각 시·도교육청이 제정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에 지역사회 참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에 지역사회 참여 관련 내용을 담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 중인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2017년 10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교육청으로 확인된다. 이들 교육청의 조례는 내용의 거의 동일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2016.7.19.개정, 경기도조례 제5266호]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해당 조례에 보면, 제5조(교육의 내용)에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사회참여는 민주시민의 핵심 자질로 볼 수 있다. 이에 제5조 제4호에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을 추구하는 안을 제시하였다(<표 VII-4> 참조).

한편, 상술한 5개 교육청을 제외한 12개 교육청의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 교육청의 경우에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표 VII-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5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p>제5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u>〈신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참여의 절차와 참여 방식</u> 5.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출처: 좌측에 제시된 현행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교육청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05266,20160719\)](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교육청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05266,20160719))에서 2017.10.16.인출.

1-(1)-[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확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가운데 전라북도 군산시가 제정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핵심 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특히 이 조례는 조례의 제정 과정에도 청소년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조례의 내용도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등 참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다. 이에 군산시 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사회참여 권리 보장, 혹은 청소년 자치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전라북도 군산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청소년 자치권”이란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산시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군산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생략>

제6조(청소년의 참여)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모바일 앱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 정책, 사업, 예산 등이 알기 쉽게 홍보한다.

③ 모바일 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9조. <생략>

출처: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371호] [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에서 2017.09.19.인출.

타 지역에서 군산시 조례를 벤치마킹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조례내용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과, 청소년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고자 노력한 점이다. 군산시 조례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위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참여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할 때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본계획(2013-2017)」(관계부처합동, 2012)에는 청소년참여에 관한 세부과제가 총 4개 개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1-1.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2-1-2.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2-1-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2-1-4. 참여예산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도록 온라인 자치 포털 사이트(가칭 청소년의 목소리)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그 외에는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참여기구 중심 사업이 주종을 이룬다. 청소년참여 정책을 규율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에 지역사회 참여, 다수(多數)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보니, 시행계획에도 관련 사업이 거의 편성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청소년 참여의 주요 정책과제로,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중점과제의 하나로 '모든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을 포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과제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활성화', '학교와 연계한 참여 활동 확대'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1-(2)-[2]. 인성교육기본계획(2016-2020)에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내용 반영

다음으로, 교육 현장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교육활동이 보다 확대되도록, 법정 정책계획 가운데 '인성교육기본계획'에 청소년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인성교육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성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인성교육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적용 중인 '인성교육기본계획(2016-2020)'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내용으로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과 연동하여, 기본계획에서도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참여 교육 활성화"를 인성교육기본계획의 세부과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I-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기본계획(2016~2020) 개정안

현행	개정안
2. 학생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2-1. <생략> 2-2. <생략> 2-3. 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테마별교육 활성화 2-3-1. 체육교육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성 함양 2-3-2. 예술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감성 및 정서함양 2-3-3. 인문소양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2-3-4.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연환경체험 교육 활성화	2. 학생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2-1. <생략> 2-2. <생략> 2-3. 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테마별교육 활성화 2-3-1. 체육교육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성 함양 2-3-2. 예술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감성 및 정서함양 2-3-3. 인문소양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2-3-4.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연환경체험 교육 활성화 2-3-5. <신설>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참여 교육 활성화

출처: 좌측에 제시된 내용은 교육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2016.1.19),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2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을 통한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 전환

1) 제언 배경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그간 추진된 청소년참여 정책은 지나치게 참여기구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향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정책 환경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새로 발굴되는 정책 사업들은 참여기구 중심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참여가 실제 변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정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정책의 패러다임을 '소수의 제한된 참여'에서 '다수의 일반적 참여'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2) 정책 방향

기존에 추진되던 청소년참여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사업인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법이다. 정책추진의 수단으로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해 현장에 일정 부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참여기구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운영 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참여기구가 내포하는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이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세부 과제

(1)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운영 개선

추진 과제	(1)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운영 개선
세부 과제	2-(1)-①.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2-(1)-②.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확대 운영 방안

2-(1)-①.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중 참여부문 선정·지원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참여 사업 가운데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이 아닌 다수의 청소년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해당 사업이 확대·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업을 내실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안한다.

<표 VII-6>에는 2017년 추진된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공모사업에서는 2017.6월~7월에 걸쳐 컨설팅이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은 활동·보호 분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참여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여성가족부 정책연구실무협의회, 2017.06.13.). 활동 및 보호 분야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데 참여 분야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분야 공모사업의 운영의 질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컨설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컨설팅은 2~3인이 1조를 구성하여 하되, 관련 분야 학식 있는 전문가 외에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청소년시설 관계자, 교사 등)가 함께 참여하여, 실무 위주의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참여사업의 기본 관점과 방향, 청소년 주도의 사업 운영, 청소년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구축 등에 관해 집중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VII-6 2017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일정

구분	일정
1차 워크숍 / 참여분야 설명회	2017.3.15.~3.23
사업비 교부(1차)	2017.4월
공모사업 운영	2017.4~11월
현장방문 / 컨설팅	2017.6~7월
사업비 교부(2차)	2017.10월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017.12.1.~12.7
우수 프로그램 평가	2017.12.11.~12.22

출처: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홈페이지. <http://www.wngonet.go.kr/ycon/hs/intro/intro/intro.do>에서 2017.09.29.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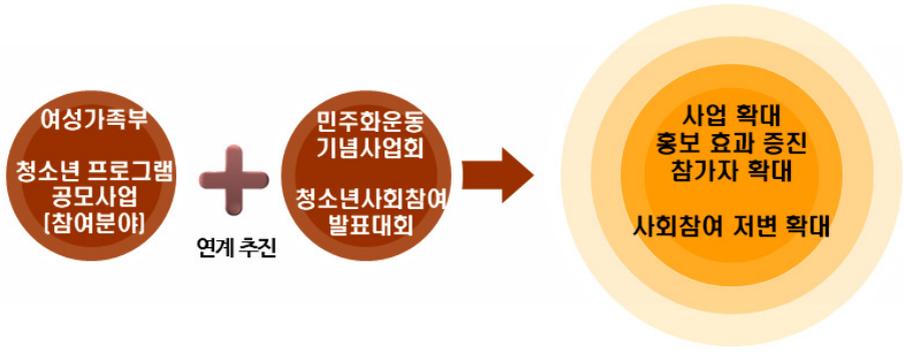
한편 사업 시작 전 이루어지는 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사업에 참가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는데, 이 사업은 담당자가 아닌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참가자 대상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적절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참여의 효과도 배가되고 지속적인 참여 가능성도 제고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분석에서도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실시하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서는 권역별로 참가자 대상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을 준용하여, 여성가족부 사업에서도 권역별로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전교육은 참여사업의 취지와 목적, 유의사항을 비롯해 사례 발표나 강연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2-(1)-②.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확대 운영 방안

다음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를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참여 정책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참여기구가 아닌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참여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의도와 취지는 좋지만,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이미 지나치게 정형화 되고 프로그램화(programmed)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은 앞서 제안한 컨설팅을 통해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 자체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년 사이에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사업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2015년에는 각각 70개 팀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나 2016~2017년에는 각각 50개 팀이 지원을 받았다(여성가족부, 2016c;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7.3.3. 참조). 이는 지원팀(수)을 기준으로, 이전 대비 약 1/4이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 확충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에 대해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3.2%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참여 사업에 관한 예산 확충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한편,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법인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와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가 정형화 된 4단계 틀을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엄격한 진행절차를 요구하고, 참여대상과 관련하여 공공정책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사업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사업 모두 청소년 생활주변의 지역사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보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후원 부처로 함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두 사업을 함께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현재 국회의장상으로 수여되는 시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 확대 및 홍보 효과는 물론, 청소년 사회참여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Ⅶ-3】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사업확대 전략 및 기대효과

(2) 정책사업 평가를 통한 현장의 변화 견인

추진 과제	(2) 정책사업 평가를 통한 현장의 변화 견인
세부 과제	2-(2)-①.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변화 사업 내용 반영 2-(2)-②.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청소년활동 및 참여' 부문 산정 기준 변경

2-(2)-①.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변화 사업 내용 반영

여기에서는 정책사업 평가를 통해 청소년참여 사업에 대한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변화 관련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되는 참여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이다.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2017.3.21.개정 법률 제14705호]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시설유형별 3년 주기 종합평가로 실시되어 왔다. 이후 2014년부터 법적 의무화 되어 현재는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는 2017년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 지표는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평가영역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에서 평가항목 '2.2 청소년 참여도', 평가지표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이 직접 관련성이 있다. 또한 그 밖에 평가영역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서도 '3.2.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일부 관련된다. 이러한 평가지표 구성은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평가지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참여 영역에서는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만 포함되어 있을 뿐, 여타 청소년 참여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으로만 반영될 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요컨대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은 청소년 참여활동이 얼마나 청소년 주도성을 확보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향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해당 수련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참여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또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지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지표 배점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5점)	2.1 청소년 이용	9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1	5
			2.1.2 수용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 시설이용률	5	0.8	4
	2.2 청소년참여도	6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5	0.6	3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	0.6	3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0점)	3.1 연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8	3.1.1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	5	0.8	4
			3.1.2 연간 프로그램 평가운영의 적절성	5	0.8	4
	3.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12	3.2.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수	5	0.8	4
			3.2.2 청소년활동 사업비 수준	5	0.8	4
			3.2.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5	0.8	4
합 계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5).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편람, 13쪽.
 주: 2017년 청소년문화의집 종합평가 지표와 2.2, 3.1, 3.2 지표는 지표내용 및 배점이 동일함.

2-(2)-[2]. 여성가족부 추진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청소년활동 및 참여' 부문 산정 기준 보완
 정부의 청소년참여 정책에 대한 관점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 기준에도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참고자료에는 "2017년 여성가족부 추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아래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결과를 산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한다. 여기 제시된 평가기준을 보면, 총 100점 만점에 단일 지표로는 '청소년활동 및 참여프로그램 참여율'이 3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청소년활동 및 참여프로그램 참여율'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산출식을 살펴보면, 참여프로그램에서 참여기구만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참여율은 전체 관내 청소년 수 대비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수 비율로 계산한다. 그리고 이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 참가자는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수와 참여기구(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청소년수로 계산한다. 즉, 청소년활동의 성과는 청소년동아리에 참여한 청소년 수로 측정하고, 참여프로그램의 성과는 참여기구에 등록된 청소년 숫자만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간의 참여정책이 철저히 참여기구에 집중되어 왔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일선 지자체 및 현장에서 참여기구 이외의 참여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따라서 이 같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참여기구 외에 다양한 참여 사업들을 발굴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 기회를 얻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 지자체 포상의 평가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참여프로그램 참여율을 산정할 때, 참여기구 청소년수와 기타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에 등록된 청소년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소 사소해보일지라도 이러한 지표의 변경은 현장 실무자들에게 참여기구 외 여타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다.

항목	지표	기준	배점
청소년보호 및 지원	① 청소년 유해환경 적발건수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적발유형별 가중치)×(유해업소수별 가중치)	20
	②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운영 활성화 노력도	CYS-Net 운영 활성화율 + CYS-Net 이용만족도	25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량평가)	$\frac{\text{연계 인원}}{\text{학교 중단 인원}} * 0.3 + \frac{\text{지원 인원}}{\text{학교 중단 인원}} * 0.7$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 까지 산정	20
청소년활동 및 참여	④ 청소년활동 및 참여프로그램 참여율	$\frac{\text{청소년 활동 및 참여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수}(=0.6A+0.4B)}{\text{시·군·구 내 청소년수}(=C)} \times 100$ A= 청소년동아리청소년수(명) B= 참여기구(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청소년수(명) C= 시·군·구내 청소년수(명)	30
정책기반 강화	⑤ 청소년담당 공무원 재직기간	2년 이상 : 5점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 4점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 3점	5

항목	지표	기준	배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6개월 미만 : 1점 ※ 담당 공무원이 두 명이상일 경우 평균 재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합계			100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내부문서(2017.7.28), 2017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평가기준.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2908235> 에서 2017.10.23.인출.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1) 제언 배경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지속하는 데 가장 큰 방해요인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청소년참여가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과 유리되어 왔음을 방증한다. 즉 ‘참여’를 하려면 무언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과정을 거쳐 참여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참여의 저변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초·중등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은 참여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위로 높게 도출된 바 있다. 상술한 결과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의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방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참여가 학교 교육과 연계되는 것이 주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정책 방향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Ⅲ장에서 실시한 사례 조사 결과와 초·중등교사 및 청소년시설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과의 FGI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 교육과의 연계 방안으로 먼저 정규 교육과정을 활용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교과 수업을 적용하는 방안과, 교과 수업 외 다양한 교육과정의 경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학교 교육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많은 교사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요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봉사활동 시간 인정이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3) 세부 과제

(1) 교육과정(curriculum)을 근거로 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추진 과제	(1) 교육과정(curriculum)을 근거로 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세부 과제	3-(1)-①. 학교 수업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활성화 3-(1)-②. 학교 수업 외 교육과정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3-(1)-①. 학교 수업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다수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수업을 활용해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법이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학교 수업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는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참여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소수의 제한된 참여'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참여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청소년에 의해 스스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시민으로서 청소년참여의 당위성 등에 대한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교과 수업을 통해 한 학기에 걸쳐 실시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수업모형(안)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수업모형(안)은 중간고사와 기말시험 기간을 제외한 10주차 운영을 전제로 하였으며, 제VI장에서 도출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팀(동아리) 단위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주말을 이용해 주말활동으로 진행하면 4주 동안 압축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표 VII-7 학교 수업에 적용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10주차 수업(안)

구성	역할	차시 주제
[전반부] Community Building, 문제 발견하기	오프닝	Step1. 나는 체인지메이커입니다
	내가 공감하는 문제 발견하기	Step2. 커뮤니티 내 문제점 발견하기
		Step3. 해결하고 싶은 진짜 문제점 찾기(팀별 활동)
	공감 캠페인 (문제 정의하기)	Step4. ‘모두에게 말하기’ 공감 캠페인 계획 짜기
외부 활동: 공감 캠페인 진행		
중 간 고 사		
[후반부] 솔루션 찾기, 실행하기, 공유하기	솔루션 찾기	Step5. 스스로 해결방안 생각해내기
		Step6. 지속 가능한 모델 찾기
	행동하기	Step7.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세우기
		Step8. 나만의 솔루션 실행에 대한 피드백&개선
	퍼뜨리기	Step9. 스피드 피치 & 우리 학교 공유회 계획하기
		Step10. 우리 학교 공유회 (최종발표회)

출처: 아쇼카한국(2017). 청소년 체인지메이커들의 모험을 위한 가이드북: 안내자용, 88쪽.

한편,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결과를 공유하는 마지막 단계의 공유회(최종발표회)에는 가급적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러한 수업 모형을 적용한 현장 교사는, 가능하면 오리엔테이션 단계에서부터 최종발표회에 이르기까지 참여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학부모의 참여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제공하도록 이끄는 데, 부모의 이러한 지지와 응원이 청소년들의 참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아쇼카한국, 2016: 66). 이러한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 방과후학교를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한편,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후학교 활동을 이용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도 가능하다.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할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방과후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있다. 일례로, 소셜벤처인 ‘어썸스쿨(Awesome-school)’은 방과후수업 ‘히어로 스쿨’을 운영하는데, ‘히어로 스쿨’은 청소년들이 세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해가는 경험을 통해 사진과 세상을 성장시키는 영웅(히어로)가 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된 방과 후 프로그램이다(한겨레 21, 2017.05.30). 어썸스쿨의 히어로스쿨은 총 20회로 진행되며, 1학기~2학기에 걸쳐 운영된다. 학생들은 1학기에는 나의 관심사나 욕구를 확인하고, 2학기에는 팀을 구성하여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해 직접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의 주체는 교사나 방과후학교 강사가 아니라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성찰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나가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한겨레 21, 2017.05.30). 실제로 이러한 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생태숲인 ‘꽃자왈’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제주 신성여고 학생들은 캔들을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꽃자왈 에코증권을 매입하는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한겨레 21, 2017.05.30). 이러한 사례는 방과후학교도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를 활용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지역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로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II-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VII-4】 학교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의 다양한 경로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부문의 제도적 지원

추진 과제	(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부문 제도적 지원
세부 과제	3-(2)-①.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3-(2)-②.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정 및 보상

3-(2)-①.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학교에서 교과 수업에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접목해 본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수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려면 교수·학습 자료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현장 교사 FGI결과, 2017.08.29).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수·학습자료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사 대상 FGI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이해’교과를 활용해 지역사회 참여 수업을 전개한 경험을 가진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지역사회 참여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교사들에게 교재는 물론 교사용지도서, 수업모형 등이 모두 지원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자료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업을 전개했을 때는 애로사항이 너무 크고, 교사 개인의 열의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현장교사 FGI결과, 2017.08.29).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비롯하여 청소년시설이나 지역사회 기관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현재 교육과정에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 전문교과인 ‘지역 이해’교과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이에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2)-②.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정 및 보상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활성화 하려면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적절한 인정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전체 응답자의 30.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시된 9개의 선택지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분명하게 감지되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개방형으로 제시한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와의 연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특히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 관계자들에게서 많이 도출되었다. 실제로 동아리 형태로 문제해결 방식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경우, 청소년시설의 동아리활동으로 하는 것과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활동으로 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활동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추후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시설에서 하는 활동은 교외 활동으로서 생활기록부 등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참여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똑같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주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봉사활동시간 인정이나 생활기록부 등재 등 일종의 보상이 허용되지만, 청소년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팀을 구성해 학교 밖 배움터 만들기 활동을 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사업이라도 청소년시설에서 하는 사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참여 활동은 참가자 모집이나 유지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현장전문가 면담내용, 2017.9.8.).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적절한 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물론 사회참여는 그 자체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고 이루어지는 활동은 아니다. 유사 활동들 간의 형평성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교육 부문과 연계한 인정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위단계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간 업무협약이 필요하며, 하위 단계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사이의 조율이 필요하다.

1) 제언 배경

그간 진행된 청소년 참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 참여가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 청소년 참여는 주로 참여기구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의 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실제로 현실에서 무게감 있게 다루어지거나, 청소년이 의미 있는 정책 파트너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의회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일부 청소년의회는 실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하며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청소년의회 사업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체험해보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Ⅵ장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참여 모형 개발 과정에서도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를 모형이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으로 전제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핵심 구성요소로 '청소년들이 제시한 대안의 현실화'를 포함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들을 모형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가 요식행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참여'가 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정책 방향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여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참여의 다양한 대상 가운데 정책참여가 비교적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이 함께 대안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정책 추진 계획도 협의하여 수립하는 등 '과정(process)에 대한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 참여의 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공유의 장(場)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안(案)은,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사회참여시스템 루티(Ruuti)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준용한 것이다.

3) 세부 과제

(1) 청소년이 제안한 대안의 현실 반영 기제 강화

추진 과제	(1) 청소년이 제안한 대안의 현실 반영 기제 강화
세부 과제	4-(1)-①. 지자체별 청소년참여세미나 제도 운영 4-(1)-②. 지자체별 청소년참여박람회 운영

4-(1)-①. 지자체별 청소년참여세미나(가칭) 제도 운영

첫째, 지자체별로 청소년참여세미나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청소년참여세미나는 참여활동을 한 청소년, 정책결정권자,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세미나로, 주된 목적은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의 결과 도출한 대안들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상호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루미 시스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정책세미나인 ‘빠따야미띠(Päättäjämiiitti)’와 군산시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사회참여포럼 ‘청소년지역여행기’를 들 수 있다. 핀란드의 ‘빠따야미띠’는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데 비해, 군산시 ‘달그락달그락’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사라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단히 유사하다. 즉 청소년들이 지난 1년 간 참여활동을 통해 도출한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두 행사 모두 공무원이나 시의회의원 등 정책관계자가 함께 참석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참가자 구성은 청소년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이나 정책담당자들과 공유함으로써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형태의 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이러한 자리가 청소년참여가 실제 영향력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상호 토론이나 공유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무원 등 정책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요구된다.

4-(1)-②. 청소년참여박람회(가칭) 도입·운영

다음으로, 청소년참여박람회(가칭)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청소년참여박람회는 일년에 한 번 개최되는 청소년참여 축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청소년참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장(場)을 의미한다. 앞서 제안한 청소년참여세미나(가칭)가 대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청소년과 정책입안자, 공무원 등 담당자들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면, 청소년참여박람회(가칭)는 그보다는 광범위한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핀란드 헬싱키의 ‘루띠 박람회’,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몽실학교에서 2017년부터 개최하는 ‘몽실학교 정책마켓’, 그리고 서울 공릉동에서 개최되는 마을축제인 ‘꿈나르샤’가 있다.

청소년참여박람회(가칭)에서 청소년들은 그간의 참여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한다. 이 행사가 지역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이지만, 정책담당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자리로도 기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전에 박람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혹은 세미나에서 논의되어 추진이 결정된 정책들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세션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소년참여박람회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해 도입 초기에는 매년 5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 특별 세션 및 특별 부스로 지역사회 참여 세션과 부스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공유되도록 한다.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 참여 세션은 세미나형식으로 개최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을 통해 제안한 내용들을 실제 공무원들과 함께 실행가능성 및 정책화 가능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통합 일정표
SCHEDULE

구분	5월 25일(목)			5월 26일(금)			5월 27일(토)					
	엑스포	세미나실	그랜드	아워무대	컨퍼런스	세미나실	아워무대	컨퍼런스	세미나실	아워무대		
08:30~10:00												
10:00~11:00		⑤ 인턴 활동 중 심포지엄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시·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11:00~12:00		⑤ 청소년 활동 중 심포지엄		청년 멘토링	가족 특강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12:00~13:00												
13:00~14:00		⑥ 유행악기 시상식				경상북도 청소년 어울림 마당		경상북도 청소년 어울림 마당		충청남도 청소년 어울림 마당		
14:00~15:00	개막식											
15:00~16:00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16:00~17:00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17:00~18:00												
기 타 프로그램	로봇 로드쇼, 플라잉 보드쇼			로봇 로드쇼, 버블쇼			로봇 로드쇼, 버블쇼			로봇 로드쇼, 버블쇼		
상 설 프로그램	12개 기관(단체, 기업, 공공기관, 정부부처 등) 전시·체험 부스 상설 운영											
연 계 프로그램	현대자동차 미래자동차학교 성과 보고회(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1층 소극장)											

2017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일정표(현행)

통합 일정표
SCHEDULE

구분	5월 25일(목)			5월 26일(금)			5월 27일(토)					
	엑스포	세미나실	그랜드	아워무대	컨퍼런스	세미나실	아워무대	컨퍼런스	세미나실	아워무대		
08:30~10:00												
10:00~11:00		⑤ 인턴 활동 중 심포지엄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시·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11:00~12:00		⑤ 청소년 활동 중 심포지엄		청년 멘토링	가족 특강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⑤ 청소년 어울림 마당		
12:00~13:00												
13:00~14:00		⑥ 유행악기 시상식				경상북도 청소년 어울림 마당		경상북도 청소년 어울림 마당		충청남도 청소년 어울림 마당		
14:00~15:00	개막식											
15:00~16:00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16:00~17:00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⑥ 청소년 어울림 마당		
17:00~18:00												
기 타 프로그램	로봇 로드쇼, 플라잉 보드쇼			로봇 로드쇼, 버블쇼			로봇 로드쇼, 버블쇼			로봇 로드쇼, 버블쇼		
상 설 프로그램	12개 기관(단체, 기업, 공공기관, 정부부처 등) 전시·체험 부스 상설 운영											
연 계 프로그램	현대자동차 미래자동차학교 성과 보고회(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1층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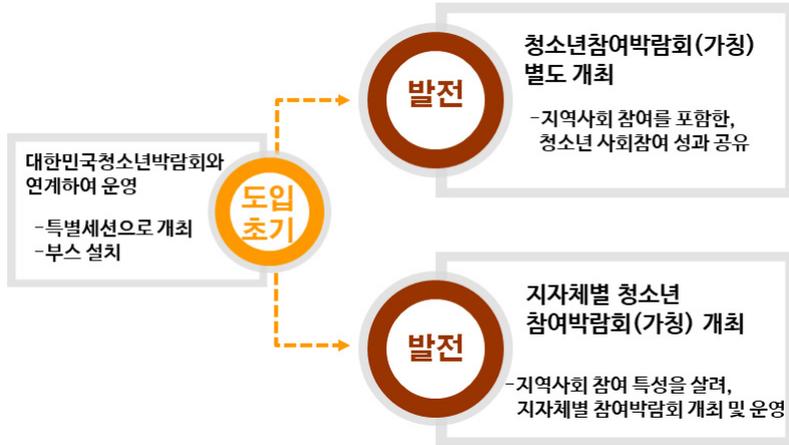
참여세션을 추가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일정표 (개선안)

제 VII 장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다중 프로그램 기반의 다중 정책 제언

출처: 좌측 현행표는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웹사이트, <http://www.koreayouthexpo.com/program/schedule.php>에서 2017.10.25.인출.

【그림 VII-5】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와 연계한 청소년참여박람회(특별세션) 개최(안)

초기에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의 하위 세션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지만, 청소년 참여의 저변이 확대되어 행사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추후에는 별도의 행사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보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그들의 생활세계를 주된 무대로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국 규모의 행사보다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VII-6】 청소년참여박람회(가칭) 도입 계획(안)

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1) 제언 배경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교사, 청소년지도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가 제공된다’는 응답 비율은 70.6%로 파악되었다. 이는 사업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해 본 조사에서 제시한 9개 문항 가운데 응답 비율이 낮은 하위 3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술한 결과는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참여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개방형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지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을 높이는 데는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담당 지도자의 역량과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일관되게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담당자/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방증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와 관련하여, 인적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역량 있는 활동가를 배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물적 인프라 강화의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해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정책 방향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및 교원 대상 연수 제공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활성화 되려면 청소년 참여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는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이에 청년활동가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청소년참여 활동의 성과와 기록을 공유하기 위한 툴(tool)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본 연구보고서 제Ⅶ장에서 제안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에서 대안의 현실화를 위한 장치로 포함된 요소로서, 청소년의 일상적·상시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 세부 과제

(1) 현장 전문가 대상 전문성 강화 지원

추진 과제	(1) 현장 전문가 대상 전문성 강화 지원
세부 과제	5-(1)-①. 청소년지도자 대상 연수 실시 5-(1)-②. 교원 대상 연수 실시

5-(1)-①. 청소년지도자 대상 연수 실시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그 특성 상 학교보다 지역사회 내 기관에서 보다 광범하게 실시되어 왔다. 최근 들어 18세 투표권 행사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수요는 점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청소년들이 광범하게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참여활

동에 대해서는 관련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표 VII-9>에는 2017년도에 개설된 청소년지도자 대상 전문연수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7년에 개설된 전문연수 과정 중에서 청소년참여와 직접 관련한 연수 내용은 '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자 과정' 1개이며,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접목한 활동지도 역량 향상 과정'까지 총 2개로 파악된다. 이처럼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 청소년 참여에 관한 연수는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룰 뿐, 여타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참여의 지면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참여기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청소년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여기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에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연수에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참여 정책 또는 사업의 기본 방향이 변화해야 함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절차, 주의 사항, 사례 공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VII-9 2017년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연간일정

장소	유형	차수	연수기간	연수명	시간	인원
중앙	정규	1차	2. 13. ~ 15.	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자 과정	17h	25명
중앙	정규	1차	2. 13. ~ 15.	청소년기관 신입지도자 역량 향상 과정	17h	25명
중앙	정규	2차	2. 15. ~ 17.	효과적인 홍보기획 과정	17h	25명
중앙	정규	3차	2. 20. ~ 24.	모듬북을 활용한 활동프로그램 지도 과정	40h	25명
중앙	정규	3차	2. 20. ~ 24.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회의진행스킬 향상 과정	40h	25명
중앙	정규	4차	3. 20. ~ 22.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실전 홍보 과정	17h	25명
중앙	정규	5차	4. 27. ~ 29.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과정	17h	20명
중앙	정규	5차	4. 27. ~ 29.	생활코딩을 활용한 창작활동 지도역량 향상 과정	17h	20명
중앙	정규	6차	6. 12. ~ 14.	사업기획서 작성을 위한 글쓰기 능력 향상 과정	17h	20명
중앙	정규	7차	6. 14. ~ 16.	스피치능력 향상과정(개별컨설팅)	17h	20명
중앙	정규	8차	7. 3. ~ 6.	진로활동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과정	25h	20명

장소	유형	차수	연수기간	연수명	시간	인원
중앙	정규	8차	7. 3. ~ 6.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접목한 활동지도 역량 향상 과정	25h	20명
중앙	정규	9차	9. 26. ~ 27.	업무로 소진된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회복프로그램 과정	10h	20명
중앙	정규	10차	9. 25. ~ 27.	핵심관리자를 위한 고성과 리더십 과정	17h	40명
중앙	정규	11차	9. 27. ~ 29.	사업기획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디자인	17h	20명
중앙	정규	12차	10. 14. ~ 15.	청소년 강사를 위한 진로활동프로그램 과정	17h	30명
중앙	맞춤		4. ~ 11.	공개모집 과정	-	-
중앙	맞춤		4. ~ 11.	상시모집 과정	-	-
*추가제안	정규	-	-	청소년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사회 문제해결 중심의 참여 활동 운영 방안	12	20명
*추가제안	정규	-	-	청소년참여 우수사례 공유 및 운영 Tip	12	20명

출처: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http://yworker.youth.go.kr/usr/special/year.do>에서 2016.10.25.인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내용을 하단에 추가하여 재구성함.

5-(1)-②. 교원 대상 연수 실시

다음으로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이 아닌, 다수의 일반적 청소년들이 별도의 시간이나 복잡한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과의 연계가 무리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교원들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면담한 고등학교 교사는 우연한 기회로 ‘지역 이해’교과목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접목해보게 되었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것도 마땅치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보급함으로써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지역사회 참여의 기본 철학과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연수가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 최근 지역사회 참여 사업인 ‘체인지 메이커’를 운영하면서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참고할만하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체인지 메이커’사업은

본 연구보고서 제Ⅳ장에서 제시한 사례 가운데 아쇼카한국이 추진하는 ‘유스벤처(Youth Venture)’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체인지 메이커 사업이 학교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고, 수년 간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리하여 도내 교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체인지 메이커 연수를 실시하여, 이들이 체인지 메이커 사업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능력 등을 집중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을 체인지 메이커로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고 있다(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 2016.09.03.).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타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연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참가자들의 성격을 고려하여, 좁게는 수업과 연계하는 방법부터 넓게는 사회참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실천하는 방법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2016년 강원도교육청 체인지메이커 양성 교사 연수 일정표

일 정	시 간	(분)	주제 및 내용
1일차 2016.9.3.(토)	10:00~10:10	10	◦개회
	10:10~10:20	20	◦아이스브레이킹 및 자기소개
	10:30~11:40	70	◦공감이란무엇일까?
	11:40~11:50	10	쉬는 시간
	11:50~12:40	50	◦체인지메이커란?
	12:40~13:20	40	점심식사
	13:20~14:40	80	◦팀빌딩활동
	14:40~15:00	20	간식 및 쉬는 시간
	15:00~16:40	100	◦공감캠페인 및 피칭
	16:40~17:00	20	◦성찰의시간
2일차 2016.9.10.(토)	10:00~11:00	60	◦Check-in ◦체인지메이커의 여정
	11:00~12:30	90	◦솔루션찾기 및 솔루션경매
	12:30~13:10	40	점심식사
	13:10~15:10	120	◦변화주도
	15:10~15:30	20	간식 및 쉬는시간
	15:30~16:30	60	◦계획세우기
	16:30~17:00	30	◦마무리

출처: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2016.09.03.), “열정과 패기로 변화를 선도하는 체인지메이커 양성 교사 연수.” www.gwe.go.kr/common/download.do?siteId=kr&fileSeq=1289170 에서 2017.10.21.인출.

(2) 청소년참여-청년참여 간 선순환 구조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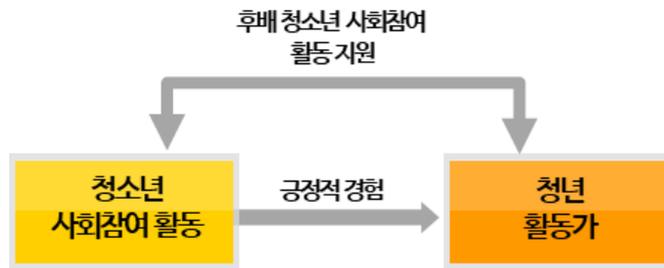
추진 과제	(2) 청소년참여-청년참여 간 선순환 구조의 확립
세부 과제	5-(2)-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가 양성

5-(2)-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가 양성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보다 많은 활동가들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참여와 청년참여 간 선순환 구조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도울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제Ⅳ장에서 검토한 금천구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청년네트워크 ‘꿈지락꿈지락’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꿈지락꿈지락의 대표와 청소년의회를 담당하는 활동가는 모두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여기구 등을 통해 참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이 같은 청소년기 참여경험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후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사업을 이끄는 데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꿈지락네트워크 대표 및 활동가 면담내용, 2017.09.15.).

상술한 내용은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추후 청년활동가 양성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활동가로서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기의 긍정적 참여 경험이 청년 활동가 양성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념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VII-7]과 같다.



【그림 VII-7】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한 청소년참여-청년참여 간 선순환 구조

이를 활용하면, 지자체를 비롯해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기에 참여활동을 경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지역사회 내 청년활동가 혹은 청년멘토로 양성하는 방안을 적용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도 청소년기에 참여활동을 하거나 '시작된 변화' 프로그램을 해 본 청년들이 다시 센터를 찾아 청년활동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장 면담내용, 2017.09.05.). 지역사회 참여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활동가 확보와 관련하여, 지자체나 관련 시설에서는 상술한 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보편화·일상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이용

추진 과제	(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보편화·일상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이용
세부 과제	5-(3)-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보편화·일상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이용

5-(3)-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보편화·일상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이용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보편화·일상화 되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의 일환으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서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에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책 제언 내용을 접수하는 게시판이 있어서, 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그림 VII-8] 참조).



청소년참여포털 메인 화면

청소년참여포털 내 정책제안 게시판 운영 화면

출처: 청소년참여포털 <http://www.youth.go.kr/ywith/index.do>에서 2017.10.22.인출.

【그림 VII-8】 청소년참여포털 정책제안 게시판 운영 화면

현재 운영되는 청소년참여포털의 정책제안 게시판은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상시적으로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는 온라인 정책

제안 채널이다. 여기에서 '제안'에는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단순한 주의환기나 건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은 제외된다(청소년참여포탈 제안게시판 화면, 2017.10.22. 인출). 제안게시판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면, 제안자가 제안 내용을 작성하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접수하고, 매년 7~8월 그간 제안된 정책에 대해 심사하여, 10월 우수 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한다([그림 VII-9] 참조).



출처: 청소년참여포탈 <http://www.youth.go.kr/ywith/bbs/suggest/list.do#view>에서 2017.10.22. 인출.

【그림 VII-9】 청소년참여포탈(www.youth.go.kr) 내 청소년정책제안 게시판 운영 절차

그런데 이러한 운영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제안게시판에 정책제안을 올리는 제안자들의 주된 욕구는 제안이 채택되어 문제를 제기한 현실이 개선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게시판의 운영 절차에는 제안 내용을 정책담당자가 검토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 단지 제안한 내용을 취합하여 일 년에 한번 포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는 청소년 참여가 실질적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 둘째, 제안 시기와 피드백이 제공되는 시기 간에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참여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빠른 피드백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유로 군산시가 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에서도 모바일앱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기존 시스템에 내재된 이 같은 문제점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참여 플랫폼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제Ⅶ장에서 제안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에서 대안의 현실화 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것이다. 제Ⅶ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은 단순히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올리는 게시판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참여 활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도출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책담당자들이 책임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대안의 현실화 장치이다. 따라서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게시판에 제안 내용을 '올려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유된 제안 내용을 점검(screening)하고, 정책담당자를 통해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안은 이러한 플랫폼의 취지와 구조, 형태를 고려해 새로운 청소년참여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차원에서 정책을 건의하는 코너도 존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된 기능은 제VI장에서 제시한 모형에 따라, 팀을 구성한 청소년들이 프로젝트 기반 참여활동을 통해 도출한 대안을 공유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채택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 있게 추진되도록 한다.

만약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경우, 현재 운영하는 참여포털사이트에 별도 게시판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단, 이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피드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면담을 진행한 청소년들은 앞으로도 참여를 계속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일관되게 참여를 통해 '실제로 바뀌는 것이 좋아서'라고 답하였다(청소년자치단체 '열기구' 청소년 면담내용, 2017.08.11. 및 군산 달그락달그락 대표자회의 청소년 면담내용, 2017.08.19.). 이러한 결과는 피드백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피드백이 보장되도록 운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 VII-9>에는 지금까지 제시한 5개 영역 10개 정책추진과제 2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정책추진 소요 시기 및 추진 기관(관계 부처)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VII-10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영역	정책과제	정책추진 소요 시기		추진 기관(관계 부처)		
		단기 추진과제	중장기 추진과제	여성 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1. 정책 추진 근거 강화	1-1.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1-1-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관련 조항 신설	○		○		
	1-1-2.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			○	
	1-1-3. 청소년 참여정책의 법적 근거 정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	○		○		
	1-1-4.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개정		○		○	○
	1-1-5.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확산		○	○		○
	1-2. 법정 정책계획 반영을 통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의 확산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반영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		
	1-2-2. 인성교육기본계획에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내용 반영		○		○	
	2. 기존 정책 수정 · 보완을 통한 청소년 참여 패러 다임 전환	2-1.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운영 개선				
2-1-1.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실시		○		○		
2-1-2.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분야」 확대 운영 방안		○		○		
2-2. 정책사업 평가를 통한 현장의 변화 견인						
2-2-1.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변화 사업 내용 반영		○		○		
2-2-2.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청소년활동 및 참여' 부문 산정 기준 변경		○		○		

영역	정책과제	정책추진 소요 시기		추진 기관(관계 부처)		
		단기 추진과제	중장기 추진과제	여성 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3. 학교 교육 과의	3-1. 교육과정(curriculum)을 근거로 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3-1-1. 학교 수업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활성화		○		○	
	3-1-2. 학교 수업 외 교육과정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		○	
연계 강화	3-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부문의 제도적 지원					
	3-2-1.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		○	
	3-2-2.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정 및 보상		○	○	○	
4. 참여의 실질적 영향력 강화	4-1. 청소년이 제안한 대안의 현실 반영 기제 강화					
	4-1-1. 지자체별 청소년참여세미나 제도 운영		○	○		○
	4-1-2. 지자체별 청소년참여박람회 운영		○	○		○
5.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5-1. 현장 전문가 대상 전문성 강화 지원					
	5-1-1. 청소년지도자 대상 연수 실시	○		○		
	5-1-2. 교원 대상 연수 실시	○			○	
	5-2. 청소년참여-청년참여 간 선순환 구조의 확립					
	5-2-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가 양성		○	○		○
	5-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보편화·일상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이용					
5-3-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보편화·일상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이용		○	○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2016.09.03). “열정과 패기로 변화를 선도하는 체인지메이커 양성 교사 연수.” www.gwe.go.kr/common/download.do?siteId=kr&fileSeq=1289170 에서 2017. 10.21.인출.
- 강현아, 김희숙, 신원영, 장승원 (2006).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경기도교육청 (2015).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길라잡이**. 경기: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5). 2015 꿈의학교 추진 기본계획(안). 미간행유인물.
- 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6). 2016 경기꿈의학교 기본계획(안). 미간행유인물.
- 경기도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2017). 2017 경기꿈의학교 기본계획(안). 미간행유인물.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 (2015).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24].
-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2016.1.19.).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10)**.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2016 간추린 교육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준·박정배 (2004).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인 (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14(6), 99-127.
- 김영지, 유설희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Ⅶ: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주 (1999). 청소년참여. 한국청소년학회(편). **청소년학총론**, 477-512. 서울: 양서원.
- 김정주, 길은배, 정화수 (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태준, 오민아, 이은경 (2015). 한국과 핀란드 청소년의 시민·사회적 참여 유형 비교: ICCS 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25(4), 321-347.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4).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외 (2003). **청소년참여의 권익증진 제도화방안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내일신문 (2017.08.23.). '민주주의 체험장' 청소년의회의 진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8359 에서 2017.09.27. 인출.
- 노원구청 혁신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2016). **2016년 노원청소년사회참여 활동 보고서 '시작된 변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5). **프로젝트 시티즌 교사용 지도서: 레벨 I-II**.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5). **프로젝트 시티즌 학생용: 레벨 I-II**.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모두가 찾는 안전한 안산의 첫 마을 만들기". 제7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자료집, 110-13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 참여하는 청소년, 세상을 바꾸다**.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배성호 (2016).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세상.". 서울특별시. 「2016년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4차 민주시민포럼」 자료집, 57-66. 2016년 10월 19일, 서울유스호스텔. http://www.siminedu.org/?module=file&act=procFile_Download&file_srl=333&sid=8ee1cbba834c9052aa26a0221f056c29&module_srl=140 에서 2017.10.20. 인출.
- 배성호(2017). 통계와 데이터를 활용한 행복한 사회 수업 모색. 2017년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회 자료집 수록논문. 1-11.
- 백병부, 박복선, 송창순, 이민선 (2016).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수시연구과제 2016-10).
- 백병부, 하태욱, 서우철, 이권수 (2015). **방과후 및 계절형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 백병부, 성열관, 양성관 (2015). **혁신학교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백병부, 성열관, 하봉운 (2014). **경기도 혁신학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서우철 (2017). “학생 주도 교육의 장 ‘꿈이룸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한국교육사회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사회변화와 교육: 과거, 현재, 미래」. 47-54.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 공학1실.
- 아쇼카한국 (2016). **변화를 만들어가는 체인지메이커들의 경험보고서**. 서울: 아쇼카한국.
- 아쇼카한국 (2017). **청소년 체인지메이커들의 모험을 위한 가이드북: 안내자용**. 서울: 아쇼카한국.
- 여성가족부 (2016a).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b).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c). **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내부문서(2017.7.28.). 2017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평가기준.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2908235> 에서 2017.10.23.인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5).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편람. http://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2x11GiMK&brd_id=BDIDX_32947GB02vqSM00FW3XJ55&cont_idx=1210&edomweivgp=R에서 2017.10.25. 인출.
- 우성희·허보나(2016).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실험실**. 희망리포트 2016-04. 서울: 희망제작소. <http://www.makehope.org/청소년-사회혁신-프로젝트-oo실험실/>에서 2017.05.27.인출.
- 윤민중, 정은진, 정건희 (2016).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승훈 (2013). **‘마을’을 바탕으로 둔 청소년 진로, 꿈 교육 활동: 「시작된 변화」와 공동동 「꿈마을 공동체 ‘꿈나르샤」 사례**. 2013년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복지학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춘계 공동학술대회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자료집, 19-39. 2013년 5월 24일, 송도 컨벤시아 1층 세미나실.
- 이장현 (2002).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6, 31-44.

- 이주호, 김태완, 백혜리 (2016). 교육개혁과 프로젝트 학습. 이주호 편(2016).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교육개혁**. KDI 연구보고서, 11-60.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이채식, 박은식 (2007). 영농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실태 및 활성화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14(2), 395-415.
- 임은영 (2016). 더 많은 참여, 함께 여는 민주주의. **희망이슈** 제19호, 1-8.
- 정건희 (2013). 청소년참여 담론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조성익 (2017).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와 과제. 진선미의원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세미나자료집, 19-32.
- 조운정, 이병곤, 김경미, 목정연 (2016).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사례 연구: 시흥과 의정부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수시연구과제 2016-02).
- 조진일·박성철 (2012). 이슈와 전망: 아이들이 위험하다! 학교안전관리 실태와 대책. **교육개발**, 39(4), http://edzine.kedi.re.kr/article/issue_01.jsp에서 2017.10.20.인출.
- 조혜영, 최창욱 (2008).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11-140.
- 천정웅 (1998). **IMF시대 청소년참여의 방향과 과제**. IMF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천정웅 (2011). 청소년참여의 유형화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7-47.
- 천정웅 (2014). **청소년참여론: 「P이론」의 청소년학**. 서울: 양서원.
- 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참여의 현황·문제점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자치연구소 (2016). **청소년 참여 포럼 「청소년 지역여행기」 자료집**.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2016.9.24.개최.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 최창욱, 김승경 (2010).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전명기 (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최용환, 김평화·, 홍가운 (2016).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참여활성화 정책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겨레 21 (2017.05.30.). 학교 안팎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611.html에서 2017.10.17.인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2016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발표자료 (2017.3.3.). 2017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선정결과 공고.
https://www.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code=null&currPage=1&searchColumn=&searchTextEn=&cate=BBE7BEF7&no=18126에서 2017.09.29.인출.
- 홍미화, 광혜송, 김옥진, 배성호, 차보은 (2016).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선거연수원.
- 홍정희 (2016).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 경험의 교육적 의미: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rnstein, S.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 216-224.
- Center for Civic Education's Administration of the We the People Program and Cooperative Civic Education and Economic Education Exchange Program(<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ig/auditreports/fy2010/a09i0010.pdf>). (2009. 11. 20).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ig/areports_2010.html에서 2017.08.01.인출.
- Checkoway, B. (1998). Involving young people in neighborhoo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9/10), 765-795.
- Delgado, M. & Staples, L. (2008). *Youth-led community organizing: Theory and 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letcher, A. & Vavrus, J. (2006). *The guide to social change led by and with young people*.
- Fredericks, J.A. & Eccles, J.S. (2006). Is extracurricular participation associated with beneficial outcomes? Concurrent and longitudinal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2, 698-713.
- Galston, W.A. (2001).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ngagement, and civic education. *American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 217-234.
- Gittel, R. & Vidal, A.(1998). *Community organizing: Building social capital as a development strategy*. Thousand Oaks, CA: SAGE.
- Hart, R.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ew York: UNICEF.

- Högnabba, S., & Mattila, P. (2016.03.28.). The Youth report and youth participation models in Helsinki. https://www.djht-europe.de/downloads/doctrine/Web_forumVeranstaltungenWebsiteBundle:ProgrammpunktDownload-file-11/Presentation%20Helsinki.pdf 에서 2017.7.19. 인출.
- O'Donoghue, J.L., Kirshnet, B., & McLaughlin, M.W. (2003).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96, 78-99.
- Pittman, K. (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Journal*, 1(1), 19-24.
- Shirley, D.(1997). *Community organizing for urban school reform*. 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 The Australian Youth Foundation.(1999). Youth partnership & Participation. 웹사이트 <http://www.ozmail.com.au/~ayouthf/>.
- Winter, M. (1997). *Children ad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Radcliffe Medical Press.

[법령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2016.7.19. 개정, 경기도조례 제526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교육청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05266,20160719\)](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교육청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05266,20160719))에서 2017.10.16.인출.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4. 제정, 경기도조례 제507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05078,20151104\)](http://www.law.go.kr/자치법규/경기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05078,20151104)) 에서 2017.09.19.인출.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 [별책 24]. <http://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6074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0&cs=moe&m=040401&opType=N> 에서 2017.10.3.인출.
-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2016.9.29. 제정,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37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http://www.law.go.kr/자치법규/군산시청소년자치권확대를위한조례/(1371,20160929))에서 2017.09.19.인출

-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7.2.10. 제정, 대전광역시조례 제486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4860,20170210\)](http://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4860,20170210)) 에서 2017.09.21.인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kdemo.or.kr/about/kdemo> 에서 2017.9.28.인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17.7.26.개정, 법률 제1483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에서 2017.9.28.인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6.9.28. 제정,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23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조례/\(1231,20160928\)](http://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조례/(1231,20160928)) 에서 2017.09.21.인출.
- 인성교육진흥법 (2016.12.20. 개정, 법률 제1439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 에서 2017.10.24.인출.
- 청소년기본법 (2017.7.26. 개정, 법률 제1483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에서 2017.09.19.인출.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16.12.30. 개정, 대통령령 제2775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 에서 2017.09.19.인출.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186, 발의일자 2017.3.1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F7F0I3P1Q5K1L7R5X3Z3F9W8Y2D5에서 2017.10.23. 인출.
- 청소년활동진흥법 (2017.3.21. 개정, 법률 제1470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 2017.09.19.인출.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2017.9.19. 개정, 대통령령 제2832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에서 2017.09.19.인출.
- 초·중등교육법 (2017.3.21. 개정, 법률 제1460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 에서 2017.09.19.인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7.6.20. 개정, 대통령령 제2811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에서 2017.09.19.인출.

[국내 웹사이트 자료]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몽실학교 안내 게시판. http://www.goe.go.kr/edu/content_new.do?menuId=380170208163917&contentId=20170208162829 에서 2017. 10.20.인출.
- 금천구 청소년의회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uthsimin>에서 2017.10.19.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2017.09.21.인출.
- 「시작된 변화」 리플렛. <http://www.gycenter.or.kr/sub02/sub03.php?ptype=view&idx=5241&page=1&code=sub0203> 에서 2017.10.11. 인출.
- 신사종합사회복지관 게시판. <http://sscc.or.kr/bbs/?act=bbs&subAct=view&bid=story2&seq=1840>에서 2017.10.20.인출.
- 아쇼카한국 홈페이지, <http://korea.ashoka.org/%ED%94%84%EB%A1%9C%EA%B7%EB%9E%A8>에서 2017.10.21.인출.
-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홈페이지. <http://www.wngonet.go.kr/ycon/hs/intro/intro/intro.do>에서 2017.09.29.인출.
- 유쓰망고(Youth Mango)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YouthMango/>에서 2017.12.02.인출.
-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웹사이트, <http://www.koreayouthexpo.com/program/schedule.php>에서 2017.10.25.인출.
-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yworker.youth.go.kr/usr/special/year.do>에서 2016.10.25.인출.
- 청소년참여포털 사이트. <http://www.youth.go.kr/ywith/bbs/suggest/list.do#view>에서 2017.10.22. 인출.
- 행복한 교육(2016년 7월호). 변화를 창조하는, 나는야 체인지 메이커(change-maker): 이태경 이천 양정여고 교사. 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sId=BBSMSTR_00000005041&nttId=6172에서 2017.10.10.인출.

[해외 웹사이트 자료]

Center for Civic Education 홈페이지. <http://www.civiced.org/pc-program> 에서 2017.07.21. 인출.

Center for Civic Education 홈페이지. Project Citizen Brochure(2011. 5. 31). <http://www.civiced.org/images/brochure/brochure-projectcitizen.pdf>에서 2017.07.21. 인출.

Center for Civic Education 홈페이지. <http://www.civiced.org/pc-community/policy-makers/ncsl-connection>에서 2017.07.31. 인출.

Center for Civic Education 홈페이지 쇼케이스 안내. <http://www.civiced.org/pc-program/pc-showcases/pc-showcase-levels/high-school>에서 2017.07.21. 인출.

Center for Civic Education 홈페이지 운영조직 안내. <http://www.civiced.org/pc-program> 에서 2017.07.21. 인출.

Center for Civic Education 홈페이지 전문성 개발 안내. <http://www.civiced.org/pc-program/professional-development>에서 2017.08.07. 인출.

Center for Civic Education 홈페이지 코디네이터 안내. <http://www.civiced.org/pc-community/coordinators>에서 2017.07.31. 인출.

James Madison University 홈페이지. <http://www.jmu.edu/pcinva/coordinators.shtml>에서 2017.07.31. 인출.

Newaygo Public Schools 홈페이지. <http://www.newaygo.net/schools/middle-school/project-citizen/>에서 2017.08.07. 인출.

핀란드 루띠(Ruuti) 홈페이지 메인 화면. <http://ruuti.munstadi.fi/en/>에서 2017.10.19. 인출.

핀란드 루띠(Ruuti) 홈페이지 루띠 시스템 기본 안내. <http://ruuti.munstadi.fi/en/ruuti/>에서 2017.10.18. 인출.

핀란드 루띠(Ruuti) 홈페이지 루띠 관련 행사 안내. <http://ruuti.munstadi.fi/en/ruutiexpo-influential-day-year-coming/>에서 2017.07.21. 인출.

핀란드 루띠(Ruuti) 홈페이지 루띠 운영모형 안내. <http://ruuti.munstadi.fi/mika-on-ruuti/#>에서 2017.10.19. 인출.

핀란드 루띠(Ruuti) 홈페이지 내 코어 그룹(Core Group) 안내. <http://ruuti.munstadi.fi/en/ruuti-core-group/>에서 2017.10.19. 인출.

핀란드 루띠(Ruuti) 홈페이지 내 활동 집단(Activity Groups) 안내. <http://ruuti.munstadi.fi/en/activity-groups/>에서 2017.10.19.인출.

The voice of Alaska 홈페이지, <http://www.ktva.com/project-citizen-helps-8th-graders-learn-to-influence-lawmakers-policy-242/alaskastar>에서 2017.08.07.인출.

TN Center for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 <http://www.tccle.org/project-citizen.html>에서 2017.07.21.인출.

[기타 자료]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2017.09.07.),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를 안내합니다 Q&A.자료.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2017.09.26.). 아동·청소년 몽실 정책마켓 계획(안).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 내부자료 (2017). 2017 경기꿈의학교 가치체계.

금천구 교육지원과 내부자료.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및 참여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업무 협력 협약서.

김현주[천보중학교·꿈이룸학교 길잡이 교사].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프로젝트 학교에서 배우는 자치공동체. 미간행 유인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자료(2017.08). 미국 시민교육센터 설명자료.

박석준 (2017). 청소년의회 운영원리와 확대방안: 금천구청소년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미발표 원고.

백병부 (2017). 학생이 만들어가는 경기꿈의학교. 미발표원고.

정건희 (2017). 청소년지역사회 참여 활동 사례 및 시사점: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을 중심으로. 미발표원고.

부 록

1. 청소년용 설문지
2. 현장 전문가용 설문지

부 록

1. 청소년용 설문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기관 ID (기록하지 마세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조사

청소년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신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타인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황여정 연구위원 044-415-2108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황인창 부장, 홍세정 대리 ※ 문의전화: 080-674-1000
--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설문지 작성 요령

-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그렇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문 6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교육을 받았나요?

① 받았다 → ② 받지 않았다 — 문 7로 가십시오

문 6-1 사전 교육은 여러분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활동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04 복수응답

문항에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응답 갯수가 지정된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문 4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로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1** 2순위 **4**

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② 청소년들의 전대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③ 지역사회 문제를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서 ④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고 좋아해서 ⑥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⑦ 스포츠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⑧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⑨ 친한 친구가 같이 하라고 해서
 ⑩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지역사회 참여 경험

※ 다음은 여러분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란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또는 청소년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어른들이나 공공기관, 정치인에게 청소년들의 생각을 건의하는 활동 (예: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마을만들기 활동,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활동 공간으로 삼아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문 1 여러분이 그 동안 경험해 본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 ② 지역사회(시·군·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 활동
- ③ 청소년들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청소년의회 활동
- ④ 학교 밖에서 학생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학교 밖 배움터 만들기 활동
- ⑤ 지역사회를 탐방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마을만들기 활동
- ⑥ 청소년들이 마을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보는 활동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1 문 1에서 응답한 것 중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문1에서 응답한 것 중 한 가지만 골라 번호를 써주세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

※ 문 2 에서 문 11 까지는, 문 1-1 에서 응답하신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 2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가장 가까운 것을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 ① 학교에서 학년 혹은 학급 단위로
- ② 학교 동아리활동으로
- ③ 청소년사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활동으로
- ④ 지역사회 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활동으로
- ⑤ 시민단체 활동으로
- ⑥ 온라인 동아리활동으로
-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성당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부
록

문 3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학교 또는 선생님을 통해
- ② 부모님(보호자) 또는 형제.자매를 통해
- ③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 ④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팸플릿이나 게시물을 통해
- ⑤ 지자체에서 만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팸플릿이나 게시물을 통해
- ⑥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
- ⑦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 ⑧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지도자를 통해
- ⑨ 청소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 ⑩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4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순위로 2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③ 지역사회 문제를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서 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 자체에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⑦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⑨ 친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⑩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청소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④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⑥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⑧ 부모님 또는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
|--|--|

문 5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요?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약간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문 6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 교육을 받았나요?

- ① 받았다 → ② 받지 않았다 → 문 7로 가십시오

문 6-1 사전 교육은 여러분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활동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2)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나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3)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게 했다	①	②	③	④
4)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했다	①	②	③	④

문 7 다음은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여 활동(프로그램)은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간다	①	②	③	④
2)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①	②	③	④
3)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법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청소년 중심의 조직이나 기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5)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어른들이 정해놓은 대로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8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에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이 결정해서 지시하고, 청소년들은 그 의견에 따른다
- ②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지만, 주로 어른들의 의견대로 결정된다
- ③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과 청소년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논해서 함께 결정한다
- ④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과 청소년이 함께 의논하지만, 주로 청소년의 의견대로 결정된다
- 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어른들(선생님이나 지도자 등)은 우리들의 의견에 따른다

-- 문 9로 가세요

문 8-1

의사결정을 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주지 않아서
- ②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 ③ 청소년들이 의견을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 ④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 ⑤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9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2) 참여 활동(프로그램)이 진행된 시설·공간이나 진행에 사용된 장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3)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일정과 시간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4) 참여 활동(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여 활동(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참여 활동(프로그램) 내용이 어딘지 좀 영성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3) 우리들끼리 의견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어른들과 우리들의 의견이 달라서 조정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6) 학교 숙제나 학원 등 공부 때문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7)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눈치가 보인다	①	②	③	④
8)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눈치가 보인다	①	②	③	④
9) 동네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활동하기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문 11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나요?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세요.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2)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3)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①	②	③	④
4)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6)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조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사는 지역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9) 내가 사는 지역이 더 좋게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11) 다른 참여 프로그램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지역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인식

※ 문 12 부터는 특정 활동(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12 여러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문 12-1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참여해보고 싶은 활동(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 ② 지역사회(시, 군,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 활동
- ③ 청소년들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청소년의회 활동
- ④ 학교 밖에서 학생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학교 밖 배움터 만들기 활동
- ⑤ 지역사회를 탐방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마을만들기 활동
- ⑥ 청소년들이 마을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보는 활동
- ⑦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 응답 후 9페이지 문 13으로 가세요

문 12-2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참여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 ②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 ③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열심히 해도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 반영될 것 같지 않아서
- ④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
- ⑤ 공부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싫어해서서
- ⑥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 경험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⑦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 응답 후 9페이지 문 13으로 가세요

문 13

여러분은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3순위	<input type="text"/>
-----	----------------------	-----	----------------------	-----	----------------------

- ① 청소년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에 너무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 ②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보장
- ③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 마련
- ④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⑤ 다양하고 재미있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발
- ⑥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봉사활동 점수로 인정, 생활기록부에 반영 등)
- ⑦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 부여
- ⑧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결과를 실제로 현실에 반영
- ⑨ 학교나 선생님의 협조
- ⑩ 부모님의 지원
- ⑪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개인적 특성

문 14

다음은 여러분의 지역사회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동네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4) 내가 노력하면 우리 동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5) 만약 이사 가게 된다면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문 15 다음은 여러분의 직업의식이나 생활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 혼자 잘 사는 것보다 세상에 도움이 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6 다음은 여러분의 마음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5)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배경문항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 1 태어난 해는 몇 년도인가요?

--	--	--	--

년

배문 2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 ① 다니고 있다 ② 다니지 않는다 → 설문종료

배문 2-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급은 무엇인가요?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배문 2-2 현재 몇학년인가요?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배문 2-3 학교 성적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2. 현장 전문가용 설문지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기관 ID
(기록하지마세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조사

전문가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참여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선생님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황여정 연구위원 044-415-2108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황인창 부장, 홍세정 대리
※ 문의전화 :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운영경험

※ 다음은 선생님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 운영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란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또는 청소년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어른들이나 공공기관, 정치인에게 청소년들의 생각을 건의하는 활동 (예: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마을만들기 활동,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활동 공간으로 삼아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No 1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해보신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 ② 지역사회(시, 군,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 활동
- ③ 청소년들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청소년의회 활동
- ④ 학교 밖에서 학생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학교 밖 배움터 만들기 활동
- ⑤ 지역사회를 탐방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마을만들기 활동
- ⑥ 청소년들이 마을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진행해보는 활동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1

선생님께서 현재 운영하시는 (또는 가장 최근에 운영하셨던)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문 1번에서 응답하신 것 중 한 가지만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현재 운영 중인 (또는 가장 최근에 운영했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

※ 문 2 에서 문 6 까지는, 문 1-1 에서 선택하신 활동(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 다음은 그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선생님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진행 절차나 방법이 상세하게 안내되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나 피드백이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4)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와의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5)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 외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①	②	③	④
6)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교사, 청소년지도자, 활동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가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7)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이 진행된 시설, 공간이나 사용된 장비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8)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에 투입된 일정과 시간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9)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문 3 다음은 그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선생님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은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도록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2)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방법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청소년 중심의 조직이나 기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5)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6)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인 담당자(교사, 청소년지도자, 활동가 등)와 청소년 참가자들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 4 다음은 그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흥미롭고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애착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결과가 실제로 반영되어, 지역사회에 변화가 나타난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진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들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7)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8)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 5 다음은 그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이 선생님께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에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3) 앞으로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문 6

다음은 그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별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사회 참여 활동(프로그램)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들이 참여 활동 경험이 많지 않아, 프로그램 수행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들은 학업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보상(봉사활동 점수로 인정, 생활기록부에 반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참가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들이 공부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비협조적이다	①	②	③	④
7)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비협조적이다	①	②	③	④
8) 학교와의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9) 학교 외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지도자의 역량(전문성)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방안

문 7

선생님께서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청소년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에 너무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 ②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보장
- ③ 소외 계층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
- ④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 마련
- ⑤ 충분한 예산 지원
- ⑥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참여단계별·수준별 프로그램의 개발
- ⑦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⑧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상
- 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 부여
- ⑩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결과가 실제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 마련
- ⑪ 학교, 청소년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 ⑫ 운영자(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⑬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원
- ⑭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

문 8

선생님께서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어떤 점을 개선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Blank area for writing responses to Question 8.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for suggesting the direction of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for vitalizing youths' participation, and, based on it, is for developing and supplying practical operation model which can be applied on the field. Moreover, by deducting political domain and task supporting the operation of the developed model, it is for constructing the environment where community participation model can be operated effectively.

To achieve the object effectively, this research used various research method including consideration of advanced research, analysis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analysis of examples and survey to conduct the research. First of all, it examined theoretical model of youths' participation through consideration of advanced research on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checked the realm and types of the participation; and deducted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the community participation model. Also, it examined legal basis and system of policy enforcement through analysis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and it analyzed the result and limitation of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policies that have been enforced. Next, it selected representative examples among examples of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enforced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conducted case analysis. As a result, the examples selected as excellent ones were activities led by youths, provided various devices for youths' participation to be continued to the real change and constructed system where youths can lead the participation and make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conducted survey of youths who have participated and onsite specialists to grasp the reality of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Main contents included basic information such as types and forms of participation activity, route of participation and motivation of participation; operation methods of participation activity; level of decision making sharing; assessment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and desire for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Also, by putting all results of advanced research examination, analysis of legislations and policies, analysis of excellent examples

internal and external and the reality investigation that were written above together,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model was developed. For developing the model, general-major participation, actual participation and daily participation were set as the basic direction of model development, and youth initiative decision making, project-based participation activity, development of general model, social participation in comprehensive meaning and deduction of model that can be applied by stage were set as rules of model development. Also, based on these direction and rules, youths' participation model was developed. Finally, to construct the environment where the deducted model is effectively operated and to vitalize youths' participation, it suggested to reinforce the basis of policy enforcement, converse paradigm of youths' participation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existing policy, reinforce connection with school education for expanding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chances, secure the actual influence of youths' participation and reinforce the infra for vitalizing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Key words: Youths' community participation, youth initiative, decision making sharing, major participation, daily participation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7-R03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박남수·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7-R08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문호영·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최인재·염유식·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성윤숙·최홍일·유성렬·김강호
- 17-R15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 17-R15-1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7-R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최용환·정은진·정윤미·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박상현·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하형석·고강혁·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정은진·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nley, J·Losito, B·Agrusti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탁과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헌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김동일·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서정아·임지연·좌동훈·한상철·신상구·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경준·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김성기·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김성기·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박병식·김영옥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헌·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김기헌·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임희진·김현철·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최인재·정은주·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
- 17-R43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이재완·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이경상·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유민상·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유민상·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유민상·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하형석·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이유진·정은진·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지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
-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 박 석 준 (꿈지락네트워크·대표)
백 병 부 (경기도교육연구원·교육통계센터장)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소장)

◆ 자 문 위 원 ◆

- 김 민 경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사무관)
김 성 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사무관)
김 성 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담당자)
김 하 닉 (유쓰망고[Youth Mango]·대표)
배 성 호 (서울 삼양초등학교·교사)
유 숙 희 (경기도교육청·장학사)
이 승 훈 (공립청소년문화정보센터·센터장)
이 우 정 (꿈지락네트워크·활동가)
이 태 경 (이천 양정여자고등학교·교사)
임 재 일 (용인 백봉초등학교·교사)
조 성 익 (금천구 교육지원과·교육전문관)
최 도 연 (안산 원곡고등학교·교사)

◆ 감 수 위 원 ◆

- 전 명 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장)

연구보고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인 쇄 2017년 12월 22일

발 행 2017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 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50-9 93330

연구보고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